

# 2021년 여름 국어사학회 전국 학술 대회

중세 · 근대 국어 구문 연구의 쟁점과 과제

일시: 2021년 7월 8일(목) 9:10~18:40

장소: 온라인(Zoom)

주최: 국어사학회

주관: 국어사학회



## 2021년 여름 국어사학회 전국 학술 대회 세부 일정

□ 일시: 2021년 7월 8일(목)

□ 장소: 온라인(줌)

일 시		발표 및 내용	사회
개회	09:10~09:20	개회사: 황선엽(국어사학회장)	김현주 (공주교대)
	09:20~09:30	학회 일정 및 공지	
제1부  개인 발표	09:30~10:10	[개인 발표 1] 발표 주제 : 배설을 의미하는 동사의 의미 관계에 대하여 - ‘보다’, ‘누다’, ‘싸다’ 를 중심으로- 발 표 : 이성우(한림대) 토 론 : 이동석(교원대)	조재형 (전남대)
	10:10~10:50	[개인 발표 2] 발표 주제 : 김안국 편찬 <여씨향약언해>와 <정속언해>의 언해자에 대한 고찰 발 표 : 이용규(서울대) 토 론 : 박부자(성신여대)	
	10:50~11:30	[개인 발표 3] 발표 주제 :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白-’의 기능에 대한 연구 발 표 : 성우철(고려대) 토 론 : 전기량(동국대)	
	11:30~11:40	휴식	장요한 (계명대)
	11:40~12:20	[개인 발표 4] 발표 주제 : ‘내지(乃至)’ 의 의미 형성에 대한 관견 발 표 : 마원걸(서울대) 토 론 : 하정수(동국대)	
12:20~13:00	[개인 발표 5] 발표 주제 : 慧超의 『往五天竺國傳』에 대한 한국어 학적 고찰 발 표 : 서엽(질강대) 토 론 : 이준환(전남대)		
	13:00~14:00	점심 식사	
제2부  주제 발표	14:00~14:40	[주제 발표 1] 발표 주제 : 중세 · 근대 국어 동사 구문 연구의 쟁점과 과제 발 표 : 선한빛(전남대)	이용 (서울시립대)
	14:40~15:20	[주제 발표 2] 발표 주제 : 중세 · 근대 국어 계사 구문 연구의 쟁점과 과제 발 표 : 김건희(강원대)	
	15:20~15:30	휴식	
	15:30~16:10	[주제 발표 3] 발표 주제 : 중세 · 근대 국어 피동 구문 연구의 쟁점과 과제 발 표 : 백채원(서울대)	
	16:10~16:50	[주제 발표 4] 발표 주제 : 중세 · 근대 국어 인용 구문 연구의 쟁점과 과제 발 표 : 이지영(서강대)	

	16:50~17:00	휴식	
	17:00~18:00	[종합 토론] 좌장: 박진호(서울대) 신서인(한림대), 남길입(경북대), 백정화(한양대) 채숙희(인천대)	
총회 / 폐회	18:00~18:30	연구 윤리 교육 투고 규정 개정 등에 관한 안건 처리	김현주 (공주교대)
	18:30~18:40	폐회사: 황선엽(국어사학회장)	

# 목 차

## 제1부 개인 발표

이성우 ▶ 배설을 의미하는 동사의 의미 관계에 대하여-'보다', '누다', '싸다'를 중심으로- .....	9
이동석 ▶ “배설을 의미하는 동사의 의미 관계에 대하여-'보다', '누다', '싸다'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	21
이용규 ▶ 김안국 편찬 <여씨향약언해>와 <정속언해>의 언해자에 대한 고찰 .....	23
박부자 ▶ “김안국 편찬 <여씨향약언해>와 <정속언해>의 언해자에 대한 고찰”에 대한 토론문 .....	45
성우철 ▶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白-'의 기능에 대한 연구 .....	47
전기량 ▶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白-'의 기능에 대한 연구”에 대한 토론문 .....	83
마원걸 ▶ '내지(乃至)'의 의미 형성에 대한 관건 .....	87
하정수 ▶ “'내지(乃至)'의 의미 형성에 대한 관건”에 대한 토론문 .....	101
서 엽 ▶ 慧超의 『往五天竺國傳』에 대한 한국어학적 고찰 .....	103
이준환 ▶ “慧超의 『往五天竺國傳』에 대한 한국어학적 고찰”에 대한 토론문 .....	111

## 제2부 주제 발표

선한빛 ▶ 중세·근대 국어 동사 구문 연구의 쟁점과 과제 .....	115
김건희 ▶ 중세·근대 국어 계사 구문 연구의 쟁점과 과제 .....	135
백채원 ▶ 중세·근대 국어 피동 구문 연구의 쟁점과 과제 .....	163
이지영 ▶ 중세·근대 국어 인용 구문 연구의 쟁점과 과제 .....	177

## 종합토론

신서인 ▶ “중세·근대 국어 동사 구문 연구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	199
남길임 ▶ “중세·근대 국어 계사 구문 연구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	201
백정화 ▶ “중세·근대 국어 피동 구문 연구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	203
채속희 ▶ “중세·근대 국어 인용 구문 연구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	205
국어사학회 연구윤리 규정 .....	207

제1부

개인 발표





배설을 의미하는 동사의 의미 관계에 대하여  
-‘보다’, ‘누다’, ‘싸다’를 중심으로-

이성우(한림대 한림과학원)

<목차>

1. 서론
2. 역사적 관점에서의 누다와 보다
3. 역사적 관점에서의 누다와 싸다
4. 현대 한국어의 싸다.
5. 결론.

1. 서론

아기는 엄마의 뱃속에서 먹는 것과 배설하는 것만을 체득하여 세상에 나온다. 이는 먹는 행위와 배설하는 행위가 인간의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행위라는 점을 암시한다. 아기의 먹는 행위와 배설하는 행위는 아기가 커가면서 점차 발달하게 된다. 다만 다소 다른 양상으로 발달이 이루어진다. 먹는 행위는 액체류에서 고체류로의 섭취로 발달이 이루어진다면, 배설하는 행위는 배설의 대상을 점차 가려내고 자신과 구분시키는 쪽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먹는 행위와 배설하는 행위는 인간의 탄생 및 성장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로 인해 세계의 여러 언어에는 먹는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와 배설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가 발달해 있다. 이는 한국어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먹는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에 대해 살펴보면, 먹는 재료의 성질에 따라 동사가 구분되어 있는 듯하다.

(1) 가. 밥을 먹다.

나. \*밥을 마시다.

다. 사이다를 먹다.

라. 사이다를 마시다.

마. \*청정지역의 산소를 먹다.

바. 청정지역의 산소를 마시다.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어에서 먹는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는 재료의 성질에 따라 ‘먹다’와 ‘마시다’로 양분되는 듯하다. 다시 말해, 재료가 고체나 액체인 경우 ‘먹다’가 쓰이고, 먹는 재료가 기체나 액체인 경우 ‘마시다’가 서술어로 위치하는 것이다. 이는 어쩌면 재료의 섭취 속도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겠다. 즉, ‘먹다’는 섭취가 비교적 늦게 이루어지는 행위에서 서술어로 쓰이는 것이고, ‘마시다’는 섭취가 비교적 빨리 이루어지는 행위에서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먹다’와 ‘마시다’의 사용 양상은 현재 국어학계에서 잘 알려져 있는 사항이다.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했을 때,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행위 중 하나인 배설과 관련된 동사들 또한 어떠한 언어 관계를 형성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배설행위를 의미하는 동사인 ‘보다’, ‘누다’, ‘싸다’를 대상으로 그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논의하여 그 변화 양상을 드러내 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이 글에서는 배설 행위를 의미하는 기본적인 동사로 ‘보다’, ‘누다’, ‘싸다’ 중 ‘누다’를 가정한 다. 이는 다음에 근거한 것이다.

(2) 가. 보다: 「013」(완곡한 표현으로) 대소변을 누다.

나. 누다: 「001」 배설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다.

다. 싸다: 「005」(속되게) 똥이나 오줌을 누다.

(1)은 <우리말샘>의 기술로, ‘보다’나 ‘싸다’에 대해서는 사전편찬자의 주관적인 관점이 개입되어 있으나, ‘누다’에 대해서는 비교적 객관적인 시선으로 기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한국어에서 배설을 의미하는 기본적인 동사는 ‘누다’일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누다’를 중심 축에 놓고 ‘보다’와 ‘싸다’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이 글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국어사 자료를 대상으로 ‘누다’와 ‘보다’의 사용 양상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3장에서는 ‘누다’와 ‘싸다’의 사용 양상을 논의해보려고 한다. 다음으로 4장에서는 현대 한국어의 ‘싸다’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끌어내보려고 한다. 논의 과정에서는 주로 국어사 자료를 주요 대상으로 삼을 것이나, 논의의 흐름에 따라 현대 한국어의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 2. 국어사 자료에서의 ‘누다’와 ‘보다’

(2)를 고려했을 때, 한국어에서 배설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동사는 ‘누다’일 가능성이 있다. ‘보다’나 ‘싸다’와 달리, 특별한 의미가 덧붙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국어사 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닌가 한다.

(3) 가. 사름으로 제 누치 오줌 누면 도허리라(便人尿其面上可愈) <구급간이방 1:48a>

나. 또 차마 오줌 누디 말면 즉재 도허리라(且忍勿小便即愈) <구급간이방 6:72a>

다. 그 머리를 漆<sup>ᄃᆞ</sup>야 써 오줌 누는 그르슬 밍그랏더니(漆其頭<sup>ᄃᆞ</sup>야 以爲飲器<sup>ᄃᆞ</sup>러니) <소학언해 4:30b>

라. 아기 근 나서 미퓌 굶기 업서 똥을 누디 묻<sup>ᄃᆞ</sup>거든 <태산집요 69b>

마. 아비 병 어뎛거늘 똥 맛 보아 써 살며 주그물 디험<sup>ᄃᆞ</sup>고 오줌 묻 누거늘 썩<sup>ᄃᆞ</sup>니 즉재 도허리라(父得病嘗糞以生死小便不通吮之即愈)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자도 2:83b>

바. 東司<sup>ᄃᆞ</sup>는 이 똥 누는 곳이니(東司是厠屎處) <오륜전비언해 8:3b>

사. 네 가서 길<sup>ᄃᆞ</sup>에 똥 누지 말라 <몽어노걸대>

아. 저 우산은 길의 단닐 제 오줌 똥을 누려 허면 반<sup>ᄃᆞ</sup>드시 베푸러 몸을 가리워 <태상감응편 2:40b>

자. 내 아직 똥 누지 아니<sup>ᄃᆞ</sup>노라 <청어노걸대 3:3a>

차. 녕보단은 대변을 누디 못흠을 고티며 싸혀 테헌 거슬 누리오며 <납약증치방 19a>  
타. 대쇼변이나 길에서 누지 못하게 하고 <독립신문 1986년 4월 16일 기사>

(2)는 국어사 자료에서 발견되는 ‘누다’의 예로서, 현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국어사 자료에서도 ‘누다’가 ‘똥’, ‘오줌’을 배설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주 드물게 나타나지만, ‘대변을 누다’, ‘소변을 누다’와 같은 표현 또한 역사적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sup>1)</sup>

다만 국어사 자료에서 ‘누다’의 예를 조금 더 살펴보면 현대 한국어와는 다소 다른 양상이 포착되기도 한다.

(4) 가. 큰물 저근물 구더 몬 보거나 쏘 저근물 볼 제 좃들이며 피 누며 슈신이 알포몬 괴운 이 설헌 다시니 몬져 춘 거스로 빗복 아래를 울히고 大小便不通 或淋瀝溺血 陰中疼痛 陰中疼痛 前以冷物熨小腹 <구급간이방 3:66b>

나. 힝역 후에 니질하야 고름과 피 누는 디 히빅탕이 맛당하니라(痘後下痢黃赤膿 血宜薶白湯) <두창집요 하 65a>

다. 힝역 후에 니질하야 고름과 피를 누며 혹 더러운 거슬 누거든 혹 더러운 거슬 누거든 (痘後下痢膿血 或下腸垢) <두창집요 하 65a>

라. 머거 잠든 후에 더러운 거슬 누면 즉시 편안하느니라(得睡後利下惡物便安) <두창집요 하 31b><sup>2)</sup>

마. 가막췌개 겁질로 세 식 머거 모던 거슬 쓰치여 누면 힝역글 드물게 하느니라(令兒服三蜆殼利下惡物 可瑋痘 <두창집요 상 7b>

바. 선왕 마노라 아들이나 눈 췌이나 달마실가 췌 누실 제노 아츰부터 안즈면 겨울이면 오시 7장 누고 문안 들녀 흘적이면 췌을 두 세 순식 누시노라 <계축일기 상 11a>

현대 한국어에서 ‘누다’는 ‘똥’이나 ‘오줌’과 공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달리 국어사 자료에서는 ‘피를 누다’라는 표현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4)를 참고했을 때, 이러한 예는 15세기부터 17세기 자료에서까지 확인된다. 물론 위의 ‘피를 누다’는 혈변을 보는 것을 의미하므로, 넓게 보면 똥을 배설하는 행위와 같은 것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현대 한국어와 달리, ‘누다’가 ‘피’와 공기했다는 점을 주목해보려고 한다. 아울러 (4마)와 같이 ‘쓰치여 누다’라는 표현이 쓰였음을 함께 언급해둔다.<sup>3)</sup>

현대 한국어에서 배설 행위는 금기어에 가깝다. 이로 인해 윗사람이 배설 행위를 할 때는 ‘화장실을 가다’와 같이 완곡어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국어사 자료에서는 그러한 완곡 표현이 존재했는지 모르겠다.<sup>4)</sup> 더불어 윗사람이 배설 행위를 할 때, 그러한 완곡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누다’에 ‘-시-’를 결합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해당하

1) 필자의 직관으로는 어색하나, 현대 한국어 말뭉치 자료에서는 ‘대변을 누다’, ‘소변을 누다’의 예가 발견된다(예: 그 할머니가 세수 대야에 대변을 누고 타일 벽에다 똥을 다 발랐어요. <동아일보 2001년 5월 4일 기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물결 21에서 가져옴>). <우리말샘>에도 ‘보다’의 뜻풀이로 ‘대소변을 누다’를 제시하고 있다.  
2) 정호완(2009: 297)에서는 ‘더러운 거슬 누면’을 ‘더러운 똥을 누면’이라고 번역하였다.  
3) 정호완(2009: 48)에서는 ‘설사하게 하면’이라고 번역하였다.  
4) ‘通하다’가 완곡어일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추정에 불과하다(通하다와 ‘누다’, ‘보다’의 유의성에 대해서는 남성우 2011 참고). 이를 살피지 못한 것은 필자의 공부가 부족한 탓으로 혹시 아는 예문이나 표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는 예문은 (4바-사)이며, 현대 한국어의 관점에서 고려해보면 다소 특이한 것으로 접근해볼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한다.

또한 (4바-사)를 현대 한국어로 표현한다면, ‘누다’보다는 ‘보다’가 어찌면 더 자연스러울 것일 수도 있겠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보다’가 ‘누다’의 완곡어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sup>5)</sup> 하지만 국어사 자료를 검토했을 때, ‘보다’는 ‘누다’의 완곡어라기보다는 ‘누다’와 거의 비슷한 용법으로 쓰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 (5) 가. 사르미 서르 7람 더운 소노로 비를 눌러 MRI 큰물 저근물 보논 디로 조차 나게 흐  
라(令人更迭以熱手按腹令水從大小便出) <구급간이방 1:66a>
- 나. 기알만 크니를 더운 수레 녀허 머그라 또 큰물 몬 보논 병도 고티누니라(猪膽 大如鷄  
子者 內熱酒中脹之 亦治大便不通) <구급간이방 3:91a>
- 다. 덩단 림지레 저근물 보디 몬 흐야 슈신이 알팍거든(熱淋小腸不利莖中急痛) <구급간이  
방 3:117a>
- 라. 바미 저근물 즈조 보거든(夜多小便) <구급간이방 3:118b>
- 마. 싯무수 삐로 췌 기름 흐 흡을 공심에 머그면 즉재 보리라(蔓菁子油一合空腹服之即通)  
<구급간이방 3:64a>
- 바. 바미 저근물 즈조 누논 병(夜多小便) <구급간이방 3:118a>
- 사. 오좁을 밤의 대엿 순 나지 대엿 순 보고 쇼변이 돌고 음식 슬코 무궁이 번열하여 흐시  
니 결박하다 <은진송씨 선세언독 1730, 은진송씨(고모) → 송익흠과 여흥민씨(조카부  
부)>

널리 알려져 있듯이, 중세 한국어에서 대변과 소변을 의미하는 단어로 ‘큰물’, ‘저근물’이 있다. 이 글에서 조사해 본 결과, 이러한 ‘큰물’, ‘저근물’은 15세기 자료에서 주로 나타나며,<sup>6)</sup> ‘공기하는 동사는 대부분이 ‘보다’였다. 자세히 설명하면, ‘큰물’, ‘저근물’은 15세기 자료에서 총 60회 등장하는데, 그중 5건을 제외하고, 모두 서술어 ‘보다’와 공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큰물’, ‘저근물’ 없이 ‘보다’가 단독으로 쓰여도 배설하는 행위를 나타낼 수 있었다(5마).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잘 등장하지 않으며, 등장하는 문헌도 한정되어 있다.<sup>7)</sup>

이러한 ‘보다’는 ‘누다’의 완곡어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방증은 (5바-사)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5바)의 경우, ‘물’을 취하는 서술어로 ‘보다’가 와야겠으나, ‘누다’가 위치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5사)의 경우, ‘오좁’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누다’가 서술어 자리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보다’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보다’와 ‘누다’의 유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예가 된다.

다만 위와 같은 ‘보다’가 배설 행위를 의미하는 경우에도, 전체 맥락으로 배설의 상황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때만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보다’가 배설행위를 의미하려면, 상황 맥락이 뒷받침되어야 하거나, 혹은 결합하는 목적어가 배설과 관련된 경우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보다(見)’의 영향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보다’ 형태는 대부분 ‘見’의 의미로 파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황 맥락을 통해 이러한

5) <우리말샘>에서는 ‘보다’를 ‘(완곡한 표현으로) 대소변을 누다.’로 풀이하고 있다.  
6) 이 글에서 조사한 바로는 ‘큰물’, ‘저근물’은 16세기 자료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으며, 17세기 자료인 <역어유해>에서 몇 건 확인될 뿐이다.  
7) 이 글에서 파악한 바로는 <구급간이방> 정도에서만 해당 예가 포착될 뿐 그 외의 문헌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해석을 방지해야 배설의 의미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다’는 국어사 자료에서 배설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였으며, 현대 한국어처럼 완곡어로서의 의미는 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보다’는 왜 현대 한국어에서 완곡어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일까?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다음의 예를 통해 모색해보려고 한다.

(6) 가. 내 물 자바쇼마 네 뒤보라 가라(我拿着馬 你淨手去) <번역노걸대 상 37b>

나. 네 길흘 띄워 흐고 길사새셔 뒤보기 말라(你離路兒着 休在路邊淨手) <번역노걸대 상 37b>

다. 길7의 뒷간을 지어 항인의 뒤보는 곳을 사마 돈을 받고 <을병연행록 권 6>

라. 뒤보다 大便 <한불자언>

마. 뒤보다 放屎 <국한회어>

바. 【뒷-간】名 대소변을 보는 곳 뒤보는 처소 便所 廁間 廁圃 <조선어사전>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뒤보다’ 또한 배설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뒤보다’는 ‘물보다’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 주로 15세기 자료에서 확인되는 ‘물보다’와 달리, ‘뒤보다’는 16세기 자료인 <翻譯老乞大>부터 문증되며, <표준국어대사전>에도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와 같은 ‘뒤보다’의 ‘보다’는 ‘물보다’의 ‘보다’와 마찬가지로, ‘뒤’와 공기할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보다’만 단독으로 나타날 경우, ‘見’의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보다’의 의미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뒤’는 신체의 한 부분을 직접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완곡어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는 역사 자료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뒤’의 의미는 공기어인 ‘보다’에게 이어졌을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현대 한국어의 ‘보다’는 완곡어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sup>8)</sup> 물론 여기에는 ‘보다(見)’의 다의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다(見)’의 다의성이 언중들이 ‘보다’를 오분석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 있기 때문이다.<sup>9)</sup>

‘보다’의 이러한 완곡어로서의 모습은 현재의 결합 제약을 만들어냈다. 즉, 배설의 대상을 직접 가리키는 ‘똥’이나 ‘오줌’과 같은 단어들과 공기하는 것은 어렵지만, 배설 행위를 간접적으로 의미하는 표현들에서는 자유롭게 쓰일 수 있는 것이다(뒤에서 언급함.).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일을 보다’와 같은 표현을 들 수 있겠다. 아울러 ‘보다’의 이러한 의미는 ‘대변을 보다’, ‘소변을 보다’와 같은 표현들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변’과 ‘소변’이 ‘똥’과 ‘오줌’의 완곡어이기 때문이다.<sup>10)</sup>

물론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정치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sup>11)</sup> 그리고 ‘싸다’까지도 함께

8) 완곡어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언제인지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우나, 조선어사전의 기술을 고려할 때, 20세기 초기에는 확실히 ‘보다’는 완곡어일 가능성이 높다.

9) ‘오줌’과 공기하는 18세기 자료를 고려했을 때(5사), ‘보다’가 가지는 완곡어로서의 의미는 그 이후 시기에 획득한 것이 아닌가 한다.

10) <우리말샘>에서는 ‘대변’과 ‘소변’을 ‘똥’과 ‘오줌’을 점잖게 이르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완곡어로 보고 있는 듯하다.

11) 현재의 자료로서는 이에 대한 확답은 내리기 어려우나, 어느정도의 추정은 해볼 수 있지 않나 한다. ‘보다’가 ‘대변’과 ‘소변’을 목적으로 취하는 경우가 15-16세기 자료에서는 단 1건에 그치지만, 18세기 이후 자료에서는 꽤 많이 확인되는데, 특히 <방언유석>, <한불자언>, <국한회어>, <한영사전>과 같은 어휘집의 성격을 가진 자료에서는 대개 ‘대변보다’, ‘소변보다’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

고려하여 살필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 이는 다음의 예문을 고려한 것이다.

(7) 가. 네 활기 못 쓰고 대소변을 뺏거든(卒死而四肢不收失便者) <구급간이방 1:43b>

나. 과<sup>7</sup>된 던갓병에 슈신 우희 오목헌 디 세 붓글 쓰고 쇼변곳 보면 즉재 도<sup>8</sup>리라(卒癩灸陰莖上宛宛中三壯得小便通即差) <구급간이방 1:99a>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싸다’가 ‘대변’ 혹은 ‘소변’을 목적어로 취할 수 있다. 이는 ‘누다’, ‘보다’와 동일한 것으로, 현대 한국어와는 다른 현상이다(뒤에서 언급함). 따라서 ‘싸다’의 의미는 국어사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누다’, ‘보다’와의 관계까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 3. 국어사 자료에서의 ‘누다’와 ‘싸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어에서 배설 행위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동사는 바로 ‘누다’이다. 이러한 ‘누다’는 국어사 자료에서도 모든 시기에 걸쳐 등장하며, 현대 한국어에서도 두루 쓰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배설행위를 완곡어로 표현하는 방법도 존재하는데, 보통 ‘보다’를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보다’가 처음부터 완곡어로 쓰였던 것은 아니며, 공기하는 단어의 의미로 인해 완곡어적인 용법을 획득한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현대 한국어에는 ‘누다’보다 좀더 속되게 배설행위를 의미하는 동사도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싸다’이다.<sup>12)</sup> 다만 ‘싸다’가 국어사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사전적 성격을 가지는 자료를 바탕으로 그 의미를 추적해본다.

(8) 가. 오줌누다 오줌싸다 <한불조던 59b>

나. 똥 누다 放糞出恭 <국한회어 85>

다. 똥싸다 泄糞 <국한회어 85>

(8)은 사전적인 성격을 가진 자료에서 추출한 ‘싸다’의 예이다. 위를 고려했을 때, ‘누다’와 ‘싸다’의 의미 차이를 기술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sup>13)</sup> 하지만 국어사 자료에서 ‘싸다’의 예를 추출해보면, ‘누다’와는 다른 의미를 포착할 수 있다.

(9) 가. 네 활기 못 쓰고 대소변을 뺏거든(卒死而四肢不收失便者) <구급간이방 1:43b>

나. 병이 뉘<sup>9</sup>여 대소변을 다 뺏신다 드르니 <병자일기 220>

다. 폐로 깃씨를 마디 아니면 대당이 바드니 깃춘즉 괴운을 흘근다하며 코해 건 코를 흘리며 심헌 즉 방기닐 쉼며 똥을 스고 심으로 깃씨를 마디 아니면 쇼당이 바드니(肺腔不已면 大腸이 受之니 腔則氣喘하며 鼻流濃涕<sup>10</sup>하며 甚則屁出이 遺糞矣오 心腔不已면 小腸이 受之니) <마경초집언해 하 57a>

려한다면, 18세기 이후, ‘보다’는 ‘대변’과 ‘소변’을 취하여 배설의 의미를 전달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다만 자료가 빈약하여 현재로서는 추론에 불과하며, 향후 다른 자료를 확보하여 더 치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2) <우리말샘>에서는 ‘싸다’를 ‘(속되게) 똥이나 오줌을 누다.’로 기술하고 있다.

13) (8나-다)의 한자 의미를 바탕으로 의미 차이를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부분은 필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어서 설명하기 어렵다. 좋은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다.

- 라. 밤의 오줌을 다 뺏되 원귀 각별 대해흐든 안니흐여시니 몸숨이 질긔거나 도오시는 일이 잇는가 <나주임씨가 임창계선생묵보국자내간 언간 19-20><sup>14)</sup>
- 마. 신으로 깃씨를 마디 아니면 방광이 바드니 기춘즉 그 뒷짜리를 들며 심흔즉 오줌을 뺏고 오래 깃씨를 마디 아니면 삼최 바드니(腎腔不已면 膀胱이 受之니 腔則懸其 後脚호며 甚卽小便而遺溺矣오 久腔不已면 三焦이 受之니) <마경초집언해 하 58a>
- 바. 방기산은 물이 폐로 깃기를 긋치디 아니흐야 대변애 방기 나며 똥 뺏는 병을 고티느니라(防己山은 治馬肺腔不止호야 大便애 屁出遺糞病이니라) <마경초집언해 하 59b>

(9)는 국어사 자료에서 찾아낸 ‘싸다’의 예로, ‘뺏-’의 형태 대신 ‘스-’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포착되기도 한다(9다). 위에 제시된 예들에서는 공통된 맥락이 포착되는데, 배설의 주체가 정상적인 배변 활동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신체적으로 매우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매우 놀란 상태에서 배설을 할 때, ‘싸다’라는 서술어를 사용한다는 점이다.<sup>15)</sup> 이는 특히 (9바)에서 직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똥을 싸는’ 행동이 병이기 때문이다.

특히 (9나)의 예를 고려했을 때, 배설의 주체가 존칭의 대상일 경우 ‘-시-’가 결합하여 쓰이기도 했는데, 이 또한 완곡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현대 한국어에서는 ‘싸다’가 속된 어휘인데, (9나)의 예를 고려해보면 그러한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존칭의 대상에게 속된 어휘를 쓰는 것은 다소 껄끄럽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했을 때, 국어사적으로 ‘싸다’는 의미 변화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sup>16)</sup> 현대 한국어에서 ‘싸다’는 정상적인 배변활동의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비정상적인 배변활동을 의미하는 ‘싸다’가 정상적인 배변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뒤에서 언급함). 이와 관련하여 사전의 다음의 기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10) 가. 【오줌-싸다】 自 때 없이 옷 속들에 오줌을 누다, 무의식으로 오줌을 누다 <조선어사전 03>
- 나. 【똥-싸다】 自 ① 때 없이 옷 속들에 똥을 누다 ② 「애쓰다」, 「힘들이다」의 속어<조선어사전>
- 다. 【오줌-싸기】 名 오줌을 싸는 어린애의 별명 <조선어사전><sup>17)</sup>
- 라. 【싸다】 他 ① 대소변이 급하여 뒷간에 갈 사이가 없이 바짓속들에다 누다 ② 싸개질을 하다
- 마. 【지리다】 他 대소변을 바지 안에 조금 싸다 <조선어사전>
- 바. 【누다】 他 대소변을 나오게 하다 <조선어사전>
- 사. 【똥-누다】 自 똥을 몸 밖으로 내보내다 <조선어사전>
- 아. 【오줌-누다】 自 소변을 나오게 하다 소피보다 <조선어사전>

14) 황문환 외(2017)에서는 <나주임씨가 임창계선생묵보국자내간 언간 10>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이광호(2005)를 따라 <나주임씨가 임창계선생묵보국자내간 언간 19-20면>으로 기술한다.

15) (9라)의 경우 ‘동생 임영’이 ‘막내누이 조서방댁’에 보낸 편지이다. 편지 전체 맥락을 고려했을 때, 임영이 투병 중에 있었다(위의 편지는 1695년에 작성한 것이며, 임영은 1696년에 졸하였다.). 따라서 이때의 ‘싸다’ 또한 신체적으로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수행하는 배변활동일 가능성이 높다.

16)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현대 한국어에서 ‘싸다’는 정상적인 배변활동의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17) <한불주연>에서는 ‘오줌싸기’로 실어놓았다.

(10)은 ‘싸다’와 ‘누다’에 대한 <조선어사전>의 기록으로, ‘싸다’와 ‘누다’의 의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조선어사전>에서는 ‘누다’를 ‘소변’이나 ‘똥’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기술하여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10바-아). 또한 ‘지리다’와 ‘싸다’의 의미 차이도 확인할 수 있으며, 양적인 문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10)과 같은 ‘싸다’의 기술은 ‘싸다’의 의미 변화를 암시한다. 즉, 역사적으로는 신체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을 때 하는 배변 활동을 ‘싸다’라고 표현했지만, 근대 시기에는 배변 활동을 가리지 못하는 행위를 표현할 때, ‘싸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10가, 나, 라)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 파생된 결과물이 (10다)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싸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다만 개화기 자료에서 ‘싸다’의 예를 고려해보면, ‘싸다’가 이전 시기의 의미로도 사용된 경우가 확인된다.

(11) 가. 뜻밖의 쇠악회로 볼기를 쪼여 잡아 다리미 앓음을 견디지 못하여 똥을 싸니 <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23일 기사>

나. 맛춤 호랑이가 내려와 보고 욕심이 나서 소리스문 개구멍으로 디가리를 드리밀고 눈을 한번 번스럽게 하니 개들이 홀디에 보고 녀슬 일코 쓰러져 똥을 싸고 소리만 툭툭 치는지라 <대한매일신보 1909년 5월 16일 기사>

다. 소랙이 덤흔 장스독 췌여지는 소리의 더구나 혼이 췌서 똥을 화드득 싸고 정신업시 췌다가 <대한매일신보 1909년 5월 15일 기사>

위에 제시된 예문의 의미를 고려할 때, ‘싸다’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배설행위를 할 때 사용하는 동사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이전 시기에 사용된 ‘싸다’의 의미와 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화기 시기에 사용된 ‘싸다’의 의미는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겠다. 하나는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황일 때 배변활동을 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여 옷에다가 배변활동을 하는 경우인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어린 아이가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서, 다음과 같이 발전한 것이 아닌가 한다.

(11) 가. 똥싸개

「001」똥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

「002」실수로 똥을 싸 아이를 놀림조로 이르는 말.

「003」「명사」 몹시 못난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나. 오줌싸개

「001」「명사」 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

「002」「명사」 오줌을 가릴 줄 알지만 실수로 오줌을 싸 아이를 놀림조로 이르는 말.

(11)은 <우리말샘>에서 제시하고 있는 ‘똥싸개’와 ‘오줌싸개’의 미시정보이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똥싸개’와 ‘오줌싸개’에는 ‘놀림’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의미가 ‘싸다’의 의미와 관련된다고 판단한다. 즉, 20세기 초기에 보유하고 있던 ‘싸다’의 의미, 즉, ‘오줌이나 똥을 가리지 못한다’는 의미가 남아서 ‘오줌싸개’, ‘똥싸개’와 같은 단어가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놀림의 의미로 파생되었다고 보는 것이다.<sup>18)</sup> 이는 국어사적으로 ‘싸다’의



의미가 다소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논의했듯이, 역사적으로 ‘싸다’는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황일 때 수행하는 배설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는 근대 시기에 다소 변화하여, ‘똥싸개’와 ‘오줌싸개’와 같이 어린 아이를 놀리는 단어를 탄생시켰다. 다만 이러한 의미가 현대 한국어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현대 한국어에서 ‘싸다’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이는 다음 장에서 기술된다.

#### 4. 현대 한국어에서의 ‘싸다’의 의미

지금까지 논의했듯이, 역사적으로 ‘보다’, ‘누다’, ‘싸다’는 배설행위를 의미하는 동사이지만, 각각의 세부적인 의미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다. 즉, ‘보다’는 완곡어적인 용법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면, ‘싸다’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이거나 나이가 너무 어려서 배설 행위를 가리지 못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현상을 살펴보아야 한다.

(12) 가. 대변/소변을 보다.

- 나. 대변/소변을 누다.
- 다. \*대변/소변을 싸다.
- 라. \*똥/오줌을 보다.
- 마. 똥/오줌을 누다.
- 바. 똥/오줌을 싸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똥’, ‘오줌’의 완곡어인 ‘대변’이나 ‘소변’에는 ‘싸다’가 서술어로 쓰일 수 없지만,<sup>19)</sup> 배설물의 직접 지칭물인 ‘똥’, ‘오줌’에는 ‘싸다’가 쓰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합 제약은 ‘보다’가 가지고 있는 완곡어적인 용법과 관련된다. 다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은 남는다. 첫째는 ‘보다’와 ‘누다’ 간의 의미 차이이고, 둘째는 ‘누다’와 ‘싸다’ 간의 의미 차이이다. 후자의 경우, 역사적으로 의미 차이가 명확했으나, 지금도 그러한지 더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먼저 전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예로 해답을 모색할 수 있다.

(13) 가. 친구 하나가 화장실로 일을 보러 갔다.

- 나. \*친구 하나가 화장실로 일을 누러 갔다.

(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다’는 배설 행위의 완곡어인 ‘일’을 목적어로 취할 수 있지만, ‘누다’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이는 ‘일’이 가진 완곡어적인 용법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이를 통해 ‘보다’가 ‘누다’보다 더 완곡어적으로 쓰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18) 필자가 조사해본 결과, 역사적으로 ‘누다’가 ‘싸다’보다 비교적 고빈도로 나타난다. 따라서 ‘오줌누개’, ‘똥누개’와 같은 단어들이 만들어질 법하다. 하지만 ‘오줌싸개’, ‘똥싸개’와 같은 단어들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싸다’의 의미가 ‘누다’와 다르기 때문이며, ‘싸다’에는 위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19) <우리말샘>에서는 ‘대변’과 ‘소변’을 ‘똥’과 ‘오줌’을 점잖게 이르는 말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일종의 완곡어라고 풀이한 것이 아닌가 한다.

(12)와 같이 ‘대소변’과 ‘누다’가 공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필요할 듯한데, 이 글에서는 그 역사성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한다. 즉, 앞에서 살펴봤듯이, 역사적으로 ‘대변을 누다’, ‘소변을 누다’와 같은 표현이 쓰였으므로, 현대 한국어에서도 ‘대변을 누다’와 ‘소변을 누다’와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누다’와 ‘싸다’의 의미 차이에 대해서도 더 살펴보아야 한다. 현대 한국어의 관점으로는 ‘누다’와 ‘싸다’의 의미 차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14) 가. 친구가 화장실 변기에 오줌/똥을 똥다.

나. 친구가 화장실 변기에 오줌/똥을 싸다.

다. \*아기가 바지에 오줌/똥을 똥다.

라. 아기가 바지에 오줌/똥을 싸다

(14가)와 (14나)는 별다른 의미 차이가 없다.<sup>20)</sup> 이러한 예를 고려했을 때는 ‘누다’와 ‘싸다’의 의미 차이를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는 곧 ‘싸다’의 의미가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즉, 현대 한국어에서는 일반적인 배설행위의 경우에도 ‘싸다’가 쓰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싸다’가 ‘누다’의 의미 영역을 침범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즉, ‘싸다’의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하지만 역으로 ‘누다’가 ‘싸다’의 영역까지는 넘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14다-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싸다’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보다 범용적인 의미로 탈바꿈하고 있다.<sup>21)</sup> 하지만 속된 의미도 남아서 우리의 생활에서 쓰인다. ‘싸다’의 속된 의미가 보다 더 발달한 경우로는 남녀의 성적 행위를 ‘싸다’로 표현하는 예를 들 수 있을 것이다.<sup>22)</sup>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행위’가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경우로 의미가 파생된 것이 아닌가 한다. 두 행위 모두 배설과 쾌락을 동반하며, 유사한 기관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동사를 통해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역사적으로 ‘싸다’가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배설하는 행위였다는 점에서 성적 행위와 유사한 면모가 있다.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 성적 행위를 묘사할 때, 속된 표현인 ‘싸다’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5. 결론

토론 이후 정리

20) 이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직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필자는 (14가-나)의 의미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

21) 현재로서는 확답하기 어려우나, 세대에 따라 ‘싸다’와 ‘누다’의 사용 빈도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22) 현재 국어사 자료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예를 찾기가 어렵다. ‘싸다’의 의미가 현대 한국어에서 발달한 경우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현재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싸다’의 이러한 쓰임에 대해 기술하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 고영근(1997),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개정판』, 집문당.  
구본관(1996), '중세국어 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2, 국립국어연구원, 56-113.  
구본관 외(2015), 『한국어문법총론 I』, 집문당.  
구본관 외(2016), 『한국어문법총론 II』, 집문당.  
국어사 연구회 엮음(1997), 『國語史研究(전광현·송민 선생의 화갑을 기념하여)』, 태학사.  
김태곤(2002), 『中世 國語 多義語와 語彙 變遷』, 박이정.  
김태곤(2008), 『國語 語彙의 通時的 研究』, 박이정.  
남성우(2006), 『16世紀 國語의 同義語 研究』, 박이정.  
남성우(2011), 『救急方諺解와 救急簡易方의 同義語 研究』, 지식과 교양.  
신중진(2014), 「사전학적 관점에서 본 '物名攷'와 '才物譜'의 영향 관계」, 『진단학보』 120, 105-127.  
유창돈(1971), 『語彙史研究』, 선명문화사.  
이광호 외(2005), 『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3』, 태학사  
이기문(1991), 『國語語彙史研究』, 東亞出版社.  
이기문(1998), 『國語史概說』, 태학사.  
이병근(2004), 『어휘사』, 태학사.  
윤평현(2013), 『국어의미론강의』, 박이정.  
장태진(1998가), 『국어변말사전』, 한국문화사.  
장태진(1998나), 『국어 변말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한국문화사.  
정호완(2009), 『역주 언해두창집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조남호(1996), 「중세 국어 어휘」,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 1, 114-151.

<참고자료>

- 국립국어원(1999/2008),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웹사이트 :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9), 『고려대학교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남광우(2009), 『敎學 古語辭典』, 敎學社.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2008), 『漢韓大辭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박재연(2002), 『中朝大辭典』, 선문대학교 출판부.  
박재연·이현희 외(2016), 『古語大辭典』, 선문대학교 출판부.  
연세 현대 한국어사전 검색 웹사이트 : <https://ilis.yonsei.ac.kr/dic/>.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main>  
유창돈(2000), 『李朝語辭典』, 학고방.  
한글학회 편(1992), 『우리말 큰사전 4 : 옛말과 이두』, 어문각.  
홍운표 외(1995), 『17세기 국어사전』, 태학사.  
황문환 외(2017),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 태학사.



“배설을 의미하는 동사의 사용 변화에 관하여: ‘누다’와  
‘싸다’를 중심으로” 토론문

이동석(교원대)

(별지 참조)



## 김안국 편찬 <여씨향약언해>와 <정속언해>의 언해자에 대한 고찰

이용규(서울대학교 박사과정)

1. 서론
2. 김안국 주도 언해 문헌들에 대한 기록
3. <여씨향약언해>와 <정속언해>의 언해 양상
  - 3.1. 구결문 검토
  - 3.2. 언해문 검토
4. 결론

### 1. 서론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 많은 한글 문헌이 간행되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15세기 무렵에 간행된 한글 문헌의 대부분은 한문에 대한 번역서인 언해 문헌들이 차지하였다. 이 시기에 한문 문헌을 언해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언해 문헌의 언해자가 기록되어 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석보상절>이 세종의 명에 의해 세조가 번역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불서들을 포함한 불경 언해서들에 대해서도 김수온, 신미대사, 학조대사 등이 번역하였음이 기록된 문헌들이 있으나, 이 외의 문헌들에서 언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 때문인지 언해자에 따른 언해 양상이나 언해자의 개인어 등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지 언해자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전하는 언해서들에서 독특한 언해 양상이 발견되면, 언해자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단편적인 언급들만이 확인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언해 문헌들의 언해와 개간(開刊)에 관여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인물이 있어 주목된다. 이 글의 대상이 되는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으로, 그는 1517년(중종12)에 경상도 관찰사로 발령 받아 내려간 후에 다음해인 1518년부터 무려 7종의 한글 언해문을 펴냈다.

(1)

- ㄱ. 풍속 교화 관련: <여씨향약언해>, <정속언해>, <이륜행실도>
- ㄴ. 농업 관련: <농서언해>, <잠서언해>
- ㄷ. 의료 후생 관련: <벽온방언해>, <창진방촬요>

위 문헌 가운데 <농서언해>, <잠서언해>, <벽온방언해> 등은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김안국이 번역하여 간행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을 뿐, 현전하지 않는 탓에 간기(刊記)를 확인할 수 없어 언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현전하는 문헌들을 대상으로 김안국 주도 언해 문헌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김안국의 언해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먼저 제2장에서 실록의 기록과 책의 간기 등 역사 자료를 바탕으로 16세기 초에 간행된 <여씨향약언해>, <정속언해>, <이륜행실도>, <창진방촬요>의 편찬 및 간행에 김안국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추정한다. 제3장에서는 역사 기록이나 선행 연구들에서 김안국이 구결을 달고 언해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 <여씨향약언해>와 <정속언해>의 언해 양상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김안국 언해의 공통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 2. 김안국 주도 언해 문헌에 대한 기록

조선조 중종대의 김안국과 연관된 언해 문헌으로는 중종 13년(1518년)에 간행된 <여씨향약언해>, <정속언해>, <이륜행실도>, <농서언해>, <잠서언해>, <벽운방언해>, <창진방언해> 7종의 언해서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여씨향약언해>, <정속언해>, <이륜행실도>는 원간본으로서 지방에서 간행된 최초의 한글 문헌이라는 의의도 있다(이호권 2008: 96 참고). 위 문헌들의 간행에 있어서 김안국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선행 연구들에서 여러 차례 제시된 바 있다(여찬영 2008: 44-46 참고).

(2) 최현배(1940, 1982:132-136), <한글갈>

<여씨향약언해>: 김안국 뒤침(譯) 중종13년 무인 간행

<정속언해>: 김안국 뒤침(譯) 중종13년 무인 간행

<농서언해>: 김안국 엮음(撰) 중종13년 무인 간행

<잠서언해>: 김안국 엮음(撰) 중종13년 무인 간행

<이륜행실도>: 김안국 엮음(撰) 중종13년 무인 간행

(3)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편(1971, 1990), <한국도서해제>

<여씨향약언해>: 중종13년(1518) 김안국이 번역 간행

<정속언해>: 중종13년(1518) 김안국이 번역. 김안국 역

<이륜행실>: 조신 찬

<분문온역이해방>: 중종37년(1542) 김안국 등 찬(김안국이 왕명을 받아 문세련, 유지번 등과 ... 이어 약명과 채법을 더하여 모두 한글로 번역 간행케 된 것이다.)

(4) 유창돈(1964, 1971:808-830), <이조어사전>

<여씨향약언해>: 중종13(1518년) 간. 주자의 “增損呂氏鄉約”을 김안국이 번역한 것

<정속언해>: 중종13(1518년) 간. 김안국 번역. 중국의 왕일암의 “정속편”을 번역한 것

<이륜행실도>: 중종13(1518년) 간. 김안국 편.

<분문온역이해방>: 중종37(1542년) 간. 김안국 편.

(5) 안병희(1979:109-147), <중세어의 한글자료에 대한 종합적 고찰>

<여씨향약언해>: 김안국이 원문에 차자로 구결을 달고 번역(언해) 간행

<정속언해>: 김안국이 원문에 차자로 구결을 달고 번역(언해) 간행

<이륜행실도>: 김안국이 조신에게 편찬시켜 김산군에서 간행



<본문은역이해방>: 김안국 등이 왕명에 따라 편찬하고 언해를 덧붙여 간행. 1542년(중종37)

위의 논의를 정리하면, 선행 연구들에서는 <여씨향약언해>와 <정속언해>를 김안국이 구결 달고 언해한 것으로 파악하는 데에 이견이 없고, <이륜행실도>에 대해서는 김안국이 엮었거나 편찬한 것으로 보는 견해와 조신<sup>1)</sup>이 편찬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갈린다고 할 수 있다. <이륜행실도>를 조신이 편찬한 것으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김안국이 찬술하여 조신에게 편찬 및 간행시킨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김안국의 언해 업적을 보여주는 실록 기록은 아래의 <중종실록>권32, 4월 기사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sup>2)</sup>

(6)

同知中樞府事金安國啓曰, “臣爲慶尙道觀察使, 觀其道人心、風俗, 頽弊乃極。今者上方有志於轉移風俗, 故臣欲體至意, 變革頑風, 而竊思其要, 取古人之書, 可以善俗者, 詳加諺解, 頒道內以教之。此等書冊, 臣有志修撰, 而第緣事務煩劇, 未遑詳悉, 錯誤必多。今方別設撰集廳, 印出文籍, 此等書, 使之更加讎校, 印頒八道, 則於淬勵風化, 庶有小益也。如《呂氏鄉約》、《正俗》等書, 乃敦厚風俗之書也。《鄉約》雖載於《性理大全》, 而無註解, 遐方之人, 未易通曉, 故臣乃詳其諺解, 使人接目便解, 《正俗》亦翻以諺字。如農書、蠶書, 乃衣食之大政, 故世宗朝翻以俚語, 開刊八道。今亦頗致意務本之事, 故臣亦加諺解, 如《二倫行實》, 臣前爲承旨時, 請開刊。如三綱之重, 雖愚夫愚婦, 皆知之, 至於朋友、兄弟之倫, 凡常之人, 或有不知, 故臣依《三綱行實》, 撰類以刊之。如《辟瘟方》, 則瘟疫之疾, 易於傳染, 人多死傷, 故在世宗朝, 重惜人命, 翻以俚語, 印頒中外, 今則稀罕, 故臣亦加諺解以刊。至如《瘡疹方》, 曾已翻譯開刊, 而不頒布于中外, 人之夭札者, 多以此疾, 故臣往慶尙道時賫去, 刊印於本道, 已頒布矣。願依成宗朝廣頒《救急簡易方》例, 多印廣布。” <중종실록 32>, 1518년(중종13) 4월 기사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김안국(金安國)이 아뢰기를, “신이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가 되었을 때 그 도의 인심과 풍속을 보니 퇴폐하기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성상께서 풍속을 변화시키에 뜻을 두시므로, 신이 그 지극하신 의도를 본받아 완악한 풍속을 변혁하고자 하는데, 가만히 그 방법을 생각해보니 옛 사람의 책 중에서 풍속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을 택하여 거기에 언해(諺解)를 붙여 도내에 반포하여 가르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이 이 책들을 수찬하기로 마음먹고 있으나 사무가 번다하여 미처 자세히 살피지 못하였으므로 착오가 필시 많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별도로 찬집청(撰集廳)을 설치하여 문적(文籍)을 인출하고 있으니, 이 책들을 다시 교정하여 팔도에 반포하게 하면 풍화(風化)를 고취시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씨향약(呂氏鄉約)》이나 《정속(正俗)》 같은 책은 곧 풍속을 순후하게 하는 책입니다. 《여씨향약》이 비록 《성리대전(性理大全)》에 실려 있으나 주해(註解)가 없어 우리 나라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

- 1) 조신(曹伸): 1454년(단종 2) ~ 1529년(중종 24). 출신지 ‘김천’, 본관 ‘창녕’. 조선 전기 문신으로 문장에 능하였고, 시를 잘 지었다. 중국어와 일본어에도 능통해서 1479년(성종 10) 통신사행의 군관(軍官)으로 참여하여 일본에 건너가 이름을 알렸다. 주요 저서로는 1518년(중종 13) 왕명을 받아 김안국(金安國)과 편찬한 『이륜행실도』를 비롯하여 『적암시고』, 『소문쇄록』, 『백년록』 등이 있다.
- 2) 실록 기사에 대한 현대어역은 한국고전종합DB의 것을 바탕으로 하였고, 경우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이 곧 그 언해(諺解)를 상세하게 만들어 사람마다 보는 즉시 이해하게 하고, 《정속》 역시 언자(諺字)로 번역하였습니다. 농서(農書)와 잠서(蠶書) 등도 의식(衣食)에 대한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세종조(世宗朝)에 이어(俚語)로 번역하고 팔도에서 개간(開刊)하였습니다. 지금 역시 농업을 힘쓰는 일에 뜻을 두기 때문에 신 또한 언해를 붙이게 되었고 《이륜행실(二倫行實)》은 신이 전에 승지(承旨)로 있을 때 개간(開刊)을 청하였습니다. 삼강(三綱)이 중요함은 비록 어리석은 사람들도 모두 알거니와, 봉우 형제(朋友兄弟)의 윤리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은 알지 못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신이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에 의하여 유별로 뽑아 엮어서 개간하였습니다. 《벽온방(辟瘟方)》 같은 것은, 온역질(瘟疫疾)은 전염되기 쉽고 사람이 많이들 그로 인해 죽기 때문에, 세종조에서는 생명을 중히 여기고 아끼는 뜻에서 이를 이어(俚語)로 번역하여 경향에 인포(印布)하였는데, 지금은 희귀해졌기로 신이 또한 언해를 붙여 개간하였습니다. 《창진방(瘡疹方)》에 대해서는, 이미 번역하여 개간하였으나[翻譯開刊] 경향에 반포하지 않았으므로 요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병으로 죽기 때문에 신이 경상도로 갈 적에 이를 싸가지고 가서 본도에서 간행하여 반포하였습니다. 바라건대 구급에 간편한 비방을 널리 반포하던 세종조의 전례를 따라 많이 개간하여 널리 반포하소서.” 하였다.]

위의 기록에는 김안국이 언해를 한 이유와 그가 언해하거나 개간을 청한 문헌들에 대해 자세히 제시되어 있어 긴 글임에도 인용하였다. 이 기록을 통해 김안국이 경상도 관찰사로 갔을 당시에 그곳의 인심과 풍속이 퇴폐한 것을 보고[臣爲慶尙道觀察使 觀其道人心 風俗 頽弊 乃極], 악한 풍속을 변혁하고자[變革頑風] 교화서들을 언해하여 간행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때 주목되는 것은 <여씨향약언해>와 <정속언해>에 대해서는 언해(諺解), 언자(諺字)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인데, 이러한 용어 사용은 김안국이 두 문헌을 직접 언해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기록이다. <여씨향약언해>와 <정속언해>의 언해를 김안국이 직접 맡아서 수행했음은 다른 실록 기사와 <국조보감> 등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7)

ㄱ. 韓忠曰, “臣見忠淸監司, 刊印《呂氏鄉約》, 以教鄉中年少之士。 … 監司又擇其耆老, 爲一鄉之所推者, 爲都約正、副約正, 以興勵一鄉。 其所以善俗作民之道, 無過於此。 臣見鄉中小兒所讀《鄉約》, 乃金安國所校諺解者也。 須廣印《鄉約》, 頒于八道可也。” <중종실록 33>, 1518년(중종13) 6월 기사

[한충이 아뢰기를, “신이 보니 충청 감사(忠淸監司)가 《여씨향약(呂氏鄉約)》을 간인(刊印)해서 그 지방의 연소한 선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 감사(監司)가 또 한 고을에서 추앙받는 노숙(老宿)을 뽑아 도약정(都約正)·부약정(副約正)을 삼고 그 고을을 교화(教化)하게 하고 있는데, 풍속을 선도하고 백성을 바로잡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법이 없습니다. 신이 시골에서 아이들이 읽는 《향약(鄉約)》을 보니 곧 김안국(金安國)이 교정(校正)한 언해본(諺解本)이었습니다. 이것을 널리 인출하여 팔도(八道)에 반포하는 것이 가합니다”]

ㄴ. 夏四月。知中樞府事 金安國言。臣按嶺南, 得《呂氏鄉約》, 《正俗》等書。詳其註解。翻以諺文而刊行。得《農書》, 《蠶書》。世宗朝 所翻譯開刊者。臣又別撰諺解而刊。行得《二倫行實》。倣《三綱行實》。撰類而刊行。《得辟瘟方》, 《瘡疹方》。遵世宗, 成宗 兩朝 故事而刊行。亦頗有效。願推行於諸道也。 <國朝寶鑑 19: 22>

[4월. 지중추부사 김안국이 아뢰기를, “신이 영남을 안찰(按察)하던 때에 《여씨향약(呂氏鄉約)》, 《정속(正俗)》 등의 책을 구해 주해를 상세히 내고 언문으로 번역하여 간행하였습니다. 세종조에 번역하여 간행했던 농서(農書)와 잠서(蠶書)를 구했는데, 신이 또 별도로 언해(諺解)를 편찬하여 간행하였으며, 《이륜행실(二倫行實)》을 구하여 《삼강행실(三綱行實)》을 모방해서 유별로 편찬하여 간행하였습니다. 《벽은방(辟瘟方)》과 《창진방(瘡疹方)》을 세종조와 성종조의 고사에 따라 간행하였는데, 또한 제법 효험을 보았습니다. 바라건대, 여러 도에도 미루어 행하게 하소서.”]

(7ㄱ)은 김안국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여씨향약언해>의 교정한 사람이 김안국이라는 것이 언급된 기록으로 그 당시에 <여씨향약언해>의 언해자가 김안국임이 널리 알려져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7ㄴ)은 <국조보감>의 내용으로 <여씨향약>과 <정속>을 언문으로 번역하여 간행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7ㄴ)에 해당하는 내용은 중종대의 것이므로 1782년(정조6) 즈음에 기록된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록들로 미루어 볼 때, <여씨향약언해>, <정속언해> 두 문헌의 언해자를 김안국이라고 보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달리, <이륜행실도>의 경우에는 책의 간행에 김안국이 관여하였다는 점은 명확하나 직접 언해까지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위의 기록들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다. (6)의 실록 기사나 (7ㄴ)의 <國朝寶鑑> 기록에 <이륜행실(二倫行實)>을 언해했다는 언급은 없기 때문이다. (6)에서는 <이륜행실>의 ‘개간(開刊)을 청하였다[請開刊]’고 하였고, (7ㄴ)에서는 ‘<삼강행실>을 모방하여 종류별로 편찬하여 간행했다[倣 《三綱行實》 撰類而刊行]’라고만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여씨향약언해>, <정속언해>에 대해서는 ‘翻以諺文, 諺解, 翻以諺字’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아래의 기사에서는 <이륜행실도>를 ‘撰集’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8)

禮曹判書金安國啓曰, “《三綱行實》則既已刊行矣。五倫之中, 長幼、朋友二事, 別無舉行, 故臣爲慶尙道觀察使時, 撰集《二倫書》, 兄弟之類, 附親戚, 朋友之類, 附師生, 書成印布, 使一道之人, 無不知之。臣意以此《二倫書》, 廣印頒布至當。”

예조 판서 김안국이 아뢰기를,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는 벌써 간행이 되었으나 오륜(五倫) 가운데 장유(長幼)·붕우(朋友) 두 가지 일이 따로 간행된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신이 경상도 관찰사로 있을 적에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를 찬집하면서 형제의 유에다 친척 조항을 붙이고 붕우의 유에다 사생(師生) 조항을 붙여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간행하여 반포해서 온 도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르는 자가 없게 하였습니다. 신은 이 《이륜행실도》를 많이 간행하여 널리 반포하는 것이 매우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김안국이 <이륜행실도>를 편찬하는 데에 관여하였으나 언해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이를 실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3) 이와 관련하여 <이륜행실도>에 실린 조신의 서문이 참고가 되나 이 역시 김안국이 직접 언해를 한 것으로 볼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려웠다. 아래 <이륜행실도> 서문의 번역은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의 것을 참고하였다.

… 今慶尙道觀察使 金公諱安國 嘗在政院 入侍 經幄 請撰二倫行實 添續三綱 以備觀感 上可之 下禮

한편, <창진방찰요>는 비교적 후대에 모습을 드러낸 자료로 위 (2)~(5)의 선행 연구들에 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창진방찰요>는 1980년에 成煥甲 선생님이 白正鉉 변호사로부터 기 증 받은 자료로 成煥甲(1981), 成煥甲(1994) 등의 연구를 통해 그 모습이 조금씩 밝혀지다가 成煥甲(2005)에 해제와 영인본이 수록되었다. 成煥甲(2005: 179)에서는 <창진방찰요>의 언해자에 대해 김안국일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김안국의 언해 업적과 『韓國人名大辭典』의 해설, 그리고 중종실록에 실린 狀啓, <창진방찰요>에 실린 발문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김안국의 언해 업적은 위에서 살펴본 실록 기사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일 테고, 『韓國人名大辭典』의 기술도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중종실록에 실린 狀啓는 (6)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창진방(瘡疹方)>을 번역하여 개간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至如《瘡疹方》，曾已翻譯開刊]. <이륜행실도>와 달리 ‘翻譯’이라는 표현이 있어 김안국이 언해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아래의 내용은 <창진방찰요>에 실린 발문이다. 4)

(9)

觀察使金公安國，持《瘡疹方》來，示余云：“我國家，千方萬藥，流布中外，隨其病而應之。故賴此得活者多，獨此疾其害尤甚，眩於治病，以此殞命者非一，購求中朝，始得其方，余欲廣布以治其病。公其( )副予望。”余聞命，拜而受之，卽命匠鋟梓，未浹旬而告訖。噫！承流宣化之餘，以救民病爲慰，豈不偉哉！歲在正德丁丑孟冬府尹文

[관찰사 김공 안국(金公安國)이 《창진방(瘡疹方)》를 가지고 와서 내게 보여주며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수많은 처방과 약들이 중앙과 지방에 유포되어 병에 따라 치료하였으므로 이에 힘입어 살아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병(창진)만은 그 피해가 더 심하고 치료하는 데 어두워 이 병으로 사망한 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구구(購求)하여 비로소 그 처방을 얻었으니, 내가 널리 퍼내어 그 병을 치료하고자 합니다. 공께서 나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랍니다.”라 하였다. 내가 명을 듣고서 절하고 받아 즉시 각수에게 명하여 판각하게 하니, 열흘도 되지 않아 끝마쳤다고 보고하였다. 아! 승류 선화하는 여가에 백성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위안으로 삼기까지 하였으니, 어찌 위대하지 않겠는가. 정덕(正德) 정축(1517) 맹동에 부윤(府尹) 문(文)]

曹 令設局 撰進 … 命未及行而 公 出按于南 首囑前司譯院正 曹伸 撰集歷代諸賢 處長幼交朋友 其行跡 可爲師法者得若干人 於兄弟圖 附宗族於朋友圖 附師生 紀事圖贊諺譯 悉做三綱行實 刊于金山郡 請余爲序

[… 지금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김공 휘 안국(金公諱安國)이 일찍이 승정원(承政院)에 있으면서 경악(經幄)에 입시(入侍)하여 이륜행실(二倫行實)을 편찬하여 삼강에다 첨가하여 이어서 눈으로 보고 감동하는 데 대비하도록 청원하자, 임금이 그것을 옳게 여겨 예조(禮曹)에 회부하여 입시 관아를 설치해서 편찬하여 올리도록 하였다. … 그러나 그 명을 미처 시행하기 전에 김공이 영남의 관찰사로 나가게 되었으므로 맨먼저 전 사역원 정(司譯院正) 조신(曹伸)에게 부탁하여 역대(歷代)의 여러 현인 가운데 장유(長幼) 간에 잘 대처하고 봉우(朋友) 간에 잘 교류한 그 행적을 수집하여 사실을 기록하고, 모범[師法]이 될 만한 자 약간 명을 찾아 형제도(兄弟圖)에다 종족도(宗族圖)를 붙이고 봉우도(朋友圖)에다 사생도(師生圖)를 붙여 사실을 기록하고 그림의 여백에다 찬사를 써넣고 언문으로 번역하기를 모두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를 모방하여 금산군(金山郡)에서 간행하면서 나에게 서문을 지어달라고 하였다. …]

4) <창진방찰요> 발문의 해독과 현대어역은 서울대 국문과 박사과정 유수빈 선생님이 제공해 주신 것과 안대현(2007: 73)에 제시된 것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하였음을 밝힌다.

<창진방촬요>에 대해서는 먼저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창진방언해>와의 관계인데, 유창돈(1964)나 『世界文藝大辭典』 등에서는 <창진방언해>라는 책을 다루면서 간행 시기를 1518년으로 적고 있다. 이에 대해 成煥甲(2005: 177)에서는 실록의 기사를 확인 절차 없이 따른 것으로 실물을 접하지 못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창진방언해> 실물을 접하지 못한 채로 (6), (7ㄴ) 등에서 <창진방>을 번역하였다는 기록을 참고하여 <창진방언해>라는 문헌이 있었고, 그 간행시기는 실록 기사에 따라 1518년으로 하였을 것이라 추정한 것이다.<sup>5)</sup>

이러한 상황에서 <창진방촬요>의 정체에 대해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하다. 하나는 <창진방>을 언해한 <창진방언해>라는 책이 있고, 이것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개간한 것을 <창진방촬요>라고 파악하는 것이다. 책의 이름만 놓고 볼 때, 諺解는 전체를 번역한 것이고 撮要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成煥甲 2005: 177). 다른 하나는 <창진방언해>라는 책은 원래부터 없었고, 현전하는 <창진방촬요>가 (6)과 (7ㄴ) 등에 언급된 <창진방>을 언해한 문헌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안대현(2007: 75)에서도 <창진방촬요>의 형태서지를 검토하여 이 책이 원간본이 아니고, 그 이후에 중앙에서 활자로 간행한 중간본을 다시 번각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여하튼 현전하는 <창진방촬요>의 언해자 역시 김안국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창진방언해>라는 문헌의 존재로 인해 쉽사리 단언이 어려운 상황이라 정리할 수 있겠다. <창진방촬요>가 후대에 <창진방언해>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개간한 것이라면, 김안국의 언해 특징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진방촬요>를 직접 살펴보기 전까지 <창진방촬요>에 반영된 언해 특징과 언어를 김안국의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여러 사적(史的)인 기록들을 바탕으로 김안국이 주도하여 간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헌들의 언해자가 김안국이 맞는지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여씨향약언해>, <정속언해>는 김안국이 직접 언해하고 편찬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었다. 선행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김안국이 두 문헌에 구결을 달고 언해를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이륜행실도>의 경우 김안국이 그 문헌의 간행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직접 언해하였음을 증명하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창진방촬요> 역시 <창진방언해>라는 문헌의 실제 유무로 인해 김안국이 언해한 것으로 결론 내리기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다. 구체적인 언해 양상과 언어적인 특징의 반영 등을 바탕으로 김안국의 언해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5) (6)의 실록 기사와 (9)의 <창진방촬요>의 간기 바탕으로 보면 <창진방>을 언해한 문헌은(그것이 <창진방언해>이든 <창진방촬요>이든) 개간 시기와 반포 시기가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간기의 내용을 통해 김안국이 1517년 이전 언젠가 <창진방>을 번역하고, 부윤(府尹)이라는 이에게 찾아가 책을 만들 것을 부탁하였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실록 내용을 통해 책이 개간된 후에 바로 반포하지 않고 있다가, 경상도로 갈 때 싸가지고 가서 반포했다고 하였을을 알 수 있다. 김안국이 1517년 12월에 경상도 관찰사에 임명되었음을 종합해 보면, <창진방>을 언해한 문헌의 반포는 1518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 3. <여씨향약언해>와 <정속언해>의 언해 양상

본 장에서는 역사 기록과 선행 연구들을 통해 김안국이 구결을 달고, 언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여씨향약언해>와 <정속언해>의 원간본을 검토함으로써 두 문헌 사이에 유의미한 공통점을 추출해낼 수 있는가를 확인한다. 검토의 대상은 크게 ‘구결문’과 ‘언해문’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구결자의 사용 양상이나 언해 대응, 어휘 사용 양상 등을 확인한다.

#### 3.1. 구결문 검토

<여씨향약언해>와 <정속언해>의 구성은 한문 원문에 구결을 달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언해가 주석의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다른 언해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제시 방법이다(윤용선 2012: 7 참고). 그런데 두 문헌과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다른 언해본들에 한문 원문아래에 한자 정자체로 차차 구결을 새겨서 간행한 문헌은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둘을 한데 엮을 수 있다.

<여씨향약언해>와 <정속언해>에 사용된 구결토를 비교해 보면 적지 않은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언해 작업의 순서가 한문 원문에 구결을 먼저 달고, 그 구결을 바탕으로 언문으로 번역하는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려하면(안병희 2009: 37-43, 윤용선 2012: 23 등), 이러한 차이는 독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문헌 모두 김안국이 언해하였고, 간행된 시기도 거의 같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결토 역시 유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래에 각각의 문헌에 사용된 구결토를 제시한다.<sup>6)</sup>

(10)

	<여씨향약언해>에 사용된 구결토	<정속언해>에 사용된 구결토
계사 활용형	伊羅, 伊尼, 伊五 伊尼羅	伊羅, 伊尼, 伊五 伊隱大, 伊舍多爲尼, 伊溫, 伊五隱, 伊那, 伊面, 伊里羅, 伊里五, 伊赫, 伊於尼, 伊羅豆, 伊舍豆, 伊於時等, 伊於等, 伊舍叱多
‘하다’ 활용형	爲古, 爲尼, 乎里尼, 乎代 爲羅, 爲也, 爲也等, 爲奴羅, 爲巨等, 爲多可, 爲也沙, 乎乙知尼	爲古, 爲尼, 乎里尼, 乎代 爲赫, 爲也, 爲面, 爲時古, 爲時尼, 爲飛尼, 爲時飛尼, 爲里尼, 爲隱地, 爲舍, 爲尼羅, 爲里羅,

6) 검토 결과 <여씨향약언해>는 준경각본과 화산본, 일석본에서 사용된 구결토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속언해>의 경우 원간본인 이원주 교수본에 사용된 구결토와 18세기 개간본인 일사문고본에 사용된 구결토에서 차이를 보였다. 일사문고본 구결토에 대해서는 李德興(1987)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으나 이원주 교수본과의 차이점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아래 두 문헌에서 차이 나는 예 몇 개만 제시해 둔다. 주로 계사 ‘伊’의 생략 여부에 따른 차이(ㄱ, ㄴ)나 말음 첨기 표기 유무(ㄷ)에서 차이를 보인다.

ㄱ. (이원주 교수본)伊五 - 五(일사문고본)  
 ㄴ. (이원주 교수본)於時等 - (일사문고본)伊於時等  
 ㄷ. (이원주 교수본)伊舍多爲尼 - (일사문고본)伊舍叱多爲尼

			爲里五, 乎尼, 乎未, 乎隱代
어미류		巨等, 尼羅, 羅可, 於等, 於沙, 於那, 於乃	尼, 羅, 羅沙, 里奴多, 面, 舍叱多, 於乙, 於尼臥, 五
조사류	주격 조사	伊	주격 조사 伊, 尼, 亦
	대격 조사	乙	대격 조사 乙
	도구격 조사	奴, 乙奴	도구격 조사 奴, 乙奴
	처격 조사	厓, 亦伊	처격 조사 厓, 余伊
	속격 조사		속격 조사 矣
	접속 조사	果, 臥	접속 조사 果, 臥
	보조사	那, 斗, 羅隱, 乙 良, 隱	보조사 那, 豆, 奴隱, 阿, 厓沙, 厓隱, 隱
인용 구문		伊羅爲時古, 羅爲時古, 羅爲時多, 伊羅爲時尼羅, 伊羅爲豆多, 底爲時尼, 伊舍多爲尼	
사동 구문		巨伊爲時尼	
욕망 구문		低 爲時尼	

위의 표를 통해 <여씨향약언해>와 <정속언해>의 원문에 달린 구결토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여씨향약언해>보다 <정속언해>에 사용된 구결토가 매우 다양한데, <정속언해>에는 다른 문헌들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는 구결토가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李德興 1987 참고). 특히 (11)에서 볼 수 있듯이, 계사 활용형과 동사 ‘흐-’ 활용형이 <여씨향약언해>에 비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정속언해>에서는 다양한 구결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선어말어미를 표시하여 주고 있다. 선어말어미 ‘時, 飛, 里, 舍’나 연결어미 ‘面’, ‘古’, ‘隱地’, ‘隱大’, 사동 구문 ‘-巨伊爲時尼/게 하시니’, 욕망 구문 ‘-低 爲時尼/더 하시니’ 등은 <정속언해>에서만 확인되고 <여씨향약언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구결토이다.

특히 두 문헌에 사용된 조사 구결토들을 살펴보면, 두 문헌에 구결을 단 사람을 과연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여씨향약언해>에서는 보조사 ‘-도/두’를 ‘斗’자로 표기하였으나, <정속언해>에서는 예외없이 ‘豆’자를 통해 표기하였다. 또한 <여씨향약언해>에서는 주격 조사의 구결토로 ‘伊’자만 사용하고 있는데, <정속언해>에서는 ‘伊’자 외에도 ‘尼’자나 ‘亦’자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尼’자는 선행하는 명사 ‘人家子孫’의 말음 ‘ㄴ’을 중첩 표기를 한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李德興 1987: 249), <여씨향약언해>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구결토의 사용 방법이다.

이 외에도 처격 조사 표기에 사용되는 구결토에서 보이는 차이도 두드러진다. <여씨향약언해>에서는 처격 조사로 ‘厓, 亦伊/-에’를 사용하였고, <정속언해>에서는 ‘厓/애, 余伊/-에’를 사용하였다.

(11)

- ㄱ. 이 외에 안부 무릅과 의심드윈 일 잇거든 질정흐야 무르며[此外/亦伊 候間起居/臥] <여씨:19b>
- ㄴ. 당상잇 사름은 설와 동지에 명함 가지고 가 답례호티 저의 니버 와 뵈던 옷 곧티 흐고

[長者/隱 歲首冬至/亦伊 具膀子報之/乎代 如其服/爲古] <여씨:19b>

- ㄷ. 이 그약 등에 어딘 일 잇는 사름을 모다 위하고 허믈 잇는 사름으란 덕월이 고티며[於是/亦伊 約中/厓 有善者/乙 衆推之/爲古 有過者/乙 直月糾之/爲也]

(12)

- ㄱ. 골육기 지극기 친하니 형데만 곧티니 업스니 모시에 날우디 주거 상스익 어려운 덕도 형데사 스랑흐느니라 하고[骨肉至親/伊 莫如兄弟/尼 詩云之死喪之成/余伊 兄弟孔懷伊 旡] <正俗:3b>
- ㄴ. 돕디 아니하리라 네기에 날오디(네기는 글월 일흠[미|이]라) 하나빌 존흐는 고로 덕당 문즈식 공경하고 문즈식을 공경흐는 고로 사르미 효도를 아느니라[不佑之矣/里羅 禮/余伊 日尊祖故宗/伊五 敬宗故民知孝/伊羅爲豆多] <正俗:9b>
- ㄷ. 사오나온 힌면 모다가 도즈기 도의여 골형에 구으림 죽느니[凶年 飢歲/余伊 不相聚爲盜 賊/爲也 轉死於溝壑/爲飛尼] <正俗:21b>

(11), (12)의 ‘亦伊, 余伊’는 모두 처격 조사가 쓰일 자리에 쓰인 구결토이다. <여씨향약언해>에서 사용되는 처격 조사는 선행하는 체언 말음에 따른 교체 양상이 15, 16세기 한글 문헌에 나타나는 처격 조사 ‘에/애, 예’와 다소 차이가 있다. ‘亦伊’가 쓰이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선행하는 체언의 말음이 모두 ‘이’나 ‘j’라는 점에서 ‘-예’를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曰凡弔禮/厓 <여씨: 27a>’나 ‘若婚會/厓 <여씨: 25b>’ 등의 현토에서 알 수 있듯이 ‘厓’의 사용폭은 15세기 한글 문헌의 ‘-에/애’보다 넓어, ‘-예’가 쓰일 환경에서도 나타난다.

이와 달리, <정속언해>의 처격 조사는 규칙적으로 ‘이’나 ‘j’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는 ‘厓’가 쓰이고 있다. ‘余伊’의 경우 대체로 ‘이’나 ‘j’ 모음 뒤에 오지만, (12ㄱ)과 같이 ‘成’자 뒤에 결합한 예도 확인된다. 위와 같이 구결토를 사용하는 방식이나 구결토로 사용한 한자의 이동(異同)를 고려하면 두 문헌의 현토자를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주저되는 것이다.

언해 작업에서 구결문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언해문이 만들어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윤용선 2012: 23). <여씨향약언해>와 <정속언해>가 중앙에서 간행된 문헌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언해 작업의 순서를 고려하면, 두 문헌도 구결문을 먼저 완성한 이후에 그것을 토대로 언해하였을 것인바 언해자가 같은 것으로 알려진 두 문헌에서 언해 작업의 초석이 되는 구결토 기입 양상에서 위와 같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으나 필자는 두 문헌의 구결을 단 사람이 다른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위에서 보인 차이가 결코 적지 않음을 고려한 것으로, 비슷한 시기에 동일인이 언해한 문헌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구결토 기입 양상을 해석하는 데에는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다. 두 문헌의 구결을 단 사람이 다르다는 전제 아래 생각해 봄직한 가능성은, 두 문헌 가운데 한 개 이상의 문헌은 이전에 이미 구결이 정해져 있던 문헌을 참고하여 김안국이 언해하였고 참고한 구결본을 그대로 간행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구결을 확정하는 것은 언해의 전단계로서도 중요한 것이지만(안병희 2009: 37-43), 한문 문헌을 읽고 공부할 때에도 유익하게 쓰였다(박종배 2019: 58).<sup>7)</sup> 따라서 이전에 한 번 정해져 내려오는 구결토를 십분 이용했을 것임

7) 上語卞季良曰: "昔太宗命權近, 著五經吐, 近讓之不得, 遂著《詩》、《書》、《易》吐, 唯《禮記》



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문헌 가운데 <정속언해>에 나타나는 조사류 구결들은 해당 조사들로 언해되기도 하지만, 어미류 구결들은 그대로 언해되지 않고 구결토와는 달리 언해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

(13)

ㄱ. 즈식기 난 세 히 후에사 아버지 품물 떠나느니[子生 三日 然後/厓沙 免於父母之懷/伊羅 爲時告] <正俗: 1b>

ㄴ. 그 죄 브효만 크니 업스니라[罪莫大於不孝也/伊羅爲時尼羅] <正俗: 2b>

ㄷ. 죽거든 거상옷 니버 서르 보느니[死則 有服以相接/巨伊爲時尼] <正俗: 9b>

(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문 원문에 달린 구결과 언해의 어미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3ㄱ, ㄴ)의 경우 계사문이 ‘하다’ 동사 구문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선어말어미 ‘時’도 언해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13ㄷ)의 구결토 ‘巨伊爲時尼’는 ‘-게 하시니’라는 사동 표현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역시 언해에서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흥미로운 사실은 <정속언해> 이원주 교수본의 이러한 언해 양상과 달리, 18세기에 개간된 일사문고본의 언해에서는 구결토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13ㄱ)과 (13ㄴ)의 구결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사문고본에서는 각각 ‘... 면흐다 흐시고[... 懷/伊羅爲時告] <정속(일사): 2a>’, ‘... 업다 흐시니라[莫 ... /伊羅爲時尼羅] <정속(일사): 4a>’로 언해되어 있어 구결토를 의식하고 언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3ㄷ)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죽은 즉 복흐기로써 서르 되접게 흐시니[死則 有服以相接/巨伊爲時尼] <정속(일사): 16a>’로 언해되어 있어서 구결토 ‘巨伊爲時尼’의 사동 구문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13)의 예 외에도 이원주본에서는 구결의 어미와 언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확인된다(여찬영 2007: 17-23 참고). 구결을 기계적으로 번역하는 언해 과정을 고려할 때, <정속언해>의 구결과 언해가 상이한 것은 이 문헌의 구결 혹은 언해가 김안국의 것이 아닐 가능성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 3.2. 언해문 검토

<여씨향약언해>는 1518년에 경상도에서 원간본이 간행된 이후에 1519년 즈음에 중앙에서 을해자본 개간본이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안병희 1976: 283-301). 전자의 판본이 남아 있는 것을 존경각본, 후자의 판본이 남아 전하는 것을 화산본이라 한다. 이 두 문헌에 나타나는 표기 방식이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문헌이 간행된 간격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앙에서 개간하여 간행할 때 중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표기를 반영하였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동시에 존경각본에 나타나는 표기는 김안국 개인의 표기적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서, 언해 표기 양상은 <여씨향약언해> 존경각본과 화산본을 비교하

四書無之。予慮後學，或失本意，以訓諸生，若因此而教，豈不有益？”

[임금이 변계량에게 말하기를, “옛날 태종께서 권근에게 명하여 오경에 토를 달라고 하니, 권근이 사양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고 드디어 《시경》·《서경》·《역경》의 토를 달았으나, 오직 《예기》와 《사서》에는 토가 없다. 나는 후학들이 혹시 본래의 뜻도 잘모르고 여러 생도들을 가르칠 까봐 염려된다. 만약 이것을 가지고 가르친다면 어찌 유익하지 않겠는가.”]

여 확인되는 차이를 바탕으로 존경각본의 표기 특징을 확인하고, 이를 <정속언해> 원간본(이원주 교수본)의 표기 양상과 대비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sup>8)</sup>

### ① 중철 표기

존경각본 언해의 표기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중철 표기이다. 이는 이미 <여씨향약언해>를 검토한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지적된 바 있다(안병희 1976, 김성규 1994, 최영미 2011 등). 흥미로운 것은 <여씨향약언해>의 중철 표기들이 다양한 어형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어형들에서 규칙적으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이는 이러한 표기가 김안국 개인 표기 습관이라고 볼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14)

- ㄱ. 괴약흔 사릅 등에 들마다 혼 사릅곰 돌려 딕월를 사모디 세 칩을 두고셔[約中/厓 月輪 一人爲直月/乎代 都副正不與之 置三籍/爲也] <여씨: 1b>
- ㄴ. 두을재논 ㄹ론 허물를 서르 경계 아니호미오[二曰過失不相規/伊五] <여씨: 6b>
- ㄷ. 물러갈 저기어든 주인이 청하야 계절리셔 물 트라 흐라[退則主人/伊 請就階上馬/爲羅] <여씨: 19a>
- ㄹ. 셋재 ㄹ론 손늘 청하며 마즈며 보내요미 물잇 네 도건이니[三曰請召迎送/伊 凡四條/伊 尼] <여씨: 20a>
- ㄹ. 쥬신논 듯기 느려 탁즈 동녘키 셔디 셔녁을 향하고 손은 쏘 듯기 느려 탁즈 서녘키 셔 디 동녘을 향하라[主人/隱 降度/爲也 立於卓東/乎代 西向/爲古 上客/隱 亦降度/爲也 立於卓西/乎代 東向/爲羅] <여씨: 21a>
- ㅂ. 네 거러가다가 몸 밋쳐 피하야든 물 브려 읍하고 지나니거든 물 트라[彼徒行而不及避則 揖之/爲古 過則上馬/爲羅] <여씨: 20a>
- ㅅ. 혼 괴약잇 사릅이 각각 제 옷솔 넘고 와서 [同約者/伊 如其服而至/爲也] <여씨: 31b>
- ㅇ. 쏘 마시고 잔을란 찬자를 맞디고[遂飲[爲古] 以杯授贊者[爲古]] <여씨: 21b>

(14ㄱ~ㄷ)은 ‘ㄹ’을 말음으로 갖는 체언들이 조사와 결합할 때 ‘ㄹ’이 한 번 더 쓰이는 중철 표기가 나타나는 예이다. (14ㄱ)의 ‘딕월’이 중철 표기되어 나타나는 예는 총 다섯 개가 확인되는데, 그 가운데 대격 조사가 결합한 예가 네 개이고, 주제 보조사가 결합한 예가 한 개다. 이 문헌에서 ‘딕월’이 대격에 결합하는 경우가 4회이므로 ‘딕월’에 대격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모두 중철 표기되어 나타난 것이다. ‘딕월’에 주제 보조사가 결합하는 경우는 두 예가 확인되는데, 나머지 한 예는 ‘딕월은’과 같이 분절되어 있다.

(14ㄴ)은 ‘허물’에 대격 조사가 결합하였을 때 중철 표기된 예인데, 대격이 결합하는 총

8) 현재까지 알려진 <정속언해>의 판본은 다음 세 가지이다(백두현 2009).

- ① 원간본으로 판단되는 고 이원주 교수 소장본
- ② 규장각본
- ③ ‘渭原校上’이라는 장서기가 있는 일사문고본

이 가운데 이원주 교수본 원간본은 1518년 김안국이 간행한 것의 판본으로 파악되고 있다. ②의 규장각본과 ③의 일사문고본은 모두 18세기에 개간된 것으로 이글의 연구 대상에서 배제된다. 규장각본은 원간본의 언어 사실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는 문헌이고, 일사문고본은 개간되던 당시 18세기의 언어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문헌으로 파악된다(김태곤 2003: 17-18 참고).

6개의 예 가운데 4개의 예에서 중철 표기가 확인되고 2개의 예는 연결되었다. (14ㄷ)은 ‘계절’에 처격 조사 ‘-이셔’가 결합한 것인데, 처격 조사 ‘-이’가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항상 중철 표기로만 나타난다.

(14ㄹ, ㄱ)은 말음이 ‘ㄴ’으로 끝나는 체언들이 조사와 결합할 때 중철 표기를 보이는 예이다. (14ㄹ)의 ‘손[客]’이 대격 조사와 결합한 예인데, 분철되어 표기되는 것이 더 많이 확인된다. (14ㄱ)은 ‘주신’에 주제 보조사가 결합한 것으로 딱 한 예만 확인된다. ‘주신’이 주제 보조사 외의 조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분철되어 표기되었다.

(14ㄴ)은 부사 ‘밋처’의 중철 표기이다. ‘밋처’가 등장하는 예에서는 모두 중철되어 있다. (14ㄴ)의 ‘옷슬’은 ‘옷’과 대격 조사의 결합인데, 이러한 결합에서는 항상 중철 표기가 확인된다. 이러한 중철 표기의 예는 토론 수도 중요하지만, 대격·처격 조사와의 결합이나 주제 보조사와의 결합과 같이 특정 환경에서 확인된다는 점도 눈여겨볼만 하다.

(14ㅇ)의 예는 조금 독특한 것인데, 보조사 ‘-(으/으)란’의 매개모음 말음에 ‘ㄹ’이 덧난 것이다. ‘-(으/으)란’은 기원적으로 대격 조사와 주제 보조사가 결합한 것인바(안병희 1983, 정연찬 1984), 언해자가 그 기원적인 모습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단순 표기상의 실수인지 알기 어렵다. 다만 앞서 구결토의 활용에서 확인했듯이 <여씨향약언해>에서는 ‘-(으/으)란’을 의미하는 구결토인 ‘-乙良’과 ‘-羅隱’이 모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문헌의 언해자는 ‘-(으/으)란’이 기원적으로 대격과 주제 보조사의 결합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식하고 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위의 예 외에도 이 문헌에서는 ‘빗츨, 곧티, 셔넉키, 정실톨’ 등 다양한 중철 표기가 확인된다. 특히 위의 예들은 모두 화산본에서는 분철이나 연결 표기로 수정되어서 간행된 것들이다. 이 점을 강조하면 이들 단어가 보이는 중철 표기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었고, 언해자의 표기 습관에 의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슷한 시기에 김안국이 언해한 것으로 이야기되는 <정속언해>의 표기에서도 동일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을까. <정속언해>에서도 중철 표기를 상당수 발견할 수 있었으나, <여씨향약언해>와 동질적인 모습을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15)

- ㄱ. 즈식기 난 세 히 후에사 아버지 품물 떠나느니[子生三年然後/厓沙 □於父母之懷/伊羅爲時古] <正俗: 1b>
- ㄴ. 향것시 종의게 그 집블 거느려서 이를 맞디고[夫主之於幹/厓 庇其家而任之事/爲古] <正俗: 15b>
- ㄷ. 약글 맛보아 바즈오며 허믈리 겨시거든[飲藥先嘗/爲旆 有過於/於時等] <正俗: 2a>
- ㄹ. [공즈는 큰 성인니신 어딘 아비라] <正俗: 1b>
- ㅁ. 장춇 하늘히 주기시거나 사름의 지해어나 제 몰매 미츠리니 누를 허믈히리오[將有天誅人禍/伊 以及其身/爲里尼 尙誰咎哉/里五] <正俗: 2b>
- ㅂ. 나쁜 곡식ㅁ로 가난흔 사름물 뿌이면[以我有餘之粟/乙奴 貸濟貧之之民/爲面] <正俗: 27b>

위와 같은 <정속언해>의 중철 표기는 <여씨향약언해>의 것을 넘어서는 매우 광범위한 것이다. <여씨향약언해>에서는 주로 말음이 ‘ㄹ, ㄱ, ㄴ’인 것들의 중철 표기가 두드러졌는데, <정속언해>에서는 ‘ㄹ, ㄱ, ㄴ’ 외에도 (15ㄱ, ㄴ)에서 확인되는 것 같이 여타의 자음을 말

음으로 갖는 체언들에서도 중철표기가 확인된다. 또한 (15ㄷ)과 같이 계사와의 결합에서도 중철 표기가 확인된다.

이 외에도 <여씨향약언해>에서는 대격이나 처격, 주제 보조사와의 결합에서 중철 표기가 나타나고, 주격 조사와의 결합에서는 중철 표기되는 예가 없었는데 <정속언해>에서는 (15ㄱ)에서와 같이 주격이나 (15ㄴ)에서와 같이 속격 등 가릴 것 없이 다양한 환경에서 중철 표기가 사용되었다. 특히 (15ㄷ)의 ‘허물리’와 같은 예는 <여씨향약언해>에서는 예외없이 분철되어 ‘허물이’로 나타나는 것인데, <정속언해>에서는 중철되어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정속언해>의 중철 표기가 <여씨향약언해>의 것보다 더 폭넓게 확인되는 것이다. 물론 (15ㄴ)과 같이 <여씨향약언해>와 동일한 중철 표기가 쓰인 예도 확인되지만, 이는 <정속언해>의 폭넓은 중철 표기 양상을 고려하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다.

15세기 문헌들의 표기 방식은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을 제외하면 거진 다 연철의 방식으로 표기된다. 그러던 것이 조금씩 혼란을 겪는 시기가 바로 16세기 초이다(안병희·이광호 1991: 41 참고). 金重鎭(1999: 49-55)에서는 한글 문헌의 중철 표기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먼저 15세기 후반부터 조금씩 중철 표기가 등장하기 시작하여(<구급방언해>, <육조법보단경언해> 등), 16세기 초인 1510년대에 중철 표기의 전성기를 이루고(<번역소학>, <이륜행실도>, <정속언해>, <여씨향약언해> 등), 16세기 중기 문헌에도 중철 표기를 보이다가(<칠대만법>, <내훈>, <초발심경자경>, <몽산화상법어략록언해> 등), 잠시 소강된 후에 17세기 초엽부터 다시금 번성하게 된다.

이 외에도 16세기 중엽 문헌인 <고려녀전> 등의 문헌들에서도 중철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5세기 말에 간행된 <구급간이방>, <육조법보단경언해>에서도 분철 표기가 확인되는바, 16세기 문헌들에서 이전과 달리 분철 표기가 다수 확인되는 것이 단순히 특정 지역이나 특정 언해자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체적인 양상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 <여씨향약언해>와 <정속언해>의 분철 표기 양상을 김안국 개인의 표기 습관으로 보는 것보다는 16세기의 표기 흐름 가운데 하나로 귀속시키는 것이 두 문헌의 이질적인 분철 양상을 설명하기에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씨향약언해>에 분철 표기가 두드러지는 것과 달리 <정속언해>나 <이륜행실도>에서는 분철 표기를 확인할 수 없는데(李翊燮 1992: 216), 이 역시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 ② 한자음 표기 양상

<여씨향약언해> 존경각본의 독특한 점으로 ‘難, 南’ 등의 한자어 두음을 ‘ㄹ’로 표기하였다는 점이다. 각각, ‘가란, 랍녃’으로 표기된바 이들 한자어를 ‘ㄹ’로 표기한 예가 없다는 점에서 이 문헌만이 갖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6)

ㄱ. 날곱재 날은 가란호미니라[七曰貧乏[伊尼羅]]

ㄴ. [흔 귀약잇 사름이 제 가란호물 편안이 너교되 그 싱계 ㄹ장 브족호거든 {모든(모든)} 사름이 주워 제도호며][有安貧守分 而生計大不足者 衆以財濟之]

ㄷ. 덕월이 또 저기 당상에 사름을 혀 동녃을 향호야 랍녃을 우 삼고[直月又引稍長者[爲也] 東向右上[爲古]]

(16ㄱ)은 존경각본에서 영인 상태가 좋지 않아 판독이 애매한 한 예를 제외하면 모두 ‘가란’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南’의 한글 표기인 (16ㄷ)의 ‘람녁’은 예외없이 ‘르’를 어두움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표기는 <정속언해>는 고사하고 15, 16세기의 어떠한 언해 문헌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여씨향약언해> 존경각본만의 고유한 특징으로 보아야 한다. 화산본에서는 이들이 각각 ‘가란, 남녁’으로 교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교정 양상만 보더라도 당시에 도 이러한 표기가 독특한 것이었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 ③ 활음화 표기

<여씨향약언해>에서 서술어 ‘두다’와 ‘주다’에 연결어미 ‘-아/어’가 결합하는 경우에 활음화가 반영되어 표기되는 예들이 각각 한 예씩 확인된다.

(17)

- ㄱ. 혼나흔 ㄹ론 수울 먹고 주정흐며 상륙 장기 된 느미 것 던기 즐기며 사흙 즐기며 송스 즐겨호미오[一曰酬博鬪訟/伊五] <여씨: 6a>
- ㄴ. 깃븐 일 잇거든 가 하례흐며 아못 거시나 취든 가 사례호미 다 레로 비요미오[曰凡少者幼者/伊 于尊者長者/厓 歲首 冬至 四孟月朔/果 辭見賀謝/伊 皆爲禮見/伊五] <여씨: 17b>

(17ㄱ)은 서술어 ‘두다’에 연결어미가 결합했을 때 활음화되는 것을 반영한 표기이고, (17ㄴ)은 서술어 ‘주다’에 연결어미가 결합했을 때 활음화되는 것을 반영한 표기이다. 이러한 표기는 화산본에서는 모두 ‘두어, 주어든’로 수정된다. 김성규(1994: 112)에서는 존경각본에 나타나는 이러한 활음화 표기에 대해 일상의 회화체를 반영하고 있는 표기로 파악한 바 있다. <정속언해>에서는 이러한 활음화 표기가 확인되지 않아서 두 문헌이 보이는 표기의 이질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 조금 다르지만, <정속언해>에서 용언의 활용이라는 환경은 아니지만 ‘후에사’가 ‘훤사’로 표기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홍윤표(1984)에서는 ‘에’의 단모음화가 남부지방에서 먼저 실현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 ④ 연결어미 ‘-아’ 표기

<여씨향약언해>와 <정속언해>가 동질성을 보이는 표기도 있다. 많은 예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씨향약언해>에는 연결어미 ‘-아’가 축약되어 나타나지 않고 표기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징은 한글 초기 문헌인 <석보상절>, <삼강행실도> 등에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16세기 초 문헌인 <여씨향약언해>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18)

- ㄱ. [손이 거러 웻거든 대문 밧기 가 마자 드리오고 보낼 제도 쑤 그 곧티 호되 두서 거름만 조차 가다가 손이 읍흐거든 가디 마로되 그 가물 브라아 떨어사 드리갈 거시라] <여씨: 19b>

ㄴ. [만이레 즈라아서 간대로 놀며 제 몸을 몰라 가져 든니거든 쏘 금지하야 불의에 빠디디 아니케 하라] [若稍長而放逸不檢 亦防察約束之 無令陷于不義] <여씨: 30a>

(18ㄱ)은 ‘브라-[見]’에 연결어미 ‘-아’가 결합한 것인데, 15, 16세기 문헌에서 말음이 ‘-아/어’인 경우에 연결어미 ‘-아/어’가 결합하면 축약되어 표기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을 고려하면, 독특한 표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석보상절>의 일부 예 외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연결어미 ‘-아’의 표기는 <정속언해>에서도 확인된다.

(19)

ㄱ. 혼 희에 어든 거시 수이 즈라아 닻미게 빈 아니 내오 [一歲之所得易給/伊羅 既免稱貸舉息/伊五] <正俗: 25a-b>

ㄴ. 덕기 호운자 아니라 모덕 이우지 잇느니라 慎交友 [버들 삼가아 사피라] 그 더게 나사 가려 흘던 모로미 버디게 즈되홀 거시라 빈 삼가아 사피음물 버거 호노라 [語云德不孤/伊羅 必有隣/伊羅爲豆多 欲進其德 必資朋友 故以慎交友次之] <正俗: 13b>

(19ㄱ)은 ‘즈라-[長]’에 결합한 연결어미가 축약되지 않고 표기된 것이다. 이 예는 (18ㄴ)에서처럼 <여씨향약언해>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두 문헌의 표기상의 공통점을 보여주는 예 가운데 하나이다. 이 외에도 (19ㄴ)의 ‘삼가아’도 연결어미 ‘-아’가 축약되지 않고 표기된 예이다.

### ⑤ 언해 대응 및 어휘 사용

언해 대응 및 어휘 사용 양상은 <여씨향약언해>와 <정속언해>, 두 문헌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역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두 문헌에서 달리 사용된 단어들 가운데에는 단순히 단어의 형태를 달리 사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 쓰임이나 형태가 변화하는 단어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 두 문헌의 언해자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주는 자료들이다.

(20)

ㄱ. 만이레 사돈잔치에 사돈짓 사름이 위두손이 드외엿거든 비록 저머도 그 저를 디답하라 [若婚會/厓 姻家爲上客則雖少/那 亦答其拜/爲羅] <여씨: 21b>

ㄱ'. 기 빅성으로 하여곰 깃거 사피여 화동홀 풍속 도외오려 하느니라 [蓋欲使民/奴 權欣交通而成和睦之俗也/羅] <正俗: 13a>

ㄴ. [혼 기약잇 사름이 죽고 즈식이 저머 의거 업슨 사름을 만이레 제 집이 가슴열어든 위 하야 기결하야 그 브를 검거하며] [孤遺無依者 若能自贍 則爲之區處 稽其出內] <여씨: 29b>

ㄴ'. 하다가 아버를 공경티 아니하면 이는 하늘 이쇼물 모르는 디오 [若夫不敬其父/伊面 是不知有天也/伊五] <正俗: 2b>

ㄴ. 덕이라 혼 거슨 닐은 어딘 이를 보고 반드시 흥하며 내 허므를 듣고 반드시 기하며 그 몸을 잘 다스리며 [德/隱 謂見善必行/爲彌 聞過必改/爲彌 能治其身/爲彌] <여씨: 2b>

ㄴ'. 덕기 호운자 아니라 모덕 이우지 잇느니라 [語云德不孤/伊羅 必有隣/伊羅爲豆多] <正

俗: 13b>

- ㄹ. 이제 다른 글득를 취<sup>ㅎ</sup>며 쏘 내 <sup>ㅅ</sup>뜨들 브터 잡싼 더으며 덜며 <sup>ㅎ</sup>야 이 시저릭 맞게 <sup>ㅎ</sup>고  
[今取其他書/卧 及附己意/爲也 稍增損之/爲也 以通于今而] <여씨: 31a>
- ㄹ'. 엇데 처엄의 저근덜 <sup>ㅎ</sup>름만 <sup>ㅎ</sup>리오[曷若其初/厓 少忍其初哉/里五] <正俗: 26b>
- ㄹ''. 잡싼 어려운 일 어더도 이웃들히 안자셔 보고 구홀 줄 모르느니[一遇禍患則 隣里坐視 而不知救/爲飛尼] <正俗: 13a>

위의 예들은 15세기와 16세기를 가르는 특징을 반영하는 몇 안되는 단어들이다. 이들이 문헌에 따라 구분되어 쓰이고 있다. 먼저 (20ㄱ)과 (20ㄱ')의 표기는 '되다'의 선대형이 15세기에서 16세기로 넘어갈 때 변화하는 표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현대 한국어의 '되다'는 '드외- > 도외- > 되-'로 변화를 거쳐서 지금에 이른 것으로 이러한 변화는 대체적으로 16세기에 확인된다. <정속언해>는 이러한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어 16세기 자료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20ㄴ)과 (20ㄴ')은 '若'에 대응하는 언해로 각각 '만이레', 'ㅎ다가'가 쓰이는 것을 보여준다. 'ㅎ다가'는 15세기에 한문의 '若'을 언해할 때 규칙적으로 사용되던 부사인데, 16세기에 오면서 'ㅎ다가'는 거의 사라지고 '만일에/만이레' 일색이 된다. <여씨향약언해>에서는 'ㅎ다가'는 찾아볼 수 없고, '若'의 언해로 모두 '만이레'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정속언해>에서는 '만일에/만이레'는 쓰이지 않고, 'ㅎ다가'만 사용되었다.

(20ㄷ), (20ㄷ')의 예는 '必'에 대응하는 언해로, '반드시, 모디'가 쓰인 것이다. '모디'는 중세 한국어 시기에 주로 쓰이고 '모로미'는 근대 한국어 시기에 쓰이다가 현대 한국어에 들어 '모름지기'라는 표현이 쓰이게 되었다(김태곤 2003: 33). <정속언해>에서는 '모디'와 '모로미'가 모두 사용되었으나 '반드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18세기에 개간본 <정속언해>에서는 해당 부분들이 모두 '반드시'로 수정되는바 '반드시'가 더 후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반드시'는 대체로 16세기 문헌에서 확인된다.

<여씨향약언해>에서는 '반드시'가 와 '모로미'가 모두 사용되었다. '반드시'는 총 3회 쓰였는데, 이 가운데 2회는 '必'에 대응하는 것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한 예는 협주에 사용되었다. '모로미'는 딱 한 예가 나타나는데 협주에 쓰였다. 이 외에도 <정속언해>에서 '必'의 언해로 '의식'이 나타는 경우가 2회 확인된다. '의식[必]'은 1497년의 <神仙太乙紫金丹>에서 처음 확인되고(이정일 1999: 166 참고), 16세기 초 문헌인 <속삼강행실도>와 <변역소학>, <이륜행실도> 등에서도 나타난다.

(20ㄹ), (20ㄹ'), (20ㄹ'')은 '暫間'의 의미로 중세와 근대 한국어 시기에 널리 쓰이던 것인데, 한자어 '잠간, 잠깐'이 그 자리를 차지하여 지금의 '잠깐'에 이른다(김태곤 2003: 36참고). <여씨향약언해>에서는 '저근덜'은 사용되지 않고, '잡싼'만 사용되었다. 이와 달리 <정속언해>는 두 어형이 모두 사용되었다.

이처럼 두 문헌에 사용된 어휘들을 살펴보면 중세 한국어가 16세기 초반에 매우 혼란스러운 변화를 보이고 있던 것을 그대로 목도할 수 있다. 가령, '드외- > 도외-'의 변화를 고려하면 <정속언해>의 언어가 더 후대의 것으로 보이지만, 'ㅎ다가' 일색이던 15세기 언해가 16세기 들어서 '만이레'로 바뀐 것을 고려하면 <여씨향약언해>가 더 후대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것이다. 결국 15-16세기 혼란스러운 언어 변화의 경계에서 두 문헌이 언해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그 언해가 동일한 사람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동일 시기에 한 사람의 언어가 이렇게까지 다르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위의 예처럼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단어들 외에도 두 문헌이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 목격되어 같은 언해자의 언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의 근거를 더하여 준다.

(21)

- ㄱ. 나와 ㅁ튼 사람이 다 물 탕거든 길홀 분하야 서르 읍흐고 디나가디[過敵者皆乘馬則分道相揖而過/乎代] <여씨: 20a>
- ㄱ'. 모로미 레법보로 집빚 사람물 제어하야 소임물 논화 이를 맞더 흐라 고찰호리라[必謹守禮法/爲也 以御家衆/爲也 分之以職/爲於 授之以事而責其成功/伊尼羅] <正俗: 16a>
- ㄴ. 만이레 그 가당이 연괴 잇거나 혹 경하흐며 도문홀 사름으로 나와 벼슬이 서르 곤디 아니흐거든[若家長有故/於那 或與所慶弔者/奴 不相接則] <여씨: 22a>
- ㄴ'. 쏘 닐오디 혼이너 전츠로 네게 와 사노라 흐도다[又曰 婚姻之故/奴 言就爾居/伊羅爲豆多] <정속: 11b>
- ㄷ. 그 집을 잘 다스리며 아버와 형과를 잘 섬기며 즈식과 아스와를 잘 ㅁ르치며[能治其家/爲彌 能事父兄/爲彌 能待妻妾/爲彌 能教子弟/爲彌] <여씨: 3b>
- ㄷ'. 아버지 즈석과 하늘와 짜 ㅁ튼니 공직 니르샤디[父母者/隱 子之天地/尼 孔子曰] <正俗: 1b>

위의 예는 <여씨향약언해>와 <정속언해>에서 동일한 한자에 대해 각기 다른 단어로 언해한 예들을 몇 개 든 것이다. (21ㄱ, ㄱ')은 '分'에 대한 언해로 <여씨향약언해>에서는 한자어 '分'에 동사파생접미사 '-하-'를 결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와 달리 <정속언해>에서는 '논호다'의 16세기 어형인 '논호다'가 활용화된 '논화'형으로만 나타난다. 이정일(1988: 165)에서는 '논호다 > 논느다'의 변화를 겪어 이 지역의 방언형으로 굳어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논호다'의 활용형 '논화'에 대해서는 현재 '노나(노느+-아)'형으로 활용되어 경상도 전지역에 걸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논호-'가 이 지역의 방언형을 반영한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으나, 16세기 문헌인 '순천김씨언간'이나 <이륜행실도>, <칠대만법>, <초발심자경문>, <소학언해> 등에서도 이러한 어형이 확인된다.

또한 (21ㄷ, ㄷ')과 같이 동일한 '子'의 언해로 <여씨향약언해>에서는 '즈식'으로 옮긴 것과 달리 <정속언해>에서는 '즈석'으로 옮기고 있어, 두 문헌을 언해한 사람의 '息'의 한자어가 달랐을 것임을 암시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16세기 초에 김안국이 직접 언해한 것으로 기록되어 전하는 <여씨향약언해>와 <정속언해>의 언어적 사실을 검토한 결과,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더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문헌의 공통점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중철 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중철 표기는 16세기 언해 문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라는 점에서 두 문헌만이 갖는 특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두 문헌에서 중철 표기가 확인된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두 문헌의 중철 표기를 대조해 보면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이 크다. 반면에 두 문헌에서 확인되는 차이점들은 같은 사람이 언해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것들이 다수 있었다. 구결토의 사용이나 한자음 표기, 언해에 사용된 어휘 등이 특히 그러했다.

이러한 언해 특징 및 언어적 사실은 제2장에서 살펴본 역사 기록들과 괴리를 보이는 것이다. 실록 등의 역사 기록과 충돌하는 이러한 언어적 사실을 해석하는 데에는 두 가지 정도



의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는, 두 문헌의 간행은 1518년으로 동일하지만, 언해가 된 시기는 서로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즉, 두 문헌을 언해한 시기가 서로 달라 각 시기에 따라 달라진 김안국의 언어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근거가 너무나 빈약하고 반박될 소지가 많은 것이다. 먼저 단기간에 한 사람의 언어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또한 두 문헌의 보여주는 언어적 특징이 명확하게 어느 것이 먼저 언해된 것인가 하는 순서를 보여주기에 혼란스럽다는 점이다. 용언 ‘도외- > 도외-’와 부사 ‘만이레’, ‘허다가’ 등의 사용이 특히 그러하였다.

두 번째 가능성은 김안국이 두 문헌을 직접 언해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즉 두 문헌을 언해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검토하고 주관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서 실록 등의 기록에는 그가 언해한 것으로 남았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역사적인 기록들에서는 이러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분명 존재하지만, 두 문헌에 반영된 언어적 사실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언어적 사실을 도외시킨 채, 역사 기록만으로 두 문헌의 언해자를 김안국으로 단정짓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언어적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 기록들을 다시 살펴보면,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 편의를 위해 (6)과 (7)의 내용 일부를 다시 가지고 온다.

- (6) 同知中樞府事金安國啓曰, “ … 臣有志修撰, 而第緣事務煩劇, 未遑詳悉, 錯誤必多。… 鄉約》雖載於《性理大全》, 而無註解, 遐方之人, 未易通曉, 故臣乃詳其諺解, 使人接目便解,” <중종실록 32>, 1518년(중종13) 4월 기사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김안국(金安國)이 아뢰기를, “ … 신이 이 책들을 수찬하기로 마음먹고 있으나 사무가 번다하여 미처 자세히 살피지 못하였으므로 착오가 필시 많을 것입니다. … 《여씨향약》이 비록 《성리대전(性理大全)》에 실려 있으나 주해(註解)가 없어 우리 나라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이 곧 그 언해를 상세하게 만들어 사람마다 보는 즉시 이해하게 하고,”]

- (7) 韓忠曰, “ … 臣見鄉中小兒所讀《鄉約》, 乃金安國所校諺解者也。須廣印《鄉約》, 頒于八道可也。” <중종실록 33>, 1518년(중종13) 6월 기사

[한충이 아뢰기를, “ … 신이 시골에서 아이들이 읽는 《향약(鄉約)》을 보니 곧 김안국(金安國)이 교정(校正)한 언해본(諺解本)이었습니다. 이것을 널리 인출하여 팔도(八道)에 반포하는 것이 가합니다”]

인용한 (6)의 내용은 김안국이 책들을 고쳐서[修] 편찬[撰]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으나, 자세히 살피지 못하였으니 오류[錯誤]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마치 자신이 관장하고 있는 이 문헌 편찬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과 과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어서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말로도 파악되는 것이다. 즉, 이미 언해 작업은 (누군가에 의해) 진행 중에 있고, 이를 검토하는 것을 미처 성실히 하고 있지 못해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으나, 두 문헌에 나타나는 언어적 사실을 강조하면, 이러한 기록들은 두 문헌을 김안국이 직접 언해한 것으로 보는 것에 반하는 자료로 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싶다.

이 외에도 (6)에서 ‘詳其諺解’는 ‘그 언해를 상세하게 만들어’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이미 있는 언해를) 더욱 상세하게 언해하였다’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어 기존에 언해문이 있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

또한 (7)에서는 <여씨향약언해>에 대해 김안국이 ‘교정[校]’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역시도 김안국의 직접 언해 가능성에 반하는 역사 기록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5. 결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김안국 주도 언해 문헌들에 대한 역사 기록과 선행 연구를 살피고, 원간본이 전하는 <여씨향약언해>와 <정속언해>의 구결문과 언해문을 검토하여 김안국이 언해 사업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추적해 보았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실록 등의 역사 기록과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여씨향약언해>, <정속언해>는 김안국이 직접 언해하고 편찬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었다. 선행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김안국이 두 문헌에 구결을 달고 언해를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이륜행실도>의 경우 김안국이 그 문헌의 간행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직접 언해하였음을 증명하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창진방찰요> 역시 <창진방언해>라는 문헌의 실체 유무로 인해 김안국이 언해한 것으로 결론 내리기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었다.

그런데, <여씨향약언해>와 <정속언해>의 구결문과 언해문의 언어적 사실을 들여다 보니 역사 기록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정속언해>의 구결자 사용이 <여씨향약언해>의 것보다 더 폭넓었다. 계사 활용형이나 용언 ‘ㅎ-’ 활용형부터 시작해서 사동 구문이나 인용 구문 등의 사용까지 다양한 구성의 구결토를 달았다. 또한 동일한 조사나 어미에 대해 서로 다른 구결자를 사용하고 있는 점도 두 문헌의 구결 현토자가 동일 인물이 아닐 것이라는 추정에 힘을 실어 주었다. 언해문에서도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이 강조되었다. 두 문헌에서 확인되는 공통점은 중철 표기인데, 이 역시도 직접 대조해 보면 중철 표기의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자음 표기, 언해에 사용된 어휘 등이 크게 달라 동일 인물의 언해라고 보기 어려웠다.

본고에서는 역사 기록과 충돌하는 이러한 언어적 사실에 대해 언어 사실의 차이점을 강조하여, 김안국이 이들 문헌의 언해 작업에 주도적인 역할, 혹은 총괄 역할을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언해를 직접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 참고 문헌

- 김성규(1994), 존경각본 여씨향약언해의 성조, 진단학보 77, 진단학회, 111-137.  
金重鎭(1999), 『국어표기사연구』, 태학사.  
백두현(2009), 훈민정음을 활용한 조선시대의 인민 통치, 진단학보 108, 진단학회, 263-297.  
백두현(2015), <한글문헌학>, 태학사.  
成煥甲(2005), <창진방찰요> 해제, 국어사연구5, 국어사학회, 175-332.  
안대현(2007) 『창진방찰요』의 서지와 언어, 국어사연구, 7, 71-105.

- 안병희(1975), <여씨향약언해>의 원간본에 대하여, 대한민국학술원, 393-412.
- 안병희(1976), 『여씨향약언해』,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안병희(1979), 중세어의 한글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 「규장각」 3, 109-147.
- 안병희·이광호(1991),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 안병희(2009), 국어사 문헌 연구, 신구문화사.
- 여찬영(2007), <정속언해>의 번역언어학적 연구, 우리말글 40. 우리말글학회.
- 여찬영(2008), 김안국의 국어학적 위치, 언어과학연구 46, 언어과학회, 43-62.
- 유창돈(1971), 「이조어사전」, 연세대출판부.
- 윤용선(2012), 諺解 자료의 역사와 언어 양상에 대한 검토, 우리말글 56, 우리말글학회, 139-168.
- 李德興(1987), <正俗諺解>에 나타난 口訣의 考察, 「어문연구」 15-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48-266.
- 李翊燮(1992), 『國語表記法研究』, 서울대학교출판사.
- 이정일(1999), <正俗諺解> 語彙의 方言的 檢討, 동국어문논집 8, 동국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154-174.
- 이호권(2008), 조선시대 한글 문헌 간행의 시기별 경향과 특징, 한국어학 41, 한국어학회, 83-114.
- 정연찬(1984), 중세국어의 한 조사(助詞) '-으란'에 대하여 -대제격으로 세운다-, 국어학 13, 국어학회, 1-31.
- 지정민(1996), 조선전기(朝鮮前期) 서민(庶民) 문자교육(文字教育)에 관한 연구(研究)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의 교화서(教化書) 언해사업(諺解事業)을 중심(中心)으로-, 교육사학연구 7, 교육사학회, 97-117.
- 최영미(2011), <여씨향약언해>와 <이륜행실도>의 표기법 비교 -중앙과 경상도에서 간행한 문헌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47, 겨레어문학회, 259-309.
- 홍윤표(1984), <정속언해 해제>, <정속언해>, 홍문각, 1-17.
- 홍윤표(1989), <이륜행실도 해제>, <이륜행실도>, 홍문각, 1-6.



“김안국 편찬 <여씨향약언해>와 <정속언해>의 언해자에  
대한 고찰” 토론문

박부자(성신여대)

(별지 참조)



#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ㅁ-’의 기능에 관한 연구

성우철(고려대학교)

<목차>
1. 서론
2. ‘-ㅁ-’의 기능 분석을 위한 이론적 검토
2.1. 화자의 외연과 현토자의 지위
2.2. 높임의 대상과 사회적 관계
2.3. 간접 용법의 세 가지 유형
3.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ㅁ-’의 기능
3.1. 객체를 높이는 경우
3.2. 내포절의 주체를 높이는 경우
3.3. 주체를 높이는 경우
3.4. 기타 예외적 용례에 대한 해석
4. 결론

## 1. 서론

본 연구는 ‘-ㅁ-’의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준거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ㅁ-’의 모든 용례를 검토하여 그 기능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높임 요소의 기능에 대한 분석이 어떤 준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한 깊은 고민 없이 각 연구자의 직관이나 판단에 따라 ‘-ㅁ-’의 기능을 산발적으로만 분석해 왔다. 이러한 경향은 지금까지도 ‘-ㅁ-’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지니고 있었는지에 관한 일반적 해석이 마련되지 못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

본 연구의 초점은 문헌상에 ‘-ㅁ-’이 쓰였을 때 그것이 왜 쓰였는지 밝히는 데에 있다. 비슷한 구문 가운데 ‘-ㅁ-’이 쓰인 예와 쓰이지 않은 예를 비교하고, 그것이 왜 쓰이지 않았는지 밝히는 것 역시 ‘-ㅁ-’에 관한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주제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까지 아울러 다루지는 않기로 한다. ‘-ㅁ-’이 어떤 경우에 왜 쓰이지 않았는지는 ‘-ㅁ-’가 어떤 경우에 왜 쓰였는지를 정밀하게 밝힌 뒤에야 비로소 다루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ㅁ-’이 쓰인 자토석독구결 자료 『화엄경소』 권35, 『화엄경』 권14, 『자비도량참법』 권4, 『구역인왕경』 권상, 『합부금광명경』 권3, 『유가사지론』 권20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이하 각기 <화소>, <화엄>, <자비>, <구역>, <금광>, <유가>로 약칭함). 이들 문헌은 크게 주체 높임의 ‘-ㅁ-’이 쓰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뉘는데(문헌수 2020) <화소>, <화엄>, <자비>는 전자에 속하며 <구인>, <금광>, <유가>는 후자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전자를 A류 문헌, 후자를 B류 문헌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 2. ‘-ㅁ-’의 기능 분석을 위한 이론적 검토

절에 실현된 어떤 문법 요소가 특정 성분이 지시하는 개체를 높인다고 할 때, 그 문법 요소의 기능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그 절을 발화한 화자는 누구인가. 둘째, 그 문법 요소가 높이는 성분은 어떤 개체를 지시하는가. 셋째, 그 문법 요소가 각 성분이 지시하는 개체 가운데 어느 한쪽이 더 높은 지위에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때, 개체 간의 관계에 관한 판단은 화자의 관점에 기반을 두는가 다른 이의 관점에 기반을 두는가. 넷째, 특정 성분이 지시하는 개체가 곧바로 높임의 대상이 되는가 아니면 그것과 관련을 맺는 다른 개체가 궁극적인 높임의 대상이 되는가. 이 장에서는 위의 네 가지 질문에 답함으로써 ‘-ㅁ-’의 기능 분석을 위한 준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 2.1. 화자의 외연과 현토자의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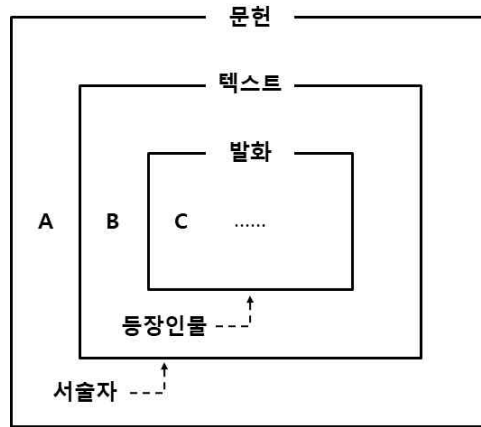
높임 요소의 기능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화자의 외연을 정확히 판정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은 이미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른 많은 문헌이 그러하듯이 자토석독구결 자료도 여러 층위의 담화로 이루어지며, 어떤 절에 선어말어미 ‘-ㅁ-’이 쓰인 경우 그것이 어느 담화 층위에 있는 어느 화자에 의해 발화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ㅁ-’의 기능을 현토자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일이 적지 않았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현토자와 서술자를 사실상 같은 개체처럼 다루기도 하였다.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높임 요소의 기능을 분석하는 데에 현토자에 관한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나, 현토자 자신의 관점이 텍스트 내 높임 요소의 쓰임에 반영된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헌 외부에 존재하는 현토자와 문헌 내부에 존재하는 서술자는 엄밀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이것은 시를 분석할 때 시인과 시적 화자를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 2.1.1. 담화의 층위와 화자의 외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화소>, <화엄>, <자비>, <구역>, <금광>, <유가>는 모두 불경에 속하는 문헌이다. 그러나 불경이라고 해서 모든 담화가 단일한 층위에서 평면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화자가 되어 다른 이야기를 발화하기도 하고, 그 인물의 생각이 서술자에 의해 제시되기도 하며, 텍스트 속에 다른 경전의 내용이 인용되는 동시에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또다시 화자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다층적 성격은 서사가 존재하는 모든 유형의 문헌에서 관찰되지만,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관한 기존의 논의에서는 그리 자세히 논의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정한 문헌 내 담화의 층위를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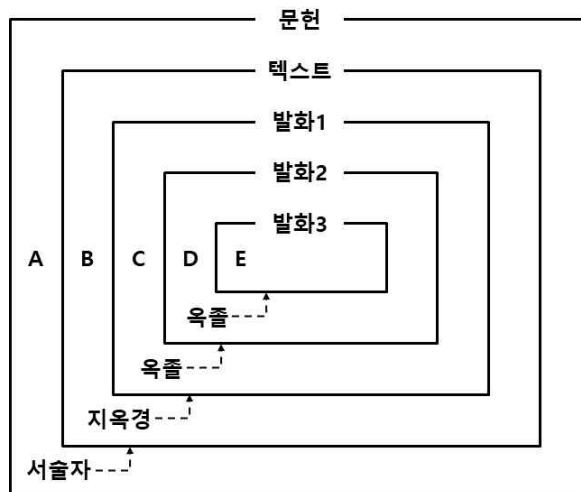
<그림 1> 문헌 내 담화의 서로 다른 층위

문헌 내 담화의 여러 층위 가운데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는 것은 서술자가 존재하는 층위이다. 서술자는 문헌 내부에 존재하지만, 텍스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다. 다시 말해 서술자는 텍스트 외부에서 텍스트의 내용을 전개한다. 서술자가 존재하는 층위는 텍스트상에는 드러나지 않는 추상적 층위이다. 문헌의 주된 내용을 전개하는 地文을 서술자에 의한 발화로 본다면, 텍스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서술자의 발화 속에 언급되는 개체로 볼 수 있다. 이 인물에 의한 발화가 텍스트 속에 제시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담화의 중첩이 일어나게 된다. 담화의 중첩은 이론상 무수히 일어날 수 있으나,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네 층위 이상의 중첩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sup>1)</sup>

인용 구문을 분석할 때 인용 화자와 원 화자를 구분해야 하듯이, 서술자에 의한 발화와 텍스트 속 등장인물에 의한 발화도 구분되어야 한다. 원 화자는 인용 화자에 의해 언급되는 대상이지만 인용 화자와는 별개의 개체로 인식되며, 텍스트 속 등장인물 역시 서술자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이러한 구분은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도 유의미하다.

(1) 가. 爾ニ時ト佛ノ大衆ヲ告スニテ [十六 大國王ノ意ヲ國土ニ護ルノ爲ニ 因緣

1)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가장 많은 담화가 중첩되어 있는 것은 <자비>의 ‘地獄經’ 부분(20:04-21:21)으로 모두 다섯 개의 층위가 중첩되어 있다. 이를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乙 問白{欲}ハツニトウヲ入ル[火] 知白ヲロウヲミツテ 吾ヲ今ツテ 先ヲ諸ヲ菩薩  
{爲}ニテ 佛果ヲ護ノクセ 因緣ニ 十地ヲ行テ 護ノクセ 因緣ニノ乙 說白ヲテセ | 諦  
リ 聽ホ 諦リ 聽カ 善カ 之乙 思ツル 念ツルツカ 法乙 {如}直 修行ツカツナリ] ヨロハ  
ニ 1 <구역 03:17-20>

그때 부처는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十六 大國王이 뜻에 국토를 수호할 인연을 묻고  
자 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우선 모든 보살을 위하여 佛果를 지킬 인  
연이니 十地의 行을 지킬 인연이니 하는 것을 말하겠다. 자세히 들고 자세히 들으며, 이  
것을 잘 생각하고 생각하며, 법대로 수행하며 하여라.”] 하셨는데

- 나. 菩薩摩訶薩 1 {是}리 如支ツテ 念乙 作ツテ 一切 衆生 1 {於}生死 中 3 十 3  
多聞 1 無 1 有 {此}리 一切 法 乙 了知 不(ノ)能 1 我 1 當ハ  
發意 3 多聞藏 乙 持 3 阿耨多羅三藐三菩提 乙 證 3 諸 1 衆生 3 爲 [三] 眞  
實法 乙 說 3 1] ヨロハ 入 乙 {是}리 乙 名 下 菩薩摩訶薩 5 第 七 多聞藏 : ノ  
ナ 1 <화소 08:19-09:04>

菩薩摩訶薩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기를 [‘일체 중생은 생사의 가운데에 있어 多聞함이  
없으니, 이 일체 법을 아는 것을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이라서, 나는 마땅히 發意하여서  
多聞藏을 지니고서 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證得하여서 모든 중생을 위하여 眞實法을 말  
하겠다.’] 하는 것을 일컬어 菩薩摩訶薩의 다섯 번째의 多聞藏이라 하는 것이다.

- 다. 經 3 十 云 1 閻羅王 1 一念 乙 {之} 惡 入 乙 便 獄 事 乙 總 3 自 3 身 3 十 苦 乙 受 3  
亦 1 論 3 可 乙 不 1 閻羅大王 1 昔 1 毘沙國王 乙 王 1 爲 {爲} 入  
3 1 3 …(중략)… 誓願 乙 立 1 願 1 我 1 後 生 3 十 地獄 3 七 主 1 爲 {爲} 入  
3 3 此 罪人 乙 治 1 1 毘沙國王 3 十 八 大臣 : 及 乙 百 1 萬 衆 : ノ  
3 3 皆 乙 悉 3 同 1 願 乙 3 …(후략)… 經 3 3

經에서 이르시기를 [“閻羅王은 一念의 악 때문에 곧 옥사를 맡아 제 몸에 고통을 받되  
또한 (그 고통은)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閻羅大王은 옛날 毘沙國의 왕이 되어 있었  
는데 …(중략)… 서원을 세우기를 [‘원컨대 나는 후생에 지옥에 있는 주인이 되어서 이  
죄인을 다스리겠다.’] 毘沙國王 하였으며, 十八 大臣이니 및 백만 대중이니 하는 이도 모두  
다 같이 서원을 하였다. …(후략)…”] 하셨으며

(1가)에서는 부처의 발화가 인용되고 있고, (1나)에서는 수행자(‘菩薩摩訶薩’)의 생각이 인용  
되고 있다. (1가)의 부처와 (1나)의 수행자는 (서술자에 의해 인용된 절의) 원 화자로서 텍스트  
층위에 존재하며, (텍스트 밖 층위에 존재하는) 인용 화자인 서술자와는 독립된 개체로 인식된  
다. (1다)는 조금 더 복잡한데, 여기에서 서술자는 다른 경전의 내용을 마치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듯이 인용하고 있다. 불경은 부처, 즉 깨달은 자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이며, 따라서 불경  
의 내용을 일종의 발화처럼 인용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경전의 내용 속에 언급  
되는 대상인 ‘毘沙國王’은 <그림 1>의 C 층위에 존재하게 되며, 이때 ‘毘沙國王’의 발화는 실  
제로 말한 것일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일 수도 있다.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ㅁ-’의 기능을 분석할 때 그 절의 화자가 어느 담화 층위에  
존재하는 누구인지 정확히 판정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개체 간의 사회적 관계를 파악할 때  
화자의 관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발화한 절에 ‘-ㅁ-’이 쓰인 경  
우, 화자의 시각이 개입되지 않은 주체와 객체의 객관적 관계에 근거하여 쓰인 것일 수도 있  
고, 혹은 화자와 객체의 주관적 관계에 근거하여 쓰인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둘 다일 수도 있  
다(3.2절 참고). 여기에서 화자는 서술자일 수도 있고 텍스트 속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일 수도  
있다.

텍스트 속 등장인물이 화자이고 이 화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높임 요소가 쓰인 경우, 그

인물이 존재하는 담화의 층위 바깥에 있는 서술자의 관점은 배제될 수 있다. “철수는 영희에게 ‘여기 앉으세요.’라고 말했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시-}가 쓰인 것은 원 화자인 ‘철수’의 관점에 근거한 것이지 인용 화자의 관점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높임 요소가 쓰이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 사람은 선생님께 ‘여기 앉아.’라고 말했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인용된 절에 어떤 높임 요소도 쓰이지 않은 것은 원 화자인 ‘그 사람’의 관점에 근거한 것이지 인용 화자의 관점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인용 구문은 인용 화자에 의한 해석의 결과이지만, 인용된 절은 근본적으로 원 화자에 의해 발화된 것이기 때문이다.<sup>2)</sup>

### 2.1.2. 구결 자료의 성격과 현토자의 지위

현토자는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높임 요소의 기능을 설명하는 데에 흔히 고려되어 온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특정 구절에 어떤 토를 달아야 할지 선택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현토자의 몫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경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현토자가 자기 자신의 관점에 근거하여 높임 요소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현토자는 서술자나 등장인물과 달리 문헌 외부에 존재하며, 문헌 내부에 있는 화자의 관점에 근거하여 높임 요소의 사용을 결정한다.

자토석독구결 텍스트는 순수하게 한국어를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한문을 한국어로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자 결과로 볼 수 있다(장경준 2011, Whitman 2011). 따라서 현토자는 그러한 텍스트를 생산해 낸 주체가 아니라, 한문으로 된 텍스트를 한국어로 해석하여 구결의 형식으로 기록한, 일종의 번역자에 가까운 지위를 가진다. 자토석독구결 텍스트는 한문 원문에 대한 현토자의 이해를 반영하지만, 이것은 한문 원문의 의도를 현토자 자신의 언어적 직관에 따라 적절히 해석한 결과일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높임 요소의 기능을 설명하는 데에 현토자에 관한 요인을 지나치게 넓게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당시의 언어적 사실을 이해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거의 비슷한 한문 원문에 대한 현대 한국어 번역 텍스트와 자토석독구결 텍스트를 비교해 봄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하자.

(2) 가. 爾時 佛告大衆 知十六大國王意欲問護國土因緣 吾今先爲諸菩薩 說護佛果因緣 護十地行因緣 諦聽諦聽 善思念之 如法修行 時 波斯匿王言 善 大事因緣故 即散百億種色華 變成百億寶帳 蓋諸大衆 時 波斯匿王言 善 大事因緣故 <불설인왕반야바라밀경 권1 4:11-15>

나. 그때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열여섯 큰 나라 왕의 뜻이 국토를 보호할 인연을 묻고자 하는 것임을 아노라. 내가 지금 먼저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불과(佛果)를 보호하는 인연과 10지행(地行)의 인연을 설할 것이니, 자세히 들으라. 자세히 듣고 잘 그것을 생각하여 법답게 수행하라.” 이때 바사닉왕이 말하였다. “거룩한 큰일의 인연[大事因緣]인 까닭이다.”

다. 爾時佛告大衆ヲ告ニテ 十六大國王ニ 意ヲ問フ 護國土之因緣 吾今先爲諸菩薩 說護佛果因緣 護十地行因緣 諦聽諦聽 善思念之 如法修行 時 波斯匿王言 善 大事因緣故 即散百億種色華 變成百億寶帳 蓋諸大衆 時 波斯匿王言 善 大事因緣故

2) 李賢熙(1986)에서 지적되었듯이 간접 인용 구문의 경우 청자 높임(‘恭遜法’)은 중화되지만, 지시 대상 높임(주체 높임, 객체 높임)은 그렇지 않다. 물론 “철수는 영희에게 ‘여기 앉으세요.’라고 말했다.”라는 문장을 “철수는 영희에게 여기 앉으시라고 말했다.”가 아닌 “철수는 영희에게 여기 앉으라고 말했다.”라고 바꾸어 말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후자의 경우 철수와 영희의 사회적 관계는 기존의 그것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 즉 후자의 문장은 철수가 영희에게 존대를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사태가 기존의 문장과는 다른 것으로 해석된다.

{爲}ニテ 佛果ニ 護ノクセ 因緣：十地ニ 行ニ 護ノクセ 因緣：ノニ 説白リテセリ 諦  
 ニ 聽ホ 諦ニ 聽ホ 善ハ 之ニ 思ッテ 念ッテ 法ニ {如}ニ 修行ッテ 善ハ 善ハ  
 ニ 時ニ 波斯匿王ニ 言ニテ 善ニテ 大事ニ 因緣ニ 故ノニ 行ニ 行ニ 行ニ  
 <구역 03:17-20>

그때 부처는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十六 大國王이 뜻에 국토를 수호할 인연을 묻고자  
 하시니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우선 모든 보살을 위하여 佛果를 지킬 인연이  
 니 十地의 行을 지킬 인연이니 하는 것을 말하겠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며 이것을  
 잘 생각하고 생각하며 법대로 수행하며 하여라.” 하셨는데 그때 波斯匿王은 이르시기를  
 “훌륭하시구나. 큰일의 인연으로 (말씀)하시니 것이구나.” 하고

(2가)는 재조대장경판 『불설인왕반야바라밀경』 권1의 내용 가운데 일부이며, (2나)는 불교기  
 록문화유산 아카이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2가)에 대한 현대 한국어 번역문이다. (2나)와 (2다)  
 에 나타난 높임 요소의 쓰임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부  
 처의 발화 속에 언급된 ‘十六 大國王’의 행위에 대해 (2나)에서는 주체 높임의 {-시-}를 사용  
 하지 않았으나 (2다)에서는 주체 높임의 ‘-=-’를 사용하였다. 둘째, 서술자의 발화 속에 언급  
 된 ‘波斯匿王’의 행위에 대해 (2나)에서는 주체 높임의 {-시-}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2다)에서  
 는 주체 높임의 ‘-=-’를 사용하였다. 셋째, ‘波斯匿王’의 발화 속에 언급된 부처와 관련된 사  
 태에 대해 (2나)에서는 주체 높임의 {-시-}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2다)에서는 주체 높임의 ‘-  
 =-’를 사용하였다.

(2나)에 나타난 모든 높임 요소는 번역자에 판단에 따라 실현된 것이고, 마찬가지로 (2다)에  
 나타난 모든 높임 요소는 현토자의 판단에 따라 실현된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판단에 관여하  
 는 것은 현토자 자신의 관점이 아닌 문헌 내부에 있는 화자의 관점이다. (2나)의 번역자는 부  
 처가 ‘十六 大國王’에게 존대를 나타내지 않으리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시-}를 사용하지 않  
 은 것이며, (2다)의 현토자는 반대로 부처가 ‘十六 大國王’에게 어느 정도 존대를 나타내리라  
 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를 사용한 것이다. 후자와 같은 해석은 <구역>에서 부처가 ‘十六  
 大國王’ 중 한 명인 ‘波斯匿王’을 부르는 데에 항상 존칭의 호격 조사 ‘-ㄱ’을 사용한다는 점  
 에서도 뒷받침될 수 있다. 이러한 높임 요소의 사용은 현토자의 언어적 직관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현토자 자신의 관점이 아닌 문헌 내부에 있는 화자, 즉 부처의 관점에 근거를  
 두는 것이다.

문헌 내 담화의 가장 바깥쪽 층위에 존재하는 서술자의 발화도 마찬가지이다. (2나)의 번역  
 자는 서술자가 ‘波斯匿王’에게 존대를 나타낼 필요가 없다고 보았으나, (2다)의 현토자는 서술  
 자가 ‘波斯匿王’에게 존대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두 가지 처리 방안 가운데  
 어느 쪽이 옳다거나 어느 쪽이 그르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2나)의 번역자와 (2다)의 현토자는  
 각자가 가진 언어적 직관과 세상살이에 관한 지식에 맞게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언어 요  
 소를 사용한 것일 뿐이다. 높임 요소의 사용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고정적  
 이고 규범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상황이나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이고 가  
 변적인 것에 가깝다.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예로 황선엽(1993)에 언급된 「안락국태자전」에서의 높임 요소의  
 사용 양상이 있다. 『월인석보』에 수록된 「안락국태자전」의 ‘釋譜詳節部’에서는 원앙부인(‘觀世  
 音菩薩’), 안락국(‘大勢至菩薩’), 승열바라문(‘文殊菩薩’)에게 {-시-}를 사용하지 않으나, ‘月曲  
 部’에서는 같은 대상에게 {-시-}를 사용하고 있는데, 황선엽(1993)에서는 이것을 (문헌 외부에  
 있는) 생산자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문헌 내



그때 부처는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중략)… 그때 波斯匿王은 이르시기를 “훌륭하시구나. 큰일의 인연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나. 善男子; 是 陁羅尼七 名一 恒河沙數乙 過<sup>ニ</sup>一 諸 佛<sup>リ</sup> 初地菩薩乙 救護<sup>ツ</sup>{爲}ス<sup>ノ</sup> 白<sup>ノ</sup> 一<sup>ニ</sup> 一<sup>リ</sup> 此 陁羅尼呪乙 誦持<sup>ツ</sup> 白<sup>ク</sup> 入<sup>リ</sup> 得<sup>ル</sup> 一<sup>ホ</sup> 一切 怖畏<sup>リ</sup> 一<sup>切</sup> 惡獸<sup>ニ</sup> 一切 惡鬼<sup>ニ</sup> 人非人 等<sup>ツ</sup> 一<sup>レ</sup> 災橫<sup>ニ</sup> 諸惱<sup>ニ</sup> 一<sup>レ</sup> 度脫<sup>ツ</sup> 五障乙 解脱<sup>ツ</sup> 一<sup>レ</sup> <금광 09:07-10>

善男子여, 이 陁羅尼의 이름은 一 恒河沙數를 넘으신 모든 부처가 初地菩薩을 救護하고 자 (그것을 말씀)하시 분이신 것이라서, 이 陁羅尼呪를 誦持하면 능히 일체 怖畏인 일체 惡獸니 일체 악귀니 人非人 같은 것이니 災橫이니 모든 번뇌이니 하는 것을 度脫하여 五障을 해탈하며

나'. 是 時<sup>ト</sup> 師子相無礙光焰菩薩 一 …(중략)… 卽<sup>ノ</sup> 偈頌<sup>乙</sup> {以} 而<sup>シ</sup> 佛<sup>乙</sup> 讚歎<sup>ツ</sup> 白<sup>ニ</sup> 尸 敬禮<sup>ツ</sup> 白<sup>ク</sup> 一<sup>レ</sup> 譬喩<sup>ツ</sup> 一<sup>レ</sup> 深無相義<sup>乙</sup> 說<sup>ニ</sup> 一<sup>レ</sup> 一<sup>レ</sup> …(후략)… <금광 13:01-04>

이때 師子相無礙光焰菩薩은 …(중략)… 곧 계승으로써 부처를 찬탄하시기를 “敬禮합니다. 비유할 바 없으시어 深無相義를 설법하시는 것을. …(후략)…”

(3가)의 화자는 ‘부처S’로서 문헌의 서술자나 텍스트 속 등장인물 ‘波斯匿王’ 등에게 존대를 받는 인물이다(3가). (3가)의 발화 속에 언급된 ‘佛’은 비한정적이고 불특정한 ‘부처G’인데, 화자인 ‘부처S’는 절의 주체인 ‘부처G’를 높이는 데에 ‘-白-’을 사용하고 있다. (3나)의 화자도 ‘부처S’이며 문헌의 서술자나 텍스트 속 등장인물 ‘師子相無礙光焰菩薩’ 등에게 존대를 받고 있다(3나). (3나)에서는 화자가 언급한 ‘佛’이 ‘부처G’임이 수식어 ‘諸’에 의해 명시되어 있는데 <구인>, <금광>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諸’에 ‘= 1’이라는 토가 달리기도 한다. (3나)에서도 화자인 ‘부처S’가 주체인 ‘부처G’를 높이는 데에 ‘-白-’을 사용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화자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에 ‘-白-’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한 예 가운데 일부는 ‘부처S’와 ‘부처G’를 같은 인물로 파악한 결과로 이해된다. 다음의 (4가, 나)는 백두현 (1995)에서 “부처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겸양한 것”으로 해석한 예이다.

(4) 가. 爾<sup>レ</sup> 時<sup>ト</sup> 佛<sup>一</sup> 大衆<sup>ヲ</sup> 告<sup>フ</sup> 一<sup>レ</sup> 十六 大國王<sup>ニ</sup> 意<sup>ヲ</sup> 國土<sup>乙</sup> 護<sup>ル</sup> 一<sup>レ</sup> 因緣<sup>乙</sup> 問<sup>ハ</sup> {欲} 一<sup>レ</sup> 知<sup>ル</sup> 一<sup>レ</sup> 吾<sup>一</sup> 今<sup>一</sup> 先<sup>一</sup> 諸<sup>一</sup> 菩薩 {爲} 佛<sup>果</sup> 護<sup>ル</sup> 一<sup>レ</sup> 因緣<sup>一</sup> 一<sup>レ</sup> 說<sup>ク</sup> 一<sup>レ</sup> <구인 03:17-19>

그때 부처는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十六 大國王이 뜻에 국토를 수호할 인연을 묻고자 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우선 모든 보살을 위하여 佛果를 지킬 인연이니 十地의 行을 지킬 인연이니 하는 것을 말하겠다.”

나. 眞義<sup>乙</sup> 得<sup>ル</sup> 說<sup>ト</sup> 一<sup>レ</sup> 思議<sup>ノ</sup> 不<sup>レ</sup> 度<sup>ル</sup> 一<sup>レ</sup> 唯<sup>ハ</sup> 佛<sup>ス</sup> 與<sup>テ</sup> 佛<sup>ス</sup> 乃<sup>シ</sup> {斯} 事<sup>乙</sup> 知<sup>ル</sup> 一<sup>レ</sup> 善男子; 其 說<sup>ク</sup> 一<sup>レ</sup> 所<sup>ニ</sup> 十四 般若波羅蜜<sup>一</sup> 三忍<sup>一</sup> 地<sup>ニ</sup> 上<sup>ニ</sup> 中<sup>ニ</sup> 下<sup>ニ</sup> 一<sup>レ</sup> 三<sup>十</sup> 忍<sup>一</sup> 一<sup>レ</sup> 一切(行藏 一切佛藏 不可思議) <구인 11:23-25>

眞義를 얻어 설법하는 것이라서思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度量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부처와 더불어 부처이시어야 곧 이 일을 아실 수 있다. 善男子여, 그 설법하신 바의 十四般若波羅蜜인 三忍이니 地地에 上中下마다 있는 三<sup>十</sup> 忍이니 하는 一切(行藏 一切佛藏 不可思議)

(4가)와 (4나)의 화자는 모두 ‘부처S’이다. 백두현(1995)에서는 이 두 예를 모두 주체 높임으

로 파악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4나)의 ‘-白-’만을 주체 높임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4가)의 ‘-白-’은 (4나)와 달리 객체 간접 높임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4가)에서 ‘說白うて七1’의 목적어는 ‘佛果를 지킬 因緣’과 ‘十地の 行을 지킬 因緣’인데, 이 두 개념은 모두 ‘부처G’의 가르침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2.3.1항 참고). 불가에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은 모두 깨달은 자, 즉 부처가 중생을 위해 설법한 것이기 때문이다.

(4나)의 화자인 ‘부처S’는 ‘부처G’를 언급하는 데에 주체 높임의 ‘-ニ-’를 사용하고 있으며, ‘說白うて1’에 ‘-白-’이 사용된 것 역시 주체인 ‘부처G’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 경우 ‘說白うて1’의 피수식어가 되는 ‘三忍’과 ‘三十忍’도 (4가)의 ‘因緣’과 비슷한 방식으로 ‘부처G’와의 관련성이 추론될 수 있다. 이처럼 주체뿐만 아니라 객체까지도 주체와의 관련성에 따른 높임의 대상에 포함될 만한 맥락에 나타나는 ‘-白-’의 용법에 대해서는 2.3.3항에서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부처S’와 ‘부처G’의 구분은 객관적 관계와 주관적 관계를 판별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자토석독구결 자료의 경우 청자 높임의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불분명한 점이 많은데, ‘부처G’는 서술자를 포함하여 문헌 내부에 있는 어떤 개체보다도 높은 지위에 있는 인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白-’의 기능을 일관되게 분석하기 위한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無上尊, 如來, 世尊’ 등의 표현이 쓰인 경우, ‘부처S’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부처G’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지시 대상이 ‘부처S’인지 ‘부처G’인지는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로 작용한다.

### 2.2.2. 실현되지 않은 논항의 문제

중세 한국어 {-습-}이 절에 실현된 어떤 성분을 통해 그것이 지시하는 개체를 높인다고 할 때, 그러한 성분에는 목적어를 포함하여 주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논항이 포함될 수 있다(安秉禧 1982). 언어 요소로 실현된 성분이 아닌 그것이 지시하는 개체에 초점을 맞추어 달리 표현하자면, 주체 이외에 그 절이 나타내는 사태에 현저하게 영향을 받는 개체라면 모두 객체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다.<sup>3)</sup>

문제는 맥락상 둘 이상의 논항을 가질 것으로 생각되는 절에 하나의 논항만이 실현된 경우, 높임 요소가 절에 실현된 성분이 가리키는 개체를 높이는 데에 쓰인 것인지 아니면 생략된 논항이 가리키는 개체를 높이는 데에 쓰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白-’의 기능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이것이 골머리를 썩게 만드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절 내에 직접 목적어만 실현되고 간접 목적어는 실현되지 않은 경우이다.

(5) 가. 仰願ソ白ロ入テ1 [同ニ 慈悲セ力; 安慰衆生力; 無量自在力; 量無テ大神通力;  
ノ乙以テハ 今日 道場ヲセ 同ニ 阿鼻大地獄ヲ苦乙受トテセ 一切 衆生ヲ 爲シ  
懺悔ノテ] <자비 18:09-12>

仰願하는 것은, [함께 자비의 힘이니 安慰衆生力이니 無量自在力이니 한량없는大神通力이니 하는 것으로써, 今日 도장에 있으면서 함께 阿鼻大地獄에서 꿈을 받는 일체 중생을 위해 참회하는 것이니]

나. 是時十 師子相無礙光焰菩薩1 …(중략)… 卽ノ 偈頌乙 {以}ニ 而… 佛乙 讚歎ソ白ニ

3) {-습-}에 의한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성분의 범위에 대해서는 김태우(2018: 48-53) 참고. 주체와 객체를 정의하는 데에 있어서 절에 실현된 성분이 아닌 그 성분이 지시하는 개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許雄(1954) 참고.





(6나)의 ‘我1 今1 說ノ尸 無七白1’는 영어로는 ‘there is nothing for me to talk about’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구문으로, 여기에서 ‘說ノ尸’은 비한정적인 지시를 가진다. 요컨대 ‘無七白1’의 목적어는 의미상 어떤 개체도 지시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높임의 대상이 되기도 어렵다. 여기에서 가능한 해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불경의 특성상 ‘說ノ尸’이 한정적인 지시를 가질 수도 있으며 그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七佛의 계송’이라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체가 말할 것을 들을 인물인 ‘波斯匿王’을 높이는 데에 ‘-ㅅ-’이 쓰였다고 보는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이 두 가능성 가운데 어느 한쪽을 지지하기는 어렵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객체가 통사 층위가 아닌 의미·화용 층위에 있는 개념이라는 점이다(許雄 1954). 따라서 그것이 절에 특정 성분으로 실현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객체 높임 요소의 기능을 분석하는 데에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토석독구결 문헌과 같이 연구자의 언어적 직관을 동원하기 어려운 자료를 다룰 경우,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문제에 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맥락상 추론 가능한 논항 가운데 일부가 절에 실현되지 않은 용례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준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객체 높임과 주체 높임을 판별할 때는 절에 실현된 성분만을 고려한다. (5)와 (6)은 모두 주체가 화자라는 점에서 주체 높임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객체 높임에서의 세부적인 구분만이 문제가 된다. 둘째,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2.3절 참고)을 판별할 때는 생략된 논항이 지시하는 개체까지 고려한다. 절에 실현된 성분과 생략된 논항 간의 우선순위는 부처와의 관련성(2.2.1항 참고)에 따라 부여한다. 즉 부처와의 관련성이 높은 논항이 높여진다고 보는 해석을 선호한다(‘부처S’와 ‘부처G’ 가운데는 ‘부처G’가 더 우선시된다).

### 2.2.3. 객관적 관계와 주관적 관계

선어말어미 {-습-}이 주체 이외에 그 절이 나타내는 사태에 현저하게 영향을 받는 개체, 즉 객체를 높이는 데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객체 높임과 관련한 {-습-}의 쓰임에 어떤 대상과의 관계가 고려되었는지는 연구자에 따라 견해가 갈린다. 許雄(1954)은 객체가 화자보다 높은 지위에 있을 때 {-습-}이 쓰인다고 보았고, 全在寬(1958)은 주체가 객체보다 낮은 지위에 있을 때 {-습-}이 쓰인다고 보았으며, 安秉禧(1961)는 객체가 주체보다도 높고 화자보다도 높은 지위에 있을 때 {-습-}이 쓰인다고 보았다. {-습-}의 기능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대개 이 세 견해 가운데 하나를 받아들이고 있다(김태우 2018: 각주 4 참고).

{-습-}의 기능에 관한 논의가 혼란을 빚어 온 원인은 이 세 견해가 모두 어느 정도 문헌상에 드러나는 중세 한국어의 언어적 사실에 들어맞는다는 데에 있다. 하나의 문법 요소가 어떤 때는 화자와 객체의 관계를 고려하여 객체를 높이고, 어떤 때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고려하여 객체를 높이며, 어떤 때는 화자와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객체를 높이는 것은 기이한 일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이 세 견해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하여 {-습-}의 기능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일종의 단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둘 이상의 기능을 아울러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김동식(1984)에서는 화자가 객체를 화자와 주체보다 높다고 판단할 때와 화자보다는 낮으나 주체보다는 높은 객체를 높게 대우할 때 모두 {-습-}이 쓰일 수 있다고 보았으며, 황선엽(1993)에서는 {-습-}의 쓰임에 텍스트 내적인 인물 간의 관계와 텍스트 외적인

생산자의 인식이 모두 반영되며, 후자에 의해 전자가 무시되는 일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결국 {-습-}의 기능을 온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언급되어 온 서로 다른 기준이 모두 동원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김태우(2018)에서는 {-습-}의 쓰임에 화자의 시각이 개입되지 않은 주체와 객체의 객관적 관계와 화자가 바라본 화자와 객체의 주관적 관계가 모두 관여함을 밝히고, 전자만 고려되어 {-습-}이 쓰인 경우 객관적 용법으로, 후자만 고려된 경우 주관적 용법으로, 전자와 후자가 모두 고려된 경우 종합적 용법으로 구분하였다. 객관적 관계와 주관적 관계를 판별하기 위한 언어 내적 근거로는 객체 높임 이외의 다른 높임 요소의 실현을 들었는데, 전자는 주체와 객체가 서로에게 어떤 청자 높임 요소를 사용하는지를 통해 알 수 있으며, 후자는 화자가 그 인물을 언급할 때 {-으시-}를 사용하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

객관적 관계		
인물 A (上)	← ㅎ니다 ← → ㅎ니다 →	인물 B (下)

주관적 관계	
화자보다 상위의 인물	-시-
화자보다 하위의 인물	∅

<그림 2> 객관적 관계와 주관적 관계의 판별 기준(김태우 2018: 25)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자토석독구결 자료의 경우 종결형에 쓰인 선어말어미 ‘-ㅁ-, -ㅅㅅ-’이나 종결어미 ‘-ㅅ’ 등이 청자 높임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박진호 1998), ‘-ㅁ-’의 대상이 되는 개체가 각 텍스트 내에서 대화 상황에 참여하는 인물인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ㅁ-’의 기능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청자 높임 요소의 쓰임을 토대로 객관적 관계를 판별할 수 있는 문헌은 <구인>, <금광>으로 한정된다.

(7) 가. 爾ニ時ト 大王ヲ 復シ 起リ 作禮シ 佛ノ 白ク 言フ 世尊下 一切 菩薩  
 云何ニ 佛果ト 護ツ 云何ニ 十地ト 行ヒ 護ル 因緣ニ 護ル  
 <구인 03:22-23>

그때 대왕은 또한 일어나 예를 갖추고 부처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일체 보살은 어떠한 것을 佛果를 지키며, 어떠한 것을 十地의 行을 지킬 인연이라고 하겠습니까?”

나. 是 時ト 師子相無礙光焰菩薩ヲ …(중략)… 卽チ 偈頌ニ 佛ノ 讚歎シ  
 敬禮シ 譬喩ヲ 深無相義ト 說フ 法界ト 分別 無シ 是 故ニ 異リ 乘 無シ 衆生ト 度フ 爲ス 故ニ 分別ス 三乘ト 說フ  
 <금광 13:01-04>

이때 師子相無礙光焰菩薩은 …(중략)… 곧 계송으로써 부처를 찬탄하시기를 “敬禮합니다. 비유할 바 없으시어 深無相義를 설법하시는 것을. …(중략)… 法界는 분별이 없으니 이런 까닭으로 다른 乘 없거늘 증생을 제도하고자 하시는 까닭으로 분별하여 三乘을 설법하신 것입니다.” 하셨다.

다. 是 時ト 大自在梵王ヲ …(중략)… 佛 白 言 世尊下 希有難量ノ 是 金光明經ト  
 微妙ニ 義ト 究竟 滿足ニ 皆 能ク 一切 佛法ト 一切 佛恩ト 成就ス  
 <금광 13:18-21>

이때 大自在梵王은 …(중략)… 부처에게 사뢰어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希有하여 헤아리기 어려우십니다, 이 金光明經은. 미묘하신 뜻이 究竟 만족하시며 모두 능히 일체 佛法이니 일체 佛恩이니 하는 것을 성취하며 하시기 때문입니다.”

(7)은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말하는 맥락에 ‘-ㅁ-’나 ‘-ㅅㅅ-’이 쓰인

예로 박진호(1998)에서 제시한 것이다. 자토석독구결 자료의 ‘-ㅁ-, -ㅁㅁ-’가 청자 높임 요소라는 견해를 받아들일 경우, <구인>의 ‘부처S’는 객관적 관계에 있어서 ‘波斯匿王’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인물로 볼 수 있으며, <금광>의 ‘부처S’는 객관적 관계에 있어서 ‘師子相無礙光焰菩薩’과 ‘大自在梵王’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인물로 볼 수 있다.

선어말어미 ‘-ㅁ-’이 주관적 관계에 근거하여 쓰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토대로 객체와 주체의 관계를 부정적으로(negatively) 판별할 수도 있다. ‘-ㅁ-’이 쓰인 절의 객체가 (문헌 내의 어느 곳에서든) 그 화자에 의해 ‘-ㅁㅁ-’로 높여지는 인물이 아니라면, 주체와 객체가 객관적으로만 상하 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화소>의 경우 4개의 용례 모두가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 (8) 가. 時十 或刀 有ナリ 人リ 來ッホ 五ヲナ 白ッ 言白ナリ丁 大王下 當ハ 知口ハ 亦立 … (후략)… <화소 10:17-18>

그때 또 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왕에게 사되어 말하는 일이. “대왕이시여, 반드시 아십시오…(후략)….”

- 나. 佛子ッ {此}ニ 菩薩 7 年支 方七 少色 盛セ 端正美好ッナリ 香華 衣服 以ッホ 其身 嚴ッ 始セ 灌頂 轉輪王位 受ッ 七寶 具足ッホ 四天下 王ッナリナ + <화소 10:14-17>

불자여, 이 보살은 나이가 바야흐로 젊고 왕성하고 하며 단정하고 아름다우니, 향기로운 꽃이니 의복이니 하는 것으로써 그 몸을 장식하여, 비로소 灌頂(하고) 轉輪王位를 받아 칠보가 갖추어져서 四天下를 다스릴 때

- 다. 云何セッ 菩薩 究竟施 爲 佛子 假使 有ナリ 量 無セ 衆生 或刀 有ナリ 眼 無セ 或刀 有ナリ 耳 無セ 或刀 有ナリ 鼻 舌 及セ 以ッ 手 足 無セ 來ッホ 其所 至ッ 菩薩 告ッ 言白ナリ丁 <화소 15:14-20>

어떠한 것을 보살의 究竟施라 하는가 하면, 불자야, 이 보살은, 가령 있다, 한량없는 중생이. 또 있다, 눈 없는 이가. 또 있다, 귀 없는 이가. 또 있다, 코니 혀니 및 손이니 발이니 하는 것이 없는 이가. 와서는 그곳에 이르러 보살께 고하여 말하기를

(8가)의 ‘王’은 (8나)에 언급된 ‘轉輪王’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화소>의 ‘轉輪王’은 (8가)의 화자인 서술자에 의해 ‘-ㅁㅁ-’로 높여지는 인물이 아니다(8나). 게다가 (8가)에서 ‘言白ナリ丁’의 주체는 이어지는 발화에서 ‘轉輪王’에 대해 종결어미 ‘-ㅁㅁㅁㅁ’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ㅁ-’은 객관적 용법으로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김태우 2018: 40-41), 다만 (8다)의 ‘-ㅁㅁ-’를 존칭 체언에 결합하는 여격 조사(박진호 1998)로 보고, 이것이 중생과 ‘轉輪王’의 객관적 관계가 아닌 화자의 의도에 의해 실현된 것이라고 본다면, (8가)의 ‘-ㅁ-’을 종합적 용법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7)이나 (8가)처럼 언어 내적 근거를 통해 ‘-ㅁ-’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다른 인물과 가지는 객관적 관계를 판별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외에 객관적 관계의 판별에 쓰일 수 있는 준거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부처G’는 문헌에 언급된 어떤 개체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둘째, ‘부처S’는 ‘부처G’를 제외한 어떤 인물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부처G’와 관련된 개념, 사태, 사물 등은 ‘부처S’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 2.3. 간접 용법의 세 가지 유형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ㅁ-’은 객체를 그 자체로 높이는 데에 쓰이기도 하지만, 객체와 긴밀하게 관련된 다른 인물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데에 쓰이기도 한다. 이두 자료의 ‘-ㅁ-’(홍고 2002)이나 중세 한국어 {-습-} 역시 비슷한 용법을 가지는데, 허웅(1975: 696)에서는 {-습-}의 이러한 쓰임을 ‘간접 높임’이라는 용어로 지칭한 바 있다.

‘-ㅁ-’이 객체를 통해 다른 인물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객체와 관련된 인물이 절 내에 성분으로 실현되지 않은 다른 개체인 경우이고, 둘째는 내포절이 나타내는 사태가 모절의 객체가 되는 동시에 내포절의 주체가 궁극적인 높임의 대상이 되는 경우이며, 셋째는 객체와 관련된 인물이 모절의 주어로 실현되는 경우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 장에서는 잠정적으로 이 세 유형을 각기 간접 용법 A, 간접 용법 B, 간접 용법 C로 지칭하기로 한다.

### 2.3.1. 간접 용법 A

간접 용법 A는 객체 높임의 하위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ㅁ-’의 이러한 용법은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이미 많은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다. <화소>를 제외하면 A류 문헌과 B류 문헌에 두루 나타나는데, 객체와 관련하여 실제 높임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주로 ‘부처G’이지만 <구인>, <자비>에서는 ‘부처G’가 아닌 다른 인물이 객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높여지는 경우도 보인다. 한편 ‘-ㅁ-’이 쓰인 절의 객체가 되는 개념, 사태, 사물 등이 다른 절의 주어로 실현되어 ‘-ㅁ-’에 의해 높여지는 일도 있는데, 이러한 예는 <금광>에서만 나타난다.

(9) 가. 佛<sup>1</sup> {言}乃<sup>ニ</sup>尸 是 如<sup>支</sup>尸 是 如<sup>支</sup>尸 善男子<sup>3</sup> 汝<sup>ヲ</sup> 說<sup>ス</sup>メ<sup>1</sup> 所 如<sup>支</sup>ツ<sup>ナ</sup>尸 善男子<sup>3</sup> 若 得<sup>ル</sup>ホ 是 金光明經<sup>乙</sup> ①聽聞<sup>ソ</sup>白<sup>ク</sup>ロ<sup>ナ</sup>尸 一切 菩薩<sup>1</sup> 阿耨多羅三藐三菩提<sup>3</sup>ヲ 退 不<sup>冬</sup>ツ<sup>ヒ</sup>セ<sup>セ</sup>尸 何以故 善男子<sup>3</sup> 是<sup>1</sup> 不退地菩薩 善根<sup>乙</sup> 成熟<sup>ノ</sup>々<sup>十</sup> 是<sup>1</sup> ② 第一印<sup>リ</sup>ニ<sup>カ</sup> 是 金光明微妙經典<sup>1</sup> 衆經<sup>3</sup>ヲ<sup>之</sup> 王<sup>リ</sup>カ<sup>3</sup> ③ソ<sup>ニ</sup>尸入<sup>ム</sup>ニ …(후략)… <금광 13:21-14:01>

부처는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다, 이와 같다. 善男子여, 그대가 말하는 바와 같다. 善男子여, 만약 능히 이 金光明經을 ①들으면, 모든 보살은 阿耨多羅三藐三菩提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善男子여, 이는 不退地菩薩이 善根을 성숙하게 하는 데에 이는 ② 第一印이시며 이 金光明微妙經典은 많은 경전 가운데 왕이며 ③하시기 때문이다. …(후략)…”

나. 是 時<sup>十</sup> 世尊<sup>1</sup> 而<sup>ニ</sup> 偈<sup>乙</sup> 說<sup>ス</sup> 言<sup>リ</sup>ニ<sup>尸</sup> 生死流<sup>乙</sup> ④逆<sup>ニ</sup>스<sup>セ</sup> 道<sup>1</sup> 甚深<sup>ソ</sup> 微<sup>シ</sup> ⑤ソ<sup>ニ</sup>下 難<sup>シ</sup> ⑥見<sup>白</sup>ノ<sup>ヲ</sup>ハ<sup>ニ</sup>尸 貪欲<sup>ニ</sup> 覆<sup>ル</sup>ノ<sup>1</sup> 衆生<sup>1</sup> 愚<sup>ソ</sup>ッ<sup>ホ</sup> 冥暗<sup>ソ</sup>ヲ<sup>1</sup>入<sup>ム</sup> 見<sup>尸</sup> 不<sup>ハ</sup>ノ<sup>ヲ</sup>ナ<sup>リ</sup>尸<sup>ト</sup>モ<sup>ハ</sup>ニ<sup>1</sup> <금광 14:24-15:02>

이때 世尊은 偈를 설법하여 말씀하시기를 “生死流를 ④거스르시는 道는 아주 깊고 微妙하고 ⑤하시어 어렵게야 ⑥볼 수 있으시니, 탐욕으로 덮인 衆生은 어리석어서 어두우므로 보지 못한다.” 하시더라.

(9가)는 ‘金光明經’이 ‘-ㅁ-’의 객체가 된 예이다(①). 화자인 ‘부처S’는 다른 절에서 ‘金光明經’에 대해 주체 높임의 ‘-ㅁ-’를 사용하고 있는데(②, ③), 이것은 ‘金光明經’이 ‘부처G’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9가)의 ‘-ㅁ-’은 주관적 용법으로 쓰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9나)는 ‘(佛)道’라는 개념이 ‘-ㅁ-’의 객체로 나타난 예이다(⑥). (9나)에서 ‘逆스세’의 ‘-ㅁ-’는 관계절의 피수식어이자 생략된 성분인 ‘(佛)道’를 통해 ‘부처G’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으며(④),<sup>4)</sup> ‘ㄴ=ㅍ’에 ‘-ㅁ-’가 통합된 것도 ‘부처G’에 대한 존대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⑤). (9나)의 화자 역시 ‘부처S’임을 유념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9)와 같이 다른 절에서 ‘-ㅁ-’로 높여지는 무정물이 ‘-ㅁ-’의 객체로 나타날 경우도 간접 용법 A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객체가 ‘-ㅁ-’에 의한 높임의 대상이 된 것과 ‘-ㅁ-’에 의한 높임의 대상이 된 것 모두 다른 인물과의 관련성에 따른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를 주체 간접 높임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객체 간접 높임이라고 할 만하다. (9)의 경우 주체 간접 높임의 대상과 객체 간접 높임의 대상이 우연히 겹쳐진 것일 뿐이다. <금광> 이외의 다른 문헌에 주체 간접 높임의 ‘-ㅁ-/ㅁ-’가 나타나는지도 더 정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 2.3.2. 간접 용법 B

간접 용법 B는 박진호(1997)에서 처음으로 소개한 것인데, 자토석독구결의 ‘-ㅁ-’뿐만 아니라 중세 한국어 {-습-}도 이러한 쓰임을 보인다. 박진호(1997)에서는 간접 용법 B가 내포절의 주체를 높이는 모절 서술어로 쓰일 수 있었던 발화 동사 ‘습-[ㅁ]’의 오래된 용법이 특정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유지된 것일 가능성을 제안하면서 다음 두 가지 예를 제시하였다.

(10) 가. 時十 諸一 大衆一 [月光王ㄱ 十四王ㄱ 量無ㄱ 功德藏ㄱ 歎ㄱ 訶ㄱ 一 入ㄱ] 聞ㅁ  
 ㅁ 一 大法利ㄱ 得ㅁ ㅁ ㅁ ㅁ <구인 11:14-15>

이때 모든 대중은 [月光王이 十四왕의 한량없는 功德藏을 歎하시는 것을] 듣고서는 大法利를 얻으시며

나. 世俗正法施設圓滿 ㅁ ㅁ ㅁ ㅁ ㅁ ㅁ {者} 謂一 卽ㅁ 彼 補特迦羅 ㅁ [佛ㄱ 出世ㅁ ㅁ ㅁ ㅁ ㅁ ㅁ ㅁ] 值ㅁ ㅁ <유가 02:23-03:01>

世俗正法施設圓滿이라 하는 것은 말하자면 곧 저 補特迦羅가 [부처가 세상에 나시는 것을] 만나며,

(10가)의 ‘-ㅁ-’은 궁극적으로 ‘月光王’을 높임의 대상으로 삼으며, (10나)의 ‘-ㅁ-’은 궁극적으로 ‘부처G’를 높임의 대상으로 삼는데, ‘月光王’과 ‘부처G’는 모두 내포절의 주어로 실현되어 있다. 그러나 ‘-ㅁ-’은 모절의 서술어인 ‘聞-’(10가)과 ‘值-’(10나)에 통합되어 있으며, 이때 모절은 모두 내포절이 나타내는 사태를 객체로 취한다. 이러한 점에서 간접 용법 B는 앞서 언급한 간접 용법 A와 뒤에서 살펴볼 간접 용법 C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다. 표면적으로 ‘-ㅁ-’에 의한 높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절의 객체, 즉 내포절이 나타내는 사태이지만, 실질적으로 높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사태의 가장 주요한 개체인 주체이기 때문이다.

2.3.1항에서는 어떤 인물과 관련된 개념, 사태, 사물 등이 주어 이외의 성분으로 실현된 경우 그 인물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데에 ‘-ㅁ-’이 쓰일 수 있음을 밝히고 그러한 ‘-ㅁ-’의 용법을 간접 용법 A로 정의하였다. 그렇다면 간접 용법 B는 어떤 인물과 관련된 사태가 내포절로 실현되는 동시에 그 인물이 내포절의 주어로 실현된 경우로 볼 수 있다. 간접 용법 C는 객체가 어떤 인물과의 관련성에 의해 높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면서 그 인물이 모절의 주어로 실현된 경우를 말한다(2.3.3항 참고). 간접 용법 B는 내포절이 나타내는 사태가 내포절 주어와의 관련성에 근거하여 객체 높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간접 용법 C와 친연성을 보인다.

4) ‘逆-’이 이끄는 관계절의 주체가 ‘(佛)道’임은 『금광명최승왕경』의 대응되는 부분이 ‘勝法能逆生死流’로 나타난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는 간접 용법 A와 달리 간접 용법 B의 경우 아직 학계에 합의된 용어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잠정적으로 간접 용법 B를 ‘내포절 주체 높임’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고자 한다. 이 용어는 간접 용법 B가 내포절의 주체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주체 높임의 하위 부류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2.3.3. 간접 용법 C

간접 용법 C는 기존의 논의에서는 그다지 자세히 다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백두현(1995), 박진호(1997), 황선엽 외(2009) 등에서는 이러한 경우의 ‘-ㅁ-’을 단순히 주체 높임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만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박부자(2019)에서는 주체를 높이는 ‘-ㅁ-’의 예로 다루어져 온 것 가운데 일부를 객체와 관련된 ‘-ㅁ-’의 예로도 분석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11) 가. 他方<sup>ㄷ</sup> 大衆<sup>ㄷ</sup> 及<sup>ㄷ</sup> 以<sup>ㄷ</sup> 化衆<sup>ㄷ</sup> {此} 三界<sup>ㄷ</sup> 中<sup>ㄷ</sup> 衆<sup>ㄷ</sup> 乃<sup>ㄷ</sup> 十二大衆<sup>ㄷ</sup> 皆<sup>ㄷ</sup> 來<sup>ㄷ</sup> ㄷ<sup>ㄷ</sup> 集會<sup>ㄷ</sup> 九劫<sup>ㄷ</sup> 蓮花座<sup>ㄷ</sup> 上<sup>ㄷ</sup> 坐<sup>ㄷ</sup> 白<sup>ㄷ</sup> ㄷ<sup>ㄷ</sup> 其會<sup>ㄷ</sup> 方廣<sup>ㄷ</sup> 九百五十里<sup>ㄷ</sup> 大衆<sup>ㄷ</sup> 兪然<sup>ㄷ</sup> 而<sup>ㄷ</sup> 坐<sup>ㄷ</sup> ㄷ<sup>ㄷ</sup> <구인 02:07-09>  
 他方의 대중이니 化衆이니 이 三界의 가운데에 있는 대중이니 하는 十二大衆은 다 와서 집회하여 九劫 蓮花座에 앉으시되 그 會의 사방 넓이가 九百五十리거늘 대중이 그렇게 앉아 계신다.
- 나. 佛<sup>ㄷ</sup> 卽<sup>ㄷ</sup> 時<sup>ㄷ</sup> 衆生<sup>ㄷ</sup> 根<sup>ㄷ</sup> 得<sup>ㄷ</sup> 卽<sup>ㄷ</sup> 定<sup>ㄷ</sup> 從<sup>ㄷ</sup> 起<sup>ㄷ</sup> 蓮花師子座上<sup>ㄷ</sup> 坐<sup>ㄷ</sup> 金剛山王<sup>ㄷ</sup> {如} 禪定<sup>ㄷ</sup> 蓮花師子座<sup>ㄷ</sup> 위에 앉으시되 金剛山王과 같으시니

박부자(2019)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토대로 (11)의 ‘-ㅁ-’을 객체 높임으로 분석하였다. (11가)의 객체 ‘蓮花座’는 주체인 ‘十二大衆’이 앉는 자리이며, (11나)의 객체 ‘蓮花師子座’는 주체인 ‘佛’이 앉는 자리이다. (11가)와 (11나)의 객체는 각기 주체보다는 낮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화자보다는 높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아닌 화자와 객체의 관계를 근거로 ‘-ㅁ-’이 쓰였다고 보는 것은 가능하다.

(11)과 같은 예에서 주체와 객체의 긴밀성을 포착한 것은 본 연구에서 간접 용법 C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실마리가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11)에서의 ‘-ㅁ-’의 기능을 객체 높임으로 보는 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관점을 취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ㅁ-’에 의한 높임의 대상이 되는 <금광>의 ‘金光明經’(9가)나 ‘(佛)道’(9나)와 달리 (11)의 경우 객체(‘蓮花座, 蓮花師子座’)가 화자보다 높은 대상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만한 언어 내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둘째, (11)의 화자가 객체를 높이고자 하였더라도 그것은 주체인 ‘十二大衆’(11가)나 ‘부처S’(11나)에 대한 존대를 나타내기 위한 부수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11)과 같은 ‘-ㅁ-’의 쓰임은 주체 높임의 ‘-ㅁ-’이 나타나는 B류 문헌에서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주체만을 높이는 ‘-ㅁ-’의 쓰임으로부터 간접 용법 C를 분리한 것은 이 두 경우에 ‘-ㅁ-’이 통합하는 형태론적 구성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주체만이 ‘-ㅁ-’에 의한 높임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ㄷ’ 계열의 어미가 통합하는 반면, 객체가 주체와의 관련성을 토대로 ‘-ㅁ-’에 의한 높임의 대상에 간접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경우 ‘ㄱ’ 계열의 어미가 통합한다.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경향성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어쩌면 ‘-ㅁ-’

과 ‘-ㄱ’의 의미적 속성이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sup>5)</sup>

<표 1> 주체 높임의 ‘-ㅁ-’에 통합한 어미의 유형

유형	구인		금광		합계
	주체 높임 포괄	주체 높임 배제	주체 높임 포괄	주체 높임 배제	
ㄱ 계열	6		4		10
ㅁ 계열		3		2	5
합계	6	3	4	2	15

한편 일관된 분석을 위해서는 박부자(2019)에서 단순히 주체 높임에만 속하는 것으로 기술한 다음 두 예도 간접 용법 C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12) 가. 爾ニ時ト十十号号リニ三三明明リニ大大滅滅諦諦リニ金金剛剛智智リニッニ一一釋釋迦迦牟牟尼尼佛佛一一…(중략)… 復レット {於}頂上トット 千千寶寶蓮蓮花花乙乙 出出ッ白リ一ム 其其花花一一 上上ッ一 非非想想非非想想天天トト 至至リ光刀刀 亦亦ッ一 復復リ爾セニッニカ 乃乃シ 他他方方 恒恒河河沙沙セ 諸諸ニ一 佛佛セ 國國土土トト 至至リトモハニ 1 <구인 02:10-14>

그때 十号이며 三明이며 大滅諦이며 金剛智이신 釋迦牟尼佛은 …(중략)… 또한 정수리 위에서 千寶蓮花를 내시되 그 꽃은 위로 非想非非想天에 이르고 빛도 또한 그리하시며 곧 他方 恒河沙의 모든 佛國土에 이르게 하셨다.

나. 大王ト {是}ニ 故故… 佛佛佛佛ニ {於}世世ト 出出現現ッニ下下 衆衆生生乙 爲爲スニ入入… 故故ノ 說說スホ 三三界界 : 六六道道 : ノホセ 名名字字乙 作作ッ白リ一乙 是是乙 名名ト 無無量量名名字字 : ノホ一 空空法法ス 四四大大法法ス 心心法法ス 色色法法ス {如}一一ッ一リカ 相相續續 假假法法一 一 非非矣矣 異異 非非矣矣ッ一 1 <구인 14:04-07>

대왕이시여, 이러한 까닭으로 부처들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중생을 위하고자 하시는 까닭으로 설법하여서 三界니 六道니 하는 名字를 지으시거늘 이를 일컬어 無量 名字라 하는 것이니, 空法과 四大法과 心法과 色法과 같은 것이며 相續 假法은 같은 것[一]도 아니고 다른 것[異]도 아니고 하다.

(11)이 객체가 부사어로 실현된 예라면 (12)는 객체가 목적어로 실현된 예라고 할 수 있다. (11)과 (12)는 존대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주체로 나타나고, 그 인물의 행위에 현저하게 영향을 받는 사물이나 개념이 객체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보인다. (12가)의 ‘千寶蓮花’는 주체인 ‘부처S’의 정수리 위에 나는[出] 사물이며, (12나)의 ‘名字’는 주체인 ‘부처G’가 중생을 위해 만든 개념이다. (11)에서의 ‘十二大衆 : 蓮花座, 부처S : 蓮花師子座’의 관계는 (12)에서의 ‘부처S : 千寶蓮花, 부처G : 名字’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간접 용법 B는 박진호(1997)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간접 용법 C는 주체만을 높이는 ‘-ㅁ-’의 용법과 분리되어 다루어진 일이 없다.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주체만을 높이는 ‘-ㅁ-’의 용법과 간접 용법 C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접 용법 C에 대해 ‘주체 높임 포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때 ‘포괄’이라는 것은 청자를 포함하는 1인칭 복수

5) 비슷한 방식으로 ‘-ㅁ’과 ‘-ㄱ’이 대립을 보이는 예 가운데 하나로 장형 부정 구문을 들 수 있다. 석독구결 자료의 장형 부정 구문에서 형용사 부정은 대개 [형용사 어간]+-ㄱ [부정소]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동사 부정은 대개 [동사 어간]+-ㅁ [부정소]의 형식으로 나타나는데(이용 2003, 李勇 2010), 형용사 서술을 부정할 때는 ‘-ㄱ’이 결합하고 동사 서술을 부정할 때는 ‘-ㅁ’이 결합하는 이유를 지금의 국어사적 지식으로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南豊鉉(1976)에서는 이러한 대립에 대해 동명사 어미 ‘-ㅁ’과 ‘-ㄱ’이 시제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맞으나, 이것이 그 본질의 전부는 아닐 것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다리기로 한다.

대명사의 용법을 가리키는 용어에 착안한 것으로 ‘-ㅁ-’에 의한 높임의 대상에 주체의 행위에 현저하게 영향을 받는 개체까지 포함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러한 용법과 대비되는, 주체만을 높이는 ‘-ㅁ-’은 포괄과 배제의 체계적 대립에 따라 ‘주체 높임 배제’로 언급하게 될 것이다.

### 3.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ㅁ-’의 기능

이 장에서는 2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ㅁ-’의 기능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ㅁ-’이 크게 객체 높임, 내포절 주체 높임, 주체 높임의 세 가지 기능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가운데 객체 높임은 다시 객체 직접 높임과 객체 간접 높임으로 나뉘며, 주체 높임은 다시 주체 높임 포괄과 주체 높임 배제로 나뉜다.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ㅁ-’의 용례는 총 101건에 이른다.<sup>6)</sup> 이들 용례를 각 유형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2>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ㅁ-’의 기능 유형

기능 유형	A류 문헌			B류 문헌			합계
	화소	화엄	자비	구인	금광	유가	
객체 직접 높임	4	21	5	4	12	1	49
객체 간접 높임		5	3	6	10	2	24
내포절 주체 높임		2		2	1	1	6
주체 높임 포괄				6	4		10
주체 높임 배제				3	2	1	6
기타				2		4	6
합계	4	28	8	23	29	9	101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자토석독구결 자료 전반에서 관찰되는 ‘-ㅁ-’의 일반적 경향성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A류 문헌에는 주체 높임이 나타나지 않는다(경향 1). 둘째, A류 문헌에는 내포절 주체 높임이 아주 드물게만 나타난다(경향 2). 셋째, A류 문헌에서는 객체 직접 높임이 객체 간접 높임보다 높은 빈도로 나타나나, B류 문헌에서는 객체 직접 높임과 객체 간접 높임의 빈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경향 3). 넷째, 주체 높임 포괄보다는 주체 높임 배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경향 4). 다만 <유가>는 경향 4에서 벗어나 있다.

#### 3.1. 객체를 높이는 경우

한글 자료와 마찬가지로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도 ‘-ㅁ-’은 전형적으로 객체를 높이는 데에 쓰인다. 객체 높임은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토대로 성립된다. 이러한 관계는 화자의 인식과는 독립된 객관적인 것일 수도 있고 화자의 시각이 개입된 주관적인 것일 수도 있다. 이 절에서

6) <자비>를 제외하면 총 93건이다. ‘sktot\_2019\_introduction’에서는 <자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문헌에서 ‘-ㅁ-’이 쓰인 빈도를 총 94건으로 밝히고 있으나, <금광>의 ‘已ッㅁㅁハニ1’은 ‘已ッㅁㅁハニ1’을 잘못 판독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ㅁ-’의 용례에서 제외하였다. 이 부분의 대응되는 점토석독구결에는 24(·), 33(·)가 기입되어 있는데, 이들 점토는 각기 자토석독구결의 ‘ㅁ’와 ‘ㅁハニ1’에 대응된다(장경준 2019 참고).



는 이러한 쓰임을 보이는 ‘-ㅁ-’을 객체 높임의 ‘-ㅁ-’으로 정의하고,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객체 높임 ‘-ㅁ-’의 용례를 직접 용법과 간접 용법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3.1.1. 객체 직접 높임

자토석독구결 자료는 불경 문헌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객체 직접 높임의 대상이 되는 대상도 ‘부처G’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예측에 꼭 들어맞는 문헌은 A류 문헌 가운데서도 <화엄>뿐이다(21회 중 20회). 이 항에서는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ㅁ-’에 의한 객체 직접 높임의 대상으로 나타난 개체의 유형을 문헌에 따라 개괄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13) 가. 時+ 或刀 有+ 人+ 來+ 王+ 白+ 言+ 白+ 丁 <화소 10:17>

그때 또 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왕에게 사되어 말하는 일이.

나. 云何+ 菩薩+ 究竟施+ 佛子+ 菩薩+ 假使+ 有+ 量+ 無+ 衆生+ 或刀 有+ 眼+ 無+ 耳+ 鼻+ 舌+ 及+ 以+ 手+ 足+ 來+ 其+ 所+ 至+ 菩薩+ 告+ 言+ 白+ 丁 <화소 15:14-20>

어떠한 것을 보살의 究竟施라 하는가 하면, 불자야, 이 보살은, 가령 있다, 한량없는 중생이. 또 있다, 눈 없는 이가. 또 있다, 귀 없는 이가. 또 있다, 코니 혀니 및 손이니 발이니 하는 것이 없는 이가. 와서는 그곳에 이르러 보살께 고하여 말하기를

<화소>는 ‘-ㅁ-’의 쓰임에 있어서 가장 제한된 모습을 보여주는 문헌이다. <화소>에 나타난 ‘-ㅁ-’은 (13)과 같이 예외 없이 ‘轉輪王’을 높임의 대상으로 삼으며, ‘-ㅁ-’이 결합한 서술어는 모두 ‘-ㅁ-’으로 나타난다(4회). 후자와 같은 제약은 ‘-ㅁ-’이 발화 동사 ‘-ㅁ-’에서 문법화한 것이라는 점과 더불어, <화소>가 『석화엄교분기』를 제외하면 자토석독구결 자료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장윤희 2004, 鄭在永 2006)과 관련을 맺는 듯하다.

(14) 가. 大小師+ 詣+ 當願衆生巧+ 師長+ 事+ 善法+ 習行+ <화엄 03:08>

大小的 스승에게 나아갈 때는 반드시 원하기를 “중생은 공교히 師長을 섬기어서 善法을 익히고 행하소서.” (할 것이며)

나. 十方+ 有+ 所+ 勝妙華+ 塗香+ 末香+ 無價寶+ 是如+ 皆+ 手+ 中+ 從+ 出+ 道樹+ 諸+ 最勝+ 供養+ <화엄 15:18-19>

十方에 있는 바의 勝妙華니 塗香이니 末香이니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보배니 (하는) 이와 같은 것을 다 손으로부터 내어서 道樹에 있는 모든 最勝이신 분을 供養하며

<화엄>의 ‘-ㅁ-’은 대개 ‘부처G’를 높이지만(20회) 그렇지 않은 예도 있다. (14가)가 그러한데, 여기에서 ‘師長’은 출가한 중생에게 선법을 전하는 인물이며, 화자는 ‘僧伽藍’에 출가하고자 하는 보살(수행자)이다. 따라서 (14가)의 ‘-ㅁ-’은 주관적 관계를 고려하여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14나)는 일종의 비유적 표현인데 여기에서 ‘道樹’는 ‘道樹’, 즉 깨달음의 경지에 있는 가장 존귀한 이인 ‘부처G’를 지시한다.

(15) 가. 又+ 復+ 十方+ 如來+ 一切髮塔+ 一切齒塔+ 一切牙塔+ 一切爪塔+ 一切

頂上骨塔、一切 身中<sub>レ</sub>セ 諸<sub>一</sub> 舍利塔、袈裟塔、匙鉢塔、澡瓶塔、錫杖塔、ノ<sub>一</sub>  
是 如<sub>一</sub> 等<sub>一</sub> 佛事<sub>乙</sub> 爲<sub>ス</sub> 歸命<sub>ノ</sub> 白<sub>口</sub> 乙<sub>ハ</sub> <자비 17:19-18:01>

또한 十方 如來의 일체 髮塔이니 일체 齒塔이니 일체 牙塔이니 일체 爪塔이니 일체 頂  
上骨塔이니 일체 身中에 있는 모든 舍利塔이니 袈裟塔이니 匙鉢塔이니 澡瓶塔이니 錫  
杖塔이니 하는 것과 같은 佛事를 하고자 하신 이에게 歸命하며

나. 又<sub>一</sub> 復<sub>刀</sub> 十方 盡虛空界<sub>セ</sub> 一切 諸佛<sub>乙</sub> 歸依<sub>ノ</sub> 白<sub>ハ</sub> 十方 盡虛空界<sub>セ</sub> 一切 尊法<sub>乙</sub>  
歸依<sub>ノ</sub> 白<sub>ハ</sub> 十方 盡虛空界<sub>セ</sub> 一切 賢聖<sub>乙</sub> 歸依<sub>ノ</sub> 白<sub>口</sub> 七<sub>ノ</sub> 一<sub>ハ</sub> <자비 18:05-08>

또한 十方 盡虛空界의 일체 諸佛에게 歸依하며 十方 盡虛空界의 일체 尊法에 歸依하  
며 十方 盡虛空界의 일체 賢聖에게 歸依할 것입니다.

다. 仰願<sub>ノ</sub> 白<sub>口</sub> 入<sub>一</sub> 同<sub>一</sub> 慈悲<sub>セ</sub> 力、安慰衆生力、無量自在力、量 無<sub>一</sub> 大神通力、  
ノ<sub>乙</sub> 以<sub>ハ</sub> 今<sub>日</sub> 道場<sub>ヲ</sub> 同<sub>一</sub> 阿鼻大地獄<sub>ヲ</sub> 苦<sub>乙</sub> 受<sub>ト</sub> 一<sub>ハ</sub> 一切 衆生<sub>ヲ</sub> 爲<sub>テ</sub>  
懺悔<sub>ノ</sub> 一<sub>ハ</sub> <자비 18:09-12>

仰願하는 것은, 함께 자비의 力이니 安慰衆生力이니 無量自在力이니 한량없는 大神通  
力이니 하는 것으로써, 今日 도량에 있으면서 함께 阿鼻大地獄에서 고통을 받는 일체 중  
생을 위해 참회하는 것이니

(15가)는 ‘부처G’나 ‘부처G’와 깊은 관련을 맺는 답이 아닌 그 답에 佛事를 하는 사람을 높이는 데에 ‘-白-’이 쓰였다는 점이 특이하다. 여기에서의 ‘-白-’의 용법을 간접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내포절에서 같은 인물에 대해 주체 높임의 ‘-ニ-’가 쓰였다는 점을 근거로 이 경우의 ‘-白-’을 객체 직접 높임으로 분석하였다. (15나)에서는 ‘諸佛’과 ‘賢聖’이 높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전자는 ‘부처G’를 가리키며 후자는 불법의 경지가 높은 보살을 가리킨다. (15다)는 ‘仰願’의 대상이 되는 ‘부처G’를 높이는 데에 ‘-白-’이 쓰였으나 ‘부처G’를 지시하는 요소가 절에 실현되지는 않은 예이다(2.2.2항 참고).

(16) 가. 六方<sub>ヲ</sub> 亦<sub>一</sub> 復<sub>リ</sub> {是} 如<sub>一</sub> 作樂<sub>ノ</sub> 亦<sub>一</sub> 然<sub>セ</sub> 亦<sub>一</sub> 復<sub>リ</sub> 共<sub>セ</sub> 量 無<sub>一</sub> 音樂<sub>乙</sub> 作<sub>ッ</sub> 如來<sub>乙</sub> 覺寤<sub>ノ</sub> 白<sub>口</sub> 一<sub>ハ</sub> <구인 03:11-13>

六方에 있는 이도 또한 이와 같으시며 음악을 짓는 것도 또한 그렇게 하시어 또한 함께 한량없는 음악을 지어 如來를 깨어나게 하셨는데

나. 佛<sub>一</sub> 大王<sub>ヲ</sub> 告<sub>ス</sub> 汝<sub>一</sub> {於} 過去<sub>セ</sub> 七佛<sub>ハ</sub> 已<sub>シ</sub> 一<sub>ハ</sub> 義<sub>ニ</sub> 二<sub>ハ</sub> 義<sub>ニ</sub> 乙 問<sub>白</sub> 一<sub>ハ</sub> 汝<sub>一</sub> 今<sub>一</sub> 聽<sub>ノ</sub> 無<sub>一</sub> 我<sub>一</sub> 今<sub>一</sub> 說<sub>ノ</sub> 無<sub>一</sub> 聽<sub>ノ</sub> 無<sub>一</sub> 說<sub>ノ</sub> 無<sub>一</sub> 一<sub>ハ</sub> 卽<sub>リ</sub> {爲} 一<sub>ハ</sub> 義<sub>ニ</sub> 二<sub>ハ</sub> 義<sub>ニ</sub> 乙 一<sub>ハ</sub> 故<sub>ノ</sub> 一<sub>ハ</sub> …(후략)… <구인 14:20-22>

부처는 대왕에게 고하시기를 “그대는 과거의 七佛에 이미 하나인 것의 義이니 둘인 것의 義이니 하는 것을 물으신 이라서, 그대는 지금 들을 것이 없으며 나는 지금 말할 것이 없다. 들을 것이 없으며 말할 것이 없는 것을 곧 하나인 것의 義라 하며 둘인 것의 義라 하는 까닭이다. …(후략)…”

<구인>에서 객체 직접 높임으로 쓰인 ‘-白-’은 대개 (16가)와 같이 ‘부처S’를 높임의 대상으로 삼는다(총 4회 중 3회). 그러나 (16나)는 화자인 ‘부처S’가 ‘七佛’, 즉 ‘부처G’를 높이는 데에 ‘-白-’을 사용한 예라는 점에서 <구인>의 다른 예와 차이를 보인다. <구인>, <구광>의 경우 객체 직접 높임의 ‘-白-’이 ‘부처S’를 높이는 용례(각기 3회, 7회)가 ‘부처G’를 높이는 용례(각기 1회, 3회)보다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화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17) 가. 善男子；是 金光明經之 聽聞<sub>ニ</sub> 受持<sub>ス</sub><sub>ル</sub><sub>ヲ</sub><sub>レ</sub><sub>テ</sub><sub>ハ</sub> {以<sub>テ</sub> 之<sub>ヲ</sub> 奉<sub>ル</sub><sub>ニ</sub> 供<sub>ス</sub><sub>ル</sub><sub>ヲ</sub> 爲<sub>ス</sub> 故<sub>ニ</sub> 是 善男子<sub>ト</sub> 善女人<sub>ト</sub><sub>ノ</sub> 功<sub>ノ</sub> 常<sub>ニ</sub> 得<sub>ル</sub><sub>ヲ</sub> 佛<sub>ト</sub> ①見<sub>ル</sub> 白<sub>ク</sub> 世尊<sub>ト</sub> ②離 不<sub>レ</sub> 退<sub>ス</sub><sub>ル</sub><sub>ヲ</sub> 常<sub>ニ</sub> 妙法<sub>ト</sub> ③聞<sub>ル</sub> 白<sub>ク</sub> 常<sub>ニ</sub> 正法<sub>ト</sub> ④聽<sub>ル</sub> 白<sub>ク</sub> 佛<sub>ト</sub> 不<sub>レ</sub> 退<sub>ス</sub><sub>ル</sub> 地<sub>ト</sub> 十 生<sub>ニ</sub> 師子勝人<sub>ト</sub> 而 得<sub>ル</sub><sub>ヲ</sub> 佛<sub>ト</sub> ⑤親近<sub>ス</sub> 白<sub>ク</sub> 相<sub>ノ</sub> ⑥遠離 不<sub>レ</sub> 退<sub>ス</sub><sub>ル</sub> 地<sub>ト</sub> <금광 14:03-07>

善男子여, 이 金光明經을 듣고 受持하고 한 것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이 善男子니 善女人이니 하는 이는 …(중략)… 항상 능히 부처를 ①뵈고 世尊을 ②여의지 않고 하여 항상 妙法을 ③듣고 항상 正法을 ④듣고 할 것이며, 不退地에 나신 師子勝人을 능히 ⑤가까이하여 서로 ⑥멀리 여의지 않을 것이며,

나. 佛<sub>ト</sub> {言<sub>フ</sub> 善男子<sub>ト</sub> 又 五法<sub>ヲ</sub> 有<sub>テ</sub> 菩薩摩訶薩<sub>ト</sub> 般若波羅蜜<sub>ト</sub> 成就<sub>ス</sub><sub>ル</sub><sub>ヲ</sub> 爲<sub>ス</sub> 云<sub>フ</sub> 佛<sub>ト</sub> 爲<sub>ス</sub> 五<sub>ト</sub> 一者 一切 諸佛<sub>ト</sub> 菩薩<sub>ト</sub> 聰慧大智<sub>ト</sub> 心<sub>ト</sub> 十 厭足<sub>ス</sub><sub>ル</sub><sub>ヲ</sub> 無<sub>ク</sub> …(후략)… <금광 03:22-25>

부처는 말씀하시기를 “善男子여, 또 五法이 있다, 菩薩摩訶薩이 般若波羅蜜을 성취하는 것이. 어떠한 것을 다섯 가지라고 하는가 하면, 첫째, 일체 諸佛이니 보살이니 聰慧大智이신 분이니 하는 분을 공양하고 가까이하고 하되 마음에 厭足함이 없으며 …(후략)…”

다. 善男子<sub>ト</sub> 菩薩 十地<sub>ト</sub> 是 相<sub>ノ</sub> 前現<sub>ス</sub><sub>ル</sub> 如來<sub>ノ</sub> 身<sub>ト</sub> 金色 晃耀<sub>ス</sub> 淨光<sub>ト</sub> 悉<sub>ク</sub> 皆 圓滿<sub>ス</sub> 量 無<sub>ク</sub> 億梵王<sub>ト</sub> 圍遶<sub>ス</sub> 恭敬<sub>ス</sub> 供養<sub>ス</sub> 於<sub>テ</sub> 無上微妙法輪<sub>ト</sub> 轉<sub>ス</sub> 菩薩<sub>ト</sub> 悉<sub>ク</sub> 見<sub>ル</sub> <금광 06:19-22>

善男子여, 보살의 十地에서는 이 相이 앞에 나타나되, 如來의 몸이 금색으로 晃耀하시어 한량없는 淨光이 다 圓滿하시거늘 한량없는 億 梵王이 圍遶하여서 공경하고 공양하고 하는 분이시니 無上微妙法輪을 굴리시는 것을 보살은 다 본다.

(17가)는 나열 구문에서의 ‘-白-’의 쓰임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17가)에서 ①, ⑤는 ‘-白-’이 객체 직접 높임으로 쓰인 예이며 ③, ④는 객체 간접 높임으로 쓰인 예이다. (17가)와 같이 나열된 행위를 각기 독립된 것으로 다룰 경우 ‘-ᄃᆞᆫ’로 나열된 동사 모두에 ‘-白-’이 통합되며, (17나, 다)와 같이 나열된 행위를 전체로서 다룰 경우 아우름 동사에 ‘-白-’이 통합된다.

박부자(2019)에서는 (17가)-②를 ‘-白-’이 쓰여야 할 곳에 쓰이지 않은 예로 파악한 바 있다. (17가)의 화자는 ‘부처S’이며 ①의 객체인 ‘佛’과 ②의 객체인 ‘如來’는 모두 ‘부처G’를 가리킨다. 그런데 ①에는 ‘-白-’가 쓰였으나 ②에는 ‘-白-’이 쓰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관성의 문제가 지적될 만하다. (17가)의 ⑤, ⑥도 마찬가지로 ⑤에는 ‘-白-’가 쓰였으나 ⑥에는 ‘-白-’이 쓰이지 않았다. (17가)-⑥의 경우 상호사인 ‘相ノ’가 쓰였다는 점이 이러한 차이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들 용례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부분에 달린 점토석독구결도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나,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에서는 더 깊이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 3.1.2. 객체 간접 높임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쓰인 객체 간접 높임의 ‘-白-’ 역시 ‘부처G’를 높임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와 이외의 다른 인물을 높임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로 나뉜다. <화엄>(5회), <자비>(3회), <금광>(10회)에서는 모든 예가 ‘부처G’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데에 쓰였으나, <구인>에서는 ‘부처G’ 이외의 다른 인물을 높임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더 많이 보인다(총 6회 중 4회).

(18) 가. 佛塔 見白 去 一 時 當 願 衆生 尊重 ッ 一 夫 塔 如 支 ッ ッ ハ 天人 ヲ 供 乙 受 乙 立 <화엄 08:06>

佛塔을 본 때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중생이 존중하기를 塔과 같이 하여서 天人의 공양을 받으소서” (할 것이며)

나. 佛 夫 相好 乙 讚 ッ 白 去 一 一 一 當 願 衆生 佛身 乙 成就 ッ ッ 亦 無相 七 法 乙 證 ッ 乙 立 <화엄 08:12>

부처의 相好를 찬탄한 때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중생이 佛身을 성취하여서 無相의 법을 證得하소서” (할 것이며)

다. 十方 ッ 十 有 一 所 七 諸 ヲ 讚頌 リ 如來 尸 實功德 乙 稱歎 ッ 白 去 去 七 是 如 支 ッ 一 種 種 七 妙言辭 乙 皆 七 掌內 乙 從 七 而 一 開演 ッ コ モ カ <화엄 16:01-03>

十方에 있는 모든 讚頌이 如來의 實功德을 稱歎하는 이와 같은 갖가지 묘한 言辭를 다 손바닥 안으로부터 열어 풀어내며

(18가)의 ‘佛塔’과 (18나)의 ‘相好’는 그 자체로 높임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부처G’를 주체인 ‘보살’과 대비하여 높이기 위한 매개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8가)는 ‘讚頌’이라는 행위가 주어로 실현된 예라는 점이 독특하다. ‘讚頌’이라는 행위 자체가 ‘부처G’와 대비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讚頌’을 하는 사람들이 ‘부처G’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 것인지 고민해 볼 만하다.

(19) 가. 又 ッ 一 復 カ 十方 盡 虛空界 七 量 無 一 形像 リ ニ 一 優填王 ヲ 金像 ； 旃檀像 ； 阿育王 ヲ 銅像 ； 吳中 ヲ 石像 ； 師子國 ヲ 玉像 ； 諸國土 七 中 ヲ 金像 ； 銀像 ； 瑠璃像 ； 珊瑚像 ； 琥珀像 ； 磝磝像 ； 碼碯像 ； 眞珠像 ； 摩尼寶像 ； 紫磨上色閻浮檀金像 ； ノ 今 乙 歸依 ッ 白 去 乙 一 <자비 17:13-18>

또한 十方 盡 虛空界의 한량없는 형상이신 優填王의 金像이니 旃檀像이니 阿育王의 銅像이니 吳中에 있는 石像이니 師子國에 있는 玉像이니 모든 國土의 가운데에 있는 金像이니 銀像이니 瑠璃像이니 珊瑚像이니 琥珀像이니 磝磝像이니 碼碯像이니 眞珠像이니 摩尼寶像이니 紫磨上色閻浮檀金像이니 하는 것에 歸依하며

나. 又 復 諸 一 佛生處塔 ； 得道塔 ； 轉法輪塔 ； 般涅槃塔 ； 多寶佛塔 ； 阿育王 ヲ 造 リ ニ 一 所 七 八萬四千塔 ； 天上塔 ； 人間塔 ； 龍王 ヲ 宮中 ヲ 七 一切 寶塔 ； ノ 今 乙 歸命 ッ 白 去 乙 一 <자비 18:02-05>

또한 모든 佛生處塔이니 得道塔이니 轉法輪塔이니 般涅槃塔이니 多寶佛塔이니 阿育王이 만들게 하신 바의 八萬四千塔이니 天上塔이니 人間塔이니 용왕의 궁중에 있는 일체 寶塔이니 하는 것에 歸命하며

(19가)에서는 각종 ‘佛像’, (19나)에서는 각종 ‘佛塔’이 ‘-白-’의 목적어로 실현되었는데,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높임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객체인 ‘佛像’이나 ‘佛塔’에 의해 기려지는 인물인 ‘부처G’이다. (19가)의 ‘優填王’과 ‘阿育王’은 ‘像’에 새겨진 인물이 아닌 ‘像’을 새기도록 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白-’에 의한 높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20) 가. 爾 七 一 時 十 佛 一 大衆 ヲ ナ 告 ッ ニ 尸 十六 大國王 リ 意 ヲ 十 國土 乙 護 ノ 今 七 因緣 乙 ① 問 白 {欲} ス ソ ト ウ 一 入 乙 [火] 知 白 ヲ コ リ 一 ； ッ 一 乃 吾 一 今 ッ 一 先 ヲ 諸 一 菩薩 {爲} ； ニ 佛 果 乙 護 ノ 今 七 因緣 ； 十 地 七 行 乙 護 ノ 今 七 因緣 ； ノ 乙 ② 說 白 ヲ 示 七 一 <구인 03:17-19>

그때 부처는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十六 大國王이 뜻에 국토를 수호할 인연을 ①문

고자 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우선 모든 보살을 위하여 佛果를 지킬 인연이니 十地の 行을 지킬 인연이니 하는 것을 ②말하겠다.”

나. 時十十六大國王七中七舍衛國主ニシテ波斯匿王ニ名[火]曰白尸月光ソ白ウ  
 소1 德行1 十地ソ六度ソ三十七品ソ四不壞淨ソノコソモ 摩訶衍七化乙行ソモソ  
 ニト1ソ <구인 02:24-03:01>

그때 十六大國王의 가운데에 舍衛國主이신 波斯匿王이 이름을 이르기를 月光이라고 하는 이가 덕행은 十地이니 六度이니 三十七品이니 四不壞淨이니 하는 것을 하며 摩訶衍 [大乘]의 化를 행하며 하고 계셨는데

다. 人中七師子1衆ヲ{爲}シテ說口ハニ1大衆7歡喜ソ3金花乙散ソ白ロモ乙分  
 百億萬土1六大動ソロモ乙分 生乙舍ソ1モ乙{之}生1妙報乙受ロモ1ソ <구인  
 11:11-12>

人中에 있는 師子는 대중을 위하여 설법하시니 대중은 환희하여 金花를 뿌리며 百億萬土는 六大動하며 생을 슬하는 생은 妙報를 받는 것이다.

(20가)의 경우 ‘問白{欲}스’와 ‘說白ウテヒ1’와 모두 논란의 여지가 있다. 먼저 (20가)-①부터 살펴보자. 백두현(1995)에서는 주체인 ‘十六大國王’이 화자인 ‘佛’에게 한 행위를 나타내는 데에 ‘-白-’이 쓰인 예라는 점에서 통사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예라고 언급하였으나, 김태우(2018: 41-42)에서는 화자로서의 ‘佛’의 관점이 개입되지 않은 객관적 관계만이 고려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때의 ‘-白-’의 쓰임을 객관적 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부자(2019)에서는 이 가운데 어느 한쪽을 명확히 지지하지는 않았으나, 여기에서의 ‘-白-’이 주체 높임의 기능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20가)-②를 살펴보자. 백두현(1995)에서는 (20가)-②에서의 ‘-白-’의 기능을 주체 높임으로 파악하였으나, 박부자(2019)에서는 객체 높임으로 파악하였다. 다만 박부자(2019)에서 (20가)-②의 ‘說白ウテヒ1’를 객체 높임으로 본 것은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아닌 객체와 현토자의 관계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관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2.1.2항에서도 언급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白-’의 기능을 설명하는 데에 서술자의 관점이나 화자의 관점이 아닌 현토자의 관점과 같은 외적 요인을 개입시키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가)-①와 (20가)-②에 쓰인 ‘-白-’의 기능을 객체 간접 높임으로 분석하였다. 이것은 절에 실현된 논항과 실현되지 않은 논항의 우선순위를 판정하는 데에 있어서 ‘부처S’와 관련된 것보다 ‘부처G’와 관련된 것을 먼저 고려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2.2.2항 참고). (20가)-①에서는 묻는 대상인 ‘부처S’와 묻는 내용인 ‘국토를 수호할 因緣’ 모두가 ‘-白-’에 의한 높임의 대상이 될 만하고, (20가)-②에서도 말하는 대상인 ‘十六大國王’과 말하는 내용인 ‘불과를 지킬 因緣과 十地行을 지킬 因緣’ 모두가 ‘-白-’에 의한 높임의 대상이 될 만하다.<sup>7)</sup> 그러나 (20가)의 화자가 ‘부처S’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두 예 모두 절에 실현된 ‘因緣’을 매개로 ‘부처G’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데에 ‘-白-’이 쓰인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

7) (20가)의 화자인 ‘부처S’는 ‘十六大國王’에 대해 주체 높임의 ‘-ニ-’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十六大國王’이 객관적으로 ‘부처S’보다 높은 인물은 아닐지라도 화자의 관점에 따라 주관적으로 존대를 받을 만한 인물일 수는 있음을 암시한다. <구인>에서는 ‘부처S’가 ‘十六大國王’ 중 한 명인 ‘波斯匿王’을 부르는 데에 존칭의 호격 조사 ‘-下’(박진호 1998)를 쓰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을 지지한다. <구인>에서 ‘大王下’는 총 4회 출현하며 ‘大王上’는 단 한 예도 보이지 않는다. 이외에 (20가)의 청자와 ‘說白ウテヒ1’의 객체가 복수(‘十六大國王’)라는 점도 높임 요소의 쓰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비>에 나타난 ‘大衆下’의 용례(2회)도 참고할 만하다.

다고 본 것이다.

(20나)는 ‘波斯匿王’의 이름이 객체로 실현된 예로 실제 높임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波斯匿王’이다. 여기에서 ‘波斯匿王’은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될 비한정적이고 불특정한 누군가보다 상위에 있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20다)에서는 ‘金花’가 (직접) 목적어로 실현되었는데, 간접 목적어가 실현되었다면 (앞의 절에서 ‘人中師子’로 지시한) ‘부처S’를 가리키는 명사가 실현되었을 법하다. 여기에서 ‘-白-’은 ‘金花’를 뿌리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부처S’를 높이는 데에 쓰인 것이다. 맥락상 객체가 청자임이 분명하고 이외의 다른 목적어가 실현되지 않은 (15다)와 달리 (20다)의 경우 ‘金花’가 목적어로 실현되어 있으므로 객체 직접 높임이 아닌 객체 간접 높임으로 분류하였다.

(21) 가. 善男子; 是 陀羅尼七 名一 恒河沙數乙 過ッニ一 諸 佛リ 初地菩薩乙 救護ッ(爲) スッ白ノ一リニ一リ四 此 陀羅尼呪乙 誦持ッ白ナリ入一 得ッホ 一切 怖畏リ一 一切 惡獸ニ 一切 惡鬼ニ 人非人 等ッ一リニ 災橫ニ 諸惱ニノヲ乙 度脫ッ; 五障乙 解脫ッカ <금광 09:07-10>

善男子여, 이 陀羅尼의 이름은 一 恒河沙數를 넘으신 모든 부처가 初地菩薩을 救護하고자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신 것이라서, 이 陀羅尼呪를 誦持하면 능히 일체 怖畏인 일체 惡獸니 일체 악귀니 人非人 같은 것이니 災橫이니 모든 번뇌니 하는 것을 度脫하여 五障을 해탈하며

나. 若 有 處處; + 此 金光明經乙 講宣ス白ロナ一矢ニ 是 會七 大衆一 皆 悉 彼ム 往; 爲ノ 聽衆リ入乙 作ッロセノヲカ <금광 15:04-06>

혹 있다, 곳곳에서 이 金光明經을 講宣하게 하는 일이. (그렇다면) 이 법회의 대중은 모두 거기에 가 (金光明經의 講宣을) 위하여 聽衆이 될 것이며

다. …(전략)… 汝 等ッ一 當ハ 此 如支ッニ一 經典乙 精勤 修行ッヌキ應セッ一ニ 則ノ 法乙 久; {於}世ヲ+ 住スリ白; 一丁ノヲ一リ一ッモハニ | <금광15:15-16>

“…(전략)… 너희들은 마땅히 精勤히 이 같은 경전을 수행해야 하니, (그렇게 하면) 곧 법을 오래 세상에 머무르게 하였다 할 것이다.” 하시더라.

(21가)와 (21다)의 화자는 ‘부처S’이며, (21나)의 화자는 ‘大衆’이다. (21가)의 객체 ‘陀羅尼’, (21나)의 객체 ‘金光明經’, (21다)의 객체 ‘法’은 모두 ‘부처G’와의 관련을 맺는다는 점에서 ‘-白-’이 실현되었다. 2.3.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광>에서 ‘金光明經’과 ‘法’은 ‘부처S’에 의해 ‘-ニ-’로 높여지고 있음을 유념할 만하다. (21다)의 ‘經典’ 역시 ‘金光明經’과 같은 외연을 가지는데, 여기에서도 화자인 ‘부처S’가 관계절의 피수식어이자 생략된 주체인 ‘經典’에 대해 선어말어미 ‘-ニ-’를 사용하고 있다.

(22) 가. 若 諸 有智ッ一 同梵行者リ 見聞疑乙 由; 或 其 罪乙 舉ッ; 或 憶念ッ(令)リ; 或 隨學ッ(令)リ; 或 …(중략)… 請問乙 依ッ一入… 故ノ 昔尸 聞白尸 未リッラセ | ノ一 甚深 法義乙 聞カ <유가06:22-07:04>

만약 여러 지혜 있는 동료 수행자[同梵行者]가 보고 들은 의문[見聞疑]으로 말미암아 혹 그 죄를 들추고 혹 기억하게 하고 혹 따라 배우게 하고 하면 …(중략)… 청하여 물음을 의지한 까닭으로 예전에 듣지 못하였던 깊고 깊은 법의 의미를 들으며,

가'. 大師リ 正法乙 建立ッ(爲欲)ス 方便… 正等覺 成ノ尸入乙 示現ッニ下 云何ニテ尸入一 彼… 正セ 修行ッ; 亦 轉ッ(令)リ; 一ノヲ一リ; 一セロニ尸入… 故ニ 彼リ 正法行乙 修習ッ; 今セ 時ニ+ 卽; 是一 法亦…ハ 大師乙 供養ッ白; 一丁ノヲ四 是 故… 此乙 說; 名下 饒益他ニノヲカ <유가 06:04-07>

大師가 정법을 건립하고자 그 방편으로 正等覺을 이루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어 “어떻게 하면 그로 (하여금) 바르게 수행하여서 轉하게 할 것인가?” 하시는 까닭으로 그가 正法行을 닦아 익히는 때에, 곧 이는 법 그대로 大師를 공양하는 것이라 할 것이라서, 이러한 까닭으로 이것을 말하여 일컬어 남을 넉넉히 이익되게 함[饒益他]이라고 하며,

나. 卽<sup>レ</sup>此 十種<sup>ニ</sup> 生圓滿<sup>ス</sup> 名<sup>ニ</sup> 修瑜伽處所<sup>ト</sup> ノ ノ レ 此 所依<sup>ル</sup> 所建立處<sup>ト</sup> 依止<sup>ス</sup> {爲} <sup>レ</sup> 1 <sup>ニ</sup> 由 <sup>レ</sup> 1 <sup>ニ</sup> 故<sup>ニ</sup> 如來<sup>ノ</sup> 諸 弟子衆<sup>ヲ</sup> {有} ノ 所<sup>ニ</sup> 聖法<sup>ト</sup> 證得<sup>ス</sup> <sup>レ</sup> 1 <sup>ニ</sup> | <유가 03:19-22>

곧 이 열 가지의 生圓滿을 일컬어 유가를 닦는 처소[修瑜伽處所]라 하는 것이니, 이 지할 배[所依]인 所建立處를 依止로 삼은 것에 말미암은 까닭으로, 如來의 여러 제자의 무리가 지니는 바 성스러운 법을 證得한다.

(22가)의 화자는 문헌의 서술자이며 주체는 수행자이다. 여기에서 ‘聞-’에 ‘-ㅁ-’이 결합한 것은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甚深 法義’가 ‘부처G’와 관련을 맺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뒤의 ‘聞<sup>カ</sup>’에는 ‘-ㅁ-’이 결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같은 대상을 객체로 삼음에도 한쪽에는 ‘-ㅁ-’이 결합하고 다른 한쪽에는 ‘-ㅁ-’이 결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다. 예전에 듣지 못한 ‘法義’는 주체인 수행자보다 지위가 높은 이(아마도 스승)에게서 들은 (그러나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이고, 지금 듣는 ‘法義’는 동료 수행자에게 듣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일 수도 있어 보인다. <유가>에서는 수행자의 스승(大師)도 ‘-ㅁ-’에 의한 높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참고할 만하다(22가).

(22나)는 연구자에 따라 해석이 갈리는 예이다. 황선엽 외(2009)에서는 이것을 객체 높임으로 분석하였고, 박부자(2019)에서는 주체 높임으로 분석하였다. ‘聖法’과 ‘如來의 弟子’는 모두 ‘부처G’와 관련을 맺는다는 점에서 높임의 대상이 될 만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 예를 객체 간접 높임으로 파악하였는데, <유가>에서는 ‘如來의 弟子’에 대해 주체 높임의 ‘-ㅁ-’이 쓰인 예가 없기 때문이다. 객관적 관계에 있어서 ‘聖法’보다 ‘如來의 弟子’가 높은 지위에 있는 개체로 여겨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할 만한 언어 내적 근거가 지금으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 3.2. 내포절의 주체를 높이는 경우

박진호(1997)에서는 ‘-ㅁ-’이 내포절의 주체를 높이는 경우로 (10)의 두 예를 제시한 바 있다.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ㅁ-’의 용례를 전부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네 개의 예를 추가하였다. 이 가운데 <화엄>의 두 예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례로 볼 수 있다.

(23) 가. 爾<sup>レ</sup> 1 時<sup>ニ</sup> 佛<sup>ノ</sup> 大衆<sup>ヲ</sup> 告<sup>フ</sup> ノ レ [十六 大國王<sup>ノ</sup> 意<sup>ヲ</sup> 國土<sup>ト</sup> 護<sup>ル</sup> <sup>レ</sup> 今<sup>ニ</sup> 緣<sup>ト</sup> 問<sup>フ</sup> {欲} <sup>レ</sup> 1 <sup>ニ</sup> [火]] 知<sup>ル</sup> ノ レ 1 <sup>ニ</sup> 吾<sup>ノ</sup> 今<sup>ニ</sup> 先<sup>ニ</sup> 諸<sup>ノ</sup> 菩薩 {爲} <sup>レ</sup> 佛果<sup>ト</sup> 護<sup>ル</sup> <sup>レ</sup> 今<sup>ニ</sup> 因緣<sup>ト</sup> <sup>レ</sup> 1 <sup>ニ</sup> 地<sup>ト</sup> 行<sup>フ</sup> 護<sup>ル</sup> <sup>レ</sup> 今<sup>ニ</sup> 因緣<sup>ト</sup> <sup>レ</sup> 1 <sup>ニ</sup> 說<sup>フ</sup> <sup>レ</sup> 1 | <구인 03:17-19>

그때 부처는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十六 大國王] 뜻에 국토를 수호할 인연을 묻고자 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우선 모든 보살을 위하여 佛果를 지킬 인연이니 十地의 行을 지킬 인연이니 하는 것을 말하겠다.”

나. 時<sup>ニ</sup> 諸<sup>ノ</sup> 大衆<sup>ヲ</sup> [月光王<sup>ノ</sup> 十四 王<sup>ヲ</sup> 量 無<sup>シ</sup> 功德藏<sup>ト</sup> 歎<sup>フ</sup> <sup>レ</sup> 1 <sup>ニ</sup> 聞<sup>ク</sup> ノ レ 1 大法利<sup>ト</sup> 得<sup>ル</sup> <sup>レ</sup> 1 | <구인 11:14-15>

이때 모든 대중은 [月光王]의 十四王의 한량없는 功德藏을 歎하시는데 듣고서는 大





임의 대상이 된다.

내포절 주체 높임의 이러한 중간적 성격은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白-’이 객체 높임과 주체 높임이라는, 어떤 면에서는 전혀 다른 기능으로 쓰일 수 있었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한 가지 단서가 될 수 있다. 다만 ‘-白-’의 발달 경로와 관련된 문제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더 자세한 논의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 3.3. 주체를 높이는 경우

객체 높임과 달리 주체 높임에서 주체와 객체의 관계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인식적으로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 특정 사태를 어떻게 언어로 부호화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서술어이지만, 참여자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따지는 데에는 주어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주체 높임의 ‘-白-’이 쓰인 실제 용례를 통해 그 세부적인 양상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 3.3.1. 주체 높임 포괄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높임의 대상은 주체이지만 객체 역시 간접적으로 높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白-’의 용법을 주체 높임 포괄로 정의하였다. 다소 낯선 개념일 수도 있으나 자토석독구결 자료의 ‘-白-’을 살펴보면 주체만이 높임의 대상이 되는 예(총 6회)보다 객체가 간접적인 높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예(총 10회)가 더 많이 나타난다(경향 3).

(25) 가. 花上ノ皆セ 量 無セテ 國土リ 有セリトム 一一國土ノナケノ 佛シ 及ハ 大衆ノ  
 オリト白リトム 今ニ {如}ニ 異リテ 無セニカ 一一國土ニ 中リセ 一一佛シ 及ハ 大衆  
 ノノケノ 各々各々ニ 般若波羅蜜ニ 説モハニ | <구인 02:03-07>

꽃 위에 모두 한량없는 국토가 있는데, *하나하나의 국토마다 부처니 대중이니 하는 이*가 있으시되 지금과 같이 다름이 없으시며, *하나하나의 국토 가운데에 있는 하나하나의 부처니 대중이니 하는 이*마다 제각기 般若波羅蜜을 말씀하신다.

나. 眞義ニ 得リ 説トリ 思議ノ可セソ 不夫カ 度量ノ可セソ 不夫カ 唯  
 ハ 佛ス 與セ 佛スリニ 乃シ {斯}ニ 事ニ 知ニセ 善男子 其 説白リ 所ニ  
 十四 般若波羅蜜ニ 三忍ニ 地地ノ 上中下ニ 三十忍ニ 一切(行藏 一切佛藏 不可思議) <구인 11:23-25>

眞義를 얻어 설법하는 것이라서思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度量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부처와 더불어 부처이시어야* 곧 이 일을 아실 수 있다. 善男子여, 그 설법하신 바의 十四般若波羅蜜인 三忍이니 地地에 上中下마다 있는 三十忍이니 하는 一切(行藏 一切佛藏 不可思議)

(25가)는 ‘-白-’이 주체 높임 포괄로 쓰인 예이다. (11)에서 다른 ‘蓮花座’나 ‘蓮花師子座’가 그 자리에 앉는 인물인 ‘부처G’에 의해 간접적으로 높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면, 이 맥락에서의 ‘一一國土’ 역시 ‘부처G’가 자리한 곳으로서 화자인 서술자에 의해 높여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럽다. (25나)의 화자는 ‘부처S’이므로 ‘부처G’가 설법한 ‘三忍’과 ‘三十忍’이 주체인 ‘부처G’와 더불어 높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26) 가. 佛ノ言ヲ善男子ト 又 五法 有テ 菩薩摩訶薩ノ 般若波羅蜜ヲ 成就ス 云何ト 爲ス 五 …(중략)… 二者 諸佛如來ノ 說ク 甚深法ヲ 心ヲ 常ニ 樂シ 聞ク 獸足ノ 無ク 有ク …(후략)… <금광 03:22-04:01>

부처는 말씀하시기를 “善男子여. 또 五法이 있다. 菩薩摩訶薩이 般若波羅蜜을 성취하는 것이. 어떠한 것을 다섯 가지라고 하는가 하면, …(중략)… 둘째, 諸佛如來가 말씀하신 아주 깊은 법을 마음에 항상 즐겨 듣되 獸足함이 없으며 …(후략)…”

나. 善男子ト 是 陀羅尼ノ 名ヲ 一 恒河沙數ヲ 過ス 諸佛ノ 初地菩薩ヲ 救護ス 此 陀羅尼ヲ 誦持ス 得ル 一切 怖畏ヲ 一切 惡獸ヲ 一切 惡鬼ヲ 人非人 等ヲ 災橫ヲ 諸惱ヲ 度脫ス 五障ヲ 解脫ス <금광 09:07-10>

善男子여, 이 陀羅尼의 이름은 一 恒河沙數를 넘으신 모든 부처가 初地菩薩을 救護하고자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신 것이라서, 이 陀羅尼呪를 誦持하면 능히 일체 怖畏인 일체 惡獸니 일체 악귀니 人非人 같은 것이니 災橫이니 모든 번뇌니 하는 것을 度脫하여 五障을 해탈하며

(26나)는 ‘-白-’과 ‘-ニ-’의 중복적인 쓰임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예이다. (26나)의 화자는 ‘부처S’이고 주체는 ‘부처G’이며 객체는 ‘陀羅尼의 이름’이다. 불경이라고 하는 텍스트의 특성을 고려하든 세상살이에 관한 일반적 지식에 비추어 보든, (26나)의 주체는 객체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26나)에서 ‘-白-’의 기능을 객체 높임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26나)의 ‘-白-’과 ‘-ニ-’은 모두 주체를 높이는 데에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白-’과 ‘-ニ-’의 중복적인 쓰임은 15세기 문헌에 보이는 주체 높임의 {-습시-}를 떠올리게 한다. 다음은 선행 연구에서 흔히 언급되어 온 주체 높임의 {-습시-}의 예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주체 높임의 ‘-白-’의 예를 나란히 제시한 것임.

(27) 가. 주는 내 호습시는 쁘디시니라 <훈민정음언해(1446) 2b>

나. 是 說法處ニ 一切 諸天ノ 人ノ 非人ノ 等ヲ 及 諸衆生ノ 得ル 上ニ 從テ 而 過ス 說法ノ 處ニ 汗漫ス 不 務ス 何ヲ 以 故ト 白ク 說ク 處ニ 卽チ 是ト 其 塔ニ <금광 15:09-11>

이 說法處에 대해서는 일체 모든 천이니 사람이니 非人이니 같은 것과 모든 중생이니 하는 것을 능히 위로 지나가 설법하는 곳을 더럽히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어째서인가 하시면, 설법하는 곳이 곧 그 탑이시기 때문입니다.

박진호(1996)에서는 주체 높임의 ‘-白-’을 문법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과도적인 용법으로 파악하였다. 즉 발화 동사 ‘습-[曰]’이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의미 변화와 형식 변화는 상당 부분 진척되었음에도 통사 구조 면에서는 이전 시기의 속성을 유지함으로써 주체 높임의 ‘-白-’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내포질의 주체를 높이는 모질 동사로서의 쓰임이 객체 높임의 기능과는 별도로 주체 높임의 기능으로 발달하였다고 가정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어휘 요소에서 비롯된 문법 요소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난 각 기능의 발달 경로가 다를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한다.

김태우(2018: 각주 11)에서는 발화 동사로부터 문법화한 ‘-白-’의 기본적 기능을 객체 높임으로 보고, 주체 높임의 ‘-白-’은 객체 높임의 기능과 관련된 일종의 변이로 파악하였다. 나아가 15세기에 확인되는 주체 높임의 {-습시-}는 주체 높임의 {-으시-}보다 한층 더 높은 존재





상에 포함되기 어려우며, 다른 문장 성분(‘口 ㅁ +’)의 경우 주체와의 관련성은 높으나 서술어가 나타내는 사태에 직접 영향을 받거나 사태가 지향하는 대상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부사어 ‘口 ㅁ +’를 주체와의 관련성에 의해 높임의 대상이 되는 객체로 이해하기보다는 ‘추론된 유정성’(김민국 2017)에 의해 다른 개체(‘부처S’)를 대신하는 일종의 비주격 주어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할 듯하다. ‘說法’을 동사 ‘ㅁ-’의 목적어로 분석하여 주체 높임 포괄의 예로 파악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3.4. 기타 예외적 용례에 대한 해석

자토석독구결 자료를 살펴보면 객체 높임, 내포절 주체 높임, 주체 높임 중 어느 쪽으로도 해석하기 어려운 ‘-ㅁ-’의 용례도 적지 않은데, 그 가운데 2건은 <구인>, 4건은 <유가>에 나타난다. 이러한 예외적 용례가 B류 문헌에서만 나타난다는 점도 흥미롭다. <유가>의 경우 4건 가운데 3건이 사실상 같은 구문이므로 유형 빈도는 더 낮다. <구인>과 <유가>의 예외적 용례는 모두 화자와 주체가 일치하는 환경에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환경에 나타난 ‘-ㅁ-’은 주체 높임으로는 해석하기 어렵다. 다만 기존에 화자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으로 언급되어 온 예 가운데 다수는 ‘부처S’와 ‘부처G’를 같은 인물로 파악한 결과이다(2.2.2항 참고).

#### 3.4.1. 『구역인왕경』 권상

<구인>에 나타난 ‘-ㅁ-’의 예외적 용례는 모두 화자와 부처가 모두 ‘부처S’인 예이다. 화자와 주체가 일치하더라도 ‘-ㅁ-’이 객체 높임으로 실현될 수는 있으나(20가-②), 다음 두 예의 경우 객체가 과거의 화자 자신이거나(31가)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31나) 점에서 객체를 높임의 대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31) 가. 佛<sup>1</sup> 諸<sup>ㄹ</sup> 道果<sup>ㄷ</sup> 得<sup>ㄱ</sup> 實天衆<sup>ㄹ</sup> 告<sup>ㄴ</sup> 善男子<sup>ㄹ</sup> {是} 月光王<sup>1</sup> 已<sup>ㄷ</sup> {於} 過去<sup>ㄷ</sup> 十千劫<sup>ㄷ</sup> 中<sup>ㄹ</sup> 龍光王佛法<sup>ㄷ</sup> 中<sup>ㄹ</sup> 四住<sup>ㄷ</sup> 開士<sup>ㄹ</sup> {爲} 我<sup>1</sup> 八住<sup>ㄷ</sup> 菩薩<sup>ㄹ</sup> {爲} 今<sup>ㄷ</sup> {於} 我<sup>ㄹ</sup> 前<sup>ㄹ</sup> 大師子吼<sup>ㄷ</sup> …(후략)… <구인 11:20-23>

부처는 道果를 모두 얻은 實天衆에게 告하시기를 “善男子여, 이 月光王은 이미 過去의 十千劫 중에 있는 龍光王佛法의 가운데에서 四住의 開士가 되어 있었는데, 나는 八住의 보살이 되어 있었던 까닭으로 지금 내 앞에서 大師子吼를 하는 것이다. …(후략)…”

나. 佛<sup>1</sup> 大王<sup>ㄹ</sup> 告<sup>ㄴ</sup> 汝<sup>1</sup> {於} 過去<sup>ㄷ</sup> 七佛<sup>+</sup> 已<sup>ㄷ</sup> 一<sup>ㄷ</sup> 義<sup>ㄷ</sup> 二<sup>ㄷ</sup> 義<sup>ㄷ</sup> 乙 問<sup>ㄹ</sup> 汝<sup>1</sup> 今<sup>ㄷ</sup> 聽<sup>ㄴ</sup> 無<sup>ㄷ</sup> 我<sup>1</sup> 今<sup>ㄷ</sup> 說<sup>ㄴ</sup> 無<sup>ㄷ</sup> 聽<sup>ㄴ</sup> 無<sup>ㄷ</sup> 說<sup>ㄴ</sup> 無<sup>ㄷ</sup> 卽<sup>ㄷ</sup> {爲} 一<sup>ㄷ</sup> 義<sup>ㄷ</sup> 二<sup>ㄷ</sup> 義<sup>ㄷ</sup> 乙 故<sup>ㄷ</sup> 諦<sup>ㄷ</sup> 聽<sup>ㄷ</sup> 諦<sup>ㄷ</sup> 聽<sup>ㄷ</sup> 善<sup>ㄷ</sup> 之<sup>ㄷ</sup> 思<sup>ㄷ</sup> 念<sup>ㄷ</sup> 法<sup>ㄷ</sup> {如} 修行<sup>ㄹ</sup> 七佛<sup>ㄷ</sup> 偈<sup>ㄷ</sup> 是 {如} …(후략)… <구인 14:20-23>

부처는 대왕에게 告하시기를 “그대는 과거의 七佛께 이미 하나인 것의 義이니 둘인 것의 義이니 하는 것을 물으신 이라서, 그대는 지금 들을 것이 없으며 나는 지금 말할 것이 없다. 들을 것이 없으며 말할 것이 없는 것을 곧 하나인 것의 義라 하며 둘인 것의 義라 하는 까닭이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며, 이를 잘 思하고 念하고 하며 법과 같이 수행하라. 七佛의 계송이 이와 같다. …(후략)…”

(31가)의 객체인 ‘八住의 보살’은 화자인 ‘부처S’의 전생으로, 『인왕경소』에서는 이때의 ‘四

住'와 '八住'가 각기 '焰慧地'와 '等觀地'에 대응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화자의 전생인 '八住 보살'은 이미 '十住', 즉 '法雲地'에 이른 현생의 화자 '부처S'보다 지위가 높은 개체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화자가 과거의 자신을 객관화하여 높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객관적으로든 주관적으로든 여기에서의 '-白-'은 객체인 '八住의 보살'를 높이는 데에 쓰인 것으로는 볼 수 없다. (31나)는 (6나)에서 이미 논의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백두현(1995)에서는 (20가)-②와 (25나)를 (31)과 같은 유형으로 파악하였으나, (20가)-②는 화자인 '부처S'가 객체인 '因緣'을 매개로 '부처G'를 높이는 예이며, (25나)는 화자인 '부처S'가 주체인 '부처G'를 높이는 예라는 점에서 위의 (31)과는 구분된다.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白-'의 기능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부처S'와 '부처G'의 구분이 유용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3.4.2. 『유가사지론』 권20

<유가>는 B류 문헌에 속한 다른 문헌과 비교할 때 '-白-'이 쓰인 빈도 자체가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용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B류 문헌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양상을 보여준다. 다만 (32가, 나, 다)의 경우 구문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단일한 유형으로 묶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2) 가. 又 正說法ヲ 略クテ 二種 有テ 謂テ 所テ 隨順ス 及テ 無染汗スルニ 廣ニ 說ル  
 ス 當ハ 知テ 二十種 有テ 菩薩地ヲ 當ハ 說白ノ尸 如支ツテ 一 丁 <유가  
 04:08-10>

또 바르게 법을 설하는 것에, 간략히 말하자면, 두 가지가 있다. 이른바 隨順과 無染汗이다. 자세히 말하자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 스무 가지가 있으니 菩薩地에서 반드시 말할 것과 같은 것임을.

나. 又 正聞法ヲ 略クテ 四種 有テ …(중략)… 是 如支ツテ 四種 過失ニ 遠離ツテ 而  
 而… 聽法ノ者ニ 名テ 正聞法ノ尸 當ハ 知テ 廣ニ 說クテ 十六種 有テ  
 亦 菩薩地ニ 中テ 當ハ 說白ノ尸 如支ツテ 一 丁 <유가 04:10-14>

또 바르게 법을 듣는 것에, 간략히 말하자면, 네 가지가 있다. …(중략)… 이와 같은 네 가지 잘못을 멀리 여의어서 법을 듣는 것을 일컬어 바르게 법을 듣는 것이라 하는 것이다. 반드시 알아야 한다, 자세히 말하자면 열여섯 가지가 있으니 또한 菩薩地 중에서 반드시 말할 것과 같은 것임을.

다. 十五 此 失テ 無テ 雖 然 五失 相應ツテ 臥具ニ 受用ノ者ニ 過失 有テ  
 失テ 五失 相應ツテ 臥具 知テ 應テ 聲聞地ヲ 當ハ 說白ノ尸 如支ツテ 一  
 丁 <유가 14:04-06>

열다섯째는 비록 이러한 잘못은 없어도, 그러나 다섯 가지 과실에 상응하는 臥具를 받아 쓰는 잘못을 지니는 것이니, 다섯 가지 과실에 상응하는 臥具는, 알아야 한다, 聲聞地에서 반드시 말할 것과 같은 것임을.

라. 四 {於} 遠離處ヲ 安住ノ者ニ 所作 謂テ 若 愛樂ツテ 諸 在家ス 及テ 出家  
 스 衆ニ 與テ 雜 居住ノ尸 便 種種ニ 世間 相應ツテ 見聞 受用ニ 諸 散  
 亂事ニ 有テ 我ニ 於 彼 正審觀察ノ者ニ 心一境位ヲ 當ハ 障導ニ 作  
 리 勿テ 一 丁 <유가 08:21-09:02>

넷째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편안히 머무를 때의 할 일이니, 말하자면 “만일 愛樂하여서

여러 재가와 출가와와 무리와 더불어 섞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곧 갖가지 세간과 상응하는, 견문을 수용하는 *여러 산란한 일을 지닐 것*이라서, 나로 하여금 저 바로 살피고 관찰하는 心一境位에서 반드시 장애를 짓게 하지 말 일이다.” 할 것이다.

(32가, 나, 다)는 객체의 성격에 따라 다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32가)의 객체인 ‘正說法 20종’과 (32나)의 객체인 ‘正聞法 16종’은 모두 근본적으로 ‘부처G’와 관련을 맺으므로 간접적으로나마 높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32다)의 객체인 ‘五失에 상응하는 臥具’는 그러한 방식으로 높임의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움. 문현수(2015)에서는 (32가, 나, 다)를 설명하기 위한 두 가지 가설을 제안한 바 있다. 하나는 이때의 ‘白’을 선어말어미가 아닌 ‘說’의 어간을 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說白ノ尸’의 화자를 서술자가 아닌 현토자로 보는 것인데, 『유가론기』에 따르면 <유가>의 서술자는 ‘彌勒菩薩’이므로 서술자 역시 현토자에 의한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두 가설 모두 재고의 여지가 있다. 첫 번째 가설의 경우 ‘白’을 어간에 대한 전훈독자로 보더라도,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발화 동사 ‘畵-[曰]’이 객체도 주체도 높임의 대상이 아닌 환경에 쓰일 수 있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에서 첫 번째 가설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보기 어렵다. 두 번째 가설의 경우 (31가, 나, 다)에서만 ‘-白-’의 화자가 현토자로 교체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만일 이 구문만이 아닌 <유가>의 모든 부분에 현토자의 관점이 반영되었다면, <유가>에 나타난 ‘-白-’의 모든 예를 그러한 관점에 따라 일관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1.2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토자의 관점과 같은 문헌 외적 요인을 근거로 ‘-白-’의 기능을 해석하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고자 한다.

(32라)의 주체는 화자와 동일한 ‘出家者’이다. 따라서 ‘-白-’이 화자 자신을 높이는 데에 쓰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객체인 ‘諸 散亂事’이 객관적으로든 주관적으로든 높임만 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장경준(2007: 180-181)에서는 (32라)를 객체 높임으로도 주체 높임으로도 볼 수 없는 ‘-白-’의 예로 언급한 바 있음. (32라)의 경우 서술어가 발화 동사가 아니며 주체인 ‘出家者’ 역시 <화소>에서 ‘-無-’에 의해 높여지는 인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현수(2015)에서 제안한 두 가지 가설을 적용하기도 어렵다.

박부자(2019)에서는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ニ/無-’가 1인칭 주어를 높이는 예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32)에 보이는 ‘-白-’을 주체 높임으로 볼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33) 爾七ツ一 時十 菩薩一 {是}リ 念言ノ尸入乙 作ツテ尸丁 我ヲ 身； 財寶； 及セ 以テ 王位； ノ今一 悉テ {是}リ 一 無常リ四 敗壞ツ今セ{之} 法リ 一； 我一 今ツ一 盛壯ツ無  
スル 富ス一ム一 天下乙 {有}テ無スル 乞者リ 現前ツカツロ一 當ハ 不堅ツ一入乙 以  
テハ 而… 堅ツモセ 法乙 求ノ身ヲセリツテス <화소 11:20-12:03>

그때 보살은 *念*하는 것을 하기를 ‘나의 몸이니 財寶니 王位니 하는 것은 다 無常이라서 敗壞하는 법인데, 나는 지금은 *건장하며* 부유함에 있어서는 천하를 *가졌으며* 乞者が 앞에 나타나며 하니 마땅히 견고하지 못한 것으로써 견고한 법을 구하겠다.’ 하며

(33)의 화자는 ‘轉輪王’이며 주체도 ‘轉輪王’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주체 높임의 ‘-無-’가 쓰일 법한 환경이 아니다. 장경준(2009)에서는 1인칭 주어에 ‘-ニ/無-’가 호응하는 예가 점토석독구결 자료인 주본 『화엄경』 권31과 권34에도 나타난다는 점을 근거로 (33)이 단순히 현토자의 잘못된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32)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화자와 주체의 관계는 (33)의 그것과 같으며, 따라서 (32)의 ‘-白-’

을 (33)의 ‘-ㅁ-’와 대등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체 높임의 기능을 한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한 ‘-ㄷ/ㅁ-’와는 달리, ‘-ㅁ-’의 경우 객체 높임으로 쓰이기도 하고 주체 높임으로 쓰이기도 하여 (33)에서의 ‘-ㅁ-’의 기능을 주체 높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ㄷ/ㅁ-’이 1인칭 주어를 높이는 데에 쓰일 수 있다고 해서 ‘-ㅁ-’ 역시 그러한 쓰임을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보는 것도 그리 논리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33)에 대한 박부자(2019)의 가설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4. 결론

(생략)

#### 참고문헌

- 김동식(1984), 「객체높임법의 ‘습’에 대한 검토」, 『冠嶽語文研究』 9,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81-99쪽.
- 김민국(2017), 「‘에서’ 주어의 통사와 의미」, 『國語學』 81, 국어학회, 145-189쪽.
- 김태우(2018), 「{-습-}의 기능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南豐鉉(1976), 「國語 否定法の 發達」, 『문법연구』 3, 문법연구회, 55-81쪽.
- 문현수(2015), 『『유가사지론』 권20 석독구결의 문법: 어미』, 『『유가사지론』 권20의 석독구결 역주』, 역락, 59-77쪽.
- 문현수(2020), 「《구역인왕경》과 《자비도량참법》의 석독구결 현토 양상에 대하여」, 『국어학』 93, 국어학회, 123-155쪽.
- 박부자(2019), 「고대국어 경어법 선어말어미의 연구 현황과 과제: ‘-ㅁ-’을 중심으로」, 『제56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별지.
- 박진호(1997), 「借字表記 資料에 대한 통사론적 검토」, 『새국어생활』 7-4, 국립국어연구원, 117-145쪽.
-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고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121-205쪽.
- 백두현(1995),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경어법 선어말어미 ‘-ㄷ-’, ‘-ㅁ-’의 분포와 기능에 관한 연구」, 『語文論叢』 29, 경북어문학회, 45-114쪽.
- 安秉禧(1961), 「主體謙讓法の 接尾辭 「-습-」에 對하여」, 『震檀學報』 22, 진단학회, 103-126쪽.
- 安秉禧(1982), 「中世國語의 謙讓法 研究에 대한 反省」, 『國語學』 22, 국어학회, 1-23쪽.
- 이용(2003), 「釋讀口訣에 나타난 否定詞의 機能에 對하여」, 『口訣研究』 11, 구결학회, 249-274쪽.
- 李勇(2010), 「點吐釋讀口訣 資料의 否定法」, 『口訣研究』 24, 구결학회, 97-131쪽.
- 李賢熙(1986), 「中世國語 內的 話法の 性格」, 『한신논문집』 3, 한신대학교 출판부, 191-228쪽.



- 全在寬(1958), 「『습따위』 謙讓語의 散考」, 『論文集』 2, 경북대학교, 117-137쪽.
- 장경준(2007), 「『瑜伽師地論』 點吐釋讀口訣의 解讀 方法 研究」, 太學社.
- 장경준(2009), 「점토구결 자료의 문법 형태에 대하여」, 『國語學』 56, 국어학회, 249-279쪽.
- 장경준(2011), 「석독구결의 번역사적 의의에 대한 시론(試論)」, 『번역학연구』 12-4, 한국번역학회, 145-168쪽.
- 장경준(2019), 「『합부금광명경』 권3의 점토구결 기초 연구」, 『古印刷文化』 26, 청주고인쇄박물관, 81-98쪽.
- 장윤희(2004), 「석독구결 및 그 자료의 개관」, 『口訣研究』 12, 구결학회, 47-80쪽.
- 鄭在永(2006), 「韓國의 口訣」, 『口訣研究』 17, 구결학회, 125-185쪽.
- 황선엽(1993), 「텍스트 생산자를 중심으로 한 『안락국태자전』의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 『冠嶽語文研究』 18,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73-297쪽.
- 許雄(1954), 「尊待法史: 國語 文法史의 한토막」, 『成均學報』 1, 성균관대학교, 139-207쪽.
- 허웅(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 홍고 테루오(2002), 「이두자료의 경어법에 관한 통시적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황선엽·이전경·하귀녀·이용·박진호·김성주·장경준·서민욱·이지영·서형국(2009), 『釋讀구결사전』, 박문사.
- Whitman, J. (2011), The Ubiquity of the Gloss, *SCRIPTA* 3, 95-121.



##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ㅁ-’의 기능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론문

전기량(동국대학교)

이 글은 자토석독구결 자료의 ‘-ㅁ-’의 기능을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연구에서 ‘-ㅁ-’의 기능을 객체 높임과 주체 높임으로 나누어 이해했던 것과는 달리 이 글에서는 ‘-ㅁ-’이 크게 객체 높임, 내포절 주체 높임(간접 용법B), 주체 높임의 세 가지 기능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객체 높임은 다시 객체 직접 높임과 객체 간접 높임(간접 용법A)으로 구분하고, 주체 높임은 다시 주체 높임 포괄(간접용법C) 과 주체 높임 배제로 구분하는 등 ‘-ㅁ-’의 기능을 더 세분화하여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부처를 ‘부처S(specific)’와 ‘부처G(general)’로 구분하여 개체들과의 대우 정도를 객관적으로 따지는 등 ‘-ㅁ-’의 기능을 최대한 객관적 기준에 준하여 고찰하고자 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토론자 역시 이 글의 논의 내용 및 방향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며, 글을 읽으면서 들었던 몇 가지 궁금증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발표자는 현토자는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높임 요소의 기능을 설명하는 데에 흔히 고려되어 온 요소 가운데 하나이지만, 높임 요소의 사용은 화자(서술자, 등장인물)의 관점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현토자에 관한 요인을 지나치게 넓게 적용하기보다는 최대한 언어 내적 근거를 바탕으로 높임 요소의 사용을 고찰하고자 하였습니다. <月曲部>와 <詳節部>에서 『안락국태자전』의 각 인물에 대한 대우 여부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 문헌 외부의 생산자의 인식 차이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악장과 불경의 서술자 간의 차이 즉, 문헌 내부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동일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월석>, <법화>, <석보>에서 동일 인물에 대한 높임의 정도가 달리 확인되는 일이 있습니다. <석보>, <월석>과 달리 <법화>에서는 ‘-으시-’를 사용하여 ‘菩薩摩訶薩’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문헌 외부자의 관점에 의한 차이로 이해할 만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발표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가. [菩薩]摩訶薩[히] [부]뵈[이] [마][를] [듣][좁]고 7장 [깃][부]미 모매 ㉠그독[하]야 더욱 ㉡恭敬[하]스[바] ㉢몸 구피고 머리 수겨 습掌[하]야 부터 向[하]스[바] 훈뵈 소리 내야 ㉣슬보디 世尊[하] 勅[하]다히 다 奉行[하]스[바]로리니 [敕]은 警誠[하]야 出[하]를 씨니 그걸이라 [하]듯 [하] 마리라] 世尊[하] 分別 마르쇼셔 <1447석보상절 20:3b>

나. 그제 菩薩摩訶薩[히] 부뵈 이 마를 듣좁고 다 7장 歡喜[하]미 모매 ㉠그독[하]야 더욱 ㉡恭敬[하]스[바] ㉢몸 구피 머리 수겨 습掌[하]야 부터 向[하]스[바] 훈뵈 소리 내야 ㉣슬보디 世尊 勅[하]산다비 다 奉行[하]스[바]로리니 唯然 世尊[하] 願[하]든 分別 마르쇼셔 <1459월인석보18:18b-19b>

다. 그제 諸菩薩摩訶薩이 부뵈 이 말[하]샤물 듣조오시고 다 7장 歡喜 모매 ㉠그독[하]샤 더욱 ㉡恭敬[하]샤 ㉢몸 구피시고 머리 수기사 습掌[하]야 부뵈기 좃[하]샤 훈뵈 소리 내야 ㉣슬오샤디 世尊[하] 勅[하]삼[하]티 [하]스 와 반드기 다 奉行[하]스[바]오리니 唯然 世尊[하] 願[하]스[바]오디 分別 마르쇼셔(時에 諸菩薩摩訶薩이 聞佛作是說已 [하]시고 皆大歡喜遍滿其身[하]샤 益加恭敬[하]샤 曲躬低頭[하]샤 습掌向佛[하]샤 俱發聲言[하]샤디 如世尊勅[하]스 와 當具奉行[하]스[바]오리니 唯然 世尊[하] 願[하]不有慮[하]쇼셔) <1463법화경언해6:125ab>

2. 2.3.3에서 (11)에서의 ‘-ㅁ-’의 기능을 객체 높임으로 보기보다는 주체 높임으로 이해하면서 그 근거로 ① 객체가 화자보다 높다고 볼 만한 언어 내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 ② 화자가 객체를 높이고자 했더라도 주체에 대한 존대를 나타내기 위한 부수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 ③ (11)과 같은 용법은 <구인>, <금광>, <유가>에서만 확인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③이 적절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는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3. 주체 높임 배제와 주체 높임 포괄에 따른 ‘ㄴ’ 계열의 어미와 ‘ㄷ’ 계열의 어미 통합 경향을 설명하면서 참고적으로 각주5)에서 장형 부정 구문에서의 ‘ㄴ’과 ‘ㄷ’의 대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한글 자료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은더’와 ‘-을씨’의 경우 결합하는 서술어 및 선어말어미에 차이가 있어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은더’의 경우 주로 동사 및 계사에 결합하고 선어말어미들과의 결합이 자유로운 반면 ‘-을씨’의 경우 주로 심리 형용사에 결합하고 선어말어미 ‘-으시-’ 정도와만 결합하는데, 결국 이러한 차이는 동명사 어미 ‘-은’과 ‘-을’에 의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3.3에서 주체 높임의 ‘-ㅁ-’을 다시 주체 높임 포괄과 주체 높임 배제로 나누고, 주체 높임 포괄이란 주체의 행위에 현저하게 영향을 받는 개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주체 높임 배제란 주체만을 높이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체 높임 포괄과 주체 높임 배제라는 용어가 적절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체 높임 배제’란 용어로는 그것이 주체만을 높이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쉽게 알기 어려워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5. 2.2.2에서는 맥락상 추론 가능한 논항 가운데 일부가 절에 실현되지 않을 경우 ① 객체 높임과 주체 높임을 판별할 때에는 절에 실현된 성분만을 고려하고 ②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을 판별할 때는 생략된 논항이 지시하는 개체까지 고려한다는 두 가지 준거를 제시하였습니다. 3.1.1의 (15다)는 (5가)와 동일한 예인데 “‘仰願’의 대상이 되는 ‘부처G’를 높이는 데에 ‘-ㅁ-’이 쓰였으나 ‘부처G’를 지시하는 요소가 절에 실현되지 않는 예”입니다. 이에 대해서 2.2.2에서는 이를 객체 높임으로 볼 수 있을지 곤란하다고 설명하였는데, 발표자가 제시한 기준에 비추어 (15다)를 객체 직접 높임이라고 판단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6. 선행 연구들이 주체 높임의 ‘-ㅁ-’은 문법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용법으로 파악하거나 객체 높임과 관련된 일종의 변이로 파악한 것과 달리, 발표자는 ‘-ㅁ-’이 본래 객체 높임의 기능과 주체 높임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살펴본 것들이 ‘-ㅁ-’의 객체 높임의 체계만큼 주체 높임 역시 상당히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주체 높임의 기능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습-’이 15·16세기 자료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다가 17세기 이후 자료에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ㅁ-’이 객체 높임의 기능과 주체 높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가 15·16세기에는 주체 높임으로는 쓰이지 않고 17세기 이후 주체 높임의 ‘-습-’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리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법사적 측면에서 이러한 양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발표자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 7. 기타 사항

가. 서론에서 주체 높임의 ‘-ㅁ-’이 사용된 문헌과 그렇지 않은 문헌에 대한 설명이 뒤바뀌어 있어 수정이 필요합니다(서론에서 주체 높임의 ‘-ㅁ-’이 쓰인 문헌은 <화소>, <화엄>, <자비>, 그렇지 않은 문헌은 <구인>, <금광>, <유가>라고 설명하고 있음).

나. 2.3.3에서 ‘-ㅁ-’이 주체 높임 배제의 용법인 경우에는 ‘ㄴ’ 계열의 어미가, 주체 높임 포

괄의 용법인 경우에는 ‘1’계열의 어미와 통합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각각의 구체적인 형태(‘-白り尸’, ‘-白ノ尸’, ‘-白り尸ム’, ‘-白ノ尸ム’, ‘-白ノ尸入し’, ‘-白り尸ム’, ‘-白り尸’, ‘-白ノ尸’, ‘-白ノ尸入し’) 등을 밝히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표1>에서는 <유가>를 다루고 있지 않은데, <유가>에서 해당 예가 1회만 확인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각주에서라도 <유가>에서 확인되는 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 3장에서 <표2>를 바탕으로 한 ‘-白-’의 일반적 경향성에 대한 설명에서 주체 높임 포괄과 주체 높임 배제에 대한 설명이 뒤바뀌어 있어 수정이 필요합니다(주체 높임 포괄보다는 주체 높임 배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표2>에서는 주체 높임 배제(6회)보다는 주체 높임 포괄(10회)이 높은 빈도로 확인됨).

라. (26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마. (27가)와 (27나)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는데 (27가)의 ‘흐습시논’의 ‘-습시-’와 (27나)의 ‘何以故ニッ白ノ尸入し’이 어떤 점에서 유사한 양상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내지(乃至)’의 의미 형성에 대한 관견

마원걸(서울대학교)

### 1. 서론

본고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한자어 ‘내지(乃至)’의 의미 양상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여기에서 ‘내지’의 의미에 천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현대 한국어 어휘 ‘내지’ 자체의 다의성이고, 다른 하나는 동형의 현대 중국어 어휘 ‘乃至’와도<sup>1)</sup> 의미상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참고로 현대의 한국어 및 중국어 사전에 수록된 ‘내지(乃至)’ 관련 미시정보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 (1) 내지<sup>1</sup>(乃至) 「부사」

1 (수량을 나타내는 말들 사이에 쓰여) ‘얼마에서 얼마까지’의 뜻을 나타내는 말.

▶ 열 명 내지 스무 명.

▶ 천 원 내지 이천 원.

▶ 백 평 내지 이백 평.

2 그렇지 않으면. =또는.

▶ 이것은 산 내지 들에서만 자라는 식물이다.

▶ 내가 여기서 말하는 자연법은 그 같은 정밀한 개념으로서의 자연법이 아니라 실정법이 아닌 것에서 정당성 내지 합법성의 근거를 주장하려는 논리 일반이다. 《이문열, 시대와의 불화》

#### (2) 乃至 「連詞」 (내지 「접속사」)

甚至。(심지어.)

▶ 他的發明，引起了全國乃至國際上的重視。也說乃至於。(그의 발명은 전국乃至[심지어]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乃至於’라고도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의 기술을 반영한 (1)에서 보듯 현대 한국어의 ‘내지’는 대개 [포괄] 또는 [이접] 정도로 풀이된다. 한편, (2)는 <現代漢語詞典>(第七版)에서 발췌한 것으로, 현대 중국어의 ‘乃至’가 ‘심지어’ 정도의 [심화]로 풀이되었음을 본다. 이렇듯 다양한 의미 분화 양상에 비추어 본고는 석독구결과 언해를 비롯한 한국어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자어 ‘내지’의 통시적인 의미 양상을 조망하고, 그러한 의미가 형성될 수 있었던 동인을 상정해 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아래에는 먼저 참고 대상이 되는 ‘乃至’의 中國語史적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 2. ‘乃至’에 대한 中國語史적 논의

중국어 ‘乃至’의 어휘화 과정 및 통시적 의미 변화를 다룬 최근의 연구로 范崇峰(2013), 梁燕(2013) 등이 참고된다. 范崇峰(2013:7~8)에 따르면, ‘乃至’는 본디 허사(기능어) ‘乃’와 실사(내용어) ‘至’의 공기에 따른 ‘다층 구조’에서<sup>2)</sup> 유래한 것이다. 다음의 (3)에서 보듯 漢代 및

1) 이하 기술의 편의를 위해 ‘내지’와 ‘乃至’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해당 어휘를 각각 지칭하기로 한다.  
2) 해당 논의에서는 ‘乃至’를 구성하고 있는 ‘乃’가 구체적으로 ‘허사’의 어느 부류에 배속되는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張寶林(1996:440)에 따르면, 이때의 ‘乃’를 文言 副詞로 보는 관점이 일반적이라 한다.

그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 ‘乃’는 [도달]을 의미하는 동사 ‘至’ 및 그에 후행하는 목적어를 수식하고, 이어주는 역할을 했는바 [(…해서야) 비로소] 정도로 풀이된다.

- (3) 가. 然則柔風甘雨乃至, 百姓乃壽, 百蟲乃蕃, 此謂星德. <管子·四時>
- 나. 楚遠, 更數國乃至晉. <史記·晉世家>
- 다. 形充空虛, 乃至委蛇. <莊子·天運>

그중 (3가)의 통사 구조는 [乃+至]로 분석된다. 이때 ‘至’는 [행위]와 [결과]의 의미를 겸하며, ‘乃’는 전건과 ‘至’의 의미를 인과적으로 연결하고,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3나)는 [乃+[至+NP]]로 분석된다. 여기서 ‘至’는 [행위]를 나타내고, ‘NP’는 [결과]를 나타낸다. ‘乃’는 전건과 [至+NP] 구성의 의미를 인과적으로 연결하고, 강조해 준다. 한편, (3다)는 [乃+[至+VP]]으로 분석된다. 그중 ‘至’가 [행위], ‘VP’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3나)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VP’가 직접 서술어를 담당할 수 있으므로, ‘乃’의 인과적 연결 및 강조의 기능은 ‘VP’에 직접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至’에 배속되는 [행위]의 의미는 사실상 ‘잉여 성분’으로 약화되는 모습을 보인다.<sup>3)</sup>

- (4) 女思不止, 病日益甚, 乃至殒落. <吳越春秋·闔閭內傳>

앞서 (3)에서 보았던 예문들의 경우, 대개 ‘乃’의 뒤에는 ‘결과’를 나타내는 성분들이 후행하고, 그 앞에는 그러한 결과를 일으킨 ‘원인’이나 ‘조건’이 선행하는 맥락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乃’는 흔히 ‘인과적 연결’과 ‘강조’의 기능을 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런데 (4)의 경우, ‘병세가 날따라 악화되었다는 것(病日益甚)’과 ‘임금이 결국 붕어했다는 것(殒落)’은 한 가지 사태가 발전하는 과정의 순차적인 단계를 나타낸 것으로, ‘乃’를 전후하여 인과 관계나 조건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sup>4)</sup> 즉 (4)와 같이 인과 또는 조건 관계가 모호한 맥락에서 ‘乃至’ 가운데 ‘乃’의 ‘강조’적 역할이 점차 약화되고, ‘인과적 연결’이 아닌 ‘단순 연결’의 기능을 갖게 된 것으로 본다. 이를 계기로 ‘乃’와 ‘至’의 수식 관계는 점차 소실에 이르렀으며,<sup>5)</sup> 허사와 실사로서의 ‘乃’, ‘至’의 문법적 층위 대립 또한 사라지게 되었다는 분석이다.<sup>6)</sup>

아울러 ‘乃至’의 어휘화는 漢代에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휘화를 이룬 후의 ‘乃至’는 (5)에서와 같이 ‘접속사’(5가, 나, 다)와 ‘부사’(5라)의 용법을 보인다.

3) 일부 연구에서는 (3나)의 ‘乃至’를 하나의 접속사로 인정하기도 한다. 일례로 段德森(1990:30)에서는 해당 ‘乃至’를 [결과]의 접속사로 처리했다. 다만, 접속사 ‘乃至’에 대해 [결과]의 의미 자질을 상정하지 않는 견해도 있다. 이를테면 張寶林(1996:440)에서는 접속사를 이룬 ‘乃至’는 [심화]의 의미를 나타내고, [결과] 또는 [목적]의 의미는 ‘以至’, ‘以致’에 의해 실현되는 것으로 보았다.

4) 물론 인과 관계나 조건 관계로 풀이될 소지도 있다.

5) 다음의 예문 (가)와 같이 ‘乃至’가 기대되는 자리에 접속사 ‘至乃’가 쓰였다는 사실은 수식 관계나 문법적 층위의 대립에 따른 ‘乃’와 ‘至’의 경계가 사실상 소실되었음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가. 審配宗種, 至乃藏匿罪人, 爲逋逃主. 《三國志·武帝紀》註

6) 范崇峰(2013:7)에 의하면, (4)에서 보듯 ‘至’의 의미는 비록 약화를 겪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대성 목적어를 지니므로, 이때의 ‘乃’와 ‘至’는 각각 독립적인 통사 성분으로 간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다. 해당 논의에서는 ‘至’에 상대성 혹은 결과성 성분이 후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至’의 동사적 의미가 소실되고, ‘乃至’의 경계가 사라짐으로써 마침내 어휘화를 이룬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밝혔다.



- (5) 가. 天下之卿相人臣, 乃至布衣之士, 莫不高賢大王之行義, 皆願奉教陳忠於前之日久矣. <戰國策·趙策二>  
 나. 一切諸四天王…乃至阿迦膩吒天王, 各與無央數衆, 皆悉來會. <修行本起經3-461a>  
 다. 菩薩摩訶薩行尸波羅蜜時, 乃至剝皮食肉都不生怨, 況復餘處也. <菩薩本緣經3-70a>  
 라. 菩薩摩訶薩行無上道時, 爲諸衆生故, 乃至舍頭目. <菩薩本緣經3-62c>

그중 (5가, 나)는 접속사 ‘乃至’로 연결된 후행 성분이 선행 성분에 비해 정도성이 강한 사례로, 이때의 ‘乃至’는 ‘연결’의 기능과 더불어 ‘심화(遞進)’의 기능을 갖는다.<sup>7)</sup> (5다)는 ‘乃至’에 도달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상황’이 후행하고, 그 뒤에 또다시 ‘況復(하물며)’ 등으로 이어지는 평이한 상태가 공기하면서 비교를 이루므로, 이때의 ‘乃至’는 ‘양보’의 기능을 갖는 접속사로 작용한다. (5라)의 경우, ‘乃至’에 ‘극단적인 상황’이 놓인 것은 (5다)와 비슷하지만, 비교의 대상이 없다. 따라서 이때의 ‘乃至’는 연결의 기능은 없고, 강조의 기능만을 갖춘 부사로 간주된다.<sup>8)</sup>

현대에 이르러 중국어의 ‘乃至’는 [심화]의 접속사로만 쓰이게 되었다. 呂叔湘(1999:405)에 따르면, 현대의 ‘乃至’는 강조의 의미를 지니며, 병렬을 이루는 단어나 구 또는 절의 마지막 항 앞에 쓰임으로써 마지막 항의 내용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梁燕(2013:77~78)에서는 ‘乃至’의 [심화]적 의미를 (6)에서와 같이 ‘범위’·‘정도’·‘수량’·‘인지’상의 [심화]로 세분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심화 관계는 오름차순(升序)일 수도 있고, 내림차순(降序)일 수도 있으며, ‘乃至’의 후행 성분은 의미상 ‘극점’(極點)에 놓임을 언급했다.

(7) 가. 범위의 심화

▶ 這是一個太具誘惑的職業, 特別是一旦成爲明星, 那就徹底改變了自己乃至家族的命運.(이 직업은 상당히 유혹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스타가 되기만 하면, 자신乃至[심지어] 가족의 운명을 철저히 바꾸어 놓을 수 있다.)

나. 정도의 심화

▶ 沒完沒了的加班卻沒有加班費, 損害健康乃至危及生命的勞動沒有起碼的保護設施.(지속적인 초과 근무에도 수당이 없고, 건강乃至[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노동에는 기본적인 보호 장비마저 제공되지 않았다.)

7) 접속사 ‘乃至’가 [심화]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 원인을 특정 맥락 외 ‘乃至’를 구성하고 있는 한자의 字義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 예컨대 梁燕(2013:80)에서는 ‘乃’자 자체에 ‘竟然(뜻밖)’ 등으로 표현되는 [정도 심화]의 의미가 있었고, ‘至’가 장소뿐 아니라 상태나 결과에 [도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기에 접속사로 사용된 ‘乃至’ 또한 ‘심지어’ 정도로 풀이되는 [심화]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竟然(뜻밖)’ 정도에 대응하는 ‘乃’자가 [정도 심화]보다는 [의외성]에 가깝다는 점, ‘乃’뿐 아니라 “先生之巧, 至能使木鳶飛.”<韓非子·外諸說左上>처럼 ‘至’ 또한 ‘竟然(뜻밖)’ 정도로 해석되는 예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견해에 재고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乃’ 자체의 일부 의미가 접속사 ‘乃至’의 [심화]적 의미 형성에 일조했을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다. 이는 다음의 예문 (가)와 같이 漢代에 ‘심지어’ 정도의 [심화]로 해석되는 접속사 ‘乃’가 문중된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段德森(1990:407)에 따르면 ‘至’ 자체가 [심화]의 접속사로 쓰인 용례는 (나)에서 보듯 비교적 후대에 나타난 것이라 한다.

가. 非直不予, 乃多惡之. <春秋繁露·玉杯>

나. 而學者以其文也, 咸嗜悅焉. 伏膺呻吟者, 至比六經. 柳宗元 <與呂道州溫論非國語書>

8) 여기에 제시된 [심화], [양보] 외 段德森(1990:30)에서는 ‘다른 화제를 제기하는’ 이른바 [提接]의 접속사를 설정하기도 했다. 해당 논의에서는 (가), (나)에 쓰인 ‘乃至’와 ‘至乃’를 예시로, 이때의 ‘乃至’는 절의 첫머리에서 새로운 화제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가. 小人殉財, 君子殉名. 其所以變其情, 易其性嗎, 則異矣; 乃至於棄其所爲, 而殉其所不爲, 則一也. <莊子·盜跖>

나. 至乃田、寶、衛、霍之遊客, 廉頗、翟公之門賓, 進由勢合, 退用衰異. <後漢書·朱穆傳>

다. 수량의 심화

㉮ 103號以後の元素要以秒乃至毫秒來計了。(103번 이후의 원소는 초乃至[십지어] 밀리 초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

라. 인지의 심화

㉮ 教育觀念、培養模式乃至管理體制、運行體制都存在許多問題。(교육 관념, 양성 모식乃至[십지어] 관리 체제, 운영 체제에 많은 문제가 있다.)

이로써 중국어의 ‘乃至’는 ‘허사+실사’의 다층 구조에서 유래했으며, ‘至’에 후행하는 동사의 출현으로 인해 ‘至’의 실사적인 의미가 약화되고, ‘乃’와 잉여성분 ‘至’ 사이의 수식 관계 역시 약화되면서 어휘화에 이르렀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밖에 ‘乃至’의 통시적 용법으로 [심화]의 접속사를 상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기본 의미로 설정하고 있을 만큼 유세하며, [양보]·[堤接]·[결과]의 접속사 또는 [강조]의 부사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공존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고대에 보이는 여러 용법과는 대조적으로 현대 중국어의 ‘乃至’는 대체로 [심화]의 접속사로만 기술되고 있음도 확인했다.

3. ‘내지’의 통시적 문중 양상 및 의미 형성

아래에는 한국어사 자료 가운데 ‘내지’에 대한 초기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석독구결 및 언해 자료를 중심으로, 한자어 ‘내지’의 통시적인 문중 양상을 살펴보고, 중국어의 ‘乃至’와는 다른 의미들이 형성될 수 있었던 내적 동인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3.1 석독구결

이 부분에서는 자토석독구결(이하 ‘자토구결’)에 보이는 ‘내지’ 관련 기입 양상을 중심으로 분석하되, 필요에 따라 점토석독구결(이하 ‘점토구결’)의 예도 일부 언급하기로 한다. 먼저 자토구결 자료에서 문중되는 ‘내지’의 현토 유형을<sup>9)</sup> 용례와 함께 제시하면 (8)과 같다.

(8) 가. 乃<sub>3</sub>~+ 至<sub>4</sub>

A: 十八梵六 欲諸天 亦作八萬種音樂 聲動三千 乃至十方恒河沙佛土有緣斯現

B: 十八梵天<sub>1</sub> 六欲<sub>2</sub> 諸<sub>1</sub> 天<sub>1</sub> 亦<sub>1</sub> 八萬種<sub>2</sub> 音樂<sub>2</sub> 作<sub>1</sub> 聲<sub>3</sub> 三千<sub>2</sub> 動<sub>2</sub> 乃<sub>3</sub> 十方<sub>2</sub> 恒河沙<sub>2</sub> 佛土<sub>3</sub> + 至<sub>4</sub> 有緣<sub>1</sub> 斯<sub>3</sub> 現<sub>2</sub> (十八梵天이니 六欲의 모든 하늘이니 하는 것도 또한 八萬 種의 音樂을 지으시어 소리로 삼천세계를 진동시키는데 지방의 恒河沙 佛土에 이르도록 인연 있는 곳에는 斯<sub>3</sub> (이와 같이?) 나타나셨다.)<구인03:04-06>

나. 乃<sub>3</sub>至<sub>4</sub>

A: 三生入正位者 或四五生 乃至十生 得入正位

B: 三生<sub>2</sub> 正位<sub>3</sub> + 入<sub>1</sub> 乃<sub>3</sub> 至<sub>4</sub> 十生<sub>2</sub> 得<sub>2</sub> 正位<sub>3</sub> + 入<sub>1</sub> (三생을 하고 正位에 들어간 자도 있고

9) 각 유형의 출현 빈도를 정리해 보이면 <표 1>과 같다.

<표 1> ‘乃至’의 현토 유형 및 출현 빈도

현토 유형	화소	화엄	구인	유가	자비
1 乃 <sub>3</sub> ~+ 至 <sub>4</sub>	1				
2 乃 <sub>3</sub> 至 <sub>4</sub>	23				
3 乃 <sub>3</sub> ~+ 至 <sub>4</sub>			3	1	2
4 乃 <sub>3</sub> 至 <sub>4</sub>		3	5	9	1

혹은 四生이니 五生이니 내지 十生이니 하는 것을 하고 능히 正位에 들어간 자도 있고 하며)<구인11:17-18>

다. 乃<sup>ㄴ</sup>~+ 至<sup>ㄹ</sup>

A: 是故應爲 饒益衆生 隨其所有 一切皆捨 乃至盡命 亦無所悵

B: {是}ㄴ 故<sup>ㄴ</sup> 衆生<sup>ㄷ</sup> 饒益<sup>ㄷ</sup>{爲}ㄴ 其<sup>ㄴ</sup> 有<sup>ㄴ</sup> 所<sup>ㄷ</sup> 隨<sup>ㄴ</sup> 一切<sup>ㄷ</sup> 皆<sup>ㄷ</sup> 捨<sup>ㄴ</sup> 乃<sup>ㄴ</sup> 盡命<sup>ㄷ</sup> 亦<sup>ㄴ</sup> 悵<sup>ㄴ</sup> 所<sup>ㄷ</sup> 無<sup>ㄴ</sup> 應<sup>ㄴ</sup> 1 (이 까닭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자신의 있는 바를 따라 모두 다 버리되 그런 것들(에서) 목숨을 다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하여도 또한 아끼는 바 없이 해야 하는 것이다.’ 한다.)<화소10:12-13>

라. 乃<sup>ㄴ</sup> 至<sup>ㄹ</sup>

A: 作是念已 即便施之 乃至以身恭勤作役 心無所悔 是名內外施

B: {是}ㄴ 念<sup>ㄷ</sup> 已<sup>ㄴ</sup> 施<sup>ㄷ</sup> 乃<sup>ㄴ</sup> 至<sup>ㄹ</sup> 身<sup>ㄷ</sup> 以<sup>ㄴ</sup> 恭勤<sup>ㄷ</sup> 作役<sup>ㄷ</sup> 心<sup>ㄷ</sup> 悔<sup>ㄴ</sup> 所<sup>ㄷ</sup> 無<sup>ㄴ</sup> 應<sup>ㄴ</sup> 1 (이 생각을 함을 이미 하고서는 곧바로 이를 보시하며 내지 몸으로써 恭勤 作役 하되 마음에 후회하는 바 없이 하는 것을 이를 일컬어 內外施라 하는 것이다.)<화소 12:04-05>

위에서 보듯 자토구결에서는 한문 원문의 ‘乃至’를 ‘乃’와 ‘至’로 분리하여 각각 현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乃’의 경우, ‘乃<sup>ㄴ</sup>’ 또는 ‘乃<sup>ㄴ</sup>~’로 처리되었으며, ‘至’는 ‘至<sup>ㄹ</sup>’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한편, ‘乃(ㄴ)~’와 ‘至(ㄹ)’가 직접 통합되었는지, 아니면 이들 사이에 다른 성분이 개재되었는지에 따라 다시 ‘乃(ㄴ)~+ 至(ㄹ)’형과 ‘乃(ㄴ)~ 至(ㄹ)’형으로 양분된다. 이는 漢代 이래 고대 중국어에서 하나의 어휘로 간주되던 ‘乃至’와 달리, 자토구결에서는 ‘乃’와 ‘至’ 사이의 경계가 유지되고 있는바 兩者의 ‘분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요컨대 아래에는 석독구결에서부터 확인되는 ‘乃’와 ‘至’ 사이의 ‘분리 가능성’이 중국어의 ‘乃至’와는 구별되는 ‘내지’의 의미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임을 상정하고, 이를 논증해 보려 한다.

(8)에 제시된 예문 가운데 가장 먼저 주목되는 부분은 ‘至<sup>ㄹ</sup>’가 논항을 취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8가)와 (8다)에서는 ‘至<sup>ㄹ</sup>’가 그에 선행한 ‘十方<sup>ㄷ</sup> 恒河沙<sup>ㄷ</sup> 佛土<sup>ㄷ</sup> +’와 ‘盡命<sup>ㄷ</sup> 亦<sup>ㄴ</sup> +’를 논항으로 취하며, (8나)와 (8라)에서는 ‘至<sup>ㄹ</sup>’의 논항이 그에 후행하는 ‘十生<sup>ㄷ</sup> : / ㄷ’과

10) 점토구결의 현토 양상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음의 용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 ‘乃(ㄴ) 至(ㄹ)’ 정도로 되어 있음을 본다.

가. A: 是故[45(·)]菩薩[33(·)]常[24(ㄹ)]應匪懈[44(·),43(ㄹ)]勤[25(·)]修諸[33(·)]地[25(·)?]殊勝淨業[41(·),52(·)]乃[43(·)]至[24(ㄹ)]趣入如來[44(·)]智地[53(·),32(ㄹ),42(ㄹ),25(·),55(·)]

B: 是故[ㄴ]菩薩[ㄴ]常[ㄹ]應匪懈[ㄴ, ㄷ]勤[ㄷ]修諸[ㄴ]地[ㄷ]殊勝淨業[ㄷ, ㄴ]乃[ㄴ]至[ㄹ]趣入如來[ㄴ]智地[+, X, ㄷ, ㄷ, ㄴ] <주본화엄34, 17:22-23>

나. A: 如世[25(·)]如善根亦亦迴向一切衆生[31~41(·)]於一念[25(·)]中[=53(·)]見一切佛[41(·),35(·),13(·)]乃至[35(ㄹ)]未曾一念[52(·),=35(·)#25(·)]遠離[44(·),35(·),13(·),53(·)]

B: 如世[ㄷ]如善根亦亦迴向一切衆生[ㄷ]於一念[ㄷ]中[ㄴ+]見一切佛[ㄷ, ㄴ, X, ㄷ]乃至[ㄹ]未曾一念[X, ㄴ]遠離[ㄴ, (ㄴ)ㄴ, X, ㄴ, ㄴ+] <진본화엄20, 08:09-10>

다. A: 又從無擾動語[34(·),42(·)]乃[24(·)]至[역독선]無邊無盡語[44(·),22~32(·)]應知[42(·),51(·)]略[45(·)]攝[15(·)]爲三種語[24(·),33(·),33~43(·),+11(·)]

B: 又從無擾動語[ㄷ, ㄷ]乃[ㄴ]至[ㄹ]無邊無盡語[+, ㄹ]應知[ㄴ ㄷ, ㄴ]略[ㄴ]攝[ㄴ]爲三種語[ㄴ, ㄴ, ㄴ, ㄴ] <유가08 14:19-20>

‘身乙以 恭勤 作役ノ尸々’임을 본다.<sup>11)</sup> 이렇듯 ‘至<sub>二</sub>’가 논항을 취한다는 사실은 결국 ‘至<sub>二</sub>’의 동사적인 성격 또는 서술어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sup>12)</sup> 더 나아가 해당 문장 내에서 지배적인 성분 또는 필수 성분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논항을 취하는 동사로서의 ‘至’가 [도달]의 의미임을 감안할 때 (8)에 대한 해석이 고대 중국어의 그것과 달리 실현되는 현상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8가)의 경우, 앞서 살펴본 고대 중국어 ‘乃至’의 어휘화 기제에 따르면, (9가)처럼 ‘乃’와 긴밀히 공기하는 동사 ‘至’가 그에 후행하는 동사 ‘現’의 존재로 인해 잉여 성분으로 변하게 된다. 그후 수식이나 강조의 기능을 상실한 채 단순 연결의 기능을 하는 ‘乃’와 융합되어 접속사를 형성했으며, ‘三千 世界’와 ‘十方恒河沙佛土’ 같이 ‘범위의 심화’를 이어주는 [심화]의 접속사로 작용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9가)는 ‘삼천 세계 乃至[심지어] 지방의 恒河沙 佛土를 진동시켰으며, 인연 있는 곳에는 (이와 같이?) 나타나셨다’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반면, (9나)에서 보듯 자토구결에서는 ‘至<sub>二</sub>’가 ‘十方 恒河沙 佛土 有緣’이라는 논항을 지배하는 동사의 지위에 있으므로, 해당 절 안에서 동사 ‘至’가 갖는 [도달]의 의미, 즉 ‘이르-’라는 표현이 그대로 문면에 실현되어 [포괄]의 의미와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8나), (8라)를 비롯한 석독구결의 대다수 용례가 이에 해당한다.

- (9) 가. 十八梵六 欲諸天 亦作八萬種音樂 聲動三千 乃至十方恒河沙佛土有緣斯現  
 → 十八梵六 欲諸天 亦作八萬種音樂 聲動三千 乃至十方恒河沙佛土有緣斯現

나. A: 十八梵六 欲諸天 亦作八萬種音樂 聲動三千 乃至十方恒河沙佛土有緣斯現

B: 十八梵天 六欲 諸 天 亦 八萬種 音樂 作 聲 三千 動 乃 十方 恒河沙 佛土 有緣 斯 現  
 (十八梵天이니 六欲의 모든 하늘이니 하는 것도 또한 八萬 種의 音樂을 지으시어 소리로 삼천세계를 진동시키는데 지방의 恒河沙 佛土에 이르도록 인연 있는 곳에는 斯(이와 같이?) 나타나셨다.) <구인03:04-06>

다만 (8다)의 경우, 석독구결의 여타 용례들과 달리 ‘至<sub>二</sub>’에 ‘々’가 추가로 통합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문맥상 (8다)는 역접이나 양보로 해석되는데 ‘至<sub>二</sub>’가 논항을 취하므로, 석독구결에서 ‘乃’와 ‘至’가 분리됨을 상기하면, 역접이나 양보의 의미는 ‘乃<sub>二</sub>’ 또는 ‘乃<sub>二</sub>々’에 배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乃<sub>二</sub>’와 ‘乃<sub>二</sub>々’의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진호(2012:4~6)에서는 한문 ‘A乃至B’ 구성의 ‘乃’에 지시사적 용법이 내재되어 있음을

11) 후기 중세 이후의 한국어 자료에서는 논항이 서술어에 후행하는 현상이 흔하지 않지만,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그러한 예가 여럿 보인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본고의 논지를 벗어나므로, 더이상 천착하지 않기로 한다.

12) 참고로 황선엽(2002:152)에서는 (8가), (8다)와 같은 유형의 구문을 대상으로, ‘至<sub>二</sub>(니르리)’가 처격을 논항으로 취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至’에 통합된 ‘二’를 연결어미로 파악한 바 있으며, 일찍이 현희(1995:534)에서도 ‘至<sub>二</sub>’의 후기 중세 어형인 ‘니르리’가 ‘楞嚴이 唐부터 宋에 니르리 科하며 刹하며’ <능엄경언해 1:16>처럼 논항을 취하므로 ‘니르리(至<sub>二</sub>)’를 동사 ‘니르-’에 연결어미가 통합된 활용형으로 파악한 바 있다. 아울러 장윤희(2006:101-103)에서는 석독구결 자료 가운데 “衆生乙 其實性乙 知<sub>二</sub> 欲<sub>二</sub> 廣<sub>二</sub> {爲}[三] 說宣<sub>二</sub> 々<sub>二</sub>” <화소 18:17>처럼 논항을 취하는 ‘知<sub>二</sub>’ 등의 용례를 통해 ‘-二’에 강한 어미적 성격이 포착됨을 언급하고, 고대 한국어 시기가 어미와 접미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던 시기였다는 점, 어미와 부사 파생 접미사로 두루 쓰이는 평행 사례로 ‘-二’가 있다는 점 등에 착안하여, 석독구결의 ‘-二’는 파생 접미사로서의 성격은 물론, 어미의 성격도 동시에 지닌 문법 요소로 파악했다.

언급하고, 해당 구결 형태 ‘A 乃<sub>지</sub> 至<sub>니</sub> B’ 또는 ‘A 乃<sub>지</sub> B + 至<sub>니</sub>’의 ‘乃<sub>지</sub>’는 지시사임을 나타내는 ‘지’ 앞에 전훈독자인 ‘乃’가 놓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다음의 (10)처럼 지시사의 용법을 보이는 ‘지’가 존재하고, <구역인왕경>에서 ‘지’가 ‘乃’자의 오른쪽 내부에 기입되었다는<sup>13)</sup> 사실 등에 바탕을 두고 있다.

- (10) 但ハ 彼 境界ニ 因<sub>リ</sub>テ ハ 衆生ニ 攝取<sub>ル</sub>ヲ 欲<sub>ス</sub>ク 爲<sub>リ</sub>テ 眞實ニ 說<sub>フ</sub>ク ハ 佛法ニ 成熟 令<sub>リ</sub> ナ<sub>ル</sub>カ<sub>ニ</sub> 然<sub>レ</sub>ニ<sub>テ</sub> 乃<sub>レ</sub> 此<sub>ノ</sub> 法<sub>ノ</sub> 一<sub>ノ</sub> 者<sub>ト</sub> 處所 有<sub>ル</sub>ニ<sub>テ</sub> 非<sub>ス</sub>カ<sub>ニ</sub> 處所 無<sub>ル</sub>ニ<sub>テ</sub> 非<sub>ス</sub>カ<sub>ニ</sub> 內 非<sub>ス</sub>カ<sub>ニ</sub> 外 非<sub>ス</sub>カ<sub>ニ</sub> 近 非<sub>ス</sub>カ<sub>ニ</sub> 遠 非<sub>ス</sub>カ<sub>ニ</sub> 一<sub>ノ</sub> 所<sub>ト</sub> 乃<sub>レ</sub> <화소13:18-14:02>

한편, <화엄경소>의 ‘乃<sub>지</sub> 至<sub>니</sub>’에서 보듯 ‘乃’와 ‘지’ 사이에 ‘<sub>지</sub>’가 개재된 것은 ‘지’가 지시사로서의 자립성을 상실하고 전제조건 또는 선행조건을 이어주는 의존요소로 변해가는 통시적 상황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았다. 즉 ‘乃’를 의미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어 요소 ‘-사’로 직접 표현하기에는 ‘-사’의 길어져 가는 의존성이 걸려 이를 지지해줄 수 있는 host ‘하-’를 첨가한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와 달리 이현희(1995:533~534)에서는 ‘乃<sub>지</sub>’를 동사 어간 ‘乃(\*비르-)’에 어미 ‘지’가 직접 통합한 형태로 파악했다. 해당 논의에서는 ‘乃<sub>지</sub>’의 ‘乃’가 동사 어간임을 방증하는 근거로 ‘乃’와 ‘지’ 사이에 ‘<sub>지</sub>’가 개재된 ‘乃<sub>지</sub>’가 있다는 점, ‘지’의 후대형인 ‘-사(>-사)’가 후기 중세한국어 시기에 ‘출히 說法 마오 涅槃에 어셔 드사 흐리로드’<석보상절 13:58>의 ‘드사(들+-사)’와 같이 동사 어간에 직접 통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요컨대 석독구결의 ‘乃<sub>지</sub>’ 및 ‘乃<sub>지</sub> 至<sub>니</sub>’의 의미는 지시사·동사·[전제] 또는 [선행조건]의 의존 요소 등 용언과 문법 형태에 걸쳐 다양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至<sub>니</sub>’에 비해 의미 기능 또한 가변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위에서 본 (8가), (8나), (8라) 등 용례의 ‘乃<sub>지</sub> 乃<sub>지</sub>’는 지시사의 전훈독 표기 또는 [전제/선행조건]의 의존성 문법 요소로 보는 것이 양가적이지만, (8다)의 ‘乃<sub>지</sub>’는 문맥상 이러한 의미들로 해석하기 어렵다. 이는 (10)과의 비교를 통해 해석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8) 다. {是} 故<sub>ニ</sub> 衆生ニ 饑益<sub>ル</sub>ヲ 爲<sub>ス</sub>ク 其 有<sub>ル</sub> 所<sub>ト</sub> 隨<sub>テ</sub> 一切<sub>ノ</sub> 皆<sub>テ</sub> 捨<sub>ル</sub>ム 乃<sub>レ</sub> 盡<sub>ス</sub> 命<sub>ヲ</sub> 亦<sub>レ</sub> 一<sub>ノ</sub> 所<sub>ト</sub> 無<sub>ル</sub> 應<sub>ス</sub> 一<sub>ノ</sub> 所<sub>ト</sub> 一<sub>ノ</sub> 所<sub>ト</sub> (이 까닭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자신의 있는 바를 따라 모두 다 버리되 그런 것들(에서) 목숨을 다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하여도 또한 아끼는 바 없이 해야 하는 것이다.’ 한다.)<화소10:12-13>

- (10) 但ハ 彼 境界ニ 因<sub>リ</sub>テ ハ 衆生ニ 攝取<sub>ル</sub>ヲ 欲<sub>ス</sub>ク 爲<sub>リ</sub>テ 眞實ニ 說<sub>フ</sub>ク ハ 佛法ニ 成熟 令<sub>リ</sub> ナ<sub>ル</sub>カ<sub>ニ</sub> 然<sub>レ</sub>ニ<sub>テ</sub> 乃<sub>レ</sub> 此<sub>ノ</sub> 法<sub>ノ</sub> 一<sub>ノ</sub> 者<sub>ト</sub> 處所 有<sub>ル</sub>ニ<sub>テ</sub> 非<sub>스</sub>카<sub>ニ</sub> 處所 無<sub>ル</sub>ニ<sub>テ</sub> 非<sub>스</sub>카<sub>ニ</sub> 內 非<sub>스</sub>카<sub>ニ</sub> 外 非<sub>스</sub>카<sub>ニ</sub> 近 非<sub>스</sub>카<sub>ニ</sub> 遠 非<sub>스</sub>카<sub>ニ</sub> 一<sub>ノ</sub> 所<sub>ト</sub> 乃<sub>レ</sub> (다만 저 경계로 말미암아 중생을 섭취하고자 (이들을) 위하여 진실을 말하여서 불법을 성숙하게 할 것이며,)<화소13:18-14:02>

일찍 박진호(2012:5)에서는 ‘然’이 본래 ‘그렇다’를 의미하는 지시사였으며,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사로도 쓰이게 되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지시사로부터 접속사의 용법을 지

13)  <구인03:06>

날 수 있었던 것은 지시적 의미를 상실하지 않고, 여전히 지닌 채 선행절의 내용을 가리키는 데 바탕을 둔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에 (10)의 ‘然<sub>시</sub>〰<sub>ㄷ</sub>’를 전훈독자 ‘然’에 지시 용언 ‘<sub>시</sub>〰<sub>ㄷ</sub>’가 통합하고, 거기에 역접의 연결어미 ‘-<sub>ㄷ</sub>’가 통합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중 지시 용언의 ‘<sub>시</sub>’는 상태지시의 ‘그리’ 또는 사건/행위 지시의 ‘그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본고는 박진호(2012:5)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한자 ‘然’이 지시사와 역접의 접속사를 두루 나타낸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然<sub>시</sub>〰<sub>ㄷ</sub>’에 보이는 역접의 연결어미 ‘-<sub>ㄷ</sub>’가 ‘然’이 지닌 [역접]의 의미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즉 ‘然/전훈독자-<sub>시</sub>〰<sub>ㄷ</sub>/지시용언-<sub>ㄷ</sub>/[역접]의 접속 성분(연결어미)’으로 봄으로써 ‘然’에 선후하여 통합한 ‘-<sub>시</sub>’와 ‘-<sub>ㄷ</sub>’가 ‘지시적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역접의 접속사’로 기능하는 ‘然’의 다기능적 성격을 각각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셈이다.

‘然<sub>시</sub>〰<sub>ㄷ</sub>’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8다)에 보이는 역접의 연결어미 ‘-<sub>ㄷ</sub>’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乃’ 또한 ‘然’과 마찬가지로 지시사와 역접의 의미를 두루 겸하므로, ‘-<sub>ㄷ</sub>’가 사실상 [역접]의 의미를 갖는 ‘乃’에 조응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sup>14)</sup> 후술하겠지만, ‘乃’가 지니는 의미 기능이 이처럼 ‘至’의 뒤에서 실현되는 현상은 후기 중세한국어 자료에서도 적잖이 확인된다.

### 3.2 언해

아래에는 후기 중세 및 근대 한국어 자료에서 문증되는 ‘乃至’의 언해 양상을 살펴 보기로 한다. ‘乃至’의 언해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용례 중 절대다수는 15세기 불경언해의 것이며, 이밖에 16세기 및 18세기의 언해 자료 가운데 소수의 용례가 발견된다. 먼저 다음의 예문들을 보기로 한다.

- (11) 가. 비록 色聲等事를 正히 아라도 我心과 疑使에 니르리 긋디 몬흐느니라(故雖正識色聲等事不斷我心乃至疑使) <월인석보 11:123a>  
 나. 사르미 만흐야 一百 二百 五百 사르메 니르리 그에 잇더라(多諸人衆 一百二百乃至五百人止住其中) <월인석보 12:21a>
- (12) 가. 이 사르몬 一佛 二佛 三四五佛의 善根을 심군 디 아니라 흐마 無量千萬佛에 한 善根을 심거 이 章句를 듣고 흔 念에 니르리나 조흔 信을 내는 돌 반드기 아롤띠니라(知是人不於一佛二佛三四五佛에 而種善根이라 已於無量千萬佛所에 種諸善根흐야 聞是章句하고 乃至一念이나 生淨信者 | 나라) <금강경삼가해 상 33a>  
 나. 世尊하 흐다가 이 長者 | 못 저근 흔 술위를 주디 아니호메 니르러도 오히려 虛妄티 아니흐니(世尊하 若是長者 | 乃至不與最小一車흐야도 猶不虛妄이니) <개간법화경 2:28a>
- (13) 熱病이 홀리어나 이트리어나 사으리어나 나으리어나 닐웨에 니르리어나 長常 알히는 熱病이어나 남지디 양지어나 겨지비 양지어나(若熱病 若一日 若二日 若三日 若四日乃至七日 若常熱病 若男形 若女形) <석보상절 21:30a>
- (14) 가. 또 長者야 이 곤흔 罪業衆生이 命終흔 後에 眷屬 骨肉이 爲흐야 齋 닷가 業道를 도보디 齋食 몬 다흔 적과 齋 밍굼 저기 쓰물와 蔬蔬入 니플 짜해 바리디 말며 너나몬 飲食에 니르리 佛僧의 반죽디 몬흐야셔 몬져 먹디 마로리니 흐다가 그르 먹거나 精勤티 몬흐면 이 命終흔 사르미 값간도 히물 득디 몬흐리라(復次 長者 如是罪業衆生 命終之後 眷屬骨肉 爲

14) 요컨대 (8다)를 제한 외 (8가), (8나), (8라) 등의 예에서는 ‘乃(〰)시’가 지시사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修營齋 資助業道 未齋食竟 及齋齋之次 米泔菜葉 不棄於地 乃至諸食未獻佛僧 勿得先食 如有違食 及不精勤 是命終人 了不得力 <월인석보 21:110b>

- 나. 涅槃에 니르샤디 下智 觀호린 聲聞 菩提를 得호고 上上智 觀호리에 니르린 佛菩提를 得호리라 호시니(涅槃에 云호샤디 下智觀者는 得聲聞菩提호고 乃至上上智觀者는 得佛菩提라 호시니) <선종영가집언해 하 64a>

위의 예문들은 ‘乃至’의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예컨대 (11)은 [포괄], (12)는 [양보], (13)은 [이접], (14)는 [화제 제기]를 나타내는 ‘乃至’의 언해 양상을 반영한다. 석독구결의 용례들과 마찬가지로, ‘乃至’의 ‘至’는 대체로 논항을 취하는 동사 ‘니를-(니르-)’으로 처리되었음을 본다.

그중 [포괄]을 의미하는 (11)의 경우, 원문의 ‘至’에 해당하는 ‘니를-’만 언해에 나타나고, ‘乃’로 붙직한 형태, 이를테면 ‘-샤’ 등이<sup>15)</sup> 직접 문면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자칫 ‘乃’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는 것처럼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15가)와 같이 ‘乃’가 [출발점]을 뜻하는 ‘-으로’에 해당되는 예가 있음을 감안하면, 석독구결에서 본 바와 같이 이때의 ‘乃’ 또한 지시사의 기능을 지닌채 [출발점]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15나)처럼 ‘乃至’의 ‘乃’가 [출발점]을 뜻하는 ‘브터’로 실현된 동일 문헌의 예가 있으며, 후대의 예이기는 하지만 (15다)처럼 ‘이에’로 언해된 예가 존재한다.

- (15) 가. 迦葉佛 위호스바 이 짜해 精舍 이르스불 제도 이 개야미 이에서 사터니 처설 이에셔 사던 지그로 오닐낫 2장<sup>16)</sup> 해면 아호호 劫이로소니(迦葉佛時, 汝亦爲佛. 於此地中起立精舍, 而此蟻子亦在中生. 乃至今日九十一劫.) <석보상절 6:37b>
- 나. 尊者 | 모르시는가 내 菩提樹 아래브터 涅槃호시도록 如來의 여러 번 어즈리습다이다(大家汝可不知我欲菩提樹下乃至涅槃 於如來所多作惱亂) <월인석보 4:26a>
- 다. 聲名流傳호은 이에 千萬년에 닐으느니(聲名流傳乃至千萬年) <오륜전비언해 6:28b>

더욱이 흥미로운 것은 (12), (13), (14) 등과 같이 한문 원문 속의 ‘乃至’가 [포괄]이 아닌 여타의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경우, 논항을 취하는 ‘니를-(至)’은 그대로 유지된 채 그 뒤에 각각 [역접] 또는 [양보]의 ‘-나/-어도’, [이접]의 ‘-어나’, [화제]의 ‘-은’ 등이 통합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어 체계 내에서 ‘乃至’가 ‘乃#至’ 정도의 경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성 요소 ‘乃’와 ‘至’가 사실상 각각의 의미 기능을 갖는 것일 가능성에 힘을 실어 준다. 기술의 편의상 (12)~(14)의 예들을 <표 2>와 같이 재분석하기로 한다.

15) 기존의 여러 논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乃’는 언해에서 주로 ‘-샤(-사)’에 대응한다. 예를 들면 다음의 (가)와 같다. 다만 ‘乃至’의 언해 양상 가운데는 석독구결처럼 ‘乃’에 ‘-샤/-사(-ᄃ)’를 통합시킨 예가 문중되지 않는다.

가. 오직 諸佛이샤 能히 아르시리라(唯有諸佛乃能知之) <월인석보 11:110a>

16) 최근에 권인한(2020:4, 6)을 통해 발표되었듯 <동대사본 화엄경>에는 ‘乃至’에 보조사 ‘-2장’ 정도로 해독되는 ‘□常/古常’ 등이 각필로 기입된 예가 있다. 이는 (15)의 언해 양상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가. 768행: 乃至[□常]



나. 937~939행: 乃至[古常]



<표 2> ‘乃至’의 언해 양상에 대한 재분석

번호	의미(z)		용례		니르리-/니를-(x)+y
(12')	[역접]	가.	흔 念에 니르리나	→	흔 念에 니를-이-나
	[양보]	나.	흔 술위를 주디 아니호매 니르러도	→	흔 술위를 주디 아니호매 니를-어도
(13')	[이접]		닐웨에 니르리어나	→	닐웨에 니를-이-어나
(14')	[화제]	가.	너나몬 飲食에 니르리	→	너나몬 飲食에 니르리-∅
		나.	上上智 觀하리에 니르런	→	上上智 觀하리에 니를-어-은

<표 2>에서 보듯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니르리-/니를-’을 ‘x’로, 그에 후행하는 여러 문법 형태들을 ‘y’로, 원문의 ‘乃至’가 내포하는 각각의 특수 의미를<sup>17)</sup> z라고 할 때 의미 z가 실현되는 방식으로 대개 세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이들은 각각 ① $[z] = x + [y]$ , ② $[z] = [x] + y$ , ③ $[z] = [x + y]$  정도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①과 ②는 ‘니르리-/니를-’(x)와 그에 후행하는 문법 형태의 의미(y) 중의 하나가 최종 의미로 실현되는 경우이고, ③은 ‘니르리-/니를-’(x)와 그에 후행하는 문법 형태의 의미(y)가 융합하여 최종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기술의 편의상 ①과 ②를 묶어 (I)‘配屬型’이라 하고, ③을 (II)‘融合型’이라 부르기로 한다. 한편, 한국어사 자료를 기준으로, ‘乃’와 ‘至’에 대해 각각의 의미 기능을 설정하는 본고의 가설에 따르면, ‘y’에 대응하는 요소는 일단 ‘乃’가 된다. 아울러 문헌의 용례와 이러한 유형들의 정합 여부를 검증하는 수단으로, ‘乃’와 ‘至’라는 한자 자체에 관련 의미가 있었는지를 참고할 수 있다.

(12')의 경우, ‘乃’가 (16가)처럼 ‘오히려/되려’의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16나)와 같이 [전환]의 의미도 지니는 반면, ‘至’에는 그러한 의미가 없음을 감안하면, ‘니를-’에 후행하여 [역접] 또는 [양보]임을 나타내는 ‘-나’ 또는 ‘-어도’는 ‘乃’에 배속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13')의 경우, 다음의 (16다)에서 보듯 ‘乃’ 자체에 실제로 [이접]의 의미가 있는 반면, ‘至’에 그러한 의미가 없으므로, ‘니를-’에 후행하여 [양보]임을 나타내는 ‘-어나’는 ‘乃’에 배속될 수 있다. 요컨대 이들은 (I)‘配屬型’ 중에서도 ‘乃’에 의해 [양보]나 [이접] 등 특수 의미들이 실현된 ① $[z] = x + [y]$ 에 가깝다.

(16) 가. 有厥罪小, 乃不可不殺. <書·康誥>

나. 今已得 益州, 則荊州自應見還, 乃皇叔 但肯先割三郡. <三國演義·第六六回>

다. 意者朕之政有所失而行有過與? 乃天道有不順, 地利或不得, 人事多失和, 鬼神廢不享與. <漢書·文帝紀>

한편, (14')의 경우, 문맥상 ‘乃至’는 [화제 제기]를 나타내며, 언해에서는 ‘니르리-’ 또는 그에 [화제]임을 나타내는 ‘-은’을 통합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至’에 [도달]이라는 기본 의미 외 (17)과 같이 화제를 이끌어내는 의미 기능이 있음을 감안하면, (14')의 ‘니르런’은 사실상 ‘至’에 내재된 ‘니를-’이라는 [도달]의 의미와 ‘-은’으로 표현되는 [화제 제기]의 의미가 차례로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4')의 ‘니르리-’는 ‘니르리-∅’ 정도로, ‘-은’이 생략된 것이거나 ‘至’의 다의성에 따라 ‘니르리’가 [도달]과 [화제 제기]의 의미를

17) 여기에서 ‘특수 의미’라 함은 ‘乃至’의 언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至’의 동사적 의미인 ‘니를-’을 제한 외 문면에서 파악되는 부가적인 의미를 가리킨다. 예컨대 ‘이르러도’의 경우, ‘이르-’라는 동사적 의미를 제한 외 ‘-어도’로 표현되는 [양보]의 의미를 ‘특수 의미’로 간주하는 것이다.



결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즉 이는 (D)‘配屬型’ 중 ② $[z] = [x] + y$ 에 해당하는 예에 가까운 것이다. 이때의 ‘乃’는 (11)의 것과 동격으로, 지시사적 용법을 지닌 채 화제 이행의 [출발점]을 함의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17) 가. 今有一人，入人園圃，竊其桃李，衆聞則非之，上爲政者得則罰之。此何也？以虧人自利也。至攘人犬豕雞豚者，其不義又甚入人園圃竊桃李。〈墨子·非攻上〉  
 나. 刀便剃毛，至伐大木，非斧不剋。〈淮南子·說山訓〉  
 다. 項王 見人恭敬慈愛，言語嘔嘔，人有疾病，涕泣分食飲，至使人有功當封爵者，印劓敝，忍不能予，此所謂婦人之仁也。〈史記·淮陰侯列傳〉

아울러 다음의 (18)은 위에서 분석된 ‘乃至’의 다양한 의미와 그에 대응하는 언해 양상을 하나의 문단 속에서 두루 확인할 수 있는 용례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예컨대 (18)의 밑줄 그은 부분은 차례로 [화제 제기], [역접] 또는 [양보], [포괄] 등의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위의 분석을 적용하여 (i)과 같은 형태로 등장하는 (iii)의 ‘니르리’가 ‘니르린(니르리-은)’의 이행태일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18) 하나흔 (i)은 잇는니에 니르리 부러 주기디 몬호미오 들흔 鬼神이 (ii)넘자 잇는 것과 도즈기 物와 혼 바늘 혼 프레 니르러도 부러 도즈 몬호미오 세흔 一切 女人이 (iii)畜生과 諸天과 鬼神女와 道 아닌 게 니르리 부러 淫히디 몬호미오(一 乃至有命者 不得故殺 二 乃至鬼神有主劫賊物 一針一草 不得故盜 三 一切女人 乃至畜生諸天鬼神女及非道 不得故淫) <원각경언해상 2:15a>

요컨대 위에서 시도한 일련의 분석을 통해 한국어 체계 내에서 ‘乃至’는 ‘乃#至’ 정도의 경계를 가지며, 해당 구성 요소 ‘乃’와 ‘至’가 각각의 의미 기능을 갖는 것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증해 보았다. 특히 이 과정에 언급된 [이접]과 같은 특수한 의미의 경우, 고대 중국어 해석에서는 상정되지 않는 의미이지만, ‘乃’에 [이접]의 의미가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어사 자료의 ‘乃’와 ‘至’는 경계를 갖는다는 점 등에서 한자어로 쓰이는 ‘내지’가 해당 의미가 형성될 수 있었던 연유를 상정했다. 이로써 현대 한국어의 ‘내지’가 [심화]로 해석되는 중국어의 ‘乃至’와는 달리, [포괄]과 [이접]의 의미를 형성하게 된 것은 ‘乃#至’ 사이의 ‘분리 가능성’과 연관되는바 [포괄]은 논항을 취하는 ‘至’의 동사적 의미에 편중된 것으로, [이접]은 ‘선택’의 의미를 지니는 ‘乃’의 의미에 편중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으로, [이접]·[역접] 또는 [양보] 등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원문의 ‘乃至’가 후기 중세 및 근대의 한국어사 자료에서 이처럼 ‘니르리-니를-(x)+y’ 형태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언해되기도 했다.

- (19) 가. 우리들히 다 혼 므스므로 죽드록 三寶에 歸依히스바(我等相率皆同一心乃至盡形歸佛法僧)  
 <월인석보 9:61a>  
 나. 또 아되나 三千 大千世界에 ㄹ득흔 七寶로 부터뜨며 큰 菩薩와 辟支佛와 阿羅漢을 供養히야도 이 사르미 得흔 功德이 이 法華經엿 一四句 偈나 受持히니만 몬히니라(若復有人以七寶滿三千大千世界 供養於佛及大菩薩 辟支佛 阿羅漢 是人所得功德 不如受持此法華經 乃至一四句偈 其福最多) <석보상절 20:20a-20b>  
 다. 또 히다가 胎衣를 나티 몬히야 胎ㅣ 히야디여 주구매 니를어나 그러티 아니히면 아히 어

미로 죽거나 어미 아뢰로 죽거나 또 어미와 子息과 다 죽거나 커든(又若復胎衣不下 3 致損胎傷殺 5 乃 不然兒爲母死 5 乃 乃至母爲兒亡 5 乃 或復母子俱喪 5 1) <불정심경언해 6b:5>

위에서 보듯 (19가)는 [포괄]의 ‘乃至’가 ‘-도록’으로 실현된 예이고, (19나)는 [역접] 또는 [양보]의 ‘乃至’가 ‘-나’로 실현된 예이며, (19다)에서는 [이접]의 ‘乃至’가 ‘-거나(5 乃)’로 실현되었음을 본다. 즉 (11)~(14)에서 논항을 취하는 동사 ‘니를-(至)’에 다양한 문법 형태들을 수행시키는 방식을 취한 것과 달리 여기에서는 ‘乃至’에 대응하는 각각의 의미들을 단일 문법 형태로 처리한 것이다. 위의 분류 방법을 적용하면, 이들은 ‘(II)‘融合型’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고 하겠다.

#### 4. 결론

이상의 논의를 통해 확인한 주요 내용들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현대 한국어의 ‘내지’가 [포괄] 또는 [이접]의 다의성을 가질 뿐 아니라, 동형의 ‘乃至’가 현대 중국어에서는 [심화]의 의미로 달리 해석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한자어 ‘내지’가 [포괄]과 [이접]의 의미를 형성할 수 있었던 통시적 원인을 상정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漢代 이래 고대 중국어에서 하나의 어휘로 간주되어 온 ‘乃至’와는 달리, 석독구결 및 언해 등 한국어사 자료의 ‘乃至’에는 여전히 일정한 경계 및 분리 가능성이 존재했으며, ‘乃’와 ‘至’가 각각의 의미 기능을 담당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에 ①‘至 〃/니를-(니르-)’이 논항을 취하며, [도달]의 동사적인 성격이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 ②‘至’의 동사적 의미가 유지된 채 ‘乃’에 배속되는 지시사적 의미 또는 [이접]·[역접/양보] 등의 특수한 의미가 포착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요컨대 현대 한국어의 ‘내지’가 [포괄]과 [이접]의 의미를 형성하게 된 것은 ‘乃#至’ 사이의 ‘분리 가능성’과 연관되는바 [포괄]은 논항을 취하는 ‘至’의 동사적 의미에 편중된 것으로, [이접]은 ‘선택’의 의미를 지니는 ‘乃’의 의미에 편중된 것으로 파악했다.

## 참고문헌

- 권인환(2020), 「제15차 동대사도서관장 화엄경 각필 조사기」, 구결학회 월례연구발표회(5.23), 1-13.
- 金相大(1993), 『口訣文의 研究』, 한신문화사.
- 김상민(2020), 「보조사 ‘까지’의 인식양태 의미와 양태적 특성」, 『형태론』(22:2), 『형태론』편집위원회, 185-213.
- 김성주(2013), 「신라 점토석독구결 시탐(試探)」, 『배달말』(53), 배달말학회, 23-54.
- 김영옥(2005), 「釋讀 口訣文의 ‘不讀 現象’과 ‘不連續 現象’에 대하여 -‘乃’와 ‘乃至’를 중심으로-」, 『角筆口訣의 解讀과 翻譯1』, 태학사, 53-65.
- 김창섭(2001), 「한자어 형성과 고유어 문법의 제약」, 『國語學』(37), 國語學會, 177-195.
- 김현주(2008), 「‘또는’의 형성」, 『국어사연구』(8), 국어사학회, 41-56.
- 송기중(1992), 「현대국어 한자어의 구조」, 『한국어문』(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尹幸舜(2006), 「韓日의 漢文讀法에 나타나는 ‘乃至’에 대해서」, 『角筆口訣의 解讀과 翻譯3』, 태학사, 63-78.
- 박성현(1989), 「국어의 부사화소 {-이}와 {-게}에 대한 사적 연구-기능과 분포를 중심으로-」, 『언어학연구』(3),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 박진호(2012), 「석독구결의 ‘ᄃᆞᆫ」, 하계언어학학교 발표문,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1-7.
- 박진호(2015),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國語學』(73), 國語學會, 375-435.
- 신윤희(2005), 「보조사 ‘조차·까지·마저’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규환(2013), 「단어 형성 과정으로서의 어휘화」, 『國語學』(68), 國語學會, 323-366.
- 오규환(2016), 「한국어 어휘 단위의 형성과 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용선(2003), 『15세기 언해자료와 구결문』, 역락.
- 이강혁(2019), 「전기중세 한국어 ‘(-)ᄃᆞᆫ-’ 연구-자토석독구결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광호(1991), 「15, 16세기어 「뫓」, 「ㄹ장」의 유의구조분석」, 『어문론총』(25), 경북어문학회, 129-145.
- 이광호(2012), 「중·근세어 ‘-내’ 부사의 의미」, 『우리말글』(56), 우리말글학회, 169-190.
- 李賢熙(1994), 『中世國語 構文研究』, 新丘文化社.
- 李賢熙(1995), 「‘-샤’와 ‘-沙」, 『한일어학논총』, 523-585.
- 이용규(2020), 「중세 한국어 부사격 조사 비실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윤희(2006), 「고대국어의 파생 접미사 연구」, 『國語學』(47), 國語學會, 91-144.
- 장윤희(2011), 『몽산법어언해』, 채륜.
- 조재형 외(2018), 『용비어천가의 국어학적 분석과 현대역』, 국학자료원.
- 최형용(2003), 『국어 단어의 형태와 통사-통사적 결합어를 중심으로-』, 國語學叢書(45), 國語學會.
- 황선엽(2002), 「국어 연결어미의 통시적 연구-한글 창제 이전 차자표기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 응(1975), 『우리 옛말본-15세기 국어 형태론-』, 샘 문화사.
- 崔應賢(2019), 『漢語構詞의 歷史考察與闡釋』, 新華出版社.
- 董秀芳(2017), 『詞彙化-漢語雙音詞的 衍生和發展』(修訂本), 商務印書館.
- 范崇峰(2013), 「線性組合語詞在非線性關係中的演變—由“乃至”演化看漢語詞彙系統自組織」, 『

語文學刊』, 7-10.

馮春田(2000), 『近代漢語語法研究』, 山東教育出版社.

梁 燕(2013), 「連詞“乃至”的詞彙化及其相關問題研究」, 『現代語文』(6), 77-81.

段德森(1990), 『實用古漢語虛詞』, 山西教育出版社.

黃易青(2007), 『上古漢語同源詞意義系統研究』, 商務印書館.

孫雲鶴(1986), 『常用漢字詳解字典』, 福建人民出版社.

王 力(1982), 『同源字典』, 商務印書館.

楊伯峻(1981),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張寶林(1996), 「連詞的再分類」, 『詞類問題考察』, 北京語言學院出版社.

## “내지(乃至)’의 의미 형성에 대한 관전’에 대한 토론문

하정수(동국대학교)

마원걸 선생의 발표는 한국어 한자어 ‘내지(乃至)’의 의미 양상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것입니다. 이 발표는 ‘내지(乃至)’의 의미 양상을 어휘 자체의 다의성과 동형의 현대 중국어 어휘 ‘乃至’와의 의미상 차이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원걸 선생은 최근 부사 ‘猶’의 새김과 ‘오히려’의 상관관계, 한국 한자어 어휘 ‘휴지(休紙)’의 어휘사적 연구 등 한국 한자어 관련 어휘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 또한 이러한 연구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표에서는 한국어 단어 ‘내지(乃至)’의 의미를 동형의 현대 중국어 어휘와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어 어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 중에서 현대 중국어와 동형의 한자어를 살펴보는 연구입니다. 이러한 어휘들을 하나의 부류로 묶어 연구하는 것은 한국 한자어 어휘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한국어 어휘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내지’와 ‘乃至’의 현재 의미에 대한 질문과 통시적 문중 양상에 대한 질문 몇 가지를 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발표에서 한국 한자어 ‘내지(乃至)’의 사전 의미와 중국어 사전의 ‘乃至’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한자어 ‘내지(乃至)’의 의미는 현대 중국어 ‘乃至’보다는 현대 일본어 乃至(ないし)와 더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대 이후 일본어 한자어가 한국어에 수용된 것이 아닌지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둘째, 석독구결과 언해의 경우 경전 원문에 쓰인 ‘내지(乃至)’를 번역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乃至’의 번역과 현대 한국어에서 한자어로 쓰이는 ‘내지(乃至)’를 통시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세국어 이후 시기의 ‘내지(乃至)’의 출현 양상과 의미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발표자는 ‘乃至’의 어휘화가 완성된 시기를 漢代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불경의 한역에 나타나는 ‘乃至’는 어휘화 이후의 번역으로 (5)에서 나타나는 ‘접속사’와 ‘부사’의 용법으로만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넷째, “(8나)와 (8라)에서는 ‘至」의 논항이 그에 후행하는 ‘十生：ノ乙’과 ‘身乙以」恭勤作役ノム」임을 본다. 이렇듯 ‘至」가 논항을 취한다는 사실은 결국 ‘至」의 동사적인 성격 또는 서술어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해당 문장 내에서 지배적인 성분 또는 필수 성분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에서 ‘至」의 논항의 서술어에 후행하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고, 석독구결에서 ‘乃至’의 분리 가능성을 근거로 당시 어휘화한 것으로 파악되는 중국어 ‘乃至’와 석독구결으로 해독된 ‘乃至’의 의미가 구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독구결은 경문 원문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이라고 할 때, ‘乃至’가 포함된 전체 구문에서 ‘乃至’가 갖는 문법적 또는 어휘적 의미에 따라 ‘乃至’를 다르게 해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8)의 ‘乃至’를 동일한 것이 아닌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통사적 구성과 접속 부사로 나누어서 보는 것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다섯째, (8)의 ‘至」의 해석과 관련하여 ‘돈도 없이 술을 마신다’와 같은 통사적 파생으로 파악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여섯째, ‘乃<sub>지</sub>’와 ‘乃<sub>지</sub>’의 차이를 통시적 의미 변화로 파악하는 논의에서 전훈독자와 어미 ‘-사’가 통시적으로 선후 관계를 갖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논의에서 전훈독자 ‘<sub>지</sub>’의 지시사적 의미와 ‘乃’와 의미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어 요소 ‘-사’의 의존성을 해결하기 위해 ‘<sub>지</sub>-’ 첨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시사인 전훈독자의 의미와 어미 ‘-사’의 관계에서 ‘乃’를 어떠한 요소로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곱째, “(10)의 ‘然<sub>지</sub>’를 전훈독자 ‘然’에 지시 용언 ‘<sub>지</sub>’가 통합하고, 거기에 역접의 연결어미 ‘-<sub>지</sub>’가 통합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중 지시 용언의 ‘<sub>지</sub>’는 상태지시의 ‘그러’ 또는 사건/행위 지시의 ‘그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에서는 ‘然’의 전훈독자 ‘<sub>지</sub>’에 용언 ‘<sub>지</sub>-’가 통합하여 지시 용언 ‘<sub>지</sub>-’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덟째, (I)‘配屬型’과 (II)‘融合型’의 구분 기준이 ‘乃至’가 동일한 의미 기능을 하더라도 그 언해 양상이 ‘니르리+ x’의 형태와 ‘-도록, -거나(ㄴ), -나’로 나타나는 것으로 설정되는데 이러한 구분의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차를 살펴보면 ‘1. 서론, 2. ‘乃至’에 대한 中國語史적 논의, 3. ‘내지’의 통시적 문증 양상 및 의미 형성, 4.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논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3절을 재구성하여 2개로 나누어 연구 내용 전체가 균형 있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3절을 시기에 따라 2-3개로 구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 慧超의 『往五天竺國傳』에 대한 한국어학적 고찰

서엽(절강대)

## 慧超의 『往五天竺國傳』에 대한 한국어학적 고찰

- 2021년도 여름 국어사학회 전국 학술대회
- 시간: 2021년 7월 8일(목), 09:10-18:40
- 장소: Zoom 온라인 URL
- 발표자: XU Ye (徐燁, 서엽), 절강대학, 한어사 연구 센터

## 목 차

- 1. 서론
  - 2. 『慧超文』에 나타난 俗字와 신라의 속자
  - 3. 『慧超文』에 나타난 同音 誤字와 신라한자음
  - 4. 『慧超文』에 나타난 梵漢對音字와 신라한자음의 流音 韻尾
  - 5. 『慧超文』에 나타난 신라식 속한문의 문법 현상
  - 6. 결론
- 원문 해독 (발표논문집 참조)  
참고문헌 (발표논문집 참조)

### 1. 서론

◦ (1) 敦煌寫本, 殘卷 (P.3532; 227행, 5893자),  
 첫 발표자: 1908년, Paul Pelliot (伯希和, 1878~1945),  
<https://gallica.bnf.fr/ark:/12148/btv1b8303091k>

◦ (2) 慧琳(737~820)의 『一切經音義』 卷 100에서는 『五天竺國傳』의 85 개 어휘 (上卷 39 개, 中卷 18 개, 下卷 28 개)의 음과 義를 해석하였다.  
<https://21dzk.l.u-tokyo.ac.jp/SAT/satdb2015.php>  
 敦煌寫本은 中卷의 어휘 2 개, 下卷의 어휘 14 개를 부합하였다.

◦ (3) 저자: 신라승 慧超 (惠超, ca. 704~783); 제목: 『五天竺國傳』 (이하 『慧超文』)

### 慧琳(737~820)의 『一切經音義』 卷 100에서는 上卷 (부합한 어휘 없음)

T2128_54.0926e06: 摩訶鉢提天竺國傳上卷	T2128_54.0927a10: 毘舍離反出師
T2128_54.0926e07: 摩竭國	T2128_54.0927a11: 渴渴
T2128_54.0926e08: 摩竭國	T2128_54.0927a12: 濫
T2128_54.0926e09: 摩竭國	T2128_54.0927a13: 禿
T2128_54.0926e10: 摩竭國	T2128_54.0927a14: 禿
T2128_54.0926e11: 摩竭國	T2128_54.0927a15: 方
T2128_54.0926e12: 摩竭國	T2128_54.0927a16: 椰子
T2128_54.0926e13: 摩竭國	T2128_54.0927a17: 其
T2128_54.0926e14: 摩竭國	T2128_54.0927a18: 木
T2128_54.0926e15: 摩竭國	T2128_54.0927a19: 杆
T2128_54.0926e16: 摩竭國	T2128_54.0927a20: 鍾
T2128_54.0926e17: 摩竭國	T2128_54.0927a21: 壓
T2128_54.0926e18: 摩竭國	T2128_54.0927a22: 拋
T2128_54.0926e19: 摩竭國	T2128_54.0927a23: 峻
T2128_54.0926e20: 摩竭國	T2128_54.0927a24: 駭
T2128_54.0926e21: 摩竭國	T2128_54.0927a25: 耳
T2128_54.0926e22: 摩竭國	
T2128_54.0926e23: 摩竭國	
T2128_54.0926e24: 摩竭國	
T2128_54.0927a01: 摩竭國	
T2128_54.0927a02: 摩竭國	
T2128_54.0927a03: 摩竭國	
T2128_54.0927a04: 摩竭國	
T2128_54.0927a05: 摩竭國	
T2128_54.0927a06: 摩竭國	
T2128_54.0927a07: 摩竭國	
T2128_54.0927a08: 摩竭國	
T2128_54.0927a09: 摩竭國	
T2128_54.0927a10: 摩竭國	



中卷 2 개, 下卷 14 개

T2128\_54.0927b01: 中卷  
 T2128\_54.0927b02: 釋形德  
 T2128\_54.0927b03: 擲前函  
 T2128\_54.0927b04: 狀確界  
 T2128\_54.0927b05: 杖擲平流反  
 T2128\_54.0927b06: 迄于  
 T2128\_54.0927b07: 踞足  
 T2128\_54.0927b08: 驕  
 T2128\_54.0927b09: 自擲  
 T2128\_54.0927b10: 擲擲  
 T2128\_54.0927b11: 手擲  
 T2128\_54.0927b12: 波羅尼  
 T2128\_54.0927b13: 阿成  
 T2128\_54.0927b14: 擲  
 T2128\_54.0927b15: 擲  
 T2128\_54.0927b16: 擲  
 T2128\_54.0927b17: 一  
 T2128\_54.0927b18: 毛  
 T2128\_54.0927b19: 十

T2128\_54.0927b20: 下  
 T2128\_54.0927b21: 擲  
 T2128\_54.0927b22: 擲  
 T2128\_54.0927b23: 牙  
 T2128\_54.0927b24: 擲  
 T2128\_54.0927c01: 作  
 T2128\_54.0927c02: 手  
 T2128\_54.0927c03: 擲  
 T2128\_54.0927c04: 擲  
 T2128\_54.0927c05: 擲  
 T2128\_54.0927c06: 擲  
 T2128\_54.0927c07: 擲  
 T2128\_54.0927c08: 擲  
 T2128\_54.0927c09: 擲  
 T2128\_54.0927c10: 擲  
 T2128\_54.0927c11: 擲  
 T2128\_54.0927c12: 擲  
 T2128\_54.0927c13: 擲  
 T2128\_54.0927c14: 擲  
 T2128\_54.0927c15: 擲  
 T2128\_54.0927c16: 擲  
 T2128\_54.0927c17: 擲  
 T2128\_54.0927c18: 擲  
 T2128\_54.0927c19: 擲  
 T2128\_54.0927c20: 擲  
 T2128\_54.0927c21: 擲  
 T2128\_54.0927c22: 擲  
 T2128\_54.0927c23: 擲  
 T2128\_54.0927c24: 擲

(4) 혜초의 여행 노선: 2010년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도록 P15.

(5) 이 문항 사본의 언어학적 성격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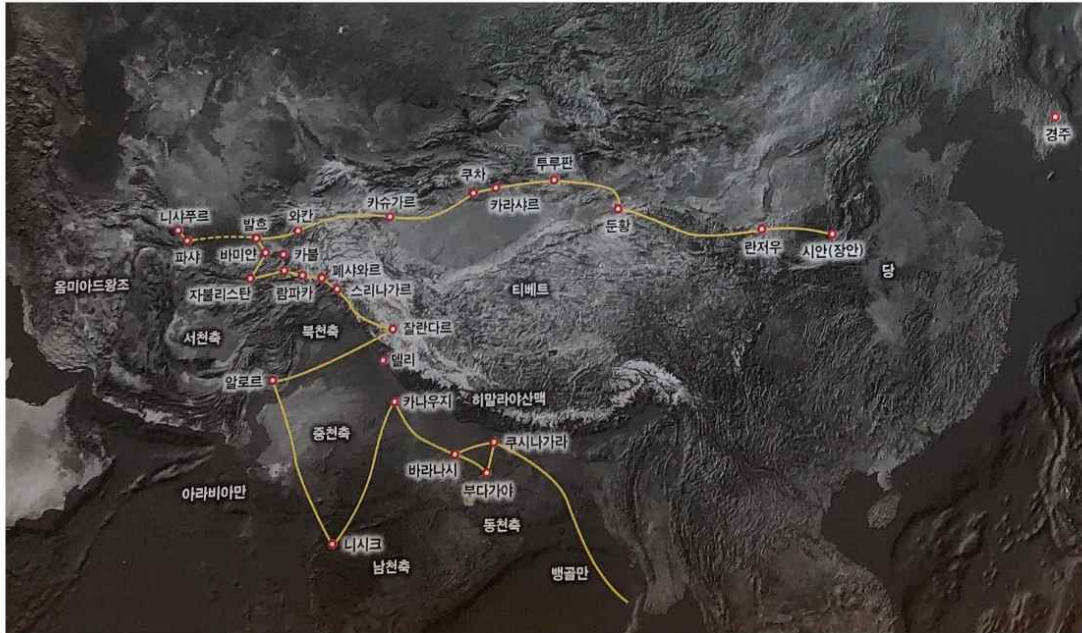
선행 연구/연구사: 발표논문집 참조.

초고본(草稿本) VS 3권 완성본의 절록본(節錄本), 高田時雄 (1992)

(6) 혜초의 언어 구사 능력: 신라의 한국어, 초당의 백화어 (구어), 한문 (문어), 범어, 중세 인도의 일상어 (프라크리트, Prakrit).

밀교승 金剛智 (Vajrabodhi, 671~741)가 주도한 譯經 프로젝트에서는 혜초는 筆受로 담당하였다. 筆受는 범한대역 어휘(차자표기한 어휘, 표음 어휘)를 중국어 고유 어휘로 번역한 것을 담당한다.

(7) 혜초의 관심사: 부처님, 절, 머리



## 2. 『慧超文』에 나타난 俗字와 신라의 속자

### ◦ 2.1 仏

◦ 仏 자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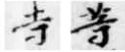
仏자는 佛자의 俗字로서 六朝 (220-589) 시기에 나타났다 (張湧泉 2010: 387).

均如 (923-973)의 『普賢十願歌』에서는 仏자는 13 번 나타났고 佛자는 1 번만 나타났다.

불교의 東傳 노선: 六朝 시기 → 한반도 삼국 시기 (백제) → 일본의 奈良 시대 이전

◦ 2.2 寺자와 等자

◦ 寺



◦ 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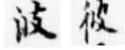


구결자: 等, 𠂔

현대 한국어의 친족어 어휘 : 三寸 (삼촌), 四寸 (사촌).

寸자는 等자의 속자로서 六朝 (220-589) 시기에 나타났다 (張湧泉 2003: 353).

2.3 波자와 彼자



파라니사국 “Vārānasi, Bārāṅsi”

“本波~本彼”의 교체: 迎日冷水里碑 (504), 蔚珍鳳坪里碑 (524), 신라 목간, 塲銘,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나타난 신라 지명에 나타났다. 權仁瀚 (2008).

3. 『慧超文』에 나타난 同音 誤字와 신라한자음

◦ 3.1 文里 VS 紋理, 張毅 (1994)

文: “無分切, 明文合三平臻”, MC [mjwən], MSK: 문 [mun<sup>L</sup>]

紋: “無分切, 明文合三平臻”, MC [mjwən], MSK: 문 [mun<sup>L</sup>]

里: “良士切, 來止開三上止”, MC [lji<sup>B</sup>], MSK: 리 [ri<sup>RH</sup>]

理: “良士切, 來止開三上止”, MC [lji<sup>B</sup>], MSK: 리 [ri<sup>R</sup>]



Schuessler (2009), Itō (2007)

◦ 3.2 途步 VS 徒步, 張毅 (1994)

途: “同都切, 定模合一平遇”, MC [duo], MSK: 도 [to<sup>L</sup>]

徒: “同都切, 定模合一平遇”, MC [duo], MSK: 도 [to<sup>L</sup>]

步: “薄故切, 並模開一去遇”, MC [buo<sup>C</sup>], MSK: 보 [po<sup>R</sup>]



#### 4. 『慧超文』에 나타난 梵漢對音字와 신라한자음의 流音 韻尾

◦ 비교 자료: 玄奘 (602~664)의 『大唐西域記』, 선행 연구: Qian (2016).

##### ◦ 4.1 蜜자

梵語: 지명 Pamī

玄奘: 波謎羅 MC [pwâ-miei<sup>h</sup>-lâ]

慧超: 播蜜 MC [pwâ<sup>h</sup>-mjiet (< Lhan mī)]; → 신라한자음의 유음 운미 [-r/]

慧琳: 播麗 MC [pwâ<sup>h</sup>-mīet (< Lhan mī)].

##### ◦ 蔑자

梵語: 지명 Vakhana

慧超: 胡密 MC [ɣuo-mjiet (< Lhan mit)]

慧琳: 胡麗 MC [ɣuo-mīet (< Lhan mit)]

##### ◦ 4.2 律자

梵語: 지명 Bolo

玄奘: 鉢露羅 MC [pwâ-luo<sup>h</sup>-lâ]

慧超: 勃律 MC [bwə-ljwe]; → Sino-Sillaic [-r/]

예) 大勃律國, 小勃律國

##### ◦ 4.3 咄자

梵語: 지명 Khotla

玄奘: 珂咄羅 MC [kʰâ-lwə-lâ]

慧超: 骨咄 MC [kwə-lwə]; → Sino-Sillaic [-r/]

5. 『慧超文』에 나타난 신라식 속한문의 문법 현상

5.1 有 “소유 (possessive) = 존재 (existential)”, 在 “처소 (locative)” VS  
-있- “소유 (possessive) = 존재 (existential) = 처소 (locative) = 연결동사 (copular)”  
Chappell & Lü (2021); Ye (2021)

◦ “女人 在 髮” (二二, 三〇, 三六); “女人 髮 在” (二七); “女人 在 頭” (三七, 三八)  
在 ✕, 有 ○, 頭 ✕.

“女人 有 髮” “여자는 긴 머리(털, 카락)가 있다.” ○  
頭 VS 頭髮, 머리 VS 머리털, 머리카락.

◦ “男人 剪 髮 在 鬚, 女人 在 髮” (三二)  
“남자는 머리를 깎고 수염이 있고, 여자는 긴 머리가 있다.”

◦ “見 有 寺 僧 有” (一二) ✕  
“절과 스님이 있다는 것을 봤다.”  
“見 有 寺 有 僧” (二三, 二五, 二六, 三六, 四一). ○

◦ “驢 驟 少 有” (十五) ✕  
“당나귀와 노새는 적다.”  
“少 有 驢 驟” ○

◦ “恆 河 在 北 岸 有 三 大 塔” (八) ✕  
“겐지스강의 북쪽은 큰 파고다가 세 개가 있다.”  
“在 恆 河 北 岸 有 三 大 塔” ○

## 5.2 見在 VS 보여 있다, 보인다

◦ “毗耶離城菴羅園中有塔見在” (一〇)

[“비사(야) 리(려)성의 암라원에서 파고다가 보여 있다/보인다.”]

◦ “無憂樹見在” (一一)

[“무우수(보리수)가 보여 있다/보인다.”]

한문(문어) 표현인가?

이두문과의 관계는?

## 6. 결론

◦ (1) 敦煌寫本 『往五天竺國傳』은 초고본(草稿本)이다.

지자 慧超는 신라어 화자로서 신라에서 한문 지식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慧超의 『往五天竺國傳』은 신라식 속한문의 성격을 나타낸다.

◦ (2) 연구의 의미

a. 한국어사의 일차 자료로서 한국어 차자표기의 기원, 한국어와 일본어 차자표기의 관계

b. 신라 시기에 한중 언어의 접촉

◦ (3) 연구의 계획:

a. 섞여 있는 고대 한국어(표기자, 어휘, 문법)

b. 초당 시기의 속자, 백화어(음운, 어휘, 문법), 慧超가 誤用한 문어(어휘, 문법) 표현

c. 범어, 범한대역의 표기자, 중세 인도의 일상어(Prakrit), 고대 튀르크어(Old Turkic)

d. 현대 한국어학/중국어학적으로 분석하기

“慧超의 『往五天竺國傳』에 대한 한국어학적 고찰” 토론문

이준환(전남대)

(별지 참조)





제2부

기획 발표



# 중세·근대 국어 동사 구문 연구의 쟁점과 과제

선한빛(전남대학교)

## 차 례

- |                    |            |
|--------------------|------------|
| 1. 머리말             | 4. 앞으로의 과제 |
| 2. 지금까지의 연구 흐름과 현황 | 5. 맺음말     |
| 3. 연구의 쟁점          |            |

## 1. 머리말

20세기 중반부터 국어학 연구자들은 국어의 구문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오고 있다. 구문 연구는 주로 외국의 이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김민수(1968)은 노엄 촘스키(Noam Chomsky, 1928~)의 초기 변형문법 연구<sup>1)</sup>의 영향을 받아 국어의 구문을 구조화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후 미국의 버클리대학교의 언어학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구문문법 이론이 만들어졌다(정연주 2019: 136). 현대국어 구문 연구는 구문문법을 비롯한 여러 이론들을 바탕으로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sup>2)</sup>

국어사 연구자들 또한 구문에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해 왔다.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들자면 이현희(1992/1994)라고 할 수 있다. 이전에도 구문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거나 단편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현희(1992/1994)에서 15세기 국어를 중심으로 구문의 구조를 논의하면서 후속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20세기 후반부터 오늘날까지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의 구문을 대상으로 다수의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중세·근대 국어 통사·의미론적 연구가 종결어미, 경어법, 어휘 의미 등 일부 주제에 국한되어 주로 논의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동안 중세·근대 국어<sup>3)</sup>를 대상으로 구문 연구가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구문 연구는 서술어, 특히 동사<sup>4)</sup>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중세·근대 동사 구문을 중심으로 한 성과들을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 성과들

1) 정주리·정연주(2019: 343)에서는 초기 촘스키의 변형문법(1957, 1965)에서 '구문'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생성문법의 초점이 '역사적 사고, 방언 혼합, 개인적 특질 등의 언어현상을 피하면서 핵심시스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예외 현상들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2) 현대 국어를 중심으로 한 구문 연구의 현황과 쟁점은 정연주(2019), 정연주·정주리(2019), 조경순(2019) 등을 참고할 수 있다.

3)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기문(1972/1998)을 따른다. 특히 중세 국어는 후기 중세 국어를 가리키는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전기 중세 국어부터 후기 중세 국어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중세 국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10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의 국어 구문 연구 성과들이 이 글의 검토 대상이다.

4)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작용을 나타내는 품사로, 형용사와 구분된다. 형용사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동사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동사의 범위를 넓힐 경우 논의의 초점이 분산될 수 있어 이 글에서는 좁은 개념으로 동사를 바라보고자 한다.

을 비교·분석하여 그동안 연구가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중세·근대 국어 구문 연구가 발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기로 한다.

## 2. 지금까지의 연구 흐름과 현황

이 장에서는 중세·근대 국어의 동사 구문 연구의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해당 연구들이 어떠한 흐름으로 이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성과들은 중세·근대 국어 동사 구문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였다.<sup>5)</sup> 해당 논의들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 1> 중세·근대 국어 동사 구문 연구 성과 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지영(1999), 「15세기 국어의 주격중출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li> <li>· 권영(2007), 「‘-이 ㅎ-’ 구문에 대한 통시적 연구」, 韓國外國語大學校 석사학위논문.</li> <li>· 권재일(2001), 「한국어 격틀 구조의 역사적 변화」, 『語學研究』 37-1, 한국언어학회, 135~155.</li> <li>· 김정아(1993/1998), 『중세국어의 비교구문 연구』, 태학사.</li> <li>· 김정아(2001), 「李賢熙, 中世國語 構文研究, 서울: 新丘文化社, 1994, 600면」, 『형태론』 3-1, 도서출판 박이정, 149~163.</li> <li>· 김정아(2004), 「韓在永의 『十六世紀 國語 構文의 研究』(1996) 다시 읽기」, 『형태론』 6-2, 도서출판 박이정, 423~432.</li> <li>· 김훈태(2000), 「근대국어의 ‘-게 ㅎ-’ 구문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li> <li>· 劉榮榮(2016), 「‘못하다’의 통시적 고찰」, 『한중언문학연구』 52, 한중언학회, 125~150.</li> <li>· 박소은(2012), 「국어 장형사동 구문의 의미 유형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li> <li>· 박철주(2003), 「大明律直解의 構文 研究」, 西江大學校 박사학위논문.</li> <li>· 백채원(2017), 「한국어 피동문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li> <li>· 선한빛(2017), 「17세기 국어의 동사 구문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li> <li>· 선한빛(2018), 「17세기 감정동사 구문의 실현 양상」, 『한국어 감정 표현 연구』,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li> <li>· 선한빛(2020), 「17세기 이동동사 구문과 격 교체」, 『語文論集』, 중앙언어학회, 7~34.</li> <li>· 송재목(2019), 「『일동장유가』의 인용구문」, 『한글』 80-2, 한글학회, 241~287.</li> <li>· 안병한(1997), 「국어 존재 구문 연구 -17세기 자료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32, 한민족어문학회, 91~108.</li> <li>· 안예리(2009), 「‘삼다’ 구문의 통시적 변화」, 『한국어학』 43, 한국어학회, 179~206.</li> <li>· 원수연(2012), 「‘싶다’ 구문의 통시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li> <li>· 이대성(1998), 「15세기 한국어의 대칭구문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li> <li>· 이성우(2019), 「중세 한국어의 ‘있다’ 구문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li> <li>· 이지영(2003), 「김정아의 『중세국어의 비교구문 연구』(1998) 다시 읽기」, 『형태론』 5-2, 도서출판 박이정, 435~454.</li> <li>· 이현희(1986), 「中世國語 內的 話法의 性格」, 『한신논문집』 3, 한신대학교, 191~227.</li> <li>· 이현희(1988), 「중세국어의 請願構文과 관련된 몇 문제」, 『語學研究』 24-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349~379.</li> <li>· 이현희(1991), 「15세기국어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적 연구(I): 화법, 사유, 인지, 감각동사의 구문 유</li> </ul>
--

5) 중세·근대 국어 구문 연구들의 현황을 파악하면 다수의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를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관련 논의 대부분을 참고문헌에 제시하였다. 그런데 논의의 초점이 동사 구문에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연구들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ㄱ. 문법 형태소를 앞세운 연구 성과: 박철주(2006<sup>ㄴ</sup>, ㄷ), 謝水蘭(2017), 안예리(2009), 이금영(2019, 2020), 이유기(1999, 2015), 전기량(2017), 정혜린·백채원(2019) 등.  
 ㄴ. 계사 ‘이다’ 구문과 관련된 연구 성과: 민지원(2011), 이래호(1996) 등.  
 ㄷ. 형용사 구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성과: 김건희(2015), 이영경(2003), 이현희(1999) 등.  
 ㄹ. 20세기 국어 구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성과: 안예리(2006)  
 ㅁ. 기타: 이영경(2004) 등.

형을 중심으로, 『주시경학보』 7, 塔出版社, 28~99.

- 이현희(1992/1994), 『中世國語 構文研究』, 新丘文化社.
- 李賢熙(2001), 「도히 너기다' 구문과 '도하 히다' 구문,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 태학사.
- 전기량(2018), 「중세 한국어 '-여' 구문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태균(2020), 「15세기 국어의 수행 발화 구문 유형 연구: 『釋譜詳節』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귀녀(1994), 「中世國語 세자리 敍述語 構文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재영(1984), 「中世 國語 被動構文의 特性에 對한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재영(1994/1996), 『十六世紀 國語 構文의 研究』, 신구문화사.
- 홍은진(2001), 「한글 필사본 <을병연행록>의 동사구문 연구, 淑明女子大學校 석사학위논문.
- 황국정(2001ㄴ), 「석독구결의 동사 구문 (1), 『한국어학』 14, 한국어학회, 379~404.
- 황국정(2004ㄱ/2009), 『국어 동사 구문구조의 통시적 연구』, 제이앤씨.
- 황국정(2004ㄴ), 「15세기 국어 자동사의 문형 연구, 『한국어학』 23, 한국어학회, 229~254.
- 황국정(2004ㄷ), 「15세기 국어 타동사의 논항구조 변화 연구 (1) -“NP에” 논항의 형성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25, 이중언어학회, 359~387.
- 황국정(2004ㄹ), 「동사의 범주간 넘나들 현상에 대한 통시적 연구, 『언어과학연구』 29, 언어과학회, 313~334.
- 황국정(2004ㅁ), 「자동사 구문의 변화 연구 -자동사의 '타동성' 획득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14, 한국어의미학회, 169~195.
- 황국정(2004ㅂ), 「국어 타동사 구문의 통시적 연구 -타동사 구문의 논항 소멸을 중심으로-, 『언어연구』 20-2, 한국현대언어학회, 205~228.
- 황국정(2004ㅇ), 「15세기 국어 타동사의 기본 문형 연구, 『韓國言語文學』 53, 한국언어학회, 21~40.
- 황국정(2004ㅅ), 「자동사의 논항구조에 관한 통시적 연구 -‘NP에’, ‘NP로’ 논항 형성을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31, 언어과학회, 271~296.
- 황국정(2005ㄱ), 「15세기 국어 타동사의 논항구조 변화 연구 (2) -“NP로” 논항의 형성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27, 이중언어학회, 253~278.
- 황국정(2005ㄴ), 「국어 이동동사의 통시적 연구 -논항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26, 한국어학회, 363~393.
- 황국정(2014), 「15세기 국어 동사의 의미변화와 논항구조의 변화, 『人文學研究』 26,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5~34.
- 황국정(2015ㄱ), 「15세기 국어 격 교체의 유형과 통사적 특성, 『인문사회과학연구』 16,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81~110.
- 황국정(2015ㄴ), 「15세기 이동동사 구문 연구 -기본 문형과 통사적 특징에 대하여-, 『인문학연구』 27,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33~64.

먼저 <표 1>에 제시한 목록들을 토대로 중세·근대 국어의 동사 구문 연구 성과의 현황이다. 연구 성과들을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수치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2> 1980년대 이후 중세·근대 국어 동사 구문 연구 성과의 현황

	석사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소논문 <sup>6)</sup>	단행본 <sup>7)</sup>	합계
수(건)	10	9	27	4	50
백분율(%)	20	18	54	8	100

<표 2>는 1980년대 이후에 발표된 중세·근대 국어 동사 구문 연구 성과들을 석사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단행본으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글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은 연구 성과들은 석사학위논문 10건, 박사학위논문 9건, 소논문 27건, 단행본 4건으로 모두 50건이다. 중세·근대 국어 구문은 주로 소논문의 연구 대상으로 다루어져 왔음

6) 소논문으로 분류한 연구 성과들에는 학술지에 실린 것과 책으로 출판된 논문집에 실린 것을 포함하였다.  
 7) 단행본으로 분류한 연구 성과들은 박사학위논문이 수정·보완되어 책으로 출판된 것들이다. 여기에는 김정아(2001, 2004), 이현희(1992/1994), 한재영(1994/1996), 황국정(2004ㄱ/2010)이 해당된다.

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국어 구문의 시기를 기준으로 위의 연구 성과들을 분류한 것이다.

<표 3> 시기별 동사 구문 연구 성과의 분류

구분	공시적						통시적	
	중세국어				근대국어			
	전기		후기		특정 구문	다수 구문	특정 구문	다수 구문
	특정 구문	다수 구문	특정 구문	다수 구문				
석사 학위 논문			*구지영 (1999) *이대성 (1998) *정태균 (2020) 한재영 (1984)	하귀너 (1994)	김훈태 (2000)		권영 (2007) 박소은 (2012) 원수연 (2012)	
박사 학위 논문		*박철주 (2003)	*김정아 (1993) 이성우 (2019) 전기량 (2018)	*이현희 (1992/ 1994) *한재영 (1994/ 1996)		*선한빛 (2017) *홍은진 (2001)	백채원 (2017)	황국정 (2004ㄱ/ 2010)
소논문		황국정 (2001ㄴ)	이현희 (1986, 1988) *황국정 (2015ㄷ)	*김정아 (2001, 2004) *이지영 (2003) *이현희 (1991) *황국정 (2004ㄴ, 2004ㄷ, 2004ㅇ, 2005ㄱ, 2014, 2015ㄱ)	*선한빛 (2018, 2020) *송재목 (2019) *안병한 (1997)		劉榮榮 (2016) 안예리 (2009) 황국정 (2005ㄴ)	권재일 (2001) 황국정 (2004ㄱ, 2004ㄴ, 2004ㄷ, 2004ㄹ, 2004ㅈ)
단행본				*김정아 (2001, 2004) *이현희 (1992/ 1994) *한재영 (1994/ 1996)				황국정 (2004ㄱ/ 2010)

(\*: 특정 세기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성과)

위의 표는 중세-근대 국어 구문 연구가 어느 시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어떤 구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졌는지를 보여 준다. 전기 중세 국어 구문을 논의한 것은 박철주(2003)과 황국정(2001-)이다. 두 연구 성과는 공식적으로 전기 중세 국어의 여러 구문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철주(2003)에서는 『大明律直解』(1395)를 대상으로 하여 14세기 국어 구문을 논의하였다. 황국정(2001-)은 그보다 앞선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의 석독구결 자료들에 나타난 국어 구문을 심리, 화법, 청원, 인지, 지각경험, 수여, 비유, 이동, 전환 구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후기 중세 국어 구문은 다수의 논의들에서 다루어져 왔다. 후기 중세 국어라 하더라도 15, 16세기를 아우르는 연구보다는 15세기만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연구<sup>8)</sup>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한 세기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주로 박사학위논문에서 해당 시기의 구문을 전반적으로 다루었다. 이현희(1992/1994)에서는 15세기에 간행된 한글 문헌<sup>9)</sup>을 바탕으로 당시 국어 구문을 지정구문, 존재구문, 소유구문, 평가구문, 심리구문, 사유구문, 화법구문, 의미해석구문, 청원구문, 인지구문, 지각경험구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구문을 설정할 때에는 서술어의 품사를 구분하지 않고 문장에서 서술어가 가지는 의미를 기준으로 하여 구문의 명칭을 제시하였다.

한재영(1994/1996)에서는 16세기 국어 자료 가운데에서도 통사적인 모습을 제공하는 것들만을 취하였다.<sup>10)</sup> 앞서 검토한 이현희(1992/1994)에서는 서술어의 의미를 기준으로 개별 구문들을 살펴보았다. 반면 한재영(1994/1996)에서는 문장의 중심 성분에 따라 16세기 국어 구문을 분석하였다. 주어중심구문, 목적어중심구문, 여격어중심구문으로 구문을 1차로 분류한 후 개별 동사가 취하는 의미에 따라 구문을 세분하였다. 주어중심구문은 이동동사구문, 존재-소유동사구문, 평가-관정동사구문(유형 1), 전환동사구문, 대칭동사구문(유형 2), 계사구문(유형 3)으로 구분하였다. 목적어중심구문은 사유동사구문, 인지동사구문, 심리동사구문, 경험동사구문으로 나누었다. 여격어중심구문은 화법동사구문, 원망동사구문, 수여동사구문으로 분류하였다.

하귀녀(1994)에서는 중세 국어 세 자리 서술어 구문을 목적어 중심 구문, 여격어 중심 구

8) 김정아(1993, 2001), 구지영(1999), 이대성(1998), 이지영(2003), 이현희(1991, 1992/1994), 정태균(2020), 황국정(2004-, 2004ㄷ, 2004ㅇ, 2005ㄱ, 2014, 2015ㄱ, 2015ㄷ)이 있다.

9) 이현희(1992/1994: 24)에서는 16세기 이후의 문헌은 논의를 보충할 때에만 보조적으로 일부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현희(1992/1994)에서 검토한 15세기 문헌 자료는 『龍飛御天歌』(1447), 『釋譜詳節』(1447), 『月印千江之曲』(1447), 『訓民正音諺解』(1447년경), 『月印釋譜』(1459), 『楞嚴經諺解』(1461), 『法華經諺解』(1463), 『禪宗永嘉集諺解』(1464), 『金剛經諺解』(1464), 『阿彌陀經諺解』(1464), 『般若心經諺解』(1464), 『圓覺經諺解』(1465), 『救急方諺解』(1466), 『牧牛子修心訣』(1467), 『蒙山法語諺解』(1467), 『四法語諺解』(1467), 『內訓』(1475), 『杜詩諺解』(1481), 『三綱行實圖』(1481), 『南明集諺解』(1482), 『金剛經三家解』(1482), 『佛頂心經』(1485), 『五大眞言』(1485), 『靈驗略抄』(1485), 『救急簡易方』(1489), 『六祖壇經諺解』(1496), 『眞言勸供』(1496), 『三壇施食文』(1496), 『神仙太乙紫金丹』(1497)이다.

10) 한재영(1994/1996: 19)에서는 ① 16세기 복각복판 존재하는 15세기 자료, ② 구결자료, ③ ‘眞言集, 念佛作法’ 등과 같이 국어의 모습을 담고 있지 않은 자료를 제외한 16세기 문헌들을 검토 자료로 삼았다. 해당 자료들은 『續三綱行實圖』(1415), 『翻譯老乞大』(1517 이전), 『翻譯朴通事』(1517 이전), 『翻譯小學』(1518), 『二倫行實圖』(1518), 『正俗諺解』(1518), 『呂氏鄉約諺解』(1518), 『重刊警民編』(1519), 『辟瘟新方』(1525), 『訓蒙字會』(1527), 『牛馬羊猪染疫治療方』(1541), 『分門瘟疫易解方』(1542), 『父母恩重經諺解』(1553), 『救荒撮要』(1554), 『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1560), 『淸州 北一面 順天 金氏墓 出土 簡札』(1565~1575), 『禪家龜鑑』(1569), 『七大萬法』(1569), 『諺簡』(1571~), 『廣州千字文』(1575), 『新增類合』(1576), 『誠初心學人文發心修行章野雲自警序』(1577), 『續三綱行實圖』(중간본, 1581), 『石峰千字文』(1583), 『小學諺解』(1588), 『大學諺解』(1590), 『論語諺解』(1590), 『孟子諺解』(1590), 『中庸諺解』(1590), 『孝經諺解』(1590), 『百聯抄解』(15??)와 중간본 자료인 『蒙山法語諺解』(1577), 『三綱行實圖』(1581), 『釋譜詳節』(卷 11)(1560), 『內訓』(1573)이다.

문, 처격어 중심 구문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다른 논의들에서 개별 동사 구문들을 동사의 의미로 분류한 것과는 달리 ‘삼다’류, ‘주다’류 등과 같이 동사의 형태별로 세부 구문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세 국어 세 자리 서술어 구문의 구조와 각 구문에서 격조사의 실현 여부, 격조사들의 대응, 세 자리 서술어 구문의 어순 등을 살펴보았다.

황국정(2004~2010)은 15세기 국어 동사 구문들의 통시적인 변화를 살펴보았다. 『李朝語辭典』(1964), 『古語辭典』(1981), 『우리말 큰사전』 4(1992)에 수록된 고유어 본동사 900여 개를 대상으로 해당 동사 구문을 uniconc 프로그램을 이용해 검색·추출하였다. 이전 논의들과는 달리 자동사 구문, 타동사 구문, 형용사 구문으로 나누어 시기별로 해당 동사 구문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문법과 의미 변화의 측면에서 기술하였다.

근대 국어 동사 구문 연구는 중세 국어와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17세기 동사 구문은 안병한(1997)에서 존재 구문에 한하여 이루어졌지만 동사 구문 전반에 대한 공시적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선한빛(2017)에서는 17세기에 간행된 간본, 필사본, 일기류, 인간 자료들을 검토하여<sup>11)</sup> 서술어의 자릿수로 구문을 분류·기술하였다. 한 자리 서술어 구문은 평가 동사 구문, 감정 동사 구문으로, 두 자리 서술어 구문은 전체 구문의 구조의 상당량을 차지하는데 이동 동사 구문, 존재·소유 동사 구문, 비교 동사 구문, 심리 동사 구문, 인지 동사 구문, 경험 동사 구문, 사유 동사 구문으로, 세 자리 서술어 구문은 수여 동사 구문, 발화 동사 구문, 전환 동사 구문으로 세분하였다. 선한빛(2017)에서는 동사, 형용사로 서술어의 품사를 나누지 않고 넓은 의미로 동사의 개념을 사용하여 구문을 기술하였다.

18세기 동사 구문은 홍은진(2001)에서 논의되었다. 그런데 위에서 소개한 공시적 논의들과는 다르게 한 세기 동안 간행된 전체 자료가 아닌 『을병연행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들이 간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문의 구어적인 모습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홍은진(2001)에서는 『을병연행록』에 나타난 동사 구문을 계사구문, 존재 동사구문, 평가동사구문, 비교동사구문, 심리동사구문, 사유동사구문, 인지동사구문, 지각경험동사구문, 청원동사구문, 화법동사구문으로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이러한 기술 태도는 이현희(1992/1994)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논의들은 이현희(1992/1994) 이후 다수의 구문들을 공시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특정 구문을 대상으로 하는 논의들은 안예리(2009)와 같이 하나의 동사 구문만을 다루거나 김정아(1993)과 같이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 개별 구문들을 하나의 구문으로 묶어 분석한다. 또는 황국정(2005~)에서 논의한 방식과 같이 특정 동사 구문을 이루는 논항 혹은 성분들의 형성과 변화를 기술하기도 한다.

11) 선한빛(2017: 21~22)에서는 한재영(1994/1996)에서 제시한 문헌 선정 기준을 참고하여 ① 17세기에 간행된 초간본 혹은 원간본, ② 초간본, 원간본의 부전 시에는 같은 시기에 복각된 것 우선 선정, ③ 한문본을 한글로 필사한 이본들만 전하는 경우 선본을 선택, ④ 통사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장 중심의 문헌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검토하였다. 해당 자료들은 「현풍곽씨연간」(1602~1652), 『周易診解』(1606), 『診解痘瘡集要』(1608), 『診解胎産集要』(1608), 『武藝諸譜翻譯續集』(1610), 『練兵指南』(1612), 『詩經診解』(1613), 『東國新續三綱行實圖』(1617), 『女訓診解』(1620~1640), 『家禮診解』(1632), 『火炮式診解』(1635), 『新傳煮取焔焔方診解』(1635), 『산성일기 병조』(1636), 『丙子日記』(1636~1640), 『勸念要錄』(1637), 『辟瘟神方』(1653), 『新刊救荒撮要』(1660), 『救荒補遺方』(1660), 『老乞大診解』(1670), 『음식디미방』(1670), 『捷解新語』(1676), 『朴通事診解』(1677), 『馬經抄集診解』(1682), 『陣法診解』(1693), 『書經診解』(1695), 『診解臘藥症治方』(16??), 『痘瘡經驗方』(16??)이다.



### 3. 연구의 쟁점

3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연구 성과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 3.1. 동사 구문의 범위와 ‘이다’ 구문

‘이다’는 명사구와 결합하여 동사, 형용사와 같이 문장에서 서술어로 기능한다. ‘이다’가 가지고 있는 서술성에 초점을 맞추어 일반적으로 서술격조사라는 명칭으로 ‘이다’를 가리킨다. 하지만 서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다’를 동사, 형용사와 같은 용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다’가 선행하는 명사구와 결합하는 문법적인 성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다’의 성격을 밝히고 품사를 분류하려는 논의들이 그동안 다수 이루어져 왔다.

‘이다’는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서술격조사, 계사, 지정사로 지칭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다’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다’ 구문을 분류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특히 동사 구문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이다’를 동사로 분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다’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성 혹은 난제 때문인지 이래호(1996), 민지원(2011)에서는 ‘이다’를 계사로 설정하여 각각 15세기와 17세기에서의 ‘이다’ 구문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다’ 구문을 동사 구문 논의에 포함하여 다룬 경우들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이현희(1992/1994), 한재영(1994/1996), 홍은진(2001)이다. 이들 논의에서는 ‘이다’ 구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이다’ 구문을 대하는 태도

- ㄱ. 이현희(1992/1994): 계사-지정구문
- ㄴ. 한재영(1994/1996): 계사-계사구문
- ㄷ. 홍은진(2001): 계사-계사구문

위의 논의들에서 ‘이다’를 계사로 분류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계사가 쓰인 구문을 지칭하는 용어는 지정구문과 계사구문이다. 먼저 ‘이다’를 계사로 지칭한 것부터 보기로 한다.

- (2) ㄱ. 이현희(1992/1994: 101~102): 우리는 이 장에서 계사가 어떠한 동사 범주에 속하며 그 본질적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는 깊이 개입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논의들을 통해서도 ‘(-)이-’의 성격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힘들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현재 시점으로서서는 무의미한 동어반복을 계속할 염려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이다. (중략) 저자는 ‘(-)이-’의 활용형이 조사와 같은 자격을 가지는 문법요소라는 견해를 일단 받아들인다. 또 위의 ‘-가’ 혹은 ‘-고’는 의문 조사라는 견해도 받아들인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기존의 서술격조사설을 따르는 셈이라고도 할 수 있다.
- ㄴ. 한재영(1994/1996: 257~258): 본절에서의 일차적인 관심을 그것이 구성하는 구문 구조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의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듯이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계사 자체의 본질적인 성격에 대한 추구에는 관심이 없는 듯이 비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계사로 불리든, 지정사로 불리든, 서술

격조사로 불리든 그것이 어떠한 용어로 불리느냐 하는 문제는 일단 관심의 영역 밖에 있다. 하지만 본질을 통하여 찾아 가려는 계사구문의 구문구조가 계사에 관한 논의들과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고만은 하기 어려울 것이다.

- ㉔. 홍은진(2001: 39): 국어의 여러 가지 구문 가운데 계사구문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다’의 성격이나 용어 문제보다는 ‘이’가 들어간 구문을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명사구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기로 한다.

위의 입장들의 공통점은 ‘이다’를 무엇으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왜 계사라는 명칭을 선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명이 없다. 물론 이현희(1992/1994: 101)에서는 지정사, 서술격조사가 가지는 의미를 비교하였지만 논리학 용어인 계사를 사용한다고만 말하고 있다. ‘이다’를 계사로 지칭하더라도 완벽한 용어가 아니라는 점도 기술하고 있으나 ‘왜 계사인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이 없다. 한재영(1994/1996)은 ‘이다’ 구문의 구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다’를 무엇으로 지칭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다음으로 ‘이다’ 구문의 명칭을 보기로 한다. 이현희(1992/1994)에서는 지정구문, 한재영(1994/1996)과 홍은진(2001)은 계사구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해당 논의들은 구문을 지칭할 때에는 평가구문, 평가동사구문과 같이 동사 혹은 서술어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데 ‘이다’ 구문은 예외적으로 품사로 지칭하거나(계사구문) 계사와 관련이 없는, 오히려 지정사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명칭(지정구문)으로 지칭하고 있다. 다른 구문들과의 위치를 고려한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은 계사를 동사와 동일한 선에 있는 것으로 본다고 판단된다. ‘이다’ 구문을 다른 동사 구문들과 함께 논의하려고 했다면 ‘이다’의 문법적 지위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했을 것이다.<sup>12)</sup> 또한 ‘이다’ 구문을 다른 동사 구문들과 함께 다루었기 때문에 ‘동사’를 어떻게 볼 것인지도 기술할 필요가 있다. 한재영(1994/1996: 33)에서는 특별하게 구분할 필요가 없으면 동작동사, 상태동사, 계사를 포함하는 의미로 ‘동사’를 사용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 그런데 정작 계사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계사를 바라보는 연구자의 관점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 3.2. 구문을 구성하는 명사구의 필수성/수의성 판별

현대 국어 구문을 대상으로 한 논의에서는 어떤 구문에서 서술어가 취하는 명사구가 필수적인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판별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일례로 조정순(2005/2014)에서는 세 자리 서술어 구문에 등장하는 명사구가 필수적인지 수의적인지에 따라 보충어, 부가어로 구분하였다. 보충어와 부가어의 구별이 중요한 것은 세 자리 서술어의 개념 정립

12) 김정아(2001, 2004)에서도 이현희(1992/1994)와 한재영(194/1996)의 이러한 태도를 지적하였다. 김정아(2001: 154)에서는 이현희(1992/1994)에 대해 “결국 저자는 명시적이진 않지만 ‘서술격조사설’을 따르는 셈이라는(102쪽) 언급과 같이 계사를 서술어로 보지는 않는 입장을 취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는 저자 자신을 포함하여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서술어가 아니면서 어미를 취하는 국어 문법의 예외적인 존재라는 부담이 큰 데다, 서술어 중심의 구문 유형 정리라는 이 책의 전체 구도에서 볼 때도 지정구문이란 존재는 다소 이방인적 성격의 것이라 하겠다.”와 같이 기술하였다. 또한 김정아(2004: 430~431)에서는 한재영(1994/1996)의 기술 태도를 “‘존재동사구문’, ‘평가동사구문’ 등의 명칭과 평행하게 ‘계사 구문’이라고 부름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이다’를 서술어(용언)로 보는 입장을 취한 듯이 보인다.”와 같이 설명하였다.

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조경순 2005/2014: 38). 조경순(2005/2014: 58)에서는 유형식(1991/1996)에서 제시한 보충어 확인 검사 방법을 활용하여 서술어가 취하는 문장 성분들을 보충어와 부가어로 구별하였다.

그런데 중세·근대 국어 구문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한 논의 방식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3) ㄱ. 한재영(1994/1996: 33~35): 명사구는 동사와 함께 구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문장 성분을 지칭한다. (중략) 그렇지만, 본서에서는 문장에 나타나는 명사구가 필수적인 것이냐 수의적인 것이냐 하는 구분은 부차적인 관심사가 된다. 주된 관심은 그들이 구성하는 구문의 전반적인 유형 파악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현 명사구의 논항 또는 비논항 여부는 문장의 유형 파악이 이루어진 뒤에 결정될 문제가 된다. (중략) 본서는 주된 관심을 의미역 배당의 과정보다는 그의 결과에 두기로 한다. 개별 동사가 구성하는 문장구조의 유형 파악에 본서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역사 자료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의 하나로 철저한 선입관의 배제를 들기도 한다. 모르는 언어에 대하여 보다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담백한 시각으로 대상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현대국어의 동사들이 구성하고 있는 구문의 유형을 전제로 삼지는 않기로 한다. (중략) 이와 같은 태도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 장에서는 먼저 16세기 국어 자료를 통하여 파악되는 명사구 표지 즉, 조사의 목록을 먼저 작성하고 그에 따른 개별 동사의 구문의 모습과 변화 양상부터 살펴 나가기로 한다. 이러한 진행 태도는 국어의 명사구가 명사구 표지를 수반하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ㄴ. 황국정(2004 ㄱ/2009: 41~44): 이 장에서는 15세기 국어의 동사를 격틀(case frame)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사의 문형을 살펴보려고 한다. (중략) 동사의 격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격틀에 참여하는 논항을 결정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논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를 달리한다. 그러나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성분을 논항으로 설정하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다. 여기서 필수 성분이라 함은 이것이 문장에서 생략되면 문법적인 문장 구성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논항을 설정함에 있어 생략가능성이 중요한 통사적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국어 이전 시기의 문형을 대상으로 동사의 논항을 가려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논항의 생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직관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문장에서 어떤 성분이 실현되지 않은 것이 실제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실현이 가능한데 문맥상 생략된 것인지, 또는 한정된 문헌으로 실현 용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략) 이러한 직관의 맹점을 고려해 볼 때 문형을 파악함에 있어 직관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오히려 문헌자료에 나타나는 용례를 중심으로 논항구조를 면밀히 고찰하는 것이 정확한 구문 연구가 될 수 있다.

ㄷ. 선한빛(2017: 24~33): 문장을 이루는 성분들 중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성분으로 서술어가 있다. 서술어는 문장의 구조를 이루는 중심에 위치한다. 서술어의 의미에 따라 문장의 필수 성분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문을 분석할 때에는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략) 17세기 국어의 동사 구문을 서술어의 자릿수로 분류할 때에는 자릿수가 고정되어 있는지 고정되어 있지 않은지를 고려해야 한다. (중략) 대부분의 논의에서는 서술어의 자릿수를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로 분류하였다. 이 글에서도 기존의 분류 방식을 받아들여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로 구분하고 (생략)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한재영(1994/1996)은 서술어가 취하는 명사구의 필수성/수의성 판별 여부를 뒤로 미루었다. 물론 과거의 언어를 문헌에 나타난 형태로만 보기 때문에 문장 성분의 필수성을 검증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표면에 나타난 형태로만 구문을 파악한다면 특정 명사구의 출현 여부나 출현 형태가 구문을 구조화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다. 황국정(2004ㄱ/2010)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어떠한 문장 성분이 문장의 표면에 드러난 이유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김정아(2004: 426)에서는 한재영(1994/1996)의 태도에 대해 “구문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나의 서술어가 취하는 ‘기본적인’ 혹은 ‘전형적인’ 구문 유형과 확대되어 2차적으로 가능한 유형간의 구분은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라고 기술하였다.

선한빛(2017)에서는 구문을 분석할 때에 문장의 필수 성분을 판별할 필요를 느꼈고 이를 서술어의 자릿수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런데 해당 명사구가 필수 성분인지를 판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단지 서술어의 자릿수를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로 나누어서 보는 데에 그쳤다. 중세·근대 국어 동사 구문을 분석할 때에 그 구조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명사구의 필수성을 판별하려는 기준을 설정하거나 기준 설정을 시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3. 동사 구문의 선정 기준

중세·근대 국어 동사 구문에 대한 논의들은 이현희(1992/1994)의 토대에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 세기의 동사 구문을 전반적으로 논의한 첫 번째 연구 성과이기 때문이다.

- (4) 이현희(1992/1994)의 구문 제시 양상
  - 지정구문, 존재구문, 소유구문, 평가구문, 심리구문, 사유구문, 화법구문, 의미해석구문, 청원구문, 인지구문, 지각경험구문
- (5) 한재영(1994/1996)의 구문 제시 양상
  - ㄱ. 주어중심구문
    - ① 이동동사구문, 존재·소유동사구문, 평가·관정동사구문
    - ② 전환동사구문, 대칭동사구문, 비교동사구문
    - ③ 계사구문
  - ㄴ. 목적어중심구문: 사유동사구문, 인지동사구문, 심리동사구문, 경험동사구문
  - ㄷ. 여격어중심구문: 화법동사구문, 원망동사구문, 수여동사구문
- (6) 하귀녀(1994)의 구문 제시 양상
  - ㄱ. 목적어 중심 구문: ‘삼다’류
  - ㄴ. 여격어 중심 구문: ‘주다’류, ‘니르다’류
  - ㄷ. 처격어 중심 구문: ‘널다’류, ‘담다’류
- (7) 황국정(2004ㄱ/2009)의 구문 제시 양상
  - ㄱ. 자동사 구문: 행위성 자동사 구문, 비행위성 자동사 구문
  - ㄴ. 타동사 구문

㉔. 형용사 구문

(8) 선한빛(2017)의 구문 제시 양상

- ㄱ. 한 자리 서술어 구문: 평가 동사 구문, 감정 동사 구문
- ㄴ. 두 자리 서술어 구문: 이동 동사 구문, 존재소유 동사 구문, 비교 동사 구문, 심리 동사 구문, 인지 동사 구문, 경험 동사 구문, 사유 동사 구문
- ㄷ. 세 자리 서술어 구문: 수여 동사 구문, 발화 동사 구문, 전환 동사 구문

(9) 홍은진(2001)의 구문 제시 양상

- 계사구문, 존재동사구문, 평가동사구문, 비교동사구문, 심리동사구문, 사유동사구문, 인지 동사구문, 지각경험동사구문, 청원동사구문, 화법동사구문

하귀녀(1994)와 황국정(2004 ㄱ/2010)을 제외하면 각 연구 성과에서 다루는 동사 구문의 종류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15세기부터 쪽 이어져 내려오는 공시적 동사 구문 연구 성과라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다만 각 세기별로 다루는 문헌들의 성격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동사의 성격도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15세기에는 불경 언해서들이 중심이었지만 16세기부터는 유교 경전 언해서들이 등장하였다. 17세기에는 실용적·전문적인 성격을 가진 문헌들과 필사본 자료, 일기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주로 다루는 동사 구문은 동일하더라도 일부 동사 구문은 추가될 수 있는 것이다. 17세기를 예로 들자면 『陣法諺解』(1693)(이하 『진법』)에 훈련 동작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향ㅎ다’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들을 볼 수 있다.

(10) ㄱ. 전후 층이 다 밧그로 향ㅎ야 <『진법』 13b>

- ㄴ. 각 병이 즉시 뒤홀 향ㅎ야 <『진법』 19a>

‘향ㅎ다’는 [방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방향 동사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진법』을 비롯한 다른 17세기 문헌에서 ‘향ㅎ다’를 비롯한 방향을 나타내는 동사 구문들을 모아 방향 동사 구문이라고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동사 구문을 설정하여 제시할 때에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즉, 각 문헌에 등장하는 동사 구문들은 많은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과 논의가 없다. 특정 동사 구문의 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 빈도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모호하다.

(11) 중세-근대 국어 동사 구문의 선정 기준

- ㄱ. 이현희(1992/1994: 18): 이 책에서 다루어지는 구문은 15세기 국어 문헌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문장들 가운데 구문의 유형을 비교적 많이 보인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주로 선택되었다. 15세기 국어의 모든 구문을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다 다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 ㄴ. 한재영(1994/1996: 113): 여기서 16세기 자료에 보이는 모든 동사의 통합적인 구문구조를 담아 낼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제한된 자료라고는 하나 그 절대량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몇몇 대표적인 동사를 중심으로 살펴 나가기로 하거니와 될 수 있는 대로 다양한 구문 유형을 살필 수 있도록 도모할 것이다.
- ㄷ. 선한빛(2017: 39~40): 이현희(1992/1994a)와 한재영(1994/1996)은 각각 15세기와 16세기 구문을 분석하였다. 공통적으로 다룬 동사가 있는 반면 다루는 동사가

다른 경우도 있다. 중세국어 구문을 분석하더라도 시기에 따라 포함되는 동사 구문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중략) 17세기 국어 동사를 평가 동사, 감정 동사, 이동 동사, 존재·소유 동사, 비교 동사, 심리 동사, 인지 동사, 경험 동사, 사유 동사, 수여 동사, 발화 동사, 전환 동사로 분류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비교적 문헌에서 공통적이고 빈번하게 나타나 확인할 수 있는 동사들이다. 동사의 명칭은 이현희(1992/1994a), 한재영(1994/1996), 이영경(2003/2007) 등을 비롯한 논의들과 입장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였다.

- ㄷ. 홍은진(2001: 37): 본 장에서는 본 자료에 나타나는 문장들 가운데 비교적 많이 보이는 동사구문을 유형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동사구문의 명칭은 편의상 의미상의 특징을 고려할 것이며 명칭이 없는 것은 기존의 논의에서 다루었던 것을 따르기로 한다.

이현희(1992/1994)에서는 ‘비교적 많이 보이는’ 구문의 유형들을, 한재영(1994/1996)에서는 ‘몇몇 대표적인 동사’를 중심으로, 선한빛(2017)에서는 문헌에서 ‘공통적이고 빈번하게 나타나는 동사’들의 구문을, 홍은진(2001)에서도 ‘비교적 많이 보이는’ 동사 구문을 논의 대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들 연구들에서 말하는 대표적이고 비교적 출현 빈도가 높다는 것의 정확한 기준은 없다. 논의 대상이 되는 동사 구문들의 선정 기준이 불확실하며 왜 이 동사 구문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도 부족하다. 이러한 논의의 양상은 초기 선행 연구에서 다른 구문들이 어떤 기준이 되어 계속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 중세·근대 국어 동사 구문 연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왜 이 시기에 이 동사 구문들을 다루려고 하는가?’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 4. 앞으로의 과제

### 4.1. ‘구문’의 범주 설정

‘구문’은 중세·근대 국어, 현대 국어에서 모두 논의되고 있는 대상이다. 그런데 연구자들마다 구문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양해지고 있어 구문 연구 성과들을 기술할 때에 기준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김진웅(2019)에서는 ‘구문’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현대국어 분야에서의 구문 연구 성과들을 대상으로 구문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김진웅(2019: 314)에서는 구문이 단어, 품사, 문법 범주, 담화 층위를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는 이유를 구문이 도구적 용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전통문법에서부터 구문문법에 이르기까지 구문을 정의하는 방식과 연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앞으로 구문의 개념이 보다 명확하게 정립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국어사적인 관점에서 국어의 구문을 다루는 연구들의 경우, 과거에는 서술어의 의미를 기준으로 한 구문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니들’ 등과 같이 어미를 내세운 구문, ‘者’ 등과 같이 특정 명사를 내세운 구문, ‘NP로써’와 같은 문장성분을 내세운 구문 등이 자주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을 보면 구문이 여러 방향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김진웅(2019: 316)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구문의 정의나 성격을 진지하게 논의한 경우가 드물다. ‘구문’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 4.2. 중세·근대 국어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 방법론의 설정

중세·근대 국어의 구문을 연구할 때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이다. 특히 구문을 이루는 각 성분들의 필수성 판단 문제,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성분들의 해석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기술할 때에 더욱 객관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항들을 검증 혹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중세·근대 국어는 자료에 나타난 언어를 기반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구문 혹은 언어 양상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료에서 해당 구문이 문증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문헌에 나타난 대로 구문을 바라보는 논의도 있지만 구문 분류나 체계 등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또한 구문에서 문장성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한재영(1994/1996)에서는 명사구에 격조사가 결합한 형태 외에도 ‘NP도’, ‘NP마다’ 등과 같이 보조사가 결합한 형태까지 포함하여 구문의 구조를 제시하였다. 김정아(2004: 426)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격조사와 보조사 등을 동일 선상에 놓고 기술한 것이다. 명사구에 결합하는 문법 형태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구문을 다룰 것인지 등도 방법론을 설정할 때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 4.3. 구문 연구를 위한 자료의 다양화

그동안의 중세·근대 국어의 구문은 간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한재영(1994/1996)과 선한빛(2017)에서는 각각 16세기와 17세기 필사본 자료, 언간 등을 검토 자료에 포함하였지만 간본이 주된 자료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홍은진(2001)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필사본 자료인 『을병연행록』을 대상으로 18세기 동사 구문을 연구하였다. 연구 자료로 간본을 검토한다면 간본에 문어체가 주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 당시 사람들의 언어 사용 양상을 확인하고 싶다면 간본보다는 일기류나 언간 등을 주 자료로 삼을 필요가 있다. 동일한 시기여도 자료의 성격에 따라 구문이 실현되는 양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안예리(2015)이다. 안예리(2015)에서는 「송준길가 언간」과 「송병필가 언간」을 대상으로 ‘-ㄴ가’와 ‘-ㄴ지’가 서술어가 오는 구조의 구문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동사의 성격에 따라 구문 안에서 ‘-ㄴ가’와 ‘-ㄴ지’의 대응 관계, 세부 용법 등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술하였다.

지금까지는 간본을 중심으로 중세·근대 국어의 구문이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제시한 구문의 종류가 일정했다. 그런데 국어의 시기가 늘어날수록, 자료의 성격이 다양해질수록 해당 자료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는 동사 구문의 성격도 한정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언급하지 않은 구조나 구문의 특징을 발견할 수도 있다. 18, 19세기 한글 자료들은 17세기보다 더욱 다양하고 자료의 수도 많기 때문에 근대국어 동사 구문이 활발하게 논의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중세·근대 국어 동사 구문 연구 성과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흐름과 현황, 논의의 쟁점, 과제를 살펴보았다. 기술한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1980년대 이후 중세·근대 국어 동사 구문 연구 성과들을 세 가지로 대별하였다. 이는 연구의 성격, 연구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 연구 대상의 범위이다. 연구의 성격에 따라 석사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소논문, 단행본으로 구분하여 총 50건을 검토하였다. 이들을 공시적·통시적 관점에 따라 세분한 후 특정 구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다수의 구문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한 세기를 대상으로 하여 다수의 동사 구문을 논의한 것은 박사학위논문에서 주로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3장에서는 학위논문의 성과들을 중심으로 공통적인 논의의 쟁점을 세 가지로 기술하였다. 쟁점들은 동사 구문의 범위와 ‘이다’ 구문의 관계를 다루는 것, 구문을 구성하는 명사구의 필수성과 수의성을 판별하는 것, 각 논의에서 다루는 동사 구문의 선정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각 연구 성과들이 이 문제들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그 태도를 비교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였다.

4장에서는 3장에서 다룬 내용들을 토대로 앞으로 중세·근대 국어 동사 구문 연구가 발전하기 위하여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들을 이야기하였다. ‘구문’의 범주 설정, 중세·근대 국어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 방법론의 설정, 구문을 연구하기 위해 참고하는 자료의 다양화이다. ‘구문’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정작 구문이 무엇인가에 대해 밝히는 논의들이 적다. 서술어의 의미를 기준으로 한 ‘○○ 동사 구문’과 같은 명칭보다는 문법 형태소나 문장 성분 혹은 특정 명사를 앞세운 구문의 명칭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문이 다루어지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 ‘구문’ 그 자체에 대한 국어사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중세·근대 국어는 자료에 확인이 되는 것만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이 많다. 특히 구문에서 문장성분이 표면에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생략으로 볼 것인지, 각 성분들이 필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설득력 있게 기술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중세·근대 국어의 특징을 반영한 연구 방법론을 설정하여 구문 연구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구문 연구를 위한 자료의 다양화는 간본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당시 사람들의 언어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일기류, 언간 등의 자료로 확대하는 것이다. 시기 별로 한글 자료의 성격과 종류가 다양해진다. 참고하는 자료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자료의 성격에 따라 구문을 분석하고 기술하는 방식도 달라질 것이다. 간본과 일기류, 언간 등의 자료에서 동일한 구문이 실현되는 양상을 비교한다면 더욱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구지영(1999), 「15세기 국어의 주격중출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영(2007), 「-이 흐- 구문에 대한 통시적 연구」, 韓國外國語大學校 석사학위논문.  
권재일(2001), 「한국어 격틀 구조의 역사적 변화」, 『語學研究』 37-1, 한국언어학회,



135~155.

- 김건희(2015), 「중세국어 형용사의 구문과 동사적 용법 -이영경(2007)을 중심으로-」, 『형태론』 17-1, 도서출판 박이정, 92~113.
- 김미령(2005), 「중세 국어의 격 교체 구문에 대한 연구 -『월인석보19』, 『석보상절21』, 『법화경언해7』의 비교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24, 우리어문학회, 7~32.
- 김민수(1968), 「國語의 構文構造 -變形生成文法の 中心部門-」, 『亞細亞研究』,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46.
- 김윤신(2019), 「구문의 구조와 의미 -논항 교체 구문을 중심으로-」, 『국어학』 89, 국어학회, 285~312.
- 金貞娥(1986), 「‘근하다’ 構文의 統辭·意味의 特性」, 『진단학보』 62, 진단학회, 127~142.
- 김정아(1993/1998), 『중세국어의 비교구문 연구』, 태학사.
- 김정아(2001), 「李賢熙, 中世國語 構文研究, 서울: 新丘文化社, 1994, 600면」, 『형태론』 3-1, 도서출판 박이정, 149~163.
- 김정아(2002), 「전기 중세국어의 ‘동등성’ 표현 구문에 대한 연구」, 『人文社會論文集』 35, 대전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12.
- 김정아(2004), 「韓在永의 『十六世紀 國語 構文의 研究』(1996) 다시 읽기」, 『형태론』 6-2, 도서출판 박이정, 423~432.
- 김지오(2016), 「석독구결 ‘여(如)’구문의 의미와 논항구조」, 『國語學』 98, 국어학회, 105~130.
- 김진웅(2019), 「구문 개념의 정립을 위한 시론」, 『국어학』 89, 국어학회, 313~336.
- 김태우(2019), 「근대한국어 자료의 ‘者’ 구문에 대한 문법사적 고찰」, 『언어와 정보 사회』 36,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439~470.
- 김태우(2020), 「명사 수식 구문의 통시적 변화」, 『國語學』 96, 국어학회, 219~256.
- 김훈태(2000), 「근대국어의 ‘-게 하-’ 구문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 劉榮榮(2016), 「‘못하다’의 통시적 고찰」, 『한중인문학연구』 52, 한중인문학회, 125~150.
- 문현수(2019), 「석독구결의 능력부정에 대한 연구 -‘{不}ㅆ’의 특성과 장형 능력부정 구문의 어순을 중심으로-」, 『국어사연구』 28, 국어사학회, 269~298.
- 민지원(2011), 「17세기 국어 계사문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소은(2012), 「국어 장형사동 구문의 의미 유형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진호(1999), 「舊譯仁王經 口訣의 構文論의 양상」, 『口訣研究』 5, 구결학회, 189~199.
- 박철주(2003), 「大明律直解의 構文 研究」, 西江大學校 박사학위논문.
- 백채원(2017), 「한국어 피동문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謝水蘭(2017), 「근대국어의 주어성 ‘NP로서’ 구문에 대하여」, 『語文研究』 45-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51~183.
- 선한빛(2017), 「17세기 국어의 동사 구문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선한빛(2018), 「17세기 감정동사 구문의 실현 양상」, 『한국어 감정 표현 연구』, 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
- 선한빛(2020), 「17세기 이동동사 구문과 격 교체」, 『語文論集』, 중앙어문학회, 7~34.
- 손세모돌(1994), 「중세 국어의 보조용언에 대한 연구」, 『韓國學論集』 24,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75~217.
- 송재목(2019), 「『일동장유가』의 인용구문」, 『한글』 80-2, 한글학회, 241~287.

- 안병환(1997), 「국어 존재 구문 연구 -17세기 자료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32, 한민족어문학회, 91~108.
- 안예리(2006), 「최근세국어 타동구문 연구: 신소설 자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 안예리(2009), 「‘삼다’ 구문의 통시적 변화」, 『한국어학』 43, 한국어학회, 179~206.
- 안예리(2015), 「근대국어 ‘-ㄴ가’와 ‘-ㄴ지’의 영향 -송준길가와 송병필가 인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어사 연구』 21, 국어사학회, 325~355.
- 안주호(2007), 「용언 “갈-” 구문의 공시성과 통시성」, 『새국어교육』 77, 한국국어교육학회, 441~465.
- 우형식(1991/1996), 『국어 타동구문 연구』, 박이정.
- 원수연(2012), 「‘싫다’ 구문의 통시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초희(2014), 「‘슬프다’ 구문에 대한 통시적 고찰」, 『새국어교육』 98, 한국국어교육학회, 411~459.
- 이금영(2019), 「연결어미 ‘-ㄴ들’ 구문의 통시적 고찰」, 『語文研究』 101, 어문연구학회, 73~8.
- 이금영(2020), 「근대 국어 ‘-도’ 통합형 양보 관계 연결어미 연구」, 『語文研究』 105, 어문연구학회, 5~33.
- 이기문(1972/1998), 『國語史概說』(新訂版), 태학사.
- 이대성(1998), 「15세기 한국어의 대칭구문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래호(1996), 「15세기 국어 계사구문 연구」, 韓國精神文化研究院 석사학위논문.
- 이상금(2007), 「중세국어 ‘하다’와 ‘만하다’의 문법적 특성」, 『人文論叢』 58,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397~426.
- 이성우(2019), 「중세 한국어의 ‘있다’ 구문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경(2003/2007), 「중세국어 형용사 구문 연구」, 태학사.
- 이영경(2004), 「국어 ‘NP이’ 補語의 성격에 대한 고찰 -中世國語 資料의 검토를 통하여-」, 『語文研究』 32-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37~163.
- 이영경(2006), 「중세국어 심리 형용사의 사전 기술에 대하여: 문형 정보 기술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7, 한국사전학회, 107~133.
- 이영경(2008ㄱ), 「형용사 ‘오래다’의 문법사」, 『國語學』 51, 국어학회, 149~174.
- 이영경(2008ㄴ), 「형용사 ‘싸다’의 統辭意味에 대한 史的 考察」, 『語文研究』 36-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87~106.
- 이용(2019), 「차자표기 자료의 ‘者’ 구문에 대한 문법사적 고찰」, 『언어와 정보 사회』 36,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375~398.
- 이유기(1999), 「‘-이쥌’계 구문의 변화 과정」, 『동국어문론집』 8,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103~128.
- 이유기(2015), 「‘-이쥌’계 구문의 변모 양상」, 『동악어문학』 64, 동악어문학회, 169~200.
- 이지영(2003), 「김정아의 『중세국어의 비교구문연구』(1998) 다시 읽기」, 『형태론』 5-2, 도서출판 박이정, 435~454.
- 이지영(2013), 「‘-로서’ 구문의 통시적 변화」, 『국어국문학』 165, 국어국문학회, 151~182.
- 이지영(2019), 「중세국어의 특이 관형사절과 특이 명사구에 대한 고찰 ‘者’ 구문을 중심으로」, 『언어와 정보 사회』 36,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399~437.
- 이현희(1986), 「中世國語 內的 話法の 性格」, 『한신논문집』 3, 한신대학교, 191~227.

- 이현희(1988), 「중세국어의 請願構文과 관련된 몇 문제」, 『語學研究』 24-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349~379.
- 이현희(1991), 「15세기국어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적 연구(I): 화법, 사유, 인지, 감각동사의 구문 유형을 중심으로」, 『주시경학보』 7, 塔出版社, 28~99.
- 이현희(1992/1994), 『中世國語 構文研究』, 新丘文化社.
- 李賢熙(2001), 「‘도히 너기다’ 구문과 ‘도하 ㅎ다’ 구문」,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 태학사.
- 장윤희(1996), 「중세국어 ‘-이쓰녀’ 구문의 구조와 성격」, 『冠嶽語文研究』 2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39~376.
- 전기량(2017), 「자토석독구결의 ‘- ㅅ /-’ 구문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24, 국어사학회, 231~270.
- 전기량(2018), 「중세 한국어 ‘-여’ 구문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연주(2019), 「국내 구문문법 연구의 구문 의미 관련 쟁점 검토」, 『한국어학』 84, 한국어학회, 135~159.
- 정연주·정주리(2019), 「구문문법」, 『한국어 의미 탐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정태균(2020), 「15세기 국어의 수행 발화 구문 유형 연구: 『釋譜詳節』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혜린·백채원(2019), 「중세한국어 [자격]의 ‘로’ 구문에 대한 연구」, 『人文論叢』 76-3,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5~63.
- 조경순(2005/2014), 『동사의 의미 구조와 문장 구성 연구』, 태학사.
- 조경순(2019), 「구문의 의미」, 『한국어 의미 탐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차윤정(1996), 「15세기 이유구문에 대하여 ‘-르씨’를 중심으로」, 『우리말 연구』 6, 우리말학회, 269~294.
- 하귀녀(1994), 「中世國語 세자리 敍述語 構文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재영(1984), 「中世 國語 被動構文의 特性에 대한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재영(1994/1996), 『十六世紀 國語 構文의 研究』, 신구문화사.
- 홍은진(2001), 「한글 필사본 <을병연행록>의 동사구문 연구」, 淑明女子大學校 석사학위논문.
- 황국정(2001ㄱ), 「석독구결의 ‘- ㅅ ++ ㅅ-’ 구문에 대하여」, 『어문논집』 44, 민족어문학회, 51~89.
- 황국정(2001ㄴ), 「석독구결의 동사 구문 (1)」, 『한국어학』 14, 한국어학회, 379~404.
- 황국정(2004ㄱ/2009), 『국어 동사 구문구조의 통시적 연구』, 제이앤씨.
- 황국정(2004ㄴ), 「15세기 국어 자동사의 문형 연구」, 『한국어학』 23, 한국어학회, 229~254.
- 황국정(2004ㄷ), 「15세기 국어 타동사의 논항구조 변화 연구 (1) -“NP에” 논항의 형성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25, 이중언어학회, 359~387.
- 황국정(2004ㄹ), 「15세기 국어 형용사 구문의 변화 연구: 논항구조가 변하는 몇몇 형용사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4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321~349.
- 황국정(2004ㅁ), 「동사의 범주간 넘나들 현상에 대한 통시적 연구」, 『언어과학연구』 29, 언어과학회, 313~334.
- 황국정(2004ㅂ), 「자동사 구문의 변화 연구 -자동사의 ‘타동성’ 획득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14, 한국어의미학회, 169~195.

- 황국정(2004ㄱ), 「국어 타동사 구문의 통시적 연구 -타동사 구문의 논항 소멸을 중심으로-」, 『언어연구』 20-2, 한국현대언어학회, 205~228.
- 황국정(2004ㅇ), 「15세기 국어 타동사의 기본 문형 연구」, 『韓國言語文學』 53, 한국언어문학회, 21~40.
- 황국정(2004ㅈ), 「자동사의 논항구조에 관한 통시적 연구 -‘NP에’, ‘NP로’ 논항 형성을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31, 언어과학회, 271~296.
- 황국정(2005ㄱ), 「15세기 국어 타동사의 논항구조 변화 연구 (2) -“NP로” 논항의 형성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27, 이중언어학회, 253~278.
- 황국정(2005ㄴ), 「국어 이동동사의 통시적 연구 -논항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26, 한국어학회, 363~393.
- 황국정(2005ㄷ), 「조사 ‘-로’의 ‘대상성’에 관한 통시적 연구」, 『형태론』 7-1, 형태론, 111~134.
- 황국정(2014), 「15세기 국어 동사의 의미변화와 논항구조의 변화」, 『人文學研究』 26,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5~34.
- 황국정(2015ㄱ), 「15세기 국어 격 교체의 유형과 통사적 특성」, 『인문사회과학연구』 16,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81~110.
- 황국정(2015ㄴ), 「중세국어 ‘-에/를’ 격 교체 구문에 관한 연구 -처격조사 ‘-에’와 대격조사 ‘-를’의 문법적 기능-」, 『언어와 정보 사회』 24,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191~222.
- 황국정(2015ㄷ), 「15세기 이동동사 구문 연구 -기본 문형과 통사적 특징에 대하여-」, 『인문학연구』 27,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33~64.





## 중세·근대 국어 계사 구문의 쟁점과 과제

김건희(강원대)

###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중세·근대 국어 계사 구문의 쟁점과 연구 성과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형용사 구문, 동사 구문, 인용 구문과 같은 구문 연구와 달리, 중세·근대 국어 계사 구문 연구에서는 ‘계사’ 및 ‘계사 구문’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먼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중세 국어 계사 구문의 대표적인 연구인 이현희(1991, 1994)에서는 ‘(기형적) 명사문’이라는 계사 구문, 또는 ‘계사에 통합된 지정 구문’을 설정하면서 ‘계사’는 아예 무형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곧 이현희(1994)에서 논의된 소위 ‘기형적 명사문’의 경우 ‘NP1이 NP2’ 형식으로, 무계사문이면서 명사구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제시한다. 반면에 현대 국어에서는 계사가 생략이 되더라도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대표적으로 언어유형론적 관점의 홍재성(2010:33)에서는 계사 구문을 현시적으로(overt) 특징짓는 특정한 형태, 음운적 표지가 계사(copula)라고 규정한다.

둘째, ‘계사’라는 용어로 포괄되고 있지만 현대 국어 계사의 범주에 관해서는 주지하다시피 용언설((의존) 형용사, 기능동사), 형식동사류설(형식동사, 경동사, 허사), 접사설(통사적 접사, 파생 접사, 접어), 조사설(서술격조사, 주격조사) 등 다양한 부류의 범주가 제안되어 왔다. 그러나 중세·근대 국어 대표적인 연구에서는 계사 자체의 문법 범주에 관한 논의보다는 서술어를 중심으로 한 구문 연구에 중점을 두고 계사 구문도 그 일환으로 다루어졌다.(이현희(1994)의 ‘중세 국어 구문 연구’, 한재영(1996)의 ‘16세기 국어 구문 연구’ 등 참조) 무엇보다 서술어 용언을 중심으로 한 구문을 다루면서도 정작 ‘계사’를 ‘서술격조사’(이현희(1994), 한재영(1996))로 규정하기도 하여 ‘계사’와 ‘계사 구문’과의 연결이 일반적인 서술어 구문의 관계와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먼저 ‘계사’ 및 ‘계사 구문’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계사의 문법적 범주 및 다양한 통사, 의미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현대 국어에서도 아직까지 많은 쟁점을 가지고 있다. 계사 자체의 다면적 특성으로 그 문법적 범주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고 중세·근대 국어 계사 연구도 구문 구조를 중심으로 다루었지만 여전히 많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계사와 계사 구문에 대한 논의를 한정된 지면을 통해 다룰 수 없다. ‘계사 및 계사 구문’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먼저 논의하면서 현대 국어 연구에 비해 중세·근대 국어 계사 연구에서 더 강점을 가지고 보충될 수 있는 논제 중심으로 논의하겠다.

지금까지 중세·근대 국어 계사 구문 연구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계사 및 계사 구문’의 정의와 범위 연구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본 논의를 시작하였다. 2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것처럼 ‘계사 및 계사 구문’의 정의와 범위를 토대로 본고에서 다룰 중세·근대 국어 계사 구문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 3장에서는 중세·근대 국어 계사 구문의 쟁점과 연구 성과에 대해 살펴보겠다. 4장 결론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논의를 마무리하겠다.

## 2. '계사' 및 '계사 구문'의 정의와 범위

### 2.1. 계사

국어학계에서는 일찍이 '이다'를 '지정사'로 규정하며 용언으로 본 최현배(1937)의 영향력이 크지만 '이다'를 계사(繫辭, copula)로 규정하는 논의도 1970년대 이후 나타나는데, '이다'를 '계사'로 규정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 한 부류는 1970년대 이후 논리학의 이론을 받아들여 '계사'로 보는 관점과 또 다른 부류는 언어유형론의 '계사' 논의를 받아들여 계사로 보는 관점이다.<sup>1)</sup> 전자의 관점에서 '계사'라는 용어를 이룬 시기에 쓴 김광해(1983)에서는 계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1) 김광해(1983)의 계사 정의

'계사'의 언어학적 특성이 'A=B'임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론상 심층에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표면에 나타나는 형태로서의 계사는 '의미상으로 무의미한', '명목상의 동사'임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어휘 형태를 지니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김광해(1983)

순수한 논리학적 관점<sup>2)</sup>에서는 계사를 품사 범주로 보지 않지만 김광해(1983)에서는 '계사'를 명목상의 동사, 결국 동사로 규정하며 '이다'를 계사로 적극적으로 규정하였다. 임동훈(2005)에서도 논리학의 영향을 받은 계사 '이다'도 용언이라는 품사로 제시한다.<sup>3)</sup> 반면에 이남순(1999)에서는 논리학 관점에서는 '이다'를 매개모음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제시하며 '이다'를 품사 범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 (2) 이남순(1999)의 계사 정의

'인간은 동물이다'의 '동물'을 술어로 보면 '이다'는 문장 형성에서의 dummy element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다'를 어미로 본 관점은 논리학의 이런 관점과 통하는 데가 있다. 즉 '이다'의 '다'는 다른 유형의 문장들에서도 그렇듯이 문장 종결의 어미이고 그리고 '이'는 매개모음적인 성격을 지닌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남순(1999:42-43)

다음으로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계사를 규정한 논의는 Stassen(1997), Dixon(2002),

---

1) 물론 계사의 기원을 따져보면 논리학적 관점이 그 시작으로 언어유형론 관점에서 계사를 논의한 Stassen(1997)에서도 계사(copula)는 '연결', '연합'을 뜻하는 라틴어 'copular'가 차용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문장의 주부와 술부를 연결하는 언어적 요소로 정의된다고 제시하였다.(Stassen 1997: 76)

2) 계사는 본래 논리학 용어로 주사와 빈사를 이어주며 긍정이나 부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특별히 품사 범주로 보지 않는다. 문장을 하나의 명제 또는 판단이라고 할 때 명제의 주개념이 되는 것을 주어라고 하고 주어에 관해 주장되는 빈개념을 술어라고 한다. '인간은 동물이다'에서 '인간'은 주어이고 '동물'은 술어인데 이때의 '이다'를 계사라고 한다. '이다'는 실제 문장에 표현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이를 명제의 독립된 요소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김준섭(1972), 이남순(1999) 참조)

3) 임동훈(2005:120)에서는 '이다'를 용언으로 규정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한 부류는 일본 전통 문법, 최현배(1930, 1956) 등의 영향으로 '이다'를 지정사로 보는 것이고 다른 부류는 70년대 이후 논리학 및 서구 문법의 영향으로 '이다'를 계사로 보는 것이라고 제시한다. 특히 이 두 흐름의 경우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크고 주된 공통점은 '이다'를 대체로 두 개의 논항을 요구하는 용언으로 보는 점이라고 설명하였다.



Pustet(2003) 등이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남길임(2004, 2006), 박진호(2005), 홍재성(2010), 임근석(2009, 2012), 탄나나(2014), 김건희(2016, 2017) 등의 국내 연구자 논의에서 수용되었다. 시기적으로 논리학적 관점을 수용한 연구가 앞서며 언어유형론적 관점을 수용한 연구는 이처럼 최근의 논의에서 많이 나타난다. 가장 널리 알려진 Pustet(2003)의 정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 Pustet(2003)의 계사 정의

계사(copula)란 술어핵으로 기능하는 어휘소와 함께 나타나는 언어 요소로 자신이 포함된 술어구(predicate phrase)에 어떤 의미적 내용도 첨가하지 않는다.

Pustet(2003: 5)

Pustet(2003)의 정의에서 ‘계사’는 (i) 의미적으로 비어있고, (ii) 통사적으로 어휘소와 함께 나타나는 의존성을 보이며 (iii) 분포적으로 서술어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현대 국어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이다’의 범주는 계사의 이러한 전형적인 세 가지 특징, ‘(i) 의미적 불완전성, (ii) 통사적 의존성, (iii) ‘서술’ 분포 중 어느 한 특징에 주로 초점을 맞춰 제시된 것이다.

(4) 계사의 특징과 범주

가. 의미의 불완전성: 형식동사류설, 접사설, 조사설(서술격조사, 주격조사)

나. 통사적 의존성: 조사설(서술격조사, 주격조사), 용언설(기능동사), 형식동사류설, 접사설,

다. ‘서술’ 분포: 조사설(서술격조사), 용언설, 형식동사류설

이와 같이 한 언어 내에서도 한국어의 경우, ‘계사’라는 용어로 포괄되고 있지만 용언((의존)형용사, 기능동사), 형식동사류(형식동사, 경동사, 허사), 접사(통사적 접사, 파생 접사, 접어), 조사(서술격조사, 주격조사) 등 다양한 범주로 제시되고 있다.

반면에 중세·근대 국어 계사 논의에서는 이러한 범주를 규정하는 논의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근대 국어 ‘이다’는 오랜 전통의 ‘지정사’로 명명되지 않고 ‘계사’로 명명되며 주로 다루어졌다는 점에서(이현희(1994), 한재영(1996), 구지영(2000) 등 참조) 비슷한 시기에 ‘계사’를 다룬 국어학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순수한 논리학적 관점에서는 계사를 품사 범주로 보지 않고 의미가 비어있는 연결사로 보지만 국어학 논의들에서는 계사를 동사 혹은 용언으로 다루었다. 다만 이남순(1999)에서는 논리학의 관점을 제시하며 품사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상반된 관점은 중세·근대 국어 계사 설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술어 용언을 중심으로 한 구문을 다루면서도 정작 ‘계사’를 왜 서술격조사(이현희(1994), 한재영(1996))로 규정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세·근대 국어 계사의 범주 설정에 관한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허웅(1975)을 비롯한 대표적인 중세 국어 문법서에서는 잡음씨 ‘이다’를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아니다’를 함께 다루고 있다. 특히 허웅(1975:416)에서는 잡음씨에 ‘-오/우-’가 쓰인 예외로 ‘스춤 아노미 아니라<월석 1:36>’와 같은 예문을 제시한다. 이현희(1991)에서도 ‘㉠ ‘계사문’을 비롯하여 ㉡ 의문 조사 ‘-가/고’가 통합된 문장과 ㉢ 명사문 부정의 ‘아못거시 아못거시 아니라’ 구문도 명사문의 한 유형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계사 ‘이다’와 ‘아니다’와의

관련성도 살펴보고, 특히 ‘아니+이다’가 ‘아니다’로 재구조화된 중세·근대 국어 예문들을 살펴보겠다. 끝으로 계사 자체에 대해 다루는 3.1.장에서는 계사의 기원형에 대한 중세 국어 연구 성과들도 살펴보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계사’의 정의와 범위를 토대로 중세·근대 국어 계사 관련 쟁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 계사 관련 쟁점

가. 계사의 문법적 범주 규정에 대한 논의

나. 계사 ‘이’의 기원형에 대한 고찰

다. 계사 ‘이다’와 ‘아니다’의 관계 및 ‘아니+이’의 재구조화 여부 및 시기

2.2. 계사 구문

일반적으로 구문이라고 하면 서술어인 용언과 결합하는 명사구로 구성되는 구조이다. 그렇다면 계사 구문의 경우, 형용사 구문, 동사 구문 등과 동일하게 계사를 표면적으로 용언으로 보는 것인데 ‘계사’ 자체는 의미가 비어있거나 아예 어휘 형태를 가지지 않기도 한다. 따라서 계사 구문의 특성은 계사에 선행하는 요소, 특히 명사구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규정되었다.

중세·근대 국어 연구에서도 명사구(NP1, NP2)들의 관계를 ‘동치, 포함, 속성’ 등의 관계로 규정하며 다루었다.<sup>4)</sup> 그러나 중세·근대 국어의 경우 명사구들의 상관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명사구들의 의미 관계를 살펴보려면 명사구의 외연의 크기를 비교한다거나 도치 가능성, NP2의 표제명사화, 생략 가능성,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7나)와 같이 부사 수식 등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중세·근대 국어 자료에 대한 인위적 가공으로는 그 적격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김정아(2001), 이지영(2019)에서도 이러한 명사구들의 의미 관계의 모호성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민지원(2011)에서는 논항 명사구들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다음과 같은 예시를 제시했다.

(6)

가. 오미탕은 오미 서 돈의 녹두 적소두 흑두 각 한 흡식이니 <두경 25a>

→ 오매탕은 오매, 서 돈의 녹두, 적소두, 흑두를 각 한 흡씩 넣은 것이다.

나. 입때에 헛말하고 귀신이 눈의 보이는 거시 열이오 정신이 어둡어둡해 씨티디 못하는 것도 열이니 <두경 67b>

→ 이때에 헛말하고 귀신이 보이는 것이 열 때문이오, 정신이 어둡어둡해 깨지 못하는 것도 열 때문이다. 민지원(2011:33-34)

이는 현대 국어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례로 (7가)의 경우, 후행하는 명사구 ‘선생, 학생’을 토대로 하면, ‘확인(소속)’으로 모두 동일하게 분류되지만, 선행 명사구 및 수식을 고려하면 각각 ‘확인’, ‘속성’이어서 서로 다른 의미 유형으로 분류된다.

4) 17세기 계사 구문을 다룬 민지원(2011)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항 명사구들 사이의 기본 의미 관계를 제시하였다.

동치 관계: 더 부라는 黑林이 곳 夏店이라 <노언소 54a>

포함 관계: 황슈는 평양부 사름이니 <동신호 1:14b>

속성 관계: 小人은 곳 三十二歲라 <노언소 57b>

(7)

- 가. 김 교수는 선생이다. 김 교수는 학생이다. [확인]  
 나. 김 교수는 (여전히) 학생이다. [속성]  
 (학생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을 보고)  
 나.' 김 교수는 학생보다 더 학생이다. [속성]

따라서 명사구들의 의미 관계보다는 외형적으로 명확히 확인이 가능한, 계사 구문과 연계된 통사적 관점의 구문, '무주어문, 분열문'에 대해 주로 다루겠다. 다만 의미적 관점의 구문으로는 주요 중세·근대 국어 계사 구문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된 '소유 구문, 존재 구문'에 대해 다루겠다.

덧붙여 계사 구문의 경우 기본적으로 둘 이상의 명사구 논항이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두 자리 서술어'(김정아(2000), 민지원(2011) 등 참조)) 이현희(1991, 1994)를 중심으로 중세 국어에서는 계사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명사구 논항을 취하며 이러한 하나의 명사구 논항이 확장된 형식으로 다양한 명사구 논항이 나타난다는, '명사구 확장'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가 있다. 이러한 명사구 확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계사 구문 보충어 위치에 분포하는 범주는 일반 명사에 국한되지 않으며, 서술명사, 의존명사, 부사, 어근 등 다양한 부류가 선행한다. 홍재성(2010:18)에서는 이를 보충어 확장이라고 제시하였는데 명사가 선행하는 정형적인 구문에 대해 주로 논의되었지만 중세·근대 국어 연구에서도 '분열문, 무주어문, 양상적 구문'과 같은 비정형적 구문 연구, 곧 계사에 선행하는 다양한 부류가 오는 것을 제시한 논의에 대해 살펴보겠다.

계사 구문에서 명사구들의 의미 관계보다도 계사의 선, 후행 요소의 분포 부류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본 논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세·근대 국어 계사 구문의 쟁점을 제시하면 (8)과 같다. 특히 계사 후행 요소에 대해 '이다' 활용형인지, 조사로 굳어진 단위인지에 대한 논란은 현대 국어까지 이어지므로 이러한 문제를 다룬 일련의 쟁점적 논의도 소개하겠다.

(8) 계사 구문 관련 쟁점

- 가. [계사 선행 요소] 계사 구문의 확장적 논의: 계사와 연계된 구문  
 나. [계사 후행 요소] '이다' 활용형인가?, 조사인가?

### 3. 중세·근대 국어 계사 구문의 쟁점 및 연구 성과

본 논의는 참고문헌에 제시한 중세·근대 국어 계사 연구를 다룬 논저를 토대로 하며 중세·근대 국어 원문 해석은 기본적으로 각 논저 저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중세 국어와 달리, 근대 국어 계사 구문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근대 국어 '계사 구문'만을 논의한 연구는 민지원(2011), '17세기 국어 계사문 연구'가 유일하다.<sup>5)</sup> 따라서 근대 국어 계사 구문의 경우, 민지원(2011)을 중심으로 다루며 계사 구문 자체는 아니지

5) 민지원(2011: 12)에서도 이현희(1994), 한재영(1996)을 토대로 15세기와 16세기 국어의 전반적인 구문구조 연구가 이루어져 계사 구문의 유형과 특징이 드러났지만 그 성과가 근대 국어 연구에까지 이어지지 않았고 근대 국어를 대상으로 한 계사 연구는 거의 없다고 제시하였다.

만 계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논저인 홍은진(2001), 이지영(2018) 등을 다룬다.

### 3.1. 계사

#### 3.1.1. 계사의 문법적 범주 규정에 대한 논의

중세·근대 국어에서는 주지하다시피 계사의 문법적 범주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중세 국어 계사를 다룬 대표적인 논의인 이현희(1994:101), 한재영(1996:257)에서도 계사의 범주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다루지는 않는다고 명시하고 계사의 문법 범주를 규정하기보다는 구문 구조를 주로 다루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김정아(2001, 2004), 구지영(2000), 민지원(2011)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근대 국어 계사 연구에서 문법 범주는 (9)와 같이 제시되었는데, 어휘 범주와 기능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9) 가. 어휘 범주

김정아(2000): 용언(형용사, 두자리 술어)

민지원(2011): (잠정적) 형용사

#### 나. 기능 범주

이현희(1994): 서술격조사

이래호(1995): 통사적 파생접미사<sup>6)</sup>

한재영(1996): 서술격조사

‘서술격조사’로 보는 부류와 ‘용언(형용사)’로 보는 부류로 나뉘지는데, 먼저 용언(형용사)으로 보는 근거에 대해 살펴보면, 김정아(2000:332)에서는 15세기 이전의 석독구결 자료를 통해 계사 ‘이-’가 기원적으로 주격 두 개를 취하는 두 자리 술어(형용사)라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김정아(2000:332)에서는 두 개의 주격과 결합하던 계사가 두 번째 주격이 실현되지 않음에 따라 계사 자신의 형식적 특성(어휘적 의미가 거의 없는)으로 인하여 두 번째 명사구와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졌고 선행요소에 대한 의존성이 강해지는 쪽으로 변화되었다고 설명한다. 다만 두 개의 논항과 결합하는 형용사로서의 성격은 현재까지도 지속된다고 주장하였다.

민지원(2011:20-21)에서는 ‘격 표지가 실현되지 않음, ‘이-’ 생략’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우선 잠정적으로 형용사로 규정한다고 제시한다. 특히 형용사로 보는 것의 장점은 계사를 용언 구문의 구조와 동일하다고 보아 논항을 분석하는 부담을 없애주며, ‘아니다’를 ‘이다’의 단형 부정문으로 보면, ‘이다’의 부정이 ‘아니다’라는 특수한 어휘를 통해 이뤄진다는 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제시한다.

다음으로 중세·근대 국어 계사 구문 연구의 가장 논란이 되는, ‘계사’를 ‘서술격조사’로 규정한 것에 대해 살펴보자.

#### (10)

가. ‘(-)이-’의 활용형이 조사와 같은 자격을 가지는 문법요소라는 견해를 받아들이므로 ‘서술격조사설’을 따르는 셈이다. 이현희(1994:102)

계사 ‘(-)이-’가 활용을 한다는 점이 특이할 뿐 결국은 조사와 같은 자격을 가짐을 확인할

6) 이래호(1995)에서는 ‘이-’가 명사구와 결합하여 선행하는 명사구를 형용사로 파생시킨다는 점에 주목하여 통사적 파생접미사로 보았다.

수 있다. 이현희(1994:107)

본질적으로 명사구를 명사문으로 전환시키는 요소로서 서법 요소나 문체법 요소를 통합시킬 자리를 마련해 주는 형식요소이다. 이현희(1994:107)

나. 계사구문이라는 용어 사용에도 불구하고 그 사전적 의미 또는 논리학적 의미와 달리 서술격조사처럼 다룬다는 의미도 갖는다. 한재영(1996:26)

이현희(1994)에 대한 서평 논문인 김정아(2001:156-157)에서는 서술어가 아니라면 어미를 취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어렵다는 점, 서술어 구문 유형의 정리라는 점에서 계사 '이다'를 서술격조사로 설정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렇다면 서술어 용언을 중심으로 한 구문을 다루면서도 정작 '계사'를 왜 서술격조사로 규정했는지 이현희(1991, 1994)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이현희(1994) 이전에 중세 국어 명사문의 성격을 밝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이현희(1991:513)에서는 (11) '劫 일후미 有寶', '나랏 일후미 寶生'이 다 문장으로 이 후행문이 '-고' 어미에 의해 선행문과 접속되어 있고 한자어는 그 자체로 서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문장과 문장의 접속이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sup>7)</sup>

(11) 이제 劫 일후미 有寶이오 나랏 일후미 寶生이 그 쓰디라 <월석 13:66>

이현희(1991:513)

따라서 이현희(1991:513)에서는 그 문장적인 성격을 보다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선어말 어미나 어말어미를 통합하여 문장을 종결시키거나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는 요소가 계사 '이-'인 것으로 파악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이현희(1994:103-105)에서도 명사구적인 한자어가 그 자체로 서술성을 가지고 있음을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

이현희(1994)에서는 계사 '이-'를 지정 구문으로 명명하며 다른 서술어 구문과 평행하게 살펴본 논의라면, 이현희(1991)는 중세 국어 명사문만을 다룬 논문으로 계사 '이-'의 성격을 보다 확실하게 드러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명사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문장이므로 그 명칭도 '명사문'이라고 제시하며 계사 '이-'가 단순히 생략된 것보다 차별화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현희(1994)에서는 'NP1이 NP2' 형식인 '기형적 명사문'이 문장의 성격을 보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 NP1에 대한 주격 부여, ㉡ 동일명사구 생략<sup>8)</sup>, ㉢ 연결어미와 결합하는 선행문과 이에 'NP1이 NP2'가 후행하여 접속되는 현상' 등을 보다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특히 (11), (12)와 같은 '접속' 양상이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데, 이현희(1994)에서는 '시름'이 형용사인 '두렵-', '싫-'과 연결어미 '-으며'에 의해 이어져 있어서 ㉢ 명사 자체만으로도 접속된 문장 내부에서 서술어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 NP2가 격을 할당하는 서술어 역할을 한다고 제시한다. 이와 같이 이현희(1991)에서 나아가 이현희(1994)에서는 한자어뿐만 아니라 고유어도 서술성을 가지고 있음을 제시한다.

7) 나아가 이현희(1991:514)에서는 현대 국어에서도 '나는 총각, 너는 처녀'와 같이 편재되어 나타나는 문장이 보이지만, 이것은 대체로 이른바 계사 '이-'의 활용형이 생략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파악해 왔음에 비해 중세 국어에서는 이러한 문장, 곧 명사문이 광범위하게 나타난다고 제시한다.

8) 이에 대한 설명은 3.2.1.1.장 '기형적' 명사문'에서 제시하겠다.

(12) 가. 두리브며 설브며 시르믄三界이 受苦스 相이오 <월석 12:35L>

나. 크며 저그며 안과 밧과논 혼 界와 혼 집 類오 <능엄 2:41L>

이현희(1994:106)

이현희(1991, 1994)의 일련의 논의에서는 계사에 선행하는 명사를 술어 핵으로 보므로, 이러한 어휘 범주인 명사에 후행하는 계사는 기능 범주 중에서 명사에 결합하므로 ‘격조사’, 서술어 자리에서 쓰이므로 서술격조사<sup>9)</sup>라는 ‘기능 범주’로 설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현대 국어에서 ‘이다’를 ‘서술격조사’로 규정하는 대표적인 근거는 서술어처럼 쓰이고 무엇보다 격조사처럼 탈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건희(2016:16-17)에서는 ‘이다’의 탈락은 언어 유형론적 보편성을 보이는 현상<sup>10)</sup>이라고 하며 Curnow(2000), Dixon(2002), Rothstein(2004), McKay(2010) 등 다양한 언어유형론적 논의를 소개하였다. 김건희(2016:24)에서는 술어는 논리적으로 명제 주어에 대해 뭔가를 단언해야 하므로 기능적 관점에서 어휘적 명시성을 반드시 요구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이다’의 전형적 분포가 술어 자리이기 때문에 술어 자리에서 쓰이는 ‘이’와 어미 ‘다’까지 모두 탈락이 가능할 때, ‘이다’ 추정 요소와 결합된, 탈락되지 않은 ‘이다’ 선행요소의 술어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김건희(2016) 논의는 이현희(1991, 1994)에서 무계사 형식을 토대로 기형적 명사문을 설정하면서, 명사가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는 이현희(1991, 1994)의 논의와 맞닿아 있다.

### 3.1.2. 계사 ‘이’의 기원형에 대한 고찰

계사의 기원적 성격은 곧 통시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으로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9) 김건희(2016:20)에서는 ‘이’가 나타나는 전형적 위치가 ‘서술어’ 자리라는 것을 고려하면, ‘서술’의 분포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서술격조사’가 ‘격’, ‘조사’라는 기능소(형식형태소)를 적절히 쓰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다른 문법 범주보다 ‘이’의 본질을 비교적 잘 드러냈다고 제시하였다. 곧 ‘이다’의 지배적인 분포 특성은 ‘서술’이고 어휘 의미가 뚜렷하지 않아 어휘 범주인 실질형태소가 아니라 기능 범주인 형식형태소에 근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10) 특히 Curnow(2000)의 주요 계사 절 유형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가. Verbal copula construction (CS+CC+Verb)

나. Particle copula construction (CS+CC+Particle)

다. Inflectional copula construction (CS+CC-inflected similar to verb)

라. Zero copula construction (CS+CC)

(cs: 계사 주어, cc: 계사 보어, particle: 동사로 볼 수 없는 부가적 단위)

이어서 김건희(2016:17)에서는 이러한 Curnow(2000)의 계사 유형은 ‘탈락’이 지배적인 국어의 ‘이다’ 구문에도 그대로 대응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가. 이것은 책상이다. ‘이다’(CS+CC+이다)

나. 이것이 바다다. ‘이-탈락’(CS+CC+다(Particle))

다. 철수가 학교갔다. ‘명사+어미’(CS+CC+갔다(-inflected similar to verb))

라. 철수가 학생.(영희가 선생이다.) ‘이다’ 탈락(CS+CC)

이지영(2018)에서도 계사가 없는 명사문을 가진 언어가 있다는 점, 명사 서술어가 서술성을 가진다는 점이 유형론적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13)

가. 계사에 후행하는 어미들의 교체 현상 및 그 출현 시기와 관련된 음운론 및 형태론적 연구  
 나. 계사 구문과 관련된 통사론적 연구

이 중에서 (13나)와 관련된 연구는 김정아(2000)이 유일하며<sup>11)</sup> (13가)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다. 따라서 (13가)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 특히 계사 ‘이다’의 원래 형태가 ‘\*일-’인지에 대해 김정대(2005) 등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이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겠다. 최근에 출간된 중세 국어 문법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중세 국어 문법서에서 ‘이다’ 관련해서는 음운론적 교체 현상만 주로 다루고 있는데 계사의 기원을 제시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어미들의 다양한 교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14) 계사의 기원

가. 河野六郎(1948): 동사어간 ‘일-(成)’

나. 이승녕(1956): 변위격조사 ‘-이’

다. 정호완(1987): 형식명사 ‘이다’

라. 이기문(1972): 하향 이중모음 ‘iy’

마. 임흥빈(1993), 김정대(2005): ‘일-’ (홍은진(2001), 김정대(2005) 등 참조)

(14)에서 비교적 자세한 몇 가지 논의를 제시하자면, 먼저 이기문(1972:180)에서는 계사 형태가 표기상으로는 주격과 같았으나, 아주 특이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제시한다. ‘ㄱ → ㅇ’(天子 | 어시니), ‘ㄷ → ㄹ’(차반이러니) 교체와 ‘-오- → -로-’(훈가지로물 니르니라) 교체를 예로 들면서 비록 계사가 ‘이-’로 표기되었으나 음운론적으로 단순한 i가 아님을 시사하고 있고 ‘ㄱ’이 ‘ㅇ’으로 교체된 것은 이것이 y로 끝난 하향 이중모음인 iy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제시하고 있다. 다만 ‘ㄷ’이 ‘ㄹ’로 교체된 것은 어떤 자질에 의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제시하였다.<sup>12)</sup>

김정아(2000)에서는 계사의 구체적인 기원 형태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어미들의 교체 현상을 통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살펴보겠다. 김정아(2000:315-318)에서는 12, 13세기의 석독구결에서는 계사 뒤의 교체는 수의적인 현상이었지만 15세기 국어는 계사 뒤에서 ‘ㄷ’ 두음 어미들이 ‘ㄹ-’로, ‘ㄱ’ 두음 어미들이 ‘ㅇ-’으로 교체되며 모음어미들은 ‘ㄹ’이 첨가된 형태들로 교체됨을 보여주며 이러한 교체는 15세기 국어에서는 필수적 현상이라고 제시한다.<sup>13)</sup>

계사 ‘이’의 기원 형태를 ‘\*일’로 보는 견해가 가장 많은데, 일찍이 임흥빈 편(1993)에서도 ‘이-’가 원래 ‘\*일-’ 어간이었다고 추정하며 ‘-라’ 계열 어미들은 그 어간 ‘ㄹ’의 화석형이라고

11) 김정아(2001)에서는 부정문의 양상을 살펴 계사 구문의 기원적 구성이 [NP1이 [NP2이 이-]] 형식의 주격중출구문이라고 주장한다.

12) 바로 이어서 이기문(1972:180)에서는 ‘아디 묻게라 <목우자수심결 43>’와 같은 예를 들면서 계사는 그 연결이 자유로워 선어말 어미 및 부동사 어미가 선행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다만 계사의 기원형을 ‘\*일-’로 본 김정대(2005:8)에서는 이러한 이기문(1972)의 논의를 인용하면서 통사상의 특이성을, 계사의 기원형을 ‘\*일-’로 봄으로써 해결되는지의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제시한다. 따라서 통사상의 특이성의 문제는 김정대(2005)에서 직접 언급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인다.

13) 다만 최동주(2000:373)에서는 김정아(2000)에 대한 토론문을 통해 이현희(1994)에서는 계사 뒤에서의 ‘ㄷ-ㄹ’의 교체는 13세기부터 보이며 ‘ㄱ’의 약화는 이보다 조금 이른 시기일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후행 어미의 교체 양상이 시기별로 달랐다고 한 바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제시한다. 특히 김정대(2005)에서는 계사의 기원형을 ‘\*일-’로 보는 것에 대해 두 가지 근거로 자세히 제시하였다. 먼저 활용상의 특이성을 ‘\*일-’로 상징함으로써 해결된다는 것이다. 김정대(2005:26)에서는 ‘\*일-’은 자음 앞에서 이미 ‘ㄹ’ 탈락을 겪어 다른 ‘ㄹ’ 말음 용언과는 성격이 다르고, 이 점이 ‘-러- → -더-’와 같은 ‘ㄷ’ 복귀를 저지하여 ‘이러라’와 같은 어형으로 잔존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계사 어간이 ‘일-’에서 ‘이-’로 바뀌면서 새 어간을 중심으로 하여 ‘ㄷ’ 복귀가 일어나 오늘날의 ‘이더라’가 되었다고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방언을 근거로 삼았다. 김정대(2005:37)에서는 애초 ‘-가/고’는 의문 조사였는데, 계사 첨가를 겪지 않은 방언에서는 의문 조사인 반면, 첨가를 겪은 방언에서는 어미화 과정을 거친 어미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곧 안동 지역어에만 ‘-라/로’인 것이 의문시되고, 이는 ‘\*일-+가/고’, 즉 ‘계사+의문형 어미’로 봄으로써 설명된다고 제시한다.

형태, 음운론적 관점에서 세밀하게 논의한 김정대(2005)의 연구를 본고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못했지만 두 가지 주된 근거를 가지고 계사의 기원형을 ‘\*일-’로 보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일관되게 설명하였다. 이러한 김정대(2005)에서는 특히 ‘계사 생략’이 아니라 ‘계사 첨가’ 현상을 주장하였는데, 결국 계사를 용언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의문 조사가 ‘어미화’되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처음부터 무계사를 상정한 이현희(1991, 1994)의 기형적 명사문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통시적으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김정아(2001)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의문 조사로 구성된 문장을 계사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2장 기형적 명사문에서 더 논의하겠다.

### 3.1.3. 계사 ‘이다’와 ‘아니다’의 관계 및 ‘아니+이’의 재구조화 여부 및 시기

먼저 허웅(1992:76-77)에서는 (15)와 같이, 15세기 말본의 ‘아니’는 토씨 ‘-를, -가’를 가질 수 있는 임자씨였지만, 16세기에서는 (16)과 같이 ‘-를’을 붙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잡음씨로 보며 ‘아니아/아니가’의 ‘-가/아’를 씨끝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제시하였다.

(15) 이 둘히 둘 아니를 일후미 空相이라. <반야심경 38>

因 아니를 因에 혜요미니 <능엄 8:91>

허웅(1992:76)

(16) 쯔흔 君子 | 아니가 <논어 1:1>

다 人의 子 | 아니가 <맹자 13:29>

허웅(1992:77)

이현희(1991)<sup>14</sup>)에서는 중세 국어에서 ‘아니’는 명사로도 부사로도 기능한다고 제시한다.

(17)

가. 非는 아니라 <월 서 21>

나. 不은 아니 亨는 쁘디라 <석 서 3>

이현희(1991:523)

14) 이현희(1994:133-138), ‘3.3. ‘아니’ 구문의 성격’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제시하여, 이현희(1994) 내용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현희(1991:531)에서는 이후 명사로서의 ‘아니’가 극도로 쇠퇴되어 현대 국어에서는 ‘아니’의 명사로서의 기능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아니+이’ 전체가 재구조화되어 용언적인 것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현희(1991)에서는 ‘아니+이’로 재구조화된, 이런 변화는 이미 중세 국어에서도 ‘아니’와 ‘이-’, ‘-가/고’ 등과의 통합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불안정했다는 사실에서 그 시초를 찾아볼 수 있다고 제시한다.

(18)

- 가. 十八界 아노물 니르시니 <능 4:47>
- 나. 네 돌아 보내디 몬흙 거슨 너 아녀 뉘류 <능 2:30>
- 다. 엇데 我 아니오 <원각 하 3-1:31>
- 라. 先生은 病 아니가 <남명 상 30>

이현희(1991:531)

곧 이현희(1991:531)에서는 ‘아니로물’과 ‘아니라’(연결형)로 나타나야 할 것들이 ‘아놈’과 ‘아녀’로 나타나고<sup>15)</sup> ‘아니’에 통합되는 ‘-가/고’는 ‘ㄱ’의 약화 및 비약화 현상이 모두 나타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다음으로 한재영(1996:273)에서도 ‘아니라’가 체언활용을 하는 ‘아니’와 계사 ‘이라’의 결합이고 통사적으로는 ‘NP1이 NP2이 아니라’에서의 [NP1이 NP2이]가 체언 ‘아니’의 수식 내용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아니라’는 ‘NP이라’ 구성이고, 그때의 ‘NP’가 ‘아니’라고 제시한다. 다만 ‘NP’ 자체를 ‘아니’라고 제시하면서 체언 활용을 하는 ‘아니’가 다시 계사와 결합한다는 설명은 다소 모호하다.

한재영(1996)에서 주목할 점은 (19)와 같은 예문을 보이면서 별도의 명사구를 취하지 않고 ‘아니라’만 쓰인 것은 ‘이라’가 비자립적인 것과 대조를 이룬다고 제시하는 점이다.

(19) 그러면 舜은 거쥬 홀ㅎ신 者 | 시니잇가 굴ᄃ샤디 아니라 <맹자 9:9a>

한재영(1996:273)

이러한 한재영(1996:273)에서는 결국 ‘아니라’에 대해 재구조화되어 일반 용언과 같다고 제시하며 ‘아니라’와 ‘이라’의 차이점을 자립성으로 본다. 현대 국어에서 ‘이다’를 용언으로 보는 주요 근거는 ‘이다’의 부정형이 ‘아니다’이며 ‘이다’와 ‘아니다’ 대응을 전제로<sup>16)</sup> ‘이다’를 형용사로 보는 것인데 한재영(1996)의 (19)와 같은 예시는 ‘이다’와 ‘아니다’가 대응 어구가 될 수

15) 15세기 주격중출문을 다룬 구지영(2001:22)에서도 허용(1975), 이현희(1994)의 예문과 유사한 다음 예문을 제시하면서 주격중출문에서 나오는 2항 술어 ‘아니다’는 계사 ‘-이다’의 부정으로 이미 어휘화한 부정 형용사라고 제시한다.

이논 보미 이 봄 아노물 結 ㅎ시니라 <능엄 2:92>

‘아니’가 명사라면 ‘아니로물’ 혹은 ‘아니로’로 나타나야 할 것들이 용언어간 ‘아니-’의 명사형인 ‘아놈’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니-’가 이미 15세기 국어에서 하나의 용언어간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하였다.

16) 김건희(2017:7)는 ‘분리가능성, 격 할당(격 표시), 대응, 선행요소 확장’의 측면에서 ‘이’는 선행요소에 의존하는 통사적 의존성을 보이므로 ‘이다’ 구문에서 술어핵은 ‘이다’의 선행요소로 술어의 형식적 단위는 ‘이’가 아니라 ‘선행요소(+이)’가 된다고 제시하였다. 이어서 김건희(2017:7)에서는 문장에서 단독으로 술어로 기능하는 ‘아니다’와 달리 ‘이다’는 단독으로 술어를 이루지 못하며 따라서 ‘아니다’와 대응 어구를 이루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없음을 보여준다.

김정대(2005)에서도 당시 쓰임으로는 각각 ‘아니로미, 가지로몰’인데 이와 다르다는 점은, 계사의 새 어간은 ‘일-’이 아니고 ‘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됨을 보여준다고 제시하였다.

- (20) 가. 스흠 아뇨미 아니라 <월석 1:36>
- 나. 훈 가쥬몰 니르시니 <능엄 2:79>

김정대(2005:5)

허웅(1975:416)에서도 제시된 (20가), ‘아니+오+ㅁ+ㅣ’로 분석되는 ‘아뇨미’에 대한 이러한 김정대(2005)의 설명에서도 ‘아니-’는 ‘아니+이’로 계사 ‘이’를 전제로 하여, ‘아니다’로 재구조화된 내용을 상징하는 것이다. 곧 ‘아니+이’로 분석해 내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부정형 계사의 새로운 어간이 ‘아니-’임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허웅(1975), 허웅(1992), 이현희(1991), 한재영(1996), 구지영(2001), 김정대(2005)에서는 15세기 ‘아니’는 주로 명사이지만 ‘아니+이’로 재구조화되어 용언처럼 쓰이는 양상도 나타난다고 공통적으로 제시한다. 앞으로 살펴볼 근대 국어에서도 명사로서의 쓰임이 극도로 약화되고 용언으로 완전히 재구조화되었다고 제시한다.<sup>17)</sup>

18세기 후기의 한글 필사본 <을병연행록>을 다룬 홍은진(2001:44)에서도 중세 국어와 달리, 근대 국어 ‘아니’의 명사적 용법은 매우 약화되어, 중세 국어 ‘아니라’는 ‘아니(명사) + 이(계사) + 라’의 구조이지만, 근대 국어 시기에는 ‘아니 + 이-’가 한 단위로 되는 재구조화의 단계에 있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 (21) 涉疑 訶 사람을 [의심저온 사람이라] 가져 法 아니로 鍛鍊 訶야 [죄 니기듯 訶단 말이라] 承服 訶기를 요구 訶니 (將涉疑人 訶야 非法鍛鍊 訶야 須要承服 訶니) <증수무원록언해 1: 3ㄴ>

홍은진(2001:44)

이어서 홍은진(2001:44)에서는 근대 국어에서 (21) ‘法 아니’와 같은 경우는 의고적인 문체의 문헌에 한정되어 근대 국어의 ‘아니-’는 용언어간으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홍은진(2001:44)에서는 ‘NP0이 NP1이 아니-’의 구문유형을 보이는 근대 국어 ‘아니-’ 구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고 이러한 ‘아니-’ 부정문 유형은 현대 국어에까지 그대로 이어 오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22) 가. 쯤 그 돌이 든든 訶 바회 아니라 다 석버레 訶흔 거시니 <을병연행록 4: 7ㄱ>
- 나. 텃지의 절 訶믄 쥬주의 네문이 아니로다 <을병연행록 12: 19ㄴ>

홍은진(2001:44)

17) 이러한 일련의 중세·근대 국어 연구 논의는 현대 국어에서도 쟁점이 되는 ‘이다’와 ‘아니다’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일반적으로 현대 국어 ‘이다’ 논의에서는 ‘이다’의 부정을 ‘아니다’로 대응시키며 그 관련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였다. 김건희(2017:4)에서 제시한 것처럼, 특히 ‘아니다’를 ‘안/아니+이다’의 통사적 부정형으로 보면, 용언설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선행 명사구의 격 실현과 관련하여, 명사 또는 부사인 ‘안/아니’가 선행 명사구와 경계 역할을 하는, ‘이다’의 분리성을 보여주며 ‘이다’를 ‘아니다’와 함께 독립 단위로 인식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다’의 부정형은 ‘아니다’로만 한정되지 않고, ‘-지 않다’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아니다’의 경우, 현대 국어에서도 공식적으로는 분석되지 않고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도 별도의 어휘항목인 부정적 계사(negative copula)라는 견해도 있다.(박진호(2005:6))

### 3.2. 계사 구문

#### 3.2.1. 계사 구문의 확장적 논의: 계사와 연계된 구문

이번 장에서는 먼저 계사 구문의 원형이 된 이현희(1991, 1994)의 ‘기형적 명사문’을 다루고 ‘무주어문, 분열문, 소유 구문, 존재 구문, 의존명사 구문(양상 구문(남길임(2004)))’ 순으로 살펴보겠다.

##### 3.2.1.1. (기형적) 명사문

이번 장에서는 명사문을 처음 제시한 ㉠ 이현희(1991), 이후 기형적 명사문으로 제시한 ㉡ 이현희(1994)의 논의를 살펴보겠다. 또한 이현희(1994)에 대한 서평 논문인 ㉢ 김정아(2001), 이현희(1994)의 기형적 명사문을 ‘특이 명사구’로 다룬 ㉣ 이지영(2019)의 최근 논의를 통해 제시되는 일련의 쟁점 사항도 살펴보고 끝으로 기형적 명사문 개념을 현대 국어 관점에서 수용한 ㉤ 윤용선(2011)의 논의도 소개하겠다.

이현희(1991)에서는 명사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보았다.

(23)

가. 흔히 ‘계사문’이라고 불러 온 ‘아못거시 아못거시라’와 ‘아못거시 아못거시 아못거시라’류의 문장

일흠과 數왜 靈覺애 微鹿이 大清에 곤흐니 <금삼 5:16>

나. 의문 조사 ‘-가/고’가 통합된 ‘아못거시 {아못것가, 므스고}’와 같은 문장

이 썩리 너희 중가 <월석 8:94>

다. 명사문 부정의 ‘아못거시 아못거시 아니라’ 구문

보미 이 쏘 아니며 <능 2:73>

이현희(1991:504)

이현희(1991:520)에서는 <아못거시 아못것>이 기본적으로 문장이면서 아울러 명사구의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은 문장의 확장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제시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아못거시 아못것>이 하나의 명사구를 대치해 나가는 확장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제시한다.

(24)

[NP]+{이-, -가/고}

→[NP1이 NP2]+{이-, -가/고}

↗[NP1이 [NP2이 NP3]]+{이-, -가/고}...

↘[[NP1이 NP3]이 NP2]+{이-, -가/고}...

이현희(1991:520), 이현희(1994:127-128)

이와 같이 ‘NP1이 NP2’가 하나의 명사구를 대치해 나가는 확장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이런

확장 현상에서는 ‘[NP1이 [NP2이 NP3]]+{이-, -가/고}’로의 확장 현상<sup>18)</sup>이 주로 일어나고, ‘[[NP1이 NP3]이 NP2]+{이-, -가/고}’로의 확장 현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은 듯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NP]+이-’에서는 NP 자체가 초점이 되고, ‘[NP1이 NP2]+이-’에서는 NP1이 초점, NP2가 화제가 된다고 제시하며 이러한 현상들은 NP1이 한정적, 특징적인 성격을 띠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명사구 확장 현상에 주목한 이현희(1991)에서는 결국 ‘무주어문, 존재문, 소유의 이중주어문’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각 구문별로 자세히 설명하겠다. 특히 NP 자체가 초점이 된다는 것은 ‘무주어문’과 관련이 되는데, 현대 국어 관점의 임동훈(2005)도 살펴보면서 자세히 논의하겠다.

무엇보다 현대 국어 ‘이다’ 범주 논의에서는 무주어문, ‘불이야’의 경우 계사 탈락이 어려워 ‘이’에 ‘제시/초점’과 같은 화용론적 기능이 있다고 본다.(임동훈(2005), 박소영(2014)) 따라서 계사 탈락을 기본적으로 상정하는 중세 국어 기형적 명사문과는 다른 층위로 볼 수도 있지만, 이현희(1991, 1994)에서는 명사구 하나만 나타나는 무주어문에서 명사구 확장으로 다른 성격의 명사문이 도출될 수 있음을 제시하며, 무주어문을 명사문의 전형으로 보는 점이 흥미롭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현희(1991)에서는 명사문의 한 종류로 다음과 같이 ‘아못거시 아못것’이 ‘이-’에 의해서만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의문 조사 ‘-가/고’에 의해서도 통합되어 나타난 것을 제시하였다.

- (25) 가. 이 썩리 너희 중가 <월석 8:94>  
 나. 엇던 困緣으로 일후미 常不經고 <월석 17:82>  
 이현희(1991:519)

이러한 이현희(1991)의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26)  
 우리는 이 ‘-가/고’가 뒷 ‘아못것’에만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아못거시 아못것’이라는 문장 전체에 통합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가/고’는 원래 명사구를 명사문으로 전환시키는 요소인데 이 요소가 ‘아못거시 아못것’에 통합됨으로써 화자가 청자에게(혹은, 독백으로는 화자 자신에게) 발화 상황이나 화용적 상황에서의 그 명사구의 존재를 묻게 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현희(1991:519)

18) 15세기 국어의 주격중출 구문을 다룬 구지영(2000)에서는 속격 구문을 보이는 주격중출 구문에서만 계사 구문이 나타난다고 제시한다.

- 가. 부테 ... 일후미 日月燈明이시고 <석상 13:29>  
 나. 훈 太子 | 모미 黃金色이오 <석상 23:27>  
 구지영(2000:26)

구지영(2000:26)에서는 계사 구문은 ‘NP1이 NP2이다’를 기본 문형으로 해서 속격 구문의 경우 ‘NP1’ 속에 ‘NP1’이 중출된 [NP이 NP이]가 ‘[NP의 NP이]’의 형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즉 ‘NP의 NP’가 하나의 더 큰 NP 구실을 할 수 있기에) 계사 구문의 형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가)는 ‘[부텃 일흠이 日月燈明이시고’, (나)는 ‘[훈 太子이 몸]이 黃金色이오’로 해석되며 ‘부텃 일흠’과 太子이 몸’과 같이 한 명사구로 쓰일 수 있다고 제시한다. 이에 반해 다른 구문의 경우는 속격 구문이 불가능하여 ‘NP이다’가 술어인 구문의 예가 거의 없는 것이고 이는 NP1이 VP와 직접 연결되지 않고 NP2와만 관계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24)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방식의 명사구 확장을 전제하는 중세 국어 계사 구문의 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김정아(2001:157)에서는 ‘-가/고’ 의문문 중 (25가)와 같은 판정 의문문에서는 ‘-가’에 선행하는 부분의 성격이 계사 구문과 같다고 할 수 있으나, (25나)와 같은 설명 의문문의 경우는 다소 달라 보인다고 지적한다.

또한 김정아(2001:159)에서는 이중주어문 명사구들의 의미 관계나 기형적 명사문의 의미 관계가 비슷하여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의미적 기준이 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27)

가. [生老病死] [四相]이 한 受苦人 根源이라 <월석 12:23>

나. [四部衆] [比丘比丘尼 優婆塞 優婆夷]와 <월석 12:15>

김정아(2001:151)

즉 이현희(1994:37)에서는 (27가)는 나열 명사구, 아우름 명사구가 나란하여 ‘동격 관계의 확장 명사구’이지만 (27나)는 아우름 명사구가 나열 명사구의 주어 기능을 하는 ‘기형적 명사문’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김정아(2001:151)에서는 과연 (27가)와 (27나)가 이처럼 전혀 다른 구조의 명사구인지, 그리고 (27가)가 동격 구조라면 NP1과 NP2의 구체적인 관계는 어떻게 명시되어야 하는지 좀 더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제시한다.

다음으로 이현희(1994)의 기형적 명사문에 대해 구조적으로 정밀하게 도식한 이지영(2019)의 논의를 살펴보겠다. 이지영(2019:420)에서는 이현희(1994)의 기형적 명사문 (28)을 (29)와 같이 도식하면서 ㉠과 ㉡은 주술 관계를 보이는 명사문과 같은 통사 구성인데, 통사적 장치 없이 조사와 결합하여 상위문에 내포됨을 주목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8) 가. 네 이제 어린 사르미 究羅帝를 너교디 眞實人 阿羅漢이라 ㅎ건마론 <월석 9:35하ㄴ>  
나. 집 노피 두서 ㉠과 밥 알피 열 잣 너빅 버롬과 ㉡려 잇논 고매 數百 사르물 내 뜨들 일워도 ㅎ디 아니호리라 <내훈 3:56ㄱ>

다. 디나건 오란 劫에 사르미 목숨이 온 ㅎ 時節에 부테 겨샤디 일후미 釋迦牟尼시고 <월석 20:9ㄱ>

라. 남기 薑에서 버으로미 一箭道는 7날 너부물 니르시니라<sup>19)</sup> <법화 6:135ㄴ>

이지영(2019:420)

(29) 가. [㉠너-이 ㉡이제 어린 사름]-이

나. [㉠드려 잇논 고매- | ㉡數百 사름]-을

다. [㉠디나건 오란 劫에 사르미 목숨-이 ㉡온 ㅎ]-스

라. [㉠남기 薑에 버으롬-이 ㉡一箭道]-논

이지영(2019:420)

이지영(2019:424)에서는 ‘NP1의 격조사 결합 유무’에 상관없이 NP1이 NP2보다 외연이 크거나 포괄적인 경우를 특이 명사구, 곧 기형적 명사문으로 본다면, 중세 국어에서 명사구가 연속되는 구성을 대부분 특이 명사구로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지영(2019:426-428)에서는 명사구 순서 바꿈에 대한 확증이 어렵다면, 중세 국어의 특이 명사구는

19) 다만 이지영(2019:430)에서는 (28라)는 주석문이고 인용의 성격도 있어서 임시적 통사 구성으로 특정한 맥락에서만 사용되므로 특이 명사구, 곧 기형적 명사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격 표지 실현과 관련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30가)처럼 주격 조사가 결합한 경우는 특이 명사구이고 (30나)처럼 결합하지 않은 경우는 특이 명사구가 아니라고 보았다.

(30) 가. [㉠네 ㉡어린 사립]-이 이 究羅帝 踵 무딧 우희 좃구려셔 겨를 구버 먹거늘 보고(㉢汝 ㉣愚人! 觀此究羅帝 躡糞堆上伏食糠糟. 佛說長阿含經) <월석 9:35하>

나. [㉠너 ㉡大龍王]-아 疑心 覓 잇거든 무를 양으로 무르라(㉢汝 ㉣大龍王 若有疑者 恣聽汝問. 大雲輪請雨經) <월석 10:68>

이지영(2019:426)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NP1이 NP2보다 외연이 크거나 포괄적인 의미 관계를 이룰 경우, 기형적 명사문을 형성한다고 본 이현희(1994)에 대해 좀 더 확실한 의미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김정아(2001), 이지영(2019)에서 공통적으로 비판한다. 특히 이지영(2019)에서는 주격 조사가 결합한 NP1만 기형적 명사문, 곧 특이 명사구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두 후속 논의를 통하여 이현희(1991, 1994)의 기형적 명사문에 대한 쟁점 사항이 제시되고 나아가 그 보완점까지 논의되었다. 다만 ‘기형적 명사문’의 ‘동일 명사구 삭제’와 관련한 쟁점은 기형적 명사문을 현대 국어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한 연구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용선(2011:57-58)에서는 (31)은 상위문의 주어, 목적어와 동일한 명사구인 ‘그가’와 ‘그사람이’가 필수적으로 생략되어 형성된 구문으로 이현희(1994:29~62)의 ‘기형적 명사문’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제시한다. 다만 윤용선(2011)에서는 ‘기형적 명사문’의 경우, 계사가 상위문의 조사 때문에 실현되지 못한 문장으로 보는 입장이므로, 다음과 같은 변형으로 생성되었다고 보았다.

(31)<sup>20</sup> 가. 그는 1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인으로 살았다.

<- 그는 1년 전까지만 해도 [[[그가 미국인]이-]으로] 살았다.

나. 우리는 그 사람을 사회의 귀감으로 본받아야 한다.

<- 우리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사회의 귀감]이-]으로] 본받아야 한다.

윤용선(2011:57-58)

이러한 윤용선(2011)의 논의는 기형적 명사문의 개념을 수용하여 현대 국어 문법에 대해 설명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sup>21)</sup> 특히 이현희(1994)에서는 이처럼 부사어가 서술성을 유지하는

20) 또한 윤용선(2011)에서는 아래 예문들을 제시하면서, 이 예문들의 ‘NP로’는 항상 바로 앞의 명사구를 주어로 하는 계사 구문을 형성하여, 주술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은 (31)과 유사하나, 후행하는 서술어에 대해 접속절의 관계를 갖는다는 점이 다르다고 제시한다.

가. 그녀는 귀화한 한국인으로 조그만 무역회사의 타이피스트로 일한다.

나. 형아는 원활한 성격으로 대인관계가 아주 원만합니다.

다. 이 책은 그 사람이 말년에 쓴 것으로 일반대중도 많이 읽었다.

윤용선(2011:63-64)

21) 이현희(1994)에서도 명제 내용만이 문제될 때 중세 국어 명사문의 경우에는 계사에 통합된 문법요소가 제거된 부분만이 명사구적 성격을 띤다는 점이 현대 국어와 확연히 구별된다고 설명하고 그 흔적이 현대 국어에도 남아있다고 제시한다.

가. 공책이 한 권에 책이 두권이라.

나. 이 공책은 낡은 것으로서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

것으로 ‘너지-’ 구문에서 다음과 같은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32) 兄은 富貴를 가져 쁜 구름과 흔가지로 너지거늘 <두초 8:27>

이현희(1994:302)

다만 이현희(1994:302)에서는 (32)는 ‘[兄은 [富貴]를 가져 [富貴( )] 쁜 구름과 흔가지]로 너지거늘’으로 파악되는데, 동일명사구 [富貴( )] 생략 현상을 겪은 후 하위문에 남은 ‘흔가지로’가 어떻게 서술성과 부사성을 공유할 수 있는지는 의문스럽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아(2001:162)에서는 오히려 명사문적 명사구로서의 성격 때문에 [富貴( )] 쁜 구름과 흔가지]에서 ‘흔가지’가 서술성을 갖고 다시 [富貴( )] 쁜 구름과 흔가지 전체가 명사구로서 다른 조사를 취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사를 취함으로써 부사성을 획득한다고 보면 별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에서 명사문적 명사구인 계사문의 포괄적인 확장에 대해 재고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당장 (32)를 ‘너지-’ 구문에서 다루어야 할지 아니면, 계사문에서 다루어야 할지 문제시된다. 다만 부사어를 반드시 요구하는 ‘너지-’구문을 고려하면, ‘너지-’구문 내에도 서술성을 가지는 부사어가 존재하여 계사문의 특성을 보인다는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서술성과 부사성의 이중적 성격<sup>22)</sup>, 나아가 명사구와 명사문의 이중적 성격은 단문, 복문 구별에 있어서 기존 구분과는 달리 접근해야 하는 점도 있다.

### 3.2.1.2. 무주어문

이현희(1991:514, 1994:107)에서는 계사 ‘이-’를 본질적으로 ‘아못거시 아못것’과 같은 구성에만 통합되는 요소로 파악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곧 현대 국어를 대상으로 하여 ‘무주어문, 서술어문’(비다, 불이야)이 오히려 ‘이-’의 전형적인 성격을 보이며 ‘이-’가 명사구에 통합, 명사문이 형성되어 ‘발화 상황, 화용적 상황, 인식적 상황’ 등에서 그 명사구가 존재하는 것이 초점화되어 표현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에 통합된 문장이 뒤에서 살펴볼, 존재문과 관련된다는 사실은 ‘이-’의 이러한 성격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이며 ‘비다’와 같은 이른바 무주어문은 중세 국어에서도 확인된다고 제시하였다.

(33) 가. 北斗 비취엿는 三更스 돛기오 西入녁 7 畵 萬里엿 비로다 <두초 15:49>

나. 이러흔 妙法은 諸佛如來이어사 니르시느니 <석 13:47>

이현희(1991:514-515)

임동훈(2005)에서도 ‘이다’의 분포가 분열문에서도 쓰이기도 하고 어근이나 부사 뒤에 결합

다. 철수가 형이고 영수가 동생으로서 그들은 우애가 돈독하다

이현희(1994:58)

22) 고영근(2005:105)에서는 아래 예문에 대해, ‘흔가지’는 주로 서술격조사에 붙으나 드물게 부사격조사 ‘로’와 붙는 일이 있다고 제시한다.

지조 업슨 모모로 汲소오물 흔가지로 호니 <두시언해 권20 42장>

앞서 윤용선(2011)에서는 계사가 조사 때문에 실현되지 못한다고 보아, 부사격조사가 결합된 경우도 무계사를 상정하였는데, 고영근(2005)에서는 후행하는 성분의 음운 교체 등으로 현시적으로 나타나는 계사 또는 서술격조사를 상정하여 차이를 보인다.

하기도 하는데, 이는 ‘이다’가 논항을 요구하는 2항 술어라고 보아서 설명될 수 없으므로 제시문 ‘X-이다’가 ‘이다’ 구문의 본래적 모습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임동훈(2005)의 논의는 1항 술어를 기본으로 하여 ‘X-이 Y-이다’ 구문으로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설명하였는데 앞서 (24) ‘명사구의 확장’에서도 살펴본 내용과 맞닿아 있다. 무엇보다 이현희(1991:514-515)와 같이 1항 술어문인 무주어문이 계사 구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주장이 주목된다.

근대 국어 계사문을 다룬 민지원(2001:60-61)에서는 밑줄 친 부분이 시간을 나타내며, 다른 논항이 없어도 의미 전달에 공백이 없어 주어 생략이 자의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sup>23)</sup>

- (34) 가. 헝헝 유여히 갈 시절이면 곳 네 집을 츠자 가마 <노언 40b>
- 나. 역질 도든 날로부터 나흘 재니 역질이 순흔 쟈는 불셔 어제부터 붓는 괴운이 이셔 <두경 39a>

민지원(2001:60-61)

홍은진(2001:43, 46)에서도 근대 국어, ‘을병연행록’을 대상으로 두 부류의 무주어 계사문, (35) ‘NP0이-’ 구문유형, (37) ‘VP-르 {썸, 븐}이 아니라’를 제시하였다.

- (35) 네 사람이 그 중의 더욱 썸여난 곳을 모화 열가지 경을 만드라 셔호십경이라 일크르니 평호의 궂을들이오 소제의 봄 새벽이오 단교의 쇠잔흔 눈이오 뇌봉의 쩌러지는 히오 <을병연행록 12: 9>

홍은진(2001:43)

- (36) 가. 나는 간정동 사름을 기드릴 븐이 아니라 상과 잔치는 참여치 말고져 헝는지라 홀노 관중의 머므더니 덕워 도라오지 아니커늘 세 사름의게 각각 편지 를 써 기드리니 <을병연행록 18: 14>
- 나. 화친왕은 건늬의 아이 라 시격이 놉흔 썸이 아니라 필법이 더욱 괴이 헝더라 <을병연행록 19: 6>

홍은진(2001:46)

특히 (36)의 ‘나는’이나 ‘화친왕은’은 ‘아니라’의 주제어가 아니고 ‘썸’ 앞에 통합해 있는 ‘VP-르’와 관련된 주제어이며 이 ‘VP-르 {썸, 븐}이 아니라’는 무주어문을 형성한다고 하였다.<sup>24)</sup>

### 3.2.1.3. 분열문

이현희(1994:80)에서는 두 부류의 분열문을 제시하였다. 먼저 (37)은 여러 연결어미에 통합한 용언들이 다시 계사와 통합하였는데 이러한 연결어미는 다 [이유]의 의미와 기원적으로 관

23) 이외에도 민지원(2011)에서는 17세기 문헌에서 통사적 공범주 주어 문장들로, 계사의 선행 명사구로 한자어가 온 경우, 한 절이 시작될 때 보이는 제목처럼 쓰이는 형식을 제시했다.

24) 이러한 ‘무주어문’은 중세 국어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  
궂르치샤미 무디를 넘디 아니헝실 썸 아니라 <법화 3:143>  
내 썸 우을 브터 썸호니 觀世音썸 아니라 <능엄 6:77>

안신혜(2014:85)



련된다고 설명한다.

(37)

二千果號 | 다 곤호문 困 이 곤홀씨라 <법 4:46>

이 句 불러 내샤문 사름미 알에 코제시니 <南明上2b>

이현희(1994:80)

다음으로 (38)은 명사구가 계사와 통합한 것으로 특히 분열문으로 바뀌기 전에는 ‘지조와 일  
홍과로’, ‘何水曹 |’와 같이 다양한 조사가 통합한 채 나타날 수 있었지만 분열문에서는 조사  
가 통합한 예가 하나도 없다고 제시한다. 따라서 현대 국어에서는 ‘책을 완성해야 하는 것은  
오늘까지다’ 등이 가능하지만 중세 국어는 조사가 계사에 선행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38)

나그내로 밥 머구문 엇데 지조와 일홍과리오 <두초 7:12>

술 스랑호문 째스 山簡이오 詩 잘 호문 何水曹 |로라 (愛酒晉山簡 能詩何水曹) <杜詩초간본  
7:21b>

이현희(1994:80)

이현희(1994:82)에서는 분열문에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위와 같이 동명사 구성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보통 명사구 및 ‘전제’의 의미를 지니는 ‘-으니’에 통합된 선행문도 올 수  
있다고 제시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으니’ 뒤에 주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구가 생략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두 부류의 분열문, 곧 연결어미 ‘-을씨’와 관련된 분열문과 명사  
‘전초’와 관련된 분열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39)

그럴씨 六根을 날오디 賊라 하니 제 제 집 보비를 도죽홀씨니라 <월석 2:21d>

이 다 이 有는 各各 實흔 報를 자본 디라 正흔 智에 자피디 아니흔 전치라 <월각 상2-2:85>

이현희(1994:82)

또한 이현희(1994:82)에서는 계사에 의한 분열문은 강조 표현의 효과를 가지며 특히 계사  
부분이 부정 표현이 될 때 (40)과 같이 강조 표현의 효과가 두드러진다고 설명한다.

(40)

온 고든 아스물 爲호애오 쏘 飮食을 爲호미 아니니라 <두초 8:33>

이현희(1994:82)

민지원(2011:43)에서는 (41)은 현대 국어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구조로 일반적으로는 ‘경  
미는 팔 푼 은애 혼 말이오’일텐데 여기서는 일종의 분열문 구성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41)

내 더 아는 사름이 일즉 니르되 제 올 저긔 팔 푼 은애 혼 말 경미오 오 푼애 혼 말 조빨이

오 훈 돈 은애 열 쓴 글리오 두 푼 은애 훈 근 羊肉이라 흥더라 <노언上 8b>  
민지원(2011:43)

이지영(2018:46-47)에서는 계사문의 주어 위치에 나타나는 ‘줄’ 구성을 소개했는데, 이러한 계사문을 계사분열문이라고 제시했다.

(42)

盧氏 날오디 사름이 즘승에 달온 주른 仁과 義와 이실시니(盧氏曰人所以異於禽獸者는 以其有 仁義也 | 니) <번소 9:64b-65a>

이지영(2018:46)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중세·근대 국어에서는 다양한 부류의 계사 분열문 구성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주어 자리에 명사절(38) 및 다양한 부류(39), (42)가 선행하여 ‘...것은(/이)...이다’로 정형화된 현대 국어의 계사 분열문과는 차이가 있으며 특히 조사 결합형이 계사에 선행하지 않는 점 등이 주목된다.

#### 3.2.1.4. 소유 구문

이현희(1991:517), 이현희(1994:119)에서는 ‘NP1이 NP2이라’ 형식의 문장, 곧 지정 구문이 소유의 이중주어문과 관련된다고 제시하였다. 선행문이 ‘겨시-’에 의한 소유 구문으로 되어 있어 소유의 이중주어문과 지정 구문 사이의 관계를 잘 드러낸다고 제시한다.

(43)

如來는 五眼이 겨시고 張三은 오직 훈 雙이언마른 <금삼 4:21>

이현희(1991:517)

민지원(2011:39-40)에서도 현대 국어에서는 주격중출문 형식으로 가능한 소유의 의미 관계가 근대 국어에서도 (44)와 같이 가능하다고 제시하였다.

(44) 우리 대되 열 훈 낫 물이니 헤아리니 옛 말 콩과 열 훈 못 답히로다 <노언上 17a>

민지원(2011:39)

홍은진(2001:41)에서는 (45)는 “관원이 진짜 재상의 면모를 가지고 있고 귀인의 풍도를 가지고 있더라”의 의미를 가져 의미상 소유구문과 통한다고 설명하였다.

(45) ...진짓 지상의 체면이오 귀인의 풍되러라 <을병연행록 13: 6ㄴ>

홍은진(2001:41)

또한 홍은진(2001:43-44)에서는 NP1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NP0{이, 은} NP1이-’의 구문유형도 의미상 소유구문과 통한다고 설명한다. 곧 “교자 만드는 법은 우리 나라 가마 모양을 가지고 있되, 채를 중간에 메웠으니”의 의미라고 설명하였다.

(46) 교조 테도는 아국 가마 모양이로디 채를 중간의 메워시니 <을병연행록 5: 3L>  
홍은진(2001:43)

### 3.2.1.5. 존재 구문

먼저 이현희(1994:110-111)에서는 밑줄 친 문장은 다 ‘(-)이-’에 통합되어 있는 문장이지만 그 후행문이나 선행문이 ‘있-’, ‘없-’ 존재구문으로 표현되어 있어 좋은 대비가 된다고 제시하였다. 한 쪽은 존재구문적인 성격의 지정구문, 다른 한 쪽은 ‘있-’, ‘없-’ 존재구문으로 나란히 접속되어 있는 문장이라고 제시하였다.

(47)  
가. 다른 싸해 처섬 고은 菊花 | 로소니 넷 목술히도 또 노픈 머귀 잇느니라 <두초 14:26>  
나. 後엔 韋諷이 잇고 알핀 支遁이로다 <두초 16:39>  
이현희(1994:110)

나아가 이현희(1991:519)에서는 지금까지 명사문이 존재문과 관련되는 문제를 생각해 왔는데, 드물지만 그 역으로 존재문이 명사문과 관련되는 예도 없지 않다고 제시한다. 곧 ‘벼스리 王司直이 잇도다 <두초 19:48>’은 ‘벼스리 王司直이로다’로 표현되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한다. 특히 이러한 이현희(1991)의 지적은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주지하다시피 언어유형론적으로 ‘계사’의 경우 존재사의 역할을 포함하기도 하기 때문이다.<sup>25)</sup>

민지원(2011:40-42)에서는 (48) 존재 구문에서 선, 후행문은 같은 원문 구조이며 『번역노걸대』에서도 ‘NP1에 NP2이라’ 형식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통해 (48) 선행문의 ‘NP1이’가 통사적으로 ‘NP1에’와 같다고 제시한다.

(48) (우리 이 一百이오 뿐이 닷 냥애 히오니 즈름얍 글월 벗기는 갑시 얼머나 흐뇨)네 손조 혜라 흔 냥이 서 푼식이오 열 냥애 서 돈식 흐니 一百이오 뿐 닷 냥애 <노연下 16b>  
민지원(2011:42)

덧붙여 ‘NP1이 NP2이라’ 구문은 처소나 단위 할당의 의미일 때 현대 국어에서 잘 쓰이지 않는 ‘NP1에 NP2이라’ 유형으로도 나타난다고 제시한다.

(49)가. 더 집 뒤히 곳 우물이라 <노연上 28b>  
나. 우리 이 터 뒤헤 잇 겨 흔 초당이니 <노연上 50b>  
민지원(2011:40)

25) 박진호(2005:6)에서는 계사 언어유형론을 연구할 때, 고려할 사항 중의 하나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가. 존재사가 계사와 별개의 단어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하나의 단어가 이 둘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가?  
나. 존재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부정 존재사(negative existential)가 별도의 단어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존재사에 일반적인 부정소를 첨가하여 부정문이 만들어지는가?

(50) (이 오늘 주긴 豕肉이라 언머의 훈 근고)스므 낫 돈에 훈 근식이라 <노언上 19a>  
민지원(2011:43)

홍은진(2001:42)에서도 (51)의 경우 NP0에 대해 NP1이 처소의 의미를 가져 “북경이 또한 중국의 동쪽이고”나 “북경이 또한 중국의 동쪽에 있고”로 의미상 존재 구문이라고 설명한다.

(51) 북경이 또한 중국의 동편이오 <을병연행록 4: 31ㄱ>  
홍은진(2001:42)

### 3.2.1.6. 의존명사 구문(양상 구문)

이지영(2018:58)에서는 ‘줄’ 구성이 계사와 결합하여 계사문의 서술어 위치에 나타나는 예는 중세 국어, 특히 15세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제시한다.

(52) 가. 이 世間音에서 더으산 주리라 <석상 21:16a>  
나. 그럴씨 觀音스 德을 니르샤디 妙音을 조쳐 니르시니 그 두 聖人이 훈 道理산 주리오 <석상 21:20b>  
이지영(2018:58)

이처럼 의존명사 ‘줄’이 계사와 결합하는 경우는 현대 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구문이다. 그러나 많은 의존명사들이 계사와 결합하여 나타나고 나아가 양태 구문의 쓰임을 보인다. 먼저 안신혜(2014)에서는 중세 국어에서 이미 다양한 의존명사들이 계사와 결합하여 양태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문법화되었음을 제시하였다. (53가)의 ‘것’은 현대 국어와 같이 중세 국어에서도 ‘추측’의 의미이고, (53나, 다)의 ‘씩름’과 ‘쑤’도 양태 구문의 쓰임을 보인다고 제시하였다.

(53) 가. 양즈를 오래 민디 몬홀꺼시니 <석상 11:36ㄴ>  
나. 나몬 뿌디 아니라 利益 닷힌 이룰 各各 受囀 썩르미니 <월석 8:95ㄴ>  
다. 五見과 疑와논 諦理를 迷홀 쑤니오 <월석 11:122ㄴ>  
안신혜(2014:75-85)

민지원(2011:76)에서는 근대 국어에서 다양한 의존명사가 계사와 결합하여 쓰이는 양상(양태) 구문의 예를 들었다. 특히 이 구문에서 ‘이다’는 계사 본래의 의미 기능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선행하는 의존명사와 함께 재구조화를 거쳐 이미 17세기에 ‘거시라’의 문법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제시한다.

(54) 다만 귀도 초고 미더골도 초고 발바당이 초고 귀 뒤희 실긋툰 물근 막이 이실 썩시니 <두경 7a>  
민지원(2011:65)

또한 (55가,나)의 ‘씩름’과 ‘쑤’는 단독 혹은 단정, (55다)의 ‘바’는 추측의 양상적 의미로 쓰였다고 설명하였다.

- (55) 가. 追<sup>ㅎ</sup>오니 萬事의 두로 쓰리시믈 미들 썩롬이읍도쇠 <첩해초 1:3b>  
 나. 십칠일 새배 비 건너 드러오니 일개 통곡 썩이오 <병자 54>  
 다. 풍속을 어즈러이논 빅성은 나라법으로 더을 배라 <경민중 23a>  
 민지원(2011:66)

### 3.2.2. 계사 후행 요소: ‘이다’ 활용형인가?, 조사인가?

‘이다’에 후행하는 형태에 대해 ‘이다’ 활용형으로 볼지, 아니면 조사로 볼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쟁점이 되는 사항이다. 특히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는 두 부류의 논의가 있다. 통일해서 단일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부류(이현희(1991))와 일정한 기준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부류(허웅(1975), 현대 국어 관점의 최동주(1999))가 있다. 덧붙여 한재영(1996)에서는 ‘-이나, -이도록, -이라, -이라도, -이며, -인들’ 등이 문법화된 단계로 조사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아직은 계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결론을 유보하였다. 다만 한재영(1996)에서 제시된 이들 목록은 허웅(1992:182-185)에서는 중세 국어(15,16세기) 도움토씨 및 이음토씨로 분류되었다.

먼저 허웅(1975)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다’ 활용형으로 보는 중세 국어 ‘-이라’도 단순히 토씨가 되어버린 것도 있다고 제시하며 ‘이다’ 관련 조사와 어미에 대해 ‘기능’ 차이로 구분한다.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56)  
 잡음씨는 풀이말로서 임자말을 가져야 하며(비록 밖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속뜻으로는 있어야 한다), 다음에 오는 풀이말에 종속되는 월성분으로 기능하지 않는데, 토씨의 ‘-이라’는 그렇지 않다.

下根은 모로매 세히라사 히리오 <월석 14:31>

임자말            풀이말

이 경우의 ‘-이라’는 풀이말로서 임자말을 가지고 있다.

훈 字 | 라도 사매

부림말            풀이말

엇데.....三千 무리라사.....鎮壓 히리오

                  임자말            풀이말

이 경우에는 ‘字 | 라도, 무리라사’가 풀이말이 되지 못하고, 각각 부림말, 임자말로 기능하여, 뒤에 오는 풀이말에 종속된다.

허웅(1975:561)

이현희(1991:518-519)에서는 ‘이-’가 명사구에 통합되는 것이 원래적인 성격이라면, ‘아뭏거시 아뭏거시라’에서의 ‘이라’는 계사, 서술격조사, 지정사(잡음씨)가 되고 그 주어가 상정될 수 없는 ‘이어나, 이며, 이여’ 등은 선택이나 열거를 나타내는 조사가 되는 괴리 현상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한다.<sup>26)</sup> 구체적으로 이현희(1994:50-51)에서는 (57)의

26) 이현희(1991:518-519)에서는 열거 표현의 ‘이며, 이여’ 등과 선정표현의 ‘이거나’, 주격 ‘이라서’, 양보의 ‘이라도’, 비교의 ‘이라와’, 도급의 ‘이드록’, 방임의 ‘이나’, 부름이나 감탄의 ‘이여’나 ‘이라’ 등은 주어가 없이 명사구에 직접 통합되어 나오기 때문에 조사류로 취급되어 왔었는데, 계사 ‘이-’의,

‘포이시며’는 ‘-이며’가 접속 명사구를 형성하더라도, ‘포이시며’에 결합된 경어법 선어말어미 ‘-으시-’는 ‘-이며’가 접속 조사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을 보여주며 ‘-이며’ 및 ‘-이어나’를 계사 활용형으로 파악한다고 주장한다.

(57) 포이시며 나랏 사르미 그제사 疑心 아니하니라 <석 3:37>

이현희(1994:51)

끝으로 최동주(1999:43)에서는 현대 국어 관점에서 국어의 계사 ‘이다’의 활용형과 하나의 단위로 굳어진 단위를 판별하고자 그 판별 기준으로 ㉠ 선어말어미의 개입 가능성과 출현 양상, ㉡ ‘이다’의 탈락 가능성, ㉢ 통합관계, ㉣ 분포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한 단위로 굳어졌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sup>27)</sup>

#### 4. 결론: 남은 문제 및 앞으로의 연구 방향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사 ‘이’의 문법적 범주 규정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이현희(1991, 1994), 한재영(1996)에서 ‘서술격조사’로 규정한 것에 대해 중세 국어 명사문의 특징을 토대로 자세히 논의하였다. ‘(기형적) 명사문’의 경우 명사구이면서 명사문인 무계사문이므로 명사에 결합하고 탈락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조사’, 조사 중에서도 술어인 명사에 결합한다는 점에서 ‘서술격’조사라는 범주로 제시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계사 ‘이’의 기원형에 대해 이기문(1972), 김정대(2005)를 중심으로 후행하는 어미들의 교체 현상을 토대로 소개하였다. 셋째 중세 국어부터 이미 용언으로 재구조화된 ‘아니다’를 부사 ‘안’이 후행하는 ‘이다’를 수식하는 소위 단형 부정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세·근대 국어 시기에 이미 재구조되었다는 것은 현대 국어, 곧 공시적으로 ‘안(부사)+이다’, ‘아니(명사)+이다’<sup>28)</sup>로 분석하는 것에 대한 무용성을 뒷받침한다. 넷째 계사 구문에 대해 외형적으로 명확히 확인이 가능한 계사 구문과 연계된 통사적 관점의 구문, ‘무주어문, 분열문’, 다만 의미적 관점의 구문으로는 주요 중세·근대 국어 계사 구문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된 ‘소유 구문, 존재 구문’을 소개하였다. 특히 중세·근대 국어 고른 시기에 걸쳐 이들 다양한 구문이 모두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기획 주제가 ‘구문 연구’인데, 계사 구문은 일반 용언 구문보다 [통사]‘무주어문, 분열문’, [의미]‘소유 구문, 존재 구문’ 등 다양한 부류의 구문과 연계된다. ‘무주어문, 분열문’의 경우, 최근 정보 구조 논의에서 주목받는 구문이다. 다섯째 분열문 등에서 살펴본 것처럼, 계사 선행 요소로 의존명사나 연결어미 형태(이기문(1972))가 올 수 있음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중세·근대 국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

존재와 관련되는 이러한 성격으로 보아 ‘NP이 NP이-’의 ‘이-’와 ‘NP-이’의 ‘이-’는 적어도 중세 국어에서는 한데 묶어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NP이-’의 ‘이-’는 여기서 말한 존재 대상과 관련될 뿐이며, 이것에 통합되는 어말어미나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의 통합체가 ‘열거, 선정, 양보, 도급, 부름, 감탄’ 등의 문법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7) 그 결과, ‘이야, 이야말로, 이나, 이나마, 인들’ 등은 하나의 단위로 굳어져 특수조사로 문법화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든지’는 불특정 대상을 뜻하는 표현에 결합한 경우에, 그리고 ‘이라도’와 ‘이러면’은 ‘-었-’이 결합하지 않은 경우에 특수조사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28) 이선웅(2000:83)에서도 어휘화된 ‘아니다’를 공시적으로 ‘안(아니)+이다’로 분석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달리 김의수(2002), 황화상(2005)에서는 ‘아니다’가 부정극어와 호응된다는 점에서 공시적으로도 ‘아니+이다’로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니(명사)+이다’(김의수(2002), 황화상(2005) 등), ‘안(부사)+이다’(엄정호(1989), 목정수(2006), 송창선(2007) 등) (김건희(2017:5) 재인용)

로 중세·근대 국어에서도 계사에 선행하는 부류로 다양한 부류가 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섯째 ‘이다’에 후행하는 형태에 대해 ‘이다’ 활용형으로 볼지, 아니면 조사로 볼지에 대해서는 두 부류의 논의가 있음을 제시하고 통일해서 단일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부류(이현희(1991))와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부류(허웅(1975), 최동주(1999))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본문에서 제시한 것처럼 이현희(1991, 1994)의 (기형적) 명사문과 관련하여, ‘명사구의 확장’ 및 ‘무주어문’과 관련한 임동훈(2005)의 논의, 명사구가 술어 역할을 하는 부사어를 제시하며 현대 국어 부사어 ‘-로’의 용법과 연계시킨 윤용선(2011)의 논의는 중세 국어적 시각으로 현대 국어 현상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실례를 보여주었다. 이현희(1991:533)에서는 현대적 편견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는데, 곧 현대 국어적 시각으로 중세 국어를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중세 국어적 시각으로 현대 국어를 해석하면서 그 설명이 더 견고해졌다. 현대 국어 관점에서 계사 논문을 쓴 필자도 명사가 술어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중세 국어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중세·근대 국어 계사 구문 연구에서 좀 더 보충되어야 할 과제는 첫째, 명사구와 명사문의 이중적 성격을 가지는 ‘기형적 명사문’의 경우, 후속 논의에서는 명사문을 형성하는 명사구들의 의미 관계에 대한 비판이 주로 제시되었지만, 무계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따라 구문 유형 설정, 단문/복문 구별, 부사성과 서술성의 이중성 등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이다’에 후행하는 어미들의 교체 현상 시기 및 ‘이다’에 후행하는 요소들의 문법화(활용형, 조사)에 대한 보다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더 다양한 중세·근대 국어 자료를 통한 새로운 계사 구문 발굴이다. 예를 들어 현대 한국어 분열문 구성과는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계사 분열문’의 특성에 대해 더 많은 자료 문헌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중세 국어부터 이미 용언으로 재구조화된 ‘아니다’를 토대로 이러한 소위 어휘적 부정과 장형 부정과의 기능부담량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현대 국어에서도 ‘그 도시는 낭만적이지 않다, 영이는 미인이기도 유명인이기도 않다’와 같이 장형 부정도 가능한데, 중세·근대 국어에서 이러한 장형 부정의 출현 시기가 언제인지, 계사 구문에서 그 기능부담량을 가지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현희(1991:536)에서도 제시한 것처럼 이중주어문으로 실현되는 형용사문이나 동사문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5. 참고문헌

- 고영근(2005), 제3판 『표준 중세 국어문법론』, 집문당.  
 구지영(2000), 『15세기 국어의 주격중출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권재일(1998), 『한국어 문법사』, 박이정.  
 김건희(2014), 허웅 선생의 <우리 옛말본> 다시 읽기, 『허웅 선생 학문 새롭게 읽기』, 박이정, 169-215.  
 김건희(2015), 중세국어 형용사의 구문과 동사적 용법-이영경(2007)을 중심으로-, 『형태론』 17-1, 92-113.  
 김건희(2016), ‘이’의 용언설에 대한 재고찰, 『우리말글』 71, 1-36.  
 김건희(2017), ‘이’의 형용사설에 대한 재고찰, 『언어』 42-1, 1-23.  
 김광해(1983), 계사론, 『난정 이응백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보진재.  
 김의수(2002), 형식동사 ‘이다’의 문법, 『어학연구』 38-3, 서울대 어학연구소, 879-905.  
 김정대(2005), 계사 ‘이-’의 기원형 ‘\*일-’을 찾아서, 『우리말글』 35, 1-41.

- 김정아(2000), '이-'의 문법적 특성에 대한 통시적 고찰, 『국어학』 37, 309-336.
- 김정아(2001), 서평논문: 이현희, 중세 국어 구문연구, 서울:신구문화사, 1994, 『형태론』 3-1, 149-163.
- 김정아(2004), 한재영의 '16세기 국어 구문의 연구'(1996) 다시 읽기, 『형태론』 6-2, 423-432.
- 김준섭(1972), 『개고 논리학』, 정음사.
- 남길임(2004), 『현대 국어 '이다' 구문 연구』, 한국문화사.
- 남길임(2006), 지정사 '이다', 『왜 다시 품사론인가』, 커뮤니케이션 북스, 269~300쪽.
- 두임림(2014), 『중세 한국어의 정보구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목정수(2006), 韓國語 문법 체계에서의 '이다'의 正體性: 기능동사 擁護論, 『어문연구』 1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55-81.
- 민지원(2011), 『17세기 국어 계사문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소영(2014), '이다'와 한국어 초점구문에 대하여, 『국어학』 71, 국어학회, 3-32.
- 박진호(2005), 계사 유형론과 한국어 '이다'의 정체성, 『2005년 세종전자사전 '이다' 워크숍 발표논문집』,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개발 분과.
- 송창선(2007), 현대 국어 '이다'의 문법적 처리-'아니다'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어문학』 98, 국어문학회, 121-156.
- 안병희·이광호(1990), 『中世國語文法論』, 학연사.
- 안신혜(2014), 의존명사의 의미와 문법화, 『겨레어문학』 52, 겨레어문학회, 69~92쪽.
- 엄정호(1989), 소위 지정사 구문의 통사구조, 『국어학』 18, 국어학회, 110~130쪽.
- 윤용선(2011), 현대 국어 '-로'의 용법에 대한 일고찰, 『인문과학연구논총』 32, 43-71.
- 이남순(1999), '이다'론, 『한국문화』 24, 규장각한국학연구원 35-60.
- 이기문(1998), 『新訂版 國語史概說』, 탑출판사.
- 이래호(1995), 『15세기 국어 계사 구문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논문.
- 이선웅(2000), 현대 국어 '(-)이-'의 품사 분류와 자릿수에 대한 연구사적 고찰, 『국어학논집』 4, 도서출판 역락, 71-92.
- 이지영(2018), 줄 구성의 통사적 분포 변화에 대한 고찰, 『국어국문학』 182, 국어국문학회, 39-77.
- 이지영(2019), 중세 국어의 특이 관형사절과 특이 명사구에 대한 고찰, 『언어와 정보사회』 36, 399-437.
- 이현희(1991), 중세 국어 명사문의 성격, 『김완진선생 회갑기념논총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504-536.
- 이현희(1994), 『중세 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 임근석(2009), 국어 형용사 {이-}의 어휘소 분류 시고, 『어문연구』 37-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33-159.
- 임근석(2012), 국어 {이다}의 어휘소 분할에 대하여, 『한국어학』 57, 한국어학회, 299-329.
- 임동훈(2005), '이다' 구문의 제시문적 성격, 『국어학』 45, 119-144.
- 이선웅(2000), 현대 국어 '(-)이-'의 품사 분류와 자릿수에 대한 연구사적 고찰, 『국어학논집』 4, 도서출판 역락, 71-92.
- 임흥빈 편(1993), 『뉘앙스 풀이를 겸한 우리말 사전』, 아카데미하우스
- 최동주(1996), 중세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실태 연구 1 중세국어』, 국립국어원.



- 최동주(1999), '이다'계 특수조사의 문법화, 『형태론』 1-1, 형태론편집위원회, 43-60.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정음사.
- 탄나나(2014), 『한·중 계사구문의 유형론적 대조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한재영(1996), 『十六世紀 國語 構文의 研究』, 신구문화사.
- 허웅(1975), 『우리옛말본: 15세기 국어 형태론』, 서울:샘문화사.
- 허웅(1992), 『15·16세기 우리 옛말본의 역사』, 탑출판사.
- 황화상(2005), '이다'의 문법범주 재검토, 『형태론』 7-1, 형태론편집위원회, 135-153.
- 홍은진(2001), 『한글 필사본 '을병연행록'의 동사구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재성(2010), 프랑스어와 한국어 계사구문의 유형론적 대조 연구, 『학술원 논문집 49집』, 학술원, 29-89.
- 홍종선(1997), 근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2』, 국립국어연구원.
- Curnow, T. J.(2000), Towards a cross-linguistic typology of copula constructions. Henderson, John (ed.), *Proceedings of the 1999 Conference of the Australian Linguistic Society*.
- Dixon, R. M. W.(2002), Copula clauses in Australian languages: A typological perspective, *Anthropological Linguistics* 44(1), 1-36.
- McKay, G. (2010). Relational, Copula and Verbless Clauses in Rembarrnga, Paper presented at the Selected Papers from the *2009 Conference of the Australian Linguistic Society*.
- Pustet, R.(2003), *Copulas-Universals in the Categorization of the Lexicon*, Oxford University Press.
- Rothstein, S.(2004), *Predicates and their subjects*, Kluwer Academic Publishers.
- Stassen, L.(1997), *Intransitive Predication*, Oxford: Clarendon Press.



# 중세·근대 국어 피동 구문 연구의 쟁점과 과제

백채원

## 1. 서론

이 글은 중세·근대국어 시기의 피동 구문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쟁점 위주로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피동은 능동문의 주어가 부사어로 하강하고 능동문의 목적어는 주어로 승격하며, 동사구에는 이를 알리는 표지가 결합하는 특성을 가지는 문법 범주이다. 피동이 실현되는 양상은 언어마다 다른데 대체로 어간 접사(stem affix) 또는 조동사(auxiliary verb)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 Haspelmath(1990: 28-9)에서는 31개의 언어를 표본으로 하여 어간 접사로 피동을 표시하는 언어의 비율이 가장 높고, 조동사로 표시하는 언어가 그 다음으로 높음을 밝혔다. 한국어는 이와 같은 경향을 잘 보여주는 언어라 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피동은 형태론적 수단인 접미사 ‘-이/히/기/리-’와 통사론적 수단 ‘-어지-’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또는 ‘되다’, ‘받다’, ‘당하다’ 등과 같은 어휘적 수단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중세·근대국어의 경우 접미사로 피동이 표현되는 비율이 더 높다. 예컨대 현대국어에서 ‘그리-’(畫)의 피동은 통사론적 수단을 활용하여 ‘그려지-’로 표현하나, 중세국어에서는 ‘功名 일워 麒麟閣에 그리이곡(功名圖麒麟)’(<두시언해5:27a>)과 같이 접미사가 결합한 ‘그리이-’로 나타난다. 또한 ‘기르-’(養)의 피동은 ‘어려서부터 집의게 길니이고(自幼被育於纒)’(<천의소감언해3:21>)의 예에서 알 수 있듯 ‘길러지-’가 아닌 ‘길니-’로 표현된다. 접미사 피동은 현대로 올수록 점점 제약되고 통사적 방법이 확대되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은 권재일(1994, 2019: 45-7)에서 상세히 논의되어 우리는 피동 표현의 전체적인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중세·근대국어 시기에는 피동이 접미사를 통해 표시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피동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피동사의 형태론적 특성에 집중하여 왔다. 그 결과 피동사의 형태론적 특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계속 진전되어 왔다.

본고는 국어사 연구에서 피동과 관련된 쟁점 사항을 다양하게 다루려 노력하였으나 연구의 편중을 고려하여 형태론적 사항과 관련한 쟁점을 주로 논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피동 표현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는 물론, 보다 폭넓은 주제들이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피동 구문 연구의 쟁점과 과제

2장에서는 국어사 자료를 대상으로 한 피동 연구를 쟁점별로 분석하여 연구 성과를 보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

## (1) 후기 중세국어 이전 시기의 피동사 존재 여부

고대국어 및 전기 중세국어 시기의 자료에서는 피동 접미사가 표기된 자료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피동 접미사가 부재한다는 사실에는 연구자들 간에 대체로 이견이 없는 편이나, 향가 해독을 바탕으로 고려 이전에도 피동 접미사가 존재하였다고 본 연구도 있다.

양주동(1965: 543-4)에서는 祭亡妹歌의 둘째 구 ‘此矣有阿米次盼伊遣’에서 ‘次盼伊’를 ‘정-’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보았는데, 김용경(1995: 643-4, 646)에서는 이를 근거로 고려 이전에도 활발하게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피동 접미사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둘째 구는 ‘이에 잇아매 저히오’(小倉進平 1929), ‘예 이사매 저히고’(양주동 1965), ‘이리 이사미 저히고’(홍기문 1956), ‘이에 이사매 머뭇그리고’(김완진 1980) 등과 같이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해독되었는데, 대체적으로 “(내가) 두렵다/머뭇거리다”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런데 해당 문맥은 주어의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부분이므로 서술어를 피동사로 해독할 필연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즉 ‘次盼伊’를 꼭 피동사로 해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양주동(1965)에서는 ‘저히다’가 사동사라면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데 목적어가 없어서 이를 피동사로 본다고 하였다. 하지만 목적어는 한국어에서 생략되기 쉬운 성분이므로 이는 ‘저히-’를 피동사로 보는 직접적 근거가 되기 어렵다. 향가에는 피동 접미사가 표기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향가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제외하면, 고대국어를 대상으로 한 피동 연구는 주로 구결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 김성주(2005)는 고대중국어의 피동 표현인 ‘爲A所B’ 피동문이 석독구결 자료에서 현토된 양상을 고찰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爲A所B’ 구문의 현토 양상은 화염경 계열과 유가사지론 계열이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이 현토가 모두 피동만을 위한 형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고려 시대에 피동이 문법 범주로 존재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김성주(2006)에서는 이 논의를 좀 더 심화시켜 화염경 계열의 ‘-ハムス乙ッ-’와 유가사지론 계열의 ‘爲ハ-’의 문법적 위상을 논하였다. 그리고 장윤희(2006)에서는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자동사문도 목적어를 가진 타동사문 구조로 표현될 수 있었음을 근거로 삼아, 유가사지론 계열의 ‘…乙 爲ハ-’의 구문의 ‘ハ-’는 사동 접미사임을 논하였다. 이 논의에 따르면 유가사지론에서는 피동 구문을 ‘…乙 爲ハ-’라는 타동사문으로 표시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은 논의들은 고대국어 시기에 피동이 문법 범주로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피동이 다른 형식으로 표현되었음을 자료를 통해 문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높이 살 수 있다.

한글 창제 이전 시기의 자료는 그 이후 시기 자료에 비해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도 빈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피동 범주의 부재를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에서 고대 한어의 피동 표현이 구결 자료에서 다른 방식으로 언해되었다는 점, 그리고 사동접미사는 차자 표기 자료에서 쉽게 확인되는 데 비해 피동접미사가 표기된 자료는 매우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동이 뚜렷한 문법 범주로 확립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하나의 표현이 문법 범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식을 가진 규칙적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목적어의 승격 및 주어의 강등이 일어나며, 이를 표현하는 형식적 표지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범주를 나타내는 뚜렷한 표지가 고대국어 시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면 15세기 이후의 한국어는 피동의 의미를 어떻게 나타내었는가? 15세기 이후에 피동 접미사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생겨나게 되었는가? 이는 다음의 쟁점과 이어진다.

## (2)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등장한 피동사의 발달 배경

피동사의 등장과 발달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세국어 양용동사의 특성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세국어 시기에는 하나의 동사가 자동사와 타동사의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양용동사가 현대에 비해 많았다는 사실은 일찍이 선학들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허용(1955)에서는 중세국어 동사가 자동사, 타동사로 공용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으며, 한재영(1984)에서는 이를 영파생으로 처리하여 피동 형성의 과정으로 해석하였다. 고영근(1986)은 이와 같은 논의를 발전시켜 중세국어 동사를 ‘능력동사’(자동사, 타동사의 용법을 가지는 동사), ‘준능력동사’(피동사에 의해 자동사 기능이 표시되는 동사)로 일컫고 그 목록을 종합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구적이다. 특히 고영근(1986: 67)에서는 현대어의 준능력동사 및 능력동사들이 피동사의 체제로 변모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10세기경에는 15세기의 준능력동사가 능력동사였을 것이고, 피동사는 준능력동사였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리고 5세기경에는 그 피동사마저 능력동사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참조하면 피동사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양용동사의 자동사 용법에 의해 피동의 의미가 표현될 수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動詞史에 대한 연구들은 중세국어 동사에 대한 우리의 식견을 넓히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결국 15세기에는 양용동사의 자동사 용법과 양용동사로부터 파생된 피동사가 공존하는 셈이 된다. 아래에 ‘겪-’의 자동사 및 타동사 용법, 이로부터 파생된 피동사 ‘것기-’의 예를 보인다.

- (1) 가. 머리 놀라 왼발히 겪그니 뼈 겪고 늑치 멧빛 곤도다 (馬驚折左臂 骨折面如墨) <두시언해19:48a>  
 나. 그지 업슨 쓰들 디녀 겪흔 거슬 겪고 正흔 거슬 세며 (總無量義 摧邪立正) <석보상절21:22b>
- (2) 氣中<sup>ᄃᆞ</sup>證<sup>ᄃᆞ</sup>은 해 豪貴<sup>ᄃᆞ</sup>흔 사르미 이를 因<sup>ᄃᆞ</sup>야 격발<sup>ᄃᆞ</sup>며 겪기여 忿怒<sup>ᄃᆞ</sup>야 (氣中證候者 多生於驕貴之人 因事激挫忿怒) <구급방상12a>

(1가)는 ‘겪-’이 자동사로 쓰인 예로, “말이 놀라 왼발이 꺾이니, 뼈가 꺾이고 닳이 멧빛 같도다”로 해석된다. (1나)는 ‘겪-’이 타동사로 쓰인 예이며 (2)는 ‘겪-’에서 파생된 피동사 ‘겪기-’가 사용된 예이다. 즉 15세기에는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두 수단, 즉 (1가)와 (2)가 공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피동의 의미가 (1가)에서 (2)로 나타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즉 한국어가 위계 역전을 접미사로 표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한 연구로 백채원(2016)이 참조된다. 피동은 행위주 논항이 강등되고 피행위주 논항이 승격하는 과정인데 이와 같은 위계 역전은 언어에 따라 어순의 변화, 동사 형태법(verbal morphology), 무표지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어는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운 언어이므로 어순의 변화로 위계 역전을 표시하는 것은 한국어에 적절하지 않다. (1)과 같이 무표지로 나타낼 경우 동사가 가지는 기능부담량이 클 뿐더러 중의성을 유발할 수 있어서 언중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이에 반해 동사구에 결합하는 외현적 표지는 위계가 역전되어 있음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를 참조하면

문법 표지로 피동을 표시하는 것은 한국어의 특성상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이상 백채원 2016: 236-7)

둘째, 양용동사의 자동 구문과 양용동사 및 타동사로부터 파생된 피동 구문은 어떠한 양상으로 공존하였으며, 양용동사의 자동 구문은 왜 소멸하였는가? 즉 (1가)와 (2)의 구문은 어떠한 양상으로 공존하였고, 왜 (1가)의 구문은 소멸하였는가?

서로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두 동사의 공존, 즉 (1가)와 (2)의 구문의 공존은 경제성에 어긋나므로 이러한 공존은 서로의 生滅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두 동사의 영향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는 크게 세 계열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피동사의 발달이 양용동사의 소멸에 영향을 주었다는 입장으로 고영근(1986), 구분관(1998) 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는 양용동사가 이루는 자동 구문의 소멸은 피동사의 발달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동 구문의 상실이 먼저라고 보는 입장이다. 황국정(2009)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특히 황국정(2009)는 동사에 대한 실제적인 분석을 통해 자동사가 소멸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사의 소멸 양상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셋째는 선행 연구의 두 입장이 대치되는 것이 아닌 양립이 가능한 주장임을 확인한 연구로, 백채원(2017)이 이에 속한다. 이 연구에서는 양용동사의 자동사 구문의 소멸 시기와 양용동사로부터 파생된 피동사의 생성 시기, 양용동사가 자동사로 사용된 출현 빈도(token frequency)를 고려하여 두 동사 사이에는 양방향적 영향 관계가 성립함을 주장하였다. 양용동사의 자동 구문은 피동사의 존재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자체로 점점 소멸하고 있었는데, 소멸의 과정 중에서 피동사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1가)의 구문이 소멸하고, (1)과 같은 양용동사는 현대에 타동사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은 구분관(1998: 257), 장윤희(2002: 135)에서 밝혀진 바 있다. 이 연구들은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의 공존과 소멸 양상을 통시적으로 검토하여 전체적 경향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크다.

### (3) 피동 접미사의 이형태 설정 및 분석 방법

중세국어를 대상으로 한 피동 연구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자들이 다루어 온 주제가 바로 피동접미사의 이형태 설정 및 분석 방법과 관련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장윤희(2015), 양정호(2018), 신승용(2019) 등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여전히 몇 문제는 연구자들 간의 의견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최근 양정호(2018), 신승용(2019)에서는 이형태와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여 논한 바 있는데, 본고는 이를 참조하여 쟁점을 네 가지로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

#### ① 개음절 여기에 결합하는 접미사는 ‘-i-’인가, ‘-hi-’인가?

논란이 되는 첫 번째 쟁점은 개음절 여기에 결합한 ‘-이-’에 대한 것이다. 아래에 ‘쓰이-’와 ‘뿌이-’, ‘부리이-’의 예를 보인다.

(3) 才傑<sup>한</sup> 사<sup>르</sup>문 다 올라 쓰이거늘 어린 사<sup>르</sup>문 오직 수머 뿌이노라 (才傑俱登用 愚蒙但隱淪) <두시언해19:5b>

(4) 無明<sup>스</sup> 대가리에 뿌이싣 마가 스몯디 물흐며 (封滯無明之殼 故礙而不通) <월인석보 14:7a-b>

(5) 波羅夷는 예서 날오매 브로미니 이 네 罪를 犯하면 중의게 브리일씨니라 <능엄경언해 6:85a-b>

이와 같이 개음절 어기에 결합하는 ‘-이-’의 해석에 대해서는 세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 ‘-hi-’로 보는 견해(김주필 1988, 구본관 1998)와 ‘-i-’로 보는 견해(장윤희 2015), 공음소로 보는 견해(백채원 2017)가 그것이다.

첫 번째 입장은 ‘-’나 ‘·’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활용 양상을 근거로 한다. 예컨대 ‘쁘-’나 ‘쁘-’에 연결어미 ‘-아/어’가 결합할 경우 ‘뿌’, ‘빠’와 같이 어간의 ‘-’나 ‘·’가 탈락한다. 그런데 ‘쁘이-’의 경우는 어간 말음 ‘-’가 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의 ‘-이-’를 자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두 번째 입장은 15세기에 ‘가아’, ‘사아’ 등과 같이 두 모음의 연속체가 실현되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점, /h/가 소실된 이후에도 ‘미이-’나 ‘후리이-’ 등이 파생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장윤희 2015: 40). 이 입장에 따르면 중세에는 두 모음이 연속으로 실현되는 일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쁘이-’ 등에서 ‘-’가 탈락하지 않음을 설명하기 위해 이를 ‘-hi-’로 설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런데 첫 번째 설명은 근대에 새로이 형성된 피동사 ‘투이-’, ‘쁘이-’ 등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동일한 음운 환경에 나타나는 ‘-이-’를 중세의 경우에는 ‘-hi-’로, 근대의 ‘-이-’는 ‘-i-’로 보아야 하는 난점이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입장 또한 ‘가아’, ‘사아’ 등의 ‘-아’는 생략 가능한 잉여적인 요소이나, ‘쁘이-’의 ‘-이-’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두 표기의 성격이 같지 않으므로, ‘가아’와 같은 표기는 ‘쁘이-’의 ‘-이-’를 ‘-i-’로 설정하는 직접적 근거가 되기 어려운 것이다(이상 백채원 2017: 142-3).

이에 백채원(2017)에서는 정연찬(1987)에서 제시한 공음소(empty phoneme) 개념을 적용하여 ‘-이-’를 설명하였다. 공음소는 형식은 있으나 내용은 없는 음소이며, 그 앞에 음절경계가 놓여 있음을 명시하는 기능을 한다. 즉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는 ‘-이-’는 실질 음소는 ‘i’이지만 ‘이’라는 음절을 이루며, 이때의 ‘o’은 그 앞에 음절 경계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개음절 어기에 결합하는 ‘이’의 ‘o’을 공음소로 설명함으로써 모음 충돌 현상도 막을 수 있고, 자음적인 요소(/h/)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결과론적 설명이며, 다른 부사 파생 및 명사 파생과 달리 피·사동사 파생에서만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설명은 되기 어렵다.<sup>1)</sup>

결국 세 가지 견해 모두 나름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지는 파생과 관련되어 있는 문법사의 여러 현상을 다각도로 고찰한 후에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 ② 15세기에 피동 접사 ‘-리-’는 존재하였는가?

여러 선행 연구에서 피동 접사 ‘-리-’는 목록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최근 신승용(2019: 5-6)에서는 아래의 예를 근거로, 그 빈도가 많지는 않지만 ‘-리-’를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1) 형태론적 접근 방법의 한계에 대해서는 일찍이 김주필(1994)에서 지적되었다. 김주필(1994: 56-7)에서는 경계 표시에 의한 방법은 피·사동사 파생이 동일한 파생 층위에 속하는 다른 현상(부사 파생 및 명사 파생)과 상이한 음운행위를 보여주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우며, 문법 기술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고 주장하였다.

- (6) 가. 넷 宰相이 恩命으로 블려 간 後에 (舊相恩追後) <두시언해15:27a>  
나. 누니 돌면 이비 쯔 열리니 (目轉則口乃亦開) <구급방 上8b>
- (7) 가. 말숨이 들리디 아니커든 드디 아니흐며 (言不聞則不入흐며) <소학언해3:10b>  
나. 풀을 등기미니 븐들리단 말이라 <소학언해6:123b>

본고는 (6), (7)의 예들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15세기에 ‘-리-’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자 한다.

먼저 (6가)의 ‘블르-’는 ‘블르-/블르-’의 이형태 교체를 보이는 ‘르’ 불규칙 동사이다. 만약 피동사 파생에서 ‘블르-’쪽이 선택된 것으로 본다면, ‘블리-’는 ‘블르-’에 ‘-i-’가 결합한 어형으로 볼 수 있다.<sup>2)</sup> (6나)의 ‘열리니’의 경우, 자동사 ‘열-’에 미래시제 선어말어미 ‘-리-’가 결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15세기의 ‘열-’은 자-타 양용동사이었으므로, 그 자체로 자동적 해석을 가질 수 있었다. 예컨대 ‘열-’은 ‘羅雲의 ㅁㅅ미 여리 아니라 <석보상절 6:11b>’와 같이 자동사로 사용되어 “열리다”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6나)의 ‘이비 쯔 열리니’의 선행절이 ‘누니 돌면’과 같은 조건절임을 고려하면 후행절이 ‘-리-’로 인한 미래의 해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럽다. (7)의 경우 16세기의 자료이기 때문에 15세기라면 ‘들어-’, ‘븐들어-’로 나타났을 법한 것이 ‘h’의 소실로 인해 어중의 ‘ㄹㅇ’이 ‘ㄹ르’로 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15세기에 ‘-리-’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 ③ ‘ㅈ, ㅊ’ 뒤에 결합하는 접미사는 ‘-i-’인가, ‘-hi-’인가?

이와 관련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표면형을 중시하여 ‘고치-’, ‘조치-’, ‘두피-’ 따위를 ‘꺾--+히-’, ‘쫓--+이-’, ‘뚫--+이-’로 분석하는 연구[구본관(1998), 장윤희(2015) 등], ‘ㅈ, ㅊ’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음운론적 성질을 중시하여 이를 ‘꺾--+히-’, ‘쫓--+히-’, ‘뚫--+히-’로 분석하는 연구(김주필 2011)가 대표적이다. 특히 후자의 연구에서는 ‘ㅈ, ㅊ’이 ‘i, y’ 앞에서 구개음이 되고, 겸양법 선어말어미로 ‘-줄-’을 취한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는 피동 접사의 실현 환경을 최대한 일관성 있게 기술하고자 한 시도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어간 말 ‘ㅈ’, ‘ㅊ’을 가지는 용언이 선어말어미 ‘-술/줄/술-’을 선택하는 문제와, 피동접사 ‘-이/히/기-’를 선택하는 문제를 나란히 비교하기 어렵고, 이형태 선택에 있어서 음운 연쇄의 환경이 다르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백채원 2017). 또한 신승용(2019: 8)의 연구에서도 선어말어미의 결합 양상을 바탕으로 하여 피동 접사의 결합 양상을 추론하는 것은 전체적인 양상을 고려할 때 맞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조치-’와 ‘두피-’의 경우는 표면형을 중시하여 여기에 ‘-i-’가 결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 ④ 불규칙 어간에 결합하는 접미사는 어떻게 기술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정호(2018)에서 피-사동 접미사의 교체 조건과 그 양상을 논하면서 여러 연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어기의 말음이 유음 및 유성마찰인 경우 이에 결합하는 접미사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 정리하였는데, 논란이 되는 동사의 유형을 보

2) 이처럼 불규칙 동사의 파생에서 각기 다른 어간형이 선택되는 동사로는 ‘들-/드르-’가 있다.



이면 아래와 같다.

(8) ‘ㄹ/르’ 불규칙 동사: [그르-/글ㅇ-]+-이- → 글이-

가. 知見에 보논 覺이 ㄹ이 업스면 글여 涅槃眞淨이 ㄷ외리니 (於知見에 無見覺之妄호면 則解爲涅槃眞淨호리니) <楞嚴5:8b>

나. 흔뵈 미요물 그르면 흔뵈 더로물 得호려 몬호려 (同時解縈호면 得同除아 不아) <능엄경언해5:26b>

다. 즉자히 모깃 한 寶珠瓔珞이 비디 百千兩金 쓰니를 글여 받좁고 슬복샤디 <석보상절 21:16b-17a>

(9) ‘ㅅ/스’ 불규칙 동사: [그스-/긔ㅇ-]+-이- → 긔이-

가. 앞이 文章이 나사가물 깃노니 내이 여희논 興이 긔여 나미 더오느다 (喜弟文章進 添余別興牽) <두시언해8:46a>

나. 四天王이 술위 그스습고 梵天이 길 자바 無憂樹 미퓌 가시니 <월인석보2:35b-36a>

다. 及第호라 값 저긔 어미를 버리디 몬호야 제 술위 긔여 가아 及第호야닐 (應舉入都 不忍捨其親 徒載而西 登第) <삼강행실도 효자도28a>

(10) ‘ㄷ’ 불규칙 동사: [듣-/들-(드르-)] + -이- → 들이-

가. 문 밖긔 두 시니 잇거든 말스미 들이거든 들오 말스미 들이디 아니거든 드디 말며 (戶外에 有二屨어든 言聞則入호고 言不聞則不入호며) <內訓1:5b-6a>

나. 婆羅門이 그 말 듣고 고본 썰 언니노라 <석보상절6:13b>

다. 阿難아 내 훈 말 드러라 <월인석보10:21a>

(8가)는 ‘글이-’, (9가)는 ‘긔이-’의 예이다. 양정호(2018: 80-2)에서는 이들 동사에 사용된 접미사 ‘-이-’를 ‘-hi-’로 보는 견해(정승철 2007)와 ‘-i-’로 보는 견해(장윤희 2015)를 소개하면서 ‘ㄹ/르’ 및 ‘ㅅ/스’ 불규칙 용언의 피동 파생에 대해서는 장윤희(2015)에서 제시한 방안이 설명력이 있다고 하였다. (8나, 다), (9나, 다)의 예에서 알 수 있듯 ‘그르-’와 ‘그스-’는 모음 어미 앞에서 ‘그르-~글ㅇ-’, ‘그스-~긔ㅇ-’와 같은 어간 교체가 일어나는데, 장윤희(2015)에서는 ‘글이-’와 ‘긔이-’를 후자의 교체형에 ‘-i-’가 결합한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글이-/긔이-’의 ‘ㅇ’은 어간에 속한 것이 되므로, 이들은 어간에 ‘-i-’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10가)의 ‘들이-’와 같은 ‘ㄷ’ 불규칙 용언의 경우이다. 이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hi-’가 결합한 것으로 보는 견해와 ‘-i-’가 결합한 것으로 보는 견해, 활용과 파생에서 다른 교체형이 선택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그것이다.

먼저 구본관(1998), 정승철(2007)에서는 ‘들이-’의 ‘-이-’는 ‘-hi-’가 결합한 것으로 설명하였다.<sup>3)</sup> 다음으로 장윤희(2015)에서는 ‘들이-’의 ‘-이-’는 ‘-i-’로 보되, 한재영(1984), 김성규(1995)에서 제시한 성조 규칙을 고려하여 ‘드르-’(LL)에 ‘-이-’(H)가 결합할 때 ‘-’ 탈락이 일어나 ‘\*드리-’(LR)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음절 재구조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sup>4)</sup> 마지막으로

3) ‘들이-’에 대해 정승철(2007: 130)에서는 피동 접사의 선택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 사용되는 이형태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른 피동 파생형들을 설명하는 데에 좋은 참고가 된다. (8)~(9)의 예들이 피동 파생에서 모음 어미 앞에서의 교체형이 선택된 것임을 고려하면, (10)의 예 또한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예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양정호(2018: 82)에서는 이에 대해 ‘ㄷ’ 불규칙 용언에만 음절 재구조화를 가정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으며, 성조 규칙을 지키기 위해 연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하였다.

백채원(2017: 145)에서는 ‘듣-’(聞)은 활용에서는 ‘듣-’과 ‘드르-’의 교체형을, 파생에서는 ‘듣-’과 ‘들오-’의 교체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활용과 파생에서 각각 다른 어간을 취하는 동사의 예를 참조한 것이다. 예컨대 ‘누르-’(壓)와 ‘므르-’(乾)는 활용에서는 ‘누르-~눌르-’, ‘므르-~몰르-’의 교체형을 가지는데, 피동형과 사동형은 각각 ‘눌이-’와 ‘몰오-’로 나타난다(장윤희 2015: 54-5). 즉 ‘누르-’와 ‘므르-’는 모음 어미 앞에서는 ‘눌르-’, ‘몰르-’의 교체형을, 파생에서는 ‘눌오-’과 ‘몰오-’의 교체형을 가지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듣-’ 또한 활용에서는 ‘듣-~드르-’의 교체형을 가지지만 파생에서는 ‘들오-’의 교체형을 가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일르-~일쿨오-’, ‘실-~실오-’와 같은 다른 ㄷ 불규칙 동사의 파생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복잡한 과정을 상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

이와 같은 견해의 차이는 파생의 과정을 설명할 때 표면형을 중시할 것인지, 기저형에서부터 과정이 적용되어 특정한 음운 과정을 겪는 것으로 설명할 것인지 등과 관련되어 있다. 여러 견해를 종합하였을 때 (8), (9)의 예는 파생에서 모음 어미 앞의 교체형이 선택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듯하다. 그리고 (10)의 예는 ‘듣-’의 기저형을 ‘드르-’로 볼 것인지 ‘들-’로 볼 것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겠으나, (8), (9)의 예와 평행하게 설명하는 쪽을 택한다면 이 역시 모음 어미 앞의 교체형이 파생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5)</sup> 다만 성조상의 문제와 다른 ‘ㄷ’ 불규칙 동사와의 관련성을 고려한다면 (10)의 예들은 ‘눌이-’와 ‘몰오-’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동사로 묶어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방식이 더 설명력이 높은지는 다른 단어 파생의 과정과 연계지어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 (4) 이중 피동 표현의 역사적 존재 양상

다음으로 이중 피동에 대해 논한다. 한국어에는 ‘잊혀지다’, ‘쓰여지다’, ‘보여지다’와 같이 ‘-이/히/기/리-’와 ‘-어지-’가 중첩된 표현이 존재한다. 또한 ‘먹히게 되다’, ‘잡히게 되다’처럼 접미사에 의한 방식에 ‘-게 되-’가 연속으로 결합한 표현 또한 존재한다. 학계에서는 이를 이중 피동으로 일컬어 왔다.

국어사 자료에서도 피동의 형식이 중첩된 표현이 존재한다. 현대와 달리 형태론적 수단과 통사론적 수단이 중첩된 형식이 아닌, 대부분 접사가 중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어사 자료를 대상으로 한 중첩형에 대한 연구는 일찍이 南廣祐(1962), 이상억(1999) 등에서 이루어졌다.<sup>6)</sup> 이 연구들에서는 국어사 자료에 나타나는 피동의 중첩형은 형태적으로는 접사가 중첩된 어형인데 기능적으로는 단일형과 다름이 없다는 데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즉 중첩형의 존재 양상과 그 기능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간에 큰 이견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 ‘-이이-’형과 ‘-이우-’형의 예를 보인다.

#### (11) ‘-이이-’형

가. 宋公이 내조쳐 올 제 일즉 부르매 그를 스니 (宋公放逐曾題壁) <두시연해 9:31b-32a>

5) 다만 ‘드르-’가 선택되어 ‘드르-+이->들이-’의 과정을 겪은 것으로 본다면, 어간 말의 ‘-’가 ‘-이-’ 앞에서 떨어진 것에 대한 설명이 별도로 필요할 것이다. 이는 ‘쓰이-’와 ‘뿌이-’ 등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6) 南廣祐(1962: 62)에서는 ‘-이오-, -외-, -이우-, -위-, -우우-’은 사동형화에, ‘-이이-, -히이-, -기이-, -리이-’ 등은 피동·사동형화에 사용되었는데 전자는 ‘-오-, -우-’와 다름이 없고, 후자는 ‘-이-, -히-, -기-, -리-’와 다름이 없다고 하였다. 이상억(1999: 187-190)에서는 ‘-이이-, -히이-, -기이-, -리이-’ 등은 단일 피동형과 다를 바가 없으며, 구문상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고 하였다.

- 가. 鄭老 | 모미 지즈로 내조치이니 台州에서 音信이 비르수 傳<sub>하</sub>야 오<sub>느</sub>다 (鄭老身仍竄 台州信始傳) <두시언해 21:41b>
- 나. ㄴ실 아츠미 世務에 잇기여 ㄴ을 ㅅ<sub>리</sub>고 제이곰 西東<sub>으</sub>로 가리라 (明朝牽世務 揮淚各西東) <두시언해 21:31a>
- 나. 수프렛 고지 비 다<sub>하</sub>니 臙脂 | 디는 ㄷ<sub>고</sub> ㅁ<sub>렛</sub> ㅅ<sub>이</sub> ㅂ<sub>르</sub>매 잇기이니 ㅍ<sub>른</sub> ㅅ<sub>ㅣ</sub> ㄱ<sub>ㅣ</sub> ㄷ<sub>ㅣ</sub> ㅎ<sub>ㅣ</sub> 도다 (林花著雨臙脂落 水荇牽風翠帶長) <두시언해 11:21a>
- 다. 올 제도 몸 보니 미양 니치디 마래 <순천김씨언간 152:1-2>
- 다. 설오미 무흔 안<sub>ㅁ</sub>스물 일국도 니치이디 아녀 설오니 <순천김씨언간 93:5>
- 라. 果卿이 밤낫 거스다가 ㅁ<sub>하</sub>야 자피 니거늘 (果卿晝夜拒戰 糧盡矢竭 城遂陷 賊執果卿履謙 等 送洛陽) <삼강행실도\_영국국립도서관본 忠13>
- 라. 八風과 五欲애 ㅁ<sub>스</sub>미 日月 ㄱ<sub>ㅅ</sub>면 天堂과 地獄에 能히 자피이디 아니리라 (天堂地獄 所不能攝) <선가귀감29b>

(12) ‘-이우-’형

- 가. 예루살임이 외방 사롬의게 발피우미 되여 외방 사롬의 ㄱ<sub>ㅣ</sub>약이 차며 ㅁ<sub>ㅣ</sub>츨지니 <예수성교전서 누가복음21:24>
- 나. 의심<sub>하</sub>는 ㅅ<sub>ㅣ</sub> 바다 물결이 바람에 밀니워 키질흠 ㅅ<sub>ㅣ</sub>타니 <예수성교전서 야고보서01:06>
- 다. 니가 너히게 ㅅ<sub>ㅣ</sub> 바는 ㅅ<sub>ㅣ</sub>의게 바든 거시니 ㅅ<sub>ㅣ</sub> 예수 팔니우는 바음에 ㅅ<sub>ㅣ</sub>을 ㅅ<sub>ㅣ</sub>우<sub>하</sub>여 ㅅ<sub>ㅣ</sub>우<sub>하</sub>고 ㅅ<sub>ㅣ</sub>우<sub>하</sub> 갈<sub>ㅁ</sub>사디 <예수성교전서 고린도전서11:23-24>
- 라. 너히 장차 ㄴ<sub>ㅣ</sub>를 위<sub>하</sub>는 고로 왕과 방빅의게 쓸니워 가면 이 ㅅ<sub>ㅣ</sub>롬과 ㅁ<sub>ㅣ</sub> 외방 ㅅ<sub>ㅣ</sub>롬으로 간 증을 삼으라 <예수성교전서 마태복음10:18>
- 마. 디기 이 사롬이 유디 사롬의게 잡피운 바 되여 <예수성교전서 사도행전23:27>

(11)은 ‘-이-’가 중첩된 어형으로 15세기부터 그 예가 존재한다. (11가), (11나), (11다), (11라)는 단일형, 즉 ‘내조치-, 잇기-, 니치-, 자피-’가 사용된 예이며 (11가), (11나), (11다), (11라)는 중첩형 ‘내조치이-, 잇기이-, 니치이-, 자피이-’의 예이다.

(12)는 ‘-이우-’와 ‘-우-’가 중첩된 예로, ‘발피우-, 밀니우-, 팔니우-, 쓸니우-, 잡피우-’의 예이다. ‘-이우-’ 중첩형은 19세기 이후 문증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sup>7)</sup> 이와 같은 ‘-이우-’형은 선행 연구에서 존재 양상 및 특성이 논의되었다. 남광우(1962: 64)에서는 본동사 어간이나 보조어간 ‘-이-’ 아래에 다시 ‘-우-’ 보조어간을 붙이는 경향이 늘어가는 듯하다고 하였으며, 임흥빈(1998: 324-6)에서는 ‘우’는 저하된 행동주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는 기제이며 필연적으로 [+Human]을 전제로 한다고 하였다. (12나)를 제외한 예문의 주어가 모두 사람으로 나타남을 고려하면 임흥빈(1998)의 견해는 설득력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중첩형 연구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아래의 예들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13) 가. ㄴ<sub>ㅣ</sub>미 ㅅ<sub>ㅣ</sub>유미 ㄷ<sub>ㅣ</sub>월 ㅅ<sub>ㅣ</sub> 庸이오 <월인석보13:11>

- 나. 이<sub>ㅣ</sub> ㄱ<sub>ㅣ</sub>티 虛空이 ㅁ<sub>스</sub>글 困<sub>하</sub>야 나노 파 空케 호<sub>ㅁ</sub> 虛와 實왜라 ㅅ<sub>ㅣ</sub>르 ㅅ<sub>ㅣ</sub>이디 아니<sub>하</sub>야 和 | 아니며 ㅅ<sub>ㅣ</sub>이 아니며 (如是虛空 因何所出 鑿空虛實 不相爲用 非和非ㅅ) <능엄경언해 3:89b>

7) ‘-이우-’ 중첩형은 성경을 번역한 텍스트에 주로 나타남이 확인되는데, 중첩형의 사용 양상과 성경 텍스트의 문체적 특징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 (14) 벌 뽑인 독애 디새로 그 뽑인 우흘 씻고 두닐굽 번 춤 받고 그 디새란 네 잇던 디 도로 다 가두라 (蜂螫毒取瓦子[디새]磨其上 唾二七遍 置瓦子故處) <구급간이방언해 6:63a>
- (15) 내의 슬허흐 습논 이룬 실즉 사르미게 보채인 주리 아니이다 (我之所恨 實無人屈) <장수경언해 39a>

(13)~(15)는 ‘뽑이-’, ‘뽑이-’, ‘보채이-’가 사용된 예이다. 이는 언뜻 ‘-ㅣ이-’가 결합한 예로 보이거나 기존 연구에서는 이들을 중첩형으로 보지 않고 음운론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왔다. 후행하는 ‘이’에 역행동화된 것으로 보거나(南廣祐 1962: 18, 장윤희 2015: 45-6, 백채원 2017: 37-9) 구개성 반모음이 첨가된 것(김주필 1994), 반모음이 중복되어 표기된 것(구본관 1998: 249) 등으로 보아온 것이다.

이들을 중첩형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성조 및 자음 어미 결합형의 부재 때문이다. 장윤희(2015: 45-6)에서는 ‘뽑이-’의 성조는 LH로 실현되는데 (13)의 ‘뽑이-’ 또한 그 성조가 LH임을 지적하였고, (15)의 ‘보차이-’ 또한 ‘보채이-’와 성조가 LHH로 동일하다고 하였다.<sup>8)</sup> ‘뽑이-’ 등을 중첩형으로 본다면 피동사 파생 전후의 성조가 동일한 것에 대해 해석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피동사로서의 ‘뽑-’, ‘보채-’의 활용형이 문증되지 않는 것 또한 문제가 된다. 구본관(1998: 249)에서는 피동 접사는 ‘-ㅣ(ji)-’로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13가)의 예가 존재하지만 자음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가 없어서 이형태가 ‘-ㅣ(ji)-’인지 ‘-이(i)-’인지 명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백채원(2017: 38)에서도 접사가 중첩되지 않은 어형, 즉 ‘뽑-’, ‘뽑-’에 자음어미가 결합한 ‘\*뽑디’, ‘\*뽑고’ 등이 문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뽑이-’를 역행동화된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고려하면 (13)-(15)와 같은 예는 파생의 관점이 아닌, 음운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국어사 자료에서 접미사 피동과 통사적 피동이 중첩된 형식의 존재 양상과 특성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다. 이는 역사 자료에 ‘-이/히/기/리-’와 ‘-어디-’ 중첩 표현의 예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몇 예를 아래에 보인다.

- (16) 나도 혀여 □□□ 나도 여슈니 되오 쫓 물 뜰 □□니 되니 정시니 아득하고 훌 □□□ 니쳐디니 <순천김씨언간 95:4-5>
- (17) 그 못된 일 혀던 원의 허물은 다 덥혀지고 <독립신문 2권95호>

(16)의 ‘니쳐디-’는 ‘닛-’에 ‘-히-’와 ‘-어디-’가 결합한 것으로, 김미경(2020: 38)에서 피동성 표현과 ‘-어디-’ 결합형으로 보고한 예이다.<sup>9)</sup> 이는 현대어 ‘잊혀지다’의 역사적 소급형으로 볼 수 있는데, 중세어 자료에서 이와 같은 중첩형은 매우 드물다. 언간에만 (16)과 같은 예가 존재함을 고려하면 이는 언중들이 입말에서 주로 사용한 표현인 것으로 추정된다. (17)은 19세

8) 이에 따르면 성조가 LLH가 아니라 LHH로 실현된 것은 특이하나, 연구의 초점은 ‘보차이-’와 ‘보채이-’가 동일한 성조를 보임에 있다.

9) 김미경(2020)은 하향동사 ‘디다’가 현대국어의 보조동사 ‘지다’로 문법화한 과정을 논의한 연구로, ‘디다’의 분포와 의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결과>, <변성>, <기동>, <반사동>의 범주를 활용하였다. 그동안 명료히 정의되기 어려웠던 중세국어의 ‘디다’의 문법화 과정과 의미의 확장 양상을 새로운 방법론과 자료 분석을 통해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높다. 한편 김미경(2020: 180-203)에서는 동사에 결합하는 ‘디다’의 모든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 ‘디다’의 선행 동사가 피동사인 경우는 ‘니쳐디-’ 하나뿐이다.

기 말의 자료로, 피동사 ‘덥히-’에 ‘-어지-’가 결합하였다. 20세기 이전의 자료에서 피동 표현이 중첩된 예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는 20세기를 전후로 하여 활발히 사용된 표현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중첩형에 대한 예를 더 발굴하여 사용 양상과 그 특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그동안 이중 피동은 일본어의 영향으로 간주되어 쓰지 말아야 할 표현으로 치부되어 왔는데, 이중 피동과 관련된 여러 오해를 정리한 연구로 한정연(2019)가 참고된다. 한정연(2019)에 따르면 일본어 고유의 피동 표현은 ‘피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유정물이 주어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무정물이 주어로 나타나는 피동 표현은 근대 이후 서양어로 된 문헌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달한 것이므로 일본어 피동 표현이 한국어 피동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적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지다’ 및 ‘되다’의 증가는 근대 이후 신조어가 들어오면서 ‘명사+하다’ 동사의 증가 및 한국어 내부의 동인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이 논의를 참고하면 ‘지다’ 자체의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피동사+지다’의 증가 또한 함께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두 언어의 피동 표현 양상을 비교하고, 20세기 초기 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 (5) 어휘적 피동사 ‘되다’, ‘받다’, ‘맞다’ 등의 역사적 사용 양상

현대어에서는 접미사에 의한 피동 외에도 ‘되다’, ‘받다’, ‘맞다’ 등이 명사 어간에 결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들은 어휘 자체가 이미 상태변화 및 수혜, 입음 등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므로 피동과 의미적 거리가 매우 가깝다.

이와 같은 어휘적 피동 표현, 특히 ‘되다’가 명사에 직접 결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 배경 및 시기에 대한 역사적 연구로는 한정연(2015, 2018)이 참고된다. 한정연(2015, 2018)에서는 20세기 이후의 한국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접미사 피동과 ‘지다’ 및 ‘되다’ 피동, 이중 피동 표현의 연대별 분포를 관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되다’ 피동은 1940년대 이후 급속한 증가를 보인다(한정연 2019: 338에서 재인용). 한정연(2019)에서는 이에 대해 신문물의 도입으로 인한 신조어의 증가와 ‘명사+하다’ 동사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한국어는 외래어의 서술어를 도입할 때 ‘하다’를 결합하여 사용하고, ‘하다’에 대응하는 피동 표현으로 ‘되다’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논의는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피동 표현의 증가를 다양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계량적으로 증명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되다’ 이외의 동사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는 듯하다. 본고에서는 ‘맞다’의 예를 통해 그 양상의 일면을 간략히 살피기로 한다. ‘맞-’은 ‘도둑맞다’, ‘야단맞다’ 등과 같이 “(좋지 않은 일을) 당하다”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 한국어사 자료에서 이와 같은 ‘맞-’은 아래의 예에서 확인된다.

- (18) 가. □탕기 쥬발 통노구 둘 새용 두에 막개 힝기 상의 옷 그재 보희 뵤 재 도적 맞다  
 <병자일기 54b>  
 나. 喫賊 도적 맞다 <역어유해 上65a>  
 다. 喫賊 도적 맞다 <동문유해 下30a> cf. 竊取 도적 히다  
 라. 쏘 본단의 와 힝장을 도적 맞고 <후수호던 3:20b>

(18)은 ‘도적 맞-’의 예로, (18나), (18다)에서는 ‘喫賊’을 번역하는 데에 사용되었다.<sup>10)</sup> ‘竊取 도적 헉다’와 비교해 보면 ‘도적 맞-’은 “도둑질을 당하다”의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맞-’이 가지는 피동적 의미는 (18)과 같은 ‘도적 맞-’에서 주로 확인되는데 이와 같은 의미가 ‘도적 맞-’이라는 일종의 관용 표현에서 시작한 것인지, 또는 동사 ‘맞-’에서 확장된 것인지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한편 현대어 사전에서 “어떤 좋지 아니한 일을 당하다”의 의미를 각기 다른 표제어의 하위 의미로 귀속시키고 있음이 눈에 띈다. <표준>에서는 “맞이하다”의 하위 의미로 “어떤 좋지 아니한 일을 당하다”를 제시하고 있는데, <고려>에서는 “(사람이 물건에) 외부의 힘이 가해져 몸에 해를 입다”의 하위 의미로 제시되어 있다. 즉 전자에서는 “맞이하다”, “받아들이다”의 하위 의미로, 후자에서는 “해를 입다”의 의미와 함께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 의미의 확장이 어느 경로를 통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그 의미를 기술해야 효과적인지 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6) 피동과 사동의 상관성

한국어의 피동과 사동은 ‘-이/히/기/리-’라는 동일한 형태의 접미사에 의해 표현된다. 범언어적으로 피동과 사동이 동일한 방법으로 실현되는 언어가 꽤 많이 존재하는데, 한국어도 이와 같은 언어라 할 수 있다.<sup>11)</sup>

한국어 연구에서 피동과 사동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일찍이 이상억(1970/1999), 박양규(1978), 배희임(1988) 등의 연구에서 논한 바 있다. 국어사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서 피동과 사동의 역사적 상관성에 대한 연구의 흐름은 김용경(1995)의 연구가 참고된다. 이 연구에서는 사동접미사에서 피동접미사가 발달되어 나왔을 것이라는 기존의 견해(권재일 1994, 이향천 1991)를 지지하며, 선행 연구를 발전시켜 그 세밀한 변화의 과정을 기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동 접미사가 먼저 존재하고 있었는데 필요에 의해 이를 피동 접미사로도 쓰게 되면서 형태의 동일성으로 인한 의미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두 가지 변화가 생겨났다고 하였다. 첫 번째는 다른 층위로의 변화, 즉 통사적 방법에 의한 실현 방법인 ‘-게 헉-’ 및 ‘-그 헉-’ (이상 사동), ‘-어 디-’ (피동)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두 번째는 같은 층위 내의 변화로, 사동 법은 ‘-이-’계 외에 ‘-오/우-’계를 활용하며 피동법은 ‘-이-’계 접미사 중 ‘-히-’를 변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타당성은 차치하더라도,<sup>12)</sup> 이 연구는 차자 표기 자료를 활용하여 피동과 사동의 상관성을 입증하고 발달 과정을 설명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성과를 높이 살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형론 연구에서 피동은 재귀 사동(reflexive causative)으로부터 발달되어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Keenan 1985, Haspelmath 1990 등). 한국어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동문을 전체적으로 검토 후, 피동문으로 발달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자료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동문은 한글 자료에서부터 문증되고, 그 이전에 존재하는 사동문은 차자표기 자료에 쓰인 예라는 점에서 한국어의 온전한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특

10) ‘喫’은 고대한어에서 피동을 나타낼 수 있었던 표지인데, ‘맞-’이나 ‘납-’과 같은 동사로 언해되기도 하였으며 ‘喫告 할이다 被告 할이다<역어유해下:65a>’와 같이 피동사로 언해될 수도 있었다.

11) 피·사동의 관련성에 대한 유형론적 연구는 연재훈(2011)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12) 이것이 좀 더 면밀히 논의되기 위해서는 차자 표기 자료에서의 피동 접미사 존재 여부, 접미사 ‘-히-’보다 ‘-이-’가 기본형이 되는 이유, ‘-어디-’를 단순히 피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히 재귀 사동을 보여주는 용례 또한 흔치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 성과를 한국어 문법사 연구에 바로 접목하여 논증하기는 어려운 듯하다. 다른 언어의 경향에 비추어볼 때 한국어의 피동도 사동으로부터 발달하였을 개연성은 충분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그 과정을 직접 논증하기는 어렵다는 것만을 지적해 두고 넘어가고자 한다.

### 3.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국어사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바탕으로, 피동 연구의 성과와 쟁점을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피동 접미사 이형태 사이의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 피동 접미사와 동일한 형태의 접미사가 결합하였으나 피동의 의미를 띠지 않는 동사에 대한 연구 등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연구 주제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대한 폭넓은 연구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 <참고문헌>

- 고영근(1986), 「능력성과 국어의 통사 구조」, 『한글』 192, 한글학회, 43-76.
- 구본관(1998),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國語學叢書 30, 태학사.
- 권재일(1994), 『한국어 문법의 연구』, 박이정.
- 권재일(2019), 『국어사 연구』 2, 국어사대계간행위원회 편, 태학사.
- 김미경(2020), 하향이동 동사 ‘디다’의 문법화 연구,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성규(1995), 「사르다’류의 파생어」, 『韓日語學論叢』, 國學資料院, 381-394.
- 김성주(2005), 「爲’에 懸吐되는 口訣字와 機能」, 『口訣研究』 15, 口訣學會, 29-54.
- 김성주(2006), 「釋讀口訣의 被動 表現」, 『口訣研究』 16, 口訣學會, 119-140.
- 김완진(1980),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용경(1995), 「피동법과 사동법의 역사적 상관성」, 『겨레어문학』 19·20, 건국대국어국문학연구회, 637-55.
- 김주필(1988), 十五世紀 被動接尾辭의 異形態와 그 分化過程에 대하여, 『冠嶽語文研究』 1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5-71.
- 김주필(1994), 17·8세기 국어의 구개음화와 관련 음운현상에 대한 통시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주필(2011), 『국어의 음운현상과 음운변화 연구』, 역락.
- 南廣祐(1962), 「使動·被動形의 歷史的 高찰: “-이-우-” 補助語幹이 붙는 것을 中心으로」, 『學術院論文集: 人文社會科學篇』 3, 大韓民國學術院, 165-212.
- 박양규(1990), 「피동법」,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493-499.
- 박지용 외 편(2011), 향가 해독 자료집,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 배희임(1988), 『國語被動研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 백채원(2016), 「중세한국어 피동 표지의 다의성과 그 변화」, 『국어학』 78, 국어학회, 221-250.
- 백채원(2017), 한국어 피동문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小倉進平(1929), 『郷歌及び吏讀の研究』, 京城帝國大學. [1974, 아세아문화사 영인]
- 신승용(2019), 「중세국어 피동 접사 ‘-이-’, ‘-히-’, ‘-기-’, ‘-리-’의 분포적 특성과 성격」, 『

- 우리말연구』 58, 우리말학회, 1-22.
- 양정호(2018), 중세국어 피동과 사동 접미사에 대하여, 『어문연구』 98, 어문연구학회, 73-95.
- 양주동(1965), 『증정 고가연구』, 일조각.
- 연재훈(2011), 『한국어 구문 유형론』, 태학사.
- 이상억(1970/1999), 『국어의 사동·피동 구문 연구』, 집문당.
- 이향천(1991), 피동의 의미와 기원,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학위논문.
- 임흥빈(1998), 『국어 문법의 심층 3: 어휘 범주의 통사와 의미』, 태학사.
- 장윤희(2002), 國語 動詞史의 諸問題, 『한국어어미학』 10, 한국어어미학회, 97-141.
- 장윤희(2006), 「고대국어의 파생 접미사 연구」, 『국어학』 47, 국어학회, 91-144.
- 장윤희(2015), 「중세국어 피·사동사 파생법 연구의 성과와 쟁점」, 『국어사연구』 21, 국어사학회, 33-68.
- 정연찬(1987), 「欲字初發聲을 다시 생각해 본다」, 『국어학』 16, 국어학회, 11-40.
- 정승철(2007), 「피동사와 피동접미사」, 『진단학보』 104, 진단학회, 127-146.
- 한재영(1984), 中世國語 被動構文의 特性에 대한 研究,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한정연(2015), 「近代以降における韓国語と日本語の受動表現再考」, 『일어일문학연구』 95(1), 한국일어일문학회, 297-315.
- 한정연(2018), 『近代日本語受身文体系の成立: 同時期における韓国語被動文の考察を含めて』, 한국문화사.
- 한정연(2019), 「국어 피동 표현과 일본어 영향설에 대하여」, 『한글』 80, 한글학회, 321-351.
- 허웅(1955), 『용비어천가』, 정음사.
- 홍기문(1956), 『향가해석』, 평양: 과학원. [1990, 여강출판사 재출간]
- 황국정(2009), 『국어 동사 구문구조의 통시적 연구』, 제이앤씨.
- Haspelmath, M. (1990), The Grammaticization of Passive Morphology, *Studies in Language* 14(1), 25-72.
- Keenan, E. L. (1985), Passive in the World's Languages, In T. Shopen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 1), 242-281, Cambridge.



## 1. 서론

인용은 언어 형식으로 존재하는 발화나 생각 등을 전달 혹은 표현하는 것이고 인용 구문은 이를 통사적으로 드러내는 구문 유형이다. 인용 및 인용 구문과 관련해서는 역사적 연구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한 공시적인 관점에서도 깊이 있게 논의되어 왔고, 이에 따라 한국어의 인용 구문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다만 관점에 따라 연구 대상이 되는 언어 자료가 다르고 언어 자료에 따라 드러나는 인용 및 인용 구문의 주요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각 관점에서 중점을 두고 논의하는 주제나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한 공시적인 관점의 연구에서 관심을 두었던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문제, 이와 관련되는 화시 전이의 문제는 문헌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역사적 관점의 연구에서는 자료의 특성상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 인용 동사의 특성과 범위에 대한 문제도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한 공시적 관점의 연구에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역사적 관점의 연구에서는 인용 동사의 특성과 범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개별 서술어의 통사·의미 특성을 밝히는 서술어 구문 연구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한 공시적 연구에서 먼저 주목하고 이후 역사적 연구에서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한 귀납적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는데, 융합형 어미나 인용 조사에 대한 연구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반면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한 공시적 연구에서는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으나 역사적 관점의 연구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들도 있다. 예를 들면 인용 구문의 유형별 특성이나 빈도 변화, 새로운 인용 구문의 출현과 형성 과정에 대한 문제와 같은 것이다. 또한 인용 구문의 통사 구조에 대한 문제도 역사적 관점의 연구에서는 중점을 두었던 주제이지만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한 공시적 연구에서는 그리 많이 주목하지 않는 듯하다.

이처럼 인용 및 인용 구문에 대한 관점이 무엇이나에 따라 서로 관심을 가지는 언어 현상이 달라지기도 하고 동일한 언어 현상에 대해 주목하는 지점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 결과 각각의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 성과에 기반하여 각 관점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어떤 지점을 다른 관점에서 채워 주기를 기대하는 바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정도로 각 관점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한 듯하다.

이에 본고는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인용 구문에 대한 역사적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역사적 연구의 관점에서 쟁점이 되었던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본고에서 다루는 인용 구문의 범위는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공시적 관점의 연구보다 더 넓다.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인용 구문 연구에서는 인용절이 독립된 발화가 아니거나 인용절 형식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인용 동사의 보어가 되지 않는다면 인용 구문으로 보지 않기도 한다.<sup>1)</sup> 그러나 역사적 연구의 관점에서는 어떤 구문이 인용절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

\* 이 논문의 일부는 발표 예정인 필자의 논문 내용 일부가 인용 없이 포함되어 있다. 향후 이 논문이 출

인용 구문의 범위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들 구문이 인용 구문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난다면, 어느 시기에선가는 인용 구문과 관련성이 있었다고 전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부터 4장까지는 인용 구문의 유형과 변화의 양상, 인용 동사의 문제, 인용 표지의 문제를 순서대로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논의한다. 5장에서는 역사적 연구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인용 구문 연구에서 앞으로 해야 할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 2. 인용 구문의 유형과 변화

역사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인용 구문 유형에 대한 논의로는 강인선(1977), 김수태(1993), 이현희(1994a, 1994b), 한재영(1996), 안주호(2003b), 이지영(2017) 등이 있다. 2장에서는 이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특징적인 인용 구문 유형과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sup>2)</sup>

### 2.1. 인용 구문의 유형

(1)에 제시한 [NP이 S V] 유형과 (2)에 제시한 [NP이 V-오디 S (ㅎ-)] 유형은 가장 대표적인 중세국어의 인용 구문 유형이다.<sup>3)</sup> [NP이 S V] 유형은 인용절이 인용 동사에 선행하고 [NP이 V-오디 S (ㅎ-)] 유형은 인용절이 인용 동사에 후행한다.

#### (1) [NP이 S V]

- ㄱ. 아리 어느 法을 [크다] 니르시며 어느 法을 [넙다] 니르신 돌 아디 몬 ㅎ리라(則不知向來에 說何法大 ㅎ시며 說何法廣 ㅎ리라) <원각 상 1-2:15a>
- ㄴ. [상네 예 잇노라] 니르시며 쏘 [너나몬 고대 잇노라] ㅎ시니(言常在此 ㅎ시며 又在餘處 ㅎ시니) <법화 5:134a>

#### (2) [NP이 V-오디 S (ㅎ-)]

- ㄱ. 跋提 쏘 닐오디 [여숫 히를 ㅎ져] 阿那律이 닐오디 [여숫 히 너무 오라다 사꺾미 목수미 無常 ㅎ 거시라] 그 양으로 조려 닐웨에 다든거늘 <월석 7:2a-2b>
- ㄴ. 如來 | 닐오디 [眞實로 어엿브다] ㅎ느니라(如來 | 說爲眞可憐愍이니라) <능엄 3:65b>

판될 때에는 인용 및 출전 관련 부분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1) 채숙희(2013: 52-56)는 인용절의 형식적 특징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ㄱ)처럼 인용 동사의 보어가 아니거나 (ㄴ)처럼 독립된 발화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를 인용 구문에서 배제하였다.

ㄱ. 어제는 시험 공부를 한다고 밤을 꼬박 새웠다. [=유현경(2002: 102)의 (1ㅅ)]

ㄴ. 기영이는 영호를 형이라고 부른다. [=박만규(1992: 330)의 (1ㄱ)]

2) 중세국어의 인용 구문을 가장 세밀하게 제시하고 논의한 것은 이현희(1994a)이다. 이 논의의 화법 구문은 대표적인 인용 구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고에 인용된 이현희(1994a)의 예들은 주로 화법 구문, 그중에서도 포괄적 화법 구문으로 분류된 ‘니르-’ 구문의 것이다. 본고는 이 논의에 제시된 인용 구문 유형이나 예문을 인용할 때에 필요에 따라 일부 가감을 하였는데, 예를 들어 인용 구문 유형을 좀 더 단순하게 정리하여 제시하기도 하고, 인용 예문의 앞뒤 문맥을 좀 더 보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

3) (1)과 (2)에 제시된 예문은 이현희(1994a)의 것으로, (1ㄱ)은 351쪽의 (30ㄴ), (1ㄴ)은 350쪽의 (28ㄴ), (2ㄱ)은 353쪽의 (32ㄴ), (2ㄴ)은 352쪽의 (32ㄱ)이다.

(3)에 제시한 [V-은 S (ㅎ-)] 유형과 [V-은 NP] 유형은 어미 ‘-은’이 인용 동사에 결합된 인용 구문 유형인데<sup>4)</sup>, 인용절 혹은 인용구가 인용 동사에 후행하므로 [NP이 V-오디 S (ㅎ-)] 유형과 유사한 점이 있다. 이 유형의 어미 ‘-은’은 석독 구결의 어미 ‘-ㄱ’의 용법이 남아 있는 것이다.<sup>5)</sup> 이 유형의 ‘V-은’은 (4ㄱ)과 (4ㄴ)처럼 ‘V-오디’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4ㄷ)처럼 인용절 형식을 포함한 명사구로 표현되거나 (4ㄹ)처럼 관형 구성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sup>6)</sup>

(3) [V-은 S (ㅎ-)], [V-은 NP]

- ㄱ. 經에 니르산 [父母 나흔 누느로 三千界를 다 보리라] 흐시니(如經에 云<sup>ㅎ</sup>산 父母所生眼으로 悉見三千界라<sup>ㅎ</sup>시니) <법화 6:26b>
- ㄴ. 어느를 닐은 [正法眼]고(何謂正法眼고) <금삼 2:69a>

(4) ㄱ. 經에 니르샤디 [父母 나흔 누느로 三千界를 다 보다] 흐시니 <월석 17:57b>

- ㄴ. 닐오디 [成所作智]는 놉 利호매 해 브터 種種 變化<sup>ㅎ</sup>홀씨 이런 드로 더르시니(謂成所作智는 多附利他<sup>ㅎ</sup>야 種種變化<sup>ㅎ</sup>홀씨 是以로 除之니) <영가 상:89b>
- ㄷ. 有와 無와 다 브린 무스미 이 不空이니 닐은 밧 [中]이라 <남명 하:26b>
- ㄹ. [諸法이라] 흔 거슨 이런 相과 … 이런 本末 究竟<sup>ㅎ</sup>돌히라(所謂諸法如是相 … 如是本末究竟等) <석상 13:40b-41a>

중세국어의 세 유형 중 [NP이 S V] 유형과 [NP이 V-오디 S (ㅎ-)] 유형은 근대국어 시기에도 많이 나타난다. 다만 근대국어 시기에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인용 구문 유형으로 (5)에 제시한 [NP이 V-기를 S ㅎ-] 유형이 나타난다(이현희 1994b: 76-77, 안주호 2003b: 151). 이 유형은 17세기 이후에 보이는데, 인용 동사가 ‘-기를’에 결합하여 인용절에 선행하는 유형이다. 이지영(2017)은 이 유형의 출현이 중세국어의 서술어 전치 구문 유형들의 양상과 관련이 있음에 주목하였다. 중세국어에서 [NP이 V-오디 AdvP ㅎ-] 구문과 [NP이 V-오디 AdvP ㅎ-] 구문이 교체되어 쓰일 수 있었는데<sup>7)</sup>, 이런 교체 양상은 서술어 전치 구문에서 ‘V-오디’ 형식과 ‘V-오디’ 형식이 모두 쓰일 수 있었음을 보인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명사형 어미 ‘-기’는 후대로 갈수록 점차 그 쓰임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서술어 전치 구문 [NP이 V-오디 AdvP ㅎ-]의 ‘V-오디’는 ‘V-기를’로 대체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NP이 V-기를

4) (3)에 제시된 예문은 이현희(1994a)의 것으로, (3ㄱ)은 356쪽의 (38), (3ㄴ)은 341쪽의 (18ㄷ)이다.  
5) 석독 구결의 어미 ‘-ㄱ, -ㄴ’은 다양한 용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 인용 동사와 결합하여 인용 구문을 이루는 용법도 보인다.

ㄱ. 當ハ 知<sup>ㄱ</sup> | 略<sup>ㄱ</sup> 說<sup>ㄱ</sup> 1 [於]三位<sup>ㄱ</sup> 中<sup>ㄱ</sup> 十<sup>ㄱ</sup> 種<sup>ㄱ</sup> 七<sup>ㄱ</sup> 瑜伽<sup>ㄱ</sup> 乙<sup>ㄱ</sup> 修習<sup>ㄱ</sup> 卽<sup>ㄱ</sup> 對治<sup>ㄱ</sup> 卽<sup>ㄱ</sup> 所<sup>ㄱ</sup> 七<sup>ㄱ</sup> 法<sup>ㄱ</sup> 有<sup>ㄱ</sup> 1  
ㄴ. 偈<sup>ㄱ</sup> 乙<sup>ㄱ</sup> 以<sup>ㄱ</sup> 賢首菩薩<sup>ㄱ</sup> 卽<sup>ㄱ</sup> 問<sup>ㄱ</sup> 曰<sup>ㄱ</sup> 1 [我<sup>ㄱ</sup> 今<sup>ㄱ</sup> 卽<sup>ㄱ</sup> 1 … 淸淨行<sup>ㄱ</sup> 乙<sup>ㄱ</sup> 說<sup>ㄱ</sup> 卽<sup>ㄱ</sup> 卽<sup>ㄱ</sup> 卽<sup>ㄱ</sup> 仁<sup>ㄱ</sup> 卽<sup>ㄱ</sup> … 演暢  
卽<sup>ㄱ</sup> 卽<sup>ㄱ</sup> 卽<sup>ㄱ</sup>] <화엄 08:21-24> [=남풍현(1996a: 28)의 (5-1ㄷ)]

6) (4ㄴ)과 (4ㄷ)은 이현희(1994a)의 것으로, (4ㄴ)은 340쪽의 (16ㄱ), (4ㄷ)은 342쪽의 (19ㄹ)이다.  
7) 이현희(1986b: 205), 이현희(1988: 224-228), 이현희(1994a: 68-70, 83-89)는 중세국어에서 (ㄱ)과 같은 [NP이 V-오디 AdvP ㅎ-] 유형과 (ㄴ)과 같은 [NP이 V-오디 AdvP ㅎ-] 유형이 서로 교체되어 쓰일 수 있었음에 주목하였다. 이 예들이 가장 무표적인 어순으로 표현된다면 각각 (ㄱ')이나 (ㄴ')처럼 표현된다.

ㄱ. 더 久遠을 보샤디 [오늘 7티] 흐시니 <월석 14:10a> [=이현희(1994a: 84)의 (66ㄱ)]  
ㄱ'. 더 久遠을 오늘 7티 보시니  
ㄴ. 金으로 짜해 衫로물 [뽐 업게] 흐면 <석상 6:24b> [=이현희(1994a: 83)의 (65ㄴ)]  
ㄴ'. 뽐 업게 金으로 짜해 싹면

AdvP ㅎ- 구문과 같은 서술어 전치 구문이 나타났다.<sup>8)</sup> (5)와 같은 인용 구문 유형은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sup>9)</sup>

(5) [NP이 V-기를 S ㅎ-]

- ㄱ. 김순보기 니르웁기를 [오라바님이 초시를 못ㅎ면 일가의 큰 병환이 잇고 초시옷 ㅎ시면 일가의 병환이 업고 도홀라 ㅎ더라] ㅎ오니 <곽씨-124 (1617)>
- ㄴ. 모다 니르기를 [어제 당상 ㅎ이시고 오늘 아얌 주옵시니 어이 갑스올고] 니르논이다 <이동표가-32 (1693)>

(5) 유형의 ‘V-기를’은 다음 (6)에 보듯이<sup>10)</sup> 주제의 보조사가 결합되어 ‘V-기란, V-기논’으로 나타나기도 한다.<sup>11)</sup>

- (6) ㄱ. 말 내기란 [님히 뉴영경 부인 ㅎ는 일이라]도 ㅎ며 온 가지로 니르기논 [국무녀 슈난개 니르더라] ㅎ더라 <계축 상:16a>
- ㄴ. 어제 東萊 니르시기논 [7장 세흔 사름 돌홀 밤낫 올라갈 양으로 ㅎ라]코 든이 날러 거시니 <첩해\_초 5:8b>
- ㄷ. 나가 글을 너희게 스기논 [음논 ㅎ 자로 사귀지 말나] ㅎ나 <예성 고린\_5:9절>

다음의 (7)과 같은 유형도<sup>12)</sup> 근대국어 시기에 보인다.<sup>13)</sup> 이 유형은 명사구가 주어 위치에

8) [NP이 V-오물 AdvP ㅎ-] 구문이 [NP이 V-기를 AdvP ㅎ-] 구문으로도 나타나는 것은 중세국어에서부터 확인되며, 근대국어 이후는 명사형 어미 ‘-기’의 확대와 더불어 좀 더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아래의 예들은 중세국어의 [NP이 V-기를 AdvP ㅎ-] 구문으로서, 이지영(2017: 69)에 제시된 예들이다. (ㄴ)과 (ㄴ’)의 비교에서 [NP이 V-기를 AdvP ㅎ-] 구문과 [NP이 V-오물 AdvP ㅎ-] 구문의 대응을, (ㄷ)과 (ㄷ’)의 비교에서 [NP이 V-기를 AdvP ㅎ-] 구문과 [NP이 V-오디 AdvP ㅎ-] 구문의 대응을 볼 수 있다.

- ㄱ. 조소 춤 츄기를 [기리] ㅎ물 뒤 어엿비 너기려노(誰憐屢舞長) <두초 14:13b>
- ㄴ. 듣기를 [반드시 온공히] ㅎ며(聽必恭ㅎ며) <소학 2:60b>
- ㄴ’. 말슴 드로물 [모로매 온공히] ㅎ며(聽必恭ㅎ며) <변소 3:28b>
- ㄷ. 어딘 사름 믹기를 [원슈근티] ㅎ며(疾良善如ㅎ隙) <소학 5:28b>
- ㄷ’. 어딘 사름 믹오디 [원슈7티] ㅎ고(疾良善如ㅎ隙) <변소 6:31a>

9) (5)에 제시된 예문은 이지영(2017)의 것으로, (5ㄱ)은 15쪽의 (12ㄱ), (5ㄴ)은 15쪽의 (12ㄴ)이다.  
 10) (6)에 제시된 예문은 이지영(2017)의 것으로, (6ㄱ)은 73쪽의 (12ㄴ), (6ㄴ)은 73쪽의 (12ㄷ), (6ㄷ)은 75쪽의 (14ㄴ)이다.  
 11) 이지영(2017)은 (6)과 같은 예들을 [NP이 V-기를 S (ㅎ-)]유형과 같지만 조사만 달라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만 이 예들을 다른 유형, 예를 들면 본문에 제시된 (7)처럼 일종의 계사문 혹은 분열문과 관련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고민은 아래의 (ㄱ)과 (ㄴ)에서 보듯이 ‘V-기논’ 형식과 ‘V-음은’ 형식이 서로 대응되면서, 이들의 일본어 대응 표현이 ‘申されませるわ’로 동일한 예가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잠정적으로 (6)과 같은 예들을 (5)의 [NP이 V-기를 S ㅎ-] 유형과 같은 것으로 보는 이지영(2017)의 입장을 유지하되, 이런 예들이 일종의 계사문 혹은 분열문과 관련된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 두기로 한다.

- ㄱ. 對馬島主 니르시기논 [信使 건너실 일은 드런거니와 어니 들 어니 날 셔울을 쩌나셔 어니씩 出船 吉日인고] ㅎ야 <첩해\_개 5:3a-4a>
- ㄴ. 對馬島主 니르심은 [信使 건너실 일은 드런습거니와 어니 들 어니 날 셔울을 쩌나셔 어니 꺾 出船 吉日인고] ㅎ야 <첩해\_중 5:3a-4a>

12) (7ㄷ)과 (7ㄷ)은 이지영(2018)의 것으로, (7ㄷ)은 117쪽의 (13가), (7ㄷ)은 116쪽의 (12가)이다.

13) [NP이 S (ㅎ-)] 유형과 관련하여 ‘상시 날드려 ㅎ던 이리 [제 괴신 업서 나를 의지코 사노라] 그리도 ㅎ더라 <순천김씨묘-4>’와 같은 예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항범(1998: 57)은 이 예를 “평상시

오고 인용절이 후행하는데, 주어 위치의 명사구에는 인용절의 발화 행위와 관련된 어휘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지영(2018: 116-118)은 이 유형이 일종의 기사문 혹은 분열문과 유사한 구조일 가능성이 있으며, 최윤지(2016, 2017)에서 언급하는 준분열문과도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7) [NP이 S (ㅎ-)]

- ㄱ. 판서 한아바님이 미안히 녀겨 허락 아니 ㅎ옵시다가 문등 어루신네 의논이 [다 마디 못홀 거시라] ㅎ셔놀 오늬 년 후의 브득이 ㅎ야 ㅎ신 일이니이다 <연간-122 (1657)>
- ㄴ. 口伸事는 使道 말습이 [너모 世言을 ㅎ는 거시 体面의 조치 아니 ㅎ니 酬酌 間 仔細이 ㅎ고 口伸은 大槩만 ㅎ자] ㅎ시미 이리 ㅎ여 보니오며 <종가 사료-23 (1802)>
- ㄷ. 또 내 말이 [나긋치 천 ㅎ고 약한 몸이 었지 감히 밋겻나] ㅎ즈 ㄷ답 ㅎ는 말이 [아무 상 관도 업스니 쥬씩셔 분부 ㅎ시기를 무론 었던 사름이던지 다 나를 갖가히 ㅎ라 ㅎ섯느니라] ㅎ고 <천로 2:174a-174b>
- ㄹ. 쥬 어미 ㄷ답 ㅎ는 말이 [어어 이 윈 말이냐 … 너 오기를 춤 잘 ㅎ얏다] <신정 1:13b><sup>14)</sup>

근대국어 시기의 인용 구문 유형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덧붙일 유형은 다음의 (8)과 같은 [NP이 V-은디 S (ㅎ-)] 유형이다.<sup>15)</sup> 이 유형은 중세국어 이래의 [NP이 V-오디 S (ㅎ-)] 유형과 연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sup>16)</sup>, 근대국어 이후 접속 어미 ‘-오디’가 축소되고 이를 대신하여 ‘-은디’가 확대되는 일련의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이지영 2017: 77-79).

(8) [NP이 V-은디 S (ㅎ-)]

- ㄱ. 누가 ㄷ러는디 [나를 만나면 룩혈포 한 기를 선사 ㅎ다더라네] <송뢰금 (1908)>

에 나를 데리고 하던 일이 “자기 기신 없어 나를 의지하고 산다.” 그리 말하더구나.”로 해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이 예의 ‘제 ~ 사노라’는 인용절이 되고 ‘그리토더라’는 인용 동사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 예를 “항상 나에게 하던 일은, 자기가 기신이 없어서 나를 의지하고 사노라고 그렇게 했더라.”로 해석하면 이 예의 ‘제 ~ 사노라’는 현대국어의 ‘-노라고’에 대응되는 표현이 되며, ‘그리토더라’는 인용 동사가 아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현대국어의 ‘-노라고’는 인용 구문과 관련 있는데(이현희 (1994a: 347), 안주호(2007)), 이와 관련된 예들은 15세기부터 (ㄱ)과 (ㄴ)의 ‘-노라’, (ㄷ)과 (ㄹ)의 ‘-노라 ㅎ야’로 나타난다. 본고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앞서 언급한 《순천김씨묘 출토 간찰》의 예를 인용 구문인 [NP이 S (ㅎ-)] 유형과는 무관한 것으로 본다.

- ㄱ. 그 後로 夫妻라 혼 일후미 나니 그세 ㄷ노라 ㅅㅅ지시를 처섬 ㅎ니 <월석 1:44a-44b> [=안주호 (2007: 105)의 (10ㄴ)]
  - ㄴ. 가마오디 西스녁 히 비취엿는 디 늘개 물외노라 고기 잡는 돌해 ㄱ독 ㅎ얏도다(鷓鷯西日照 曬翅滿漁梁) <두초 7:5a> [=안주호(2007: 106)의 (10ㄷ)]
  - ㄷ. 이러튼흔 衆生들홀 사르미 福 求 ㅎ노라 ㅎ야 제 맛드논 거슬 다 주디 <석상 19:3a>
  - ㄷ'. 이러튼흔 衆生 數에 잇느니를 사르미 福 求 ㅎ야 제 欲 조차 즐길 께슬 다 주디(有人이 求福 ㅎ야 隨其所欲 ㅎ야 娛樂之具를 皆給與之호디) <법화 6:6b>
  - ㄹ. 書冊을 檢察 ㅎ노라 ㅎ야 燭을 스라 더르게 ㅎ고 갈 보노라 ㅎ야 술 잔 혀물 기리 호라(檢書燒燭短 看劍引盃長) <두초 15:55a-55b>
- 14) 《국문초학》(주시경 편)에는 ‘그 어미가 ㄷ답 ㅎ되 [어어 이것이 윈 말이냐 … 네가 와서 물어보기를 참 잘 ㅎ얏다] <국문-주 27-28>’과 같이 [NP이 V-오디 S] 유형으로 되어 있다(이지영 2018: 116).
- 15) (8)의 예문은 이지영(2017)의 것으로, (8ㄱ)은 78쪽의 (16ㄷ), (8ㄴ)은 78쪽의 (16ㄴ)이다.
- 16) 안주호(2003b: 151)는 (5)의 [NP이 V-기를 S (ㅎ-)] 유형과 (8)의 [NP이 V-은디 S (ㅎ-)] 유형이 나타나는 19세기의 예를 제시하면서 이런 유형의 인용 구문이 신문과 같은 보고체의 자료에서만 보이고 소설 같은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이런 유형의 인용 구문이 “서구의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의 인국어 문체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추측”하였지만,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ㄴ. 사람들이 말하는데 [저 김 주사- 은행에 다니는 이 언니도 알지! 그 어른 댁에서 죽었대]  
<망년회 (1925)>

## 2.2. 인용 구문 유형의 변화

앞 절에서 살펴본 인용 구문 유형들은 인용절(S)과 인용 동사(V)의 통사적 순서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9) I유형(SV 유형): ㉠ [NP이 S V] 유형

II유형(VS 유형): ㉡ [V-은 S (ㅎ-)] 유형(혹은 [V-은 NP] 유형)

㉢ [NP이 V-오디 S (ㅎ-)] 유형, ㉣ [NP이 V-은디 S ㅎ-] 유형

㉤ [NP이 V-기를 S ㅎ-] 유형

㉥ [NP이 S (ㅎ-)] 유형

㉡ [V-은 S (ㅎ-)] 유형(혹은 [V-은 NP] 유형)은 석독 구결 자료에 보이던 용법이 15세기에 남아 있는 것으로서 제한된 문맥에 쓰였다. ㉣ [NP이 V-은디 S ㅎ-] 유형은 근대국어 시기에 나타나는 유형이긴 하지만, 접속 어미 ‘-오디’와 ‘-은디’의 세력 변화가 반영되어 나타난 유형이므로 새로운 유형의 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선행 연구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두었던 것은 ㉠ [NP이 S V] 유형과 ㉢ [NP이 V-오디 S (ㅎ-)] 유형이다. 이 두 유형이 보충어인 인용절과 서술어인 인용 동사의 어순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일찍부터 주목되어 왔다. 한국어는 일반적으로 보충어가 서술어에 선행하는 어순을 보인다는 점에서 ㉠유형이 좀 더 전형적인 한국어의 인용 구문이고 ㉢유형은 한문 어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한글 편지 자료와 같은 소위 구어체를 반영한다고 언급되는 자료에서 ㉠유형이 많이 나타나며 현대국어에서도 ㉠유형이 전형적인 인용 구문이라는 직관이 있다는 점도 ㉢유형을 번역 과정에서 나타난 유표적인 인용 구문 유형으로 보는 근거가 되어 왔다. 이런 관찰 혹은 직관은 국어사 자료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한글 편지와 같은 자료에는 ㉠유형과 같은 I유형이 좀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언해 자료에는 ㉢유형과 같은 II유형이 좀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 국어사 자료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인용 구문의 빈도 차이를 각 시기별 언어 양상으로 파악하여 한국어의 인용 구문이 II유형에서 I유형으로 바뀐 것이라고 본 것은 안주호(2003b)인데, 이에 대해 정연주(2017: 80-86)는 문체의 차이, 즉 번역투의 영향을 받은 언해문의 문체와 일상적인 문체의 차이에 따른 문형 빈도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이 지점에서 좀 더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II유형에 속하는 ㉣ [NP이 V-은디 S ㅎ-] 유형, ㉤ [NP이 V-기를 S ㅎ-] 유형, ㉥ [NP이 S (ㅎ-)] 유형의 존재이다. I유형과 II유형을 문체적 차이로만 이해한다면 II유형은 번역이라는 기제가 없는 한 소멸되었어야 하지만, 언어 자료에서 확인되는 양상은 이와 다르다. 앞서 언급한 대로 근대국어 시기 이후에 II유형에 속하는 ㉣유형, ㉤유형 등이 새롭게 출현하며, 더구나 언해 자료의 대표적인 유형인 ㉢ [NP이 V-오디 S (ㅎ-)] 유형은 어미가 ‘-은디’로 교체되어 ㉣유형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들 세 유형, 즉 ㉣유형, ㉤유형, ㉥유형은 현재에도 사용된다. 그렇다면 인용 구문의 유형 변화는 문체의 차이라는 시각 외에 좀 다른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지영(2017: 76-79)은 II유형이 의사소통 측면에서 해석의 능률을 높이는 특징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주어와 인

용 동사가 통사적으로 인접하여 문두에 위치하고 인용절이 그에 후행하는 II유형과 같은 방식은 주어와 인용 동사의 통사적 관계나 인용절과의 통사적 경계가 쉽게 드러나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인용절이 길거나 다수의 문장으로 이어지는 경우라면 해석의 능률을 높이는 II유형과 같은 방식은 더욱 장점을 가지게 된다. ㉞유형도 이와 유사하게 이해될 수 있는데, 발화자와 인용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표현, 즉 ‘~의 말이’와 같은 명사구가 인용절에 선행하므로 누구의 발화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 사용의 측면에서 보면, 어떤 언어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그래서 무표적인 구문 유형과 특정 목적, 예를 들면 주제화나 초점화 등의 효과를 드러내기 위해 나타나는 유표적인 구문 유형이 공존한다는 것은 그리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한국어 인용 구문 유형의 빈도와 변화 양상에 대한 이해도 이런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 3. 인용 동사의 문제

현대국어의 인용 구문 연구에서는 인용 동사의 설정과 분류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역사적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그리 많지는 않다. 이현희(1994a), 한재영(1996) 등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는데, 특정 서술어 부류의 구문 양상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대국어 논의와 같은 맥락에서 인용 동사의 문제를 논의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근대국어의 인용 동사를 논의한 안주호(2006)는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인용 동사를 대화 인용 동사, 혼잣말 인용 동사로 나누고 고유어 인용 동사와 한자어 인용 동사의 문법적 특징을 살폈다.

이에 따라 3장에서 살펴보게 되는 인용 동사의 문제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인용 구문의 ‘ㅎ-’ 문제와 화시 표현을 포함한 인용 동사 ‘그러다, 이러다’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 3.1. ‘ㅎ-’의 통사적 성격

중세국어 인용 구문에 나타나는 ‘ㅎ-’는 다음의 (10)과 같은 두 유형에서 확인되는데, 이들 유형에서 보이는 ‘ㅎ-’와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가 설명되어야 한다. 첫째는 (10ㄱ)과 (10ㄴ)의 ‘ㅎ-’가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인가 하는 점이고, 둘째는 (10ㄱ)의 ‘ㅎ-’가 수의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10) ㄱ. [NP이 V-오디 S (ㅎ-)]의 ‘ㅎ-’ [=VS 유형]

ㄴ. [NP이 S ㅎ-]의 ‘ㅎ-’ [=SV 유형]

본고는 이 문제를 이현희(1986b, 1988, 1994a)에서 주목한 ‘-오디’ 구문의 특성과 관련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오디’ 접속문에는 (11ㄱ)과 같은 소위 동사구 전치 구문, (11ㄴ)처럼 [발견]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11ㄷ)처럼 [역접]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sup>17)</sup>

(11) ㄱ. [더 久遠을 보샤디]<sub>S1</sub> [오늘 ㄱ티 ㅎ시니]<sub>S2</sub>(故觀彼久遠猶若今日.) <월석 14:10a>

17) (11ㄱ), (11ㄴ), (11ㄷ)은 이현희(1994a)의 것으로, 순서대로 84쪽의 (66ㄱ), 69쪽의 (46ㄷ), 70쪽에 있다.

- ㄴ. [내 보디]<sub>S1</sub> [이 閻浮衆生이 발 들며 念 뉘우매 罪 아니니 업스니]<sub>S2</sub>(我觀是閻浮衆生, 舉心動念, 無非是罪.) <월석 21:102a>
- ㄷ. [이 經 功德을 닐오디]<sub>S1</sub> [오히려 몬 다 니르노라]<sub>S1</sub> <석상 19:42b>
- ㄷ'. [이 經 功德을 닐어도]<sub>S1</sub> [오히려 能히 다 몬호리라]<sub>S2</sub>(說此經功德호야도 猶不能盡호리라) <법화 6:107a>

이들은 ‘-오디’가 결합한 선행절(S1)과 후행절(S2)로 구성된 접속문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11ㄱ)의 후행절에서는 ‘호-’가 생략될 수 없고 (11ㄴ)과 (11ㄷ)의 후행절에서는 ‘호-’가 실현되지 않는다. (11ㄱ)의 후행절은 ‘호-’가 없다면 서술어 역할을 하는 성분이 없기 때문에 통사적으로 절이 성립할 수가 없다. 반면 (11ㄴ)과 (11ㄷ)의 후행절은 통사적으로 절의 성립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호-’가 실현되지 않는다. 다만 (11ㄴ)의 선행절과 후행절은 (11ㄷ)에 비해 의미론적으로 좀 더 긴밀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1ㄴ)처럼 [발견]의 의미로 해석되는 ‘-오디’ 접속문의 후행절은 선행절 서술어의 보충어(즉 행위의 대상)와 관련되거나 선행절 행위의 결과로 알게 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오디’ 접속문의 후행절에서 ‘호-’가 실현되느냐 하는 문제를 후행절의 통사 구조와 관련지어 파악한다면 인용 구문인 [NP이 V-오디 S (호-)] 유형의 후행절 [S (호-)]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유 동사 ‘너지-’ 구문이 [NP이 V-오디 S (호-)] 유형으로 나타난다면, ‘-오디’의 후행절(S2)에 ‘호-’가 나타나느냐에 따라 세 유형이 가능하다.<sup>18)</sup>

- (12) ㄱ. [NP이 V-오디]<sub>S1</sub> [S]<sub>S2</sub>  
 [무스매 너기사디]<sub>S1</sub> [네 무스몰 구디 가져 설버 말라 一切 衆生이 … 엇데 설버호리오 … 호됨며 地獄엿 智慧 업슨 사르미썩녀]<sub>S2</sub> <월석 11:4b-5a>
- ㄴ. [NP이 V-오디]<sub>S1</sub> [S 호-]<sub>S2</sub>  
 [또 너교디]<sub>S1</sub> [내 諸佛 니르삼ᄃ티 좃즈박 호리라 호교]<sub>S2</sub> <석상 13:59a>
- ㄷ. [NP이 V-오디]<sub>S1</sub> [S V]<sub>S2</sub>  
 [이를 衆生이 너교디]<sub>S1</sub> [고른 더러운 거시라 너기거든]<sub>S2</sub> <칠대 2b>

이 예들에서 후행절(S2)은 ‘호-’가 있느냐 없느냐와 관계 없이 모두 통사적으로 성립한다. (12ㄱ)의 후행절은 종결어미를 갖춘 절이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통사적으로 성립에 문제가 없다. ‘호-’가 있는 (12ㄴ)의 후행절 [S 호-]와 ‘호-’가 없는 (12ㄷ)의 후행절 [S V]는 모두 SV 유형, 즉 인용절이 인용 동사에 선행하는 인용 구문 유형으로서, 인용 동사가 ‘호-’냐 ‘너지-’ 이냐에서만 차이가 있다. 결국 [NP이 V-오디 S (호-)] 유형에서 후행절은 (12ㄱ)처럼 인용 구문으로서의 형식적 장치 없이 통사적으로 완결된 절의 형식으로 나타나느냐, (12ㄴ)이나 (12ㄷ)처럼 인용절이 인용 동사에 선행하는 SV 유형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이 두 유형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느냐 하는 것은 결국 담화 혹은 맥락 구성 차원에서 언어 표현을 선택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동일한 원문을 번역한 다음의 (13)에서도 [NP이 V-오디 S (호-)] 유형의 후행절이 번역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sup>19)</sup>

18) (12)의 예문은 이현희(1994a)의 것으로, (12ㄱ)과 (12ㄷ)은 306쪽에 있고, (12ㄴ)은 307쪽의 (25ㄴ)이다.

19) (13ㄱ)과 (13ㄱ')은 안병희(1973/1992: 19)의 (14)에 제시된 예문이다.



- (13) ㄱ. ㉠[[儀 디답<sub>하</sub>야 날오디]<sub>S1</sub> [외요미 도원슈씩 인느니이다 흐여놀]<sub>S2</sub>] ㉡[昭 | 로<sub>하</sub>여 날오디 司馬<sub>는</sub> 내게 죄를 다왓고자 흐느냐 흐고](儀對曰責在元帥흐니이다 昭 | 怒曰 司馬<sub>는</sub> 欲委罪於孤耶아<sub>흐고</sub>) <번소 9:26a>
- ㄱ'. ㉠[[儀 디답<sub>하</sub>야 굴오디]<sub>S1</sub> [허름이 웃듬장슈씩 인느니이다]<sub>S2</sub>] ㉡[昭 | 怒<sub>하</sub>야 굴오디 司馬 | 내게 罪를 밀고자 흐느냐 흐고](儀 | 對曰責在元帥흐니이다 昭 | 怒曰司馬 | 欲委罪於孤耶아<sub>흐고</sub>) <소학 6:23b>
- ㄴ. [漢나랏 昭烈이란 님금이 … ㄱ<sub>르</sub>샤디]<sub>S1</sub> [사오나온 이리어든 적다 흐고 흐디 말며 어딘 이리어든 적다 흐고 아니<sub>흐디</sub> 말라 흐시니라]<sub>S2</sub>(漢昭烈이 … 曰勿以惡小而爲之<sub>흐며</sub> 勿以善小而不爲<sub>흐라</sub>흐시니라) <번소 6:15b>
- ㄴ'. [漢昭烈이 … 굴오샤디]<sub>S1</sub> [사오나온 거시 적다 하야 빠 흐디 말며 어딘 거시 적다 하야 빠 흐디 아니<sub>티</sub> 말라]<sub>S2</sub>(漢昭烈이 … 曰勿以惡小而爲之<sub>흐며</sub> 勿以善小而不爲<sub>흐라</sub>) <소학 5:14b>

(13ㄱ)은 王羲의 발화㉠와 司馬昭의 발화㉡가 접속문으로 번역되었지만, (13ㄱ')은 독립된 문장으로 번역되어 있다. (13ㄱ)에서 ㉠의 S2는 [S 흐-]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와 ㉡를 접속하는 접속 어미 '-거늘'이 결합할 수 있는 '흐-'가 통사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13ㄱ')은 ㉠와 ㉡가 독립된 문장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의 S2가 [S 흐-]로 나타날 필요는 없다. (13ㄴ)과 (13ㄴ')은 인용 구문만으로 종결된 예인데도 후행절 S2가 [S 흐-]와 [S]로 달리 번역되어 있다. 이는 (13ㄱ)처럼 통사적 필요에 따라서 [S 흐-]를 선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NP이 V-오디 S (흐-)] 유형에서 후행절의 표현 방식은 좀 더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 준다.

(12)와 (13)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VS 유형인 [NP이 V-오디 S (흐-)]의 후행절에 있는 '흐-'와 SV 유형인 [NP이 S 흐-]'의 '흐-'는 통사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VS 유형의 '흐-'와 SV 유형의 '흐-'가 다른 형태음소적 교체를 보이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흐-'의 특수한 형태음소적 교체는 SV 유형이나 VS 유형이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기보다 인용 구문의 '흐-' 자체가 지닌 특수한 교체 양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sup>20)</sup> 아래의 (14)에서 확인되듯이 인용 구문의 '흐-'가 보이는 특수한 교체 양상은 인용 구문의 유형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14ㄱ)의 ㉠, ㉡, ㉢는 모두 SV 유형이지만 ㉠와 ㉡의 '흐-'만 후행 어미와 축약되어 있고, (14ㄴ)과 (14ㄴ')의 ㉠는 동일한 원문을 번역한 SV 유형이지만 (14ㄴ')의 '흐-'만 후행 어미와 축약되어 있다. (14ㄷ)과 (14ㄷ')의 ㉠는 동일한 원문을 번역한 VS 유형이지만 (14ㄷ')의 '흐-'만 후행 어미와 축약되어 있다.

- (14) ㄱ. 帝釋이 날오디 크실씨 願이여 노파 우 업스샤다 ㉠[[하<sub>늘</sub>해 나 히 드리 드외아지라] 커시나] ㉡[[世間에 님그미 드외아지라] 커시나] ㉢[[목수미 길아지라] 흐시면] 내 어로 호려니와 太子 니르산 마른 三界에 特別히 尊<sub>하</sub>실씨 내 미출 일 아니로소이다(天王釋言:『大哉所願, 巍巍無上. 若欲生天作日月中王, 世間帝主, 注延壽命, 我能相與, 如卿所說. 三界特尊, 非我所及也.』) <월석 20:85b-86a>

20) 이현희(1986a)는 '흐-'의 통사적 성격에 따라 교체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동사 '흐-'는 축약이나 탈락과 같은 특수한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아래의 (ㄱ), (ㄴ)처럼 특수한 교체가 나타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고 하였다.

(ㄱ) 너희는 커니와 내 지빅 이쉴 저긔 受<sub>하</sub>썩 | 만타라 <월석 10:23a>

(ㄴ) 三乘 種類의 性的 코져 흐요미 흐 가지 아닐씨 <월석 13:55a>

- ㄴ. 阿育王이 … 大臣을 미리 걱걸호요디 ㉠[나웃 善容일 주기라] 호거든] 너희 말이라(阿育… 預敕大臣吾有所圖. 若我敕卿殺善容者. 卿等便諫.) <석상 24:26b-27a>
- ㄴ'. 阿育이 … 미리 大臣을 勅호디 ㉠[나웃 善容일 주기라] 커든 그딤 내 날웨를 기드려 주겨지라 호라 호고 <월석 25:131b-132a>
- ㄷ. 또 너교디 ㉠[호다가 아드를 어더 천라을 맞디면 흰히 快樂호야 노외야 分別 업스리로다] 호터니 <월석 13:10a-10b>
- ㄷ'. 또 이 念을 호디 ㉠[내 호다가 아들 어더 財物을 맞디면 흰히 快樂호야 노외야 시름 업스리로다] 터니(復作是念호디 我若得子호야 委付財物호면 坦然快樂호야 無復憂慮) 로다 터니) <법화 2:189b>

이상의 논의에서 VS 유형인 [NP이 V-오디 S (호-)]와 SV 유형인 [NP이 S 호-]의 ‘호-’가 통사적으로 같은 성격을 지니는 것이 확인되었으니, 이들 유형에 나타나는 ‘호-’가 구체적으로 어떤 통사-의미적 성격을 가지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정연주(2017)는 현대국어의 [NP이 S 하-]의 ‘하-’가 자리채우미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는데, 같은 논리가 중세국어의 [NP이 S 호-] 유형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다.<sup>21)</sup> 이 논의에서 자리채우미는 빈자리들을 갖는 구문에 기반하여 언어 형식이 들어갈 서술어 자리를 형식적으로 채우는 요소로 규정된다. 즉 [NP이 (NP에게(서)) S(고) V]와 같은 인용 구문이 원형적으로 화자의 기억 속에 내재되어 있고, 여기의 V 자리에 ‘하-’가 쓰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인용의 성격이 무엇이나에 따라 ‘하-’의 출현 여부가 달라지는데, 발화 인용인 경우는 별다른 제약이 없지만 사유 인용이나 해독 인용, 인지 인용인 경우는 제약이 있는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한다. [NP이 S(고)]라는 형식 연쇄가 있을 때 발화 인용이 가장 먼저 활성화되므로 이에 ‘하-’를 쓰는 데 제약이 없다. 만약 [NP이 S(고)]라는 형식 연쇄가 발화 인용이 아닌 유형이라면, 해당 구문 내에 있는 단서들(예를 들면 출처 논항)이나 ‘하다’의 “에너지 발산” 의미와 인용절의 관계를 고려하여 ‘하-’의 출현을 예측하게 된다.

그런데 인용 구문의 ‘하-’를 자리채우미로 설명하는 이 논리에서 ‘하-’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형식 연쇄가 [NP이 S]인지 [NP이 S고]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듯하다. 인용절이 완형보절 S, 즉 종결어미로 종결되는 절이라면 인용절이 아니면서 종결어미로 끝나는 절과 형태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이때 인용 표지가 있다면 인용절과 다른 절은 형태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다. 현대국어는 인용 표지가 있어서 [NP이 S V] 구문에 인용 표지 ‘고’를 넣어서 이해하는 직관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완형보절 S를 인용절로 인식하게 하는 것은 완형보절 S 자체라기보다 인용 표지 ‘고’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현대국어 인용 구문의 ‘하-’를 자리채우미로 설명하는 논리를 중세국어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좀 더 고려해야 할 지점이 있는 듯하다.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한국어의 인용 표지는 근대국어 시기에 출현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연주(2017)는 인용 구문의 ‘하-’ 외에도 [-고자 하-], [-을 -로 하-], [-려고 하-], [-도록 하-]와 같은 구문의 ‘하-’를 자리채우미로 규정하였는데, 인용 구문이 이들 구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를 활성화시키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해야 할 지점이 있어 보인

21) 정연주(2017)는 구문 문법에 기반한 논의로서, 논의의 틀인 구문 문법의 전제, 좀 더 좁혀 말한다면 한국인의 인지 구조에 자리잡고 있는 원형적인 구문 유형의 타당성을 통시적 자료에 기대어 찾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원형적인 구문 유형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이기에 현대국어 인용 구문의 ‘하-’에 적용되는 논리가 중세국어 인용 구문의 ‘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 인용 구문은 인용의 성격에 따라 ‘하-’의 출현에 제약이 있지만, 다른 구문은 이러한 제약이 없다. 이것은 ‘하-’의 출현을 예측하게 하는 형식 연쇄의 성격에 차이가 있음, 다시 말해 인용 구문보다는 다른 구문의 형식 연쇄가 ‘하-’와 더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긴밀성은 (인용 구문이 아닌) 다른 구문에 있는 특정 형식 연쇄의 의미가 이 연쇄에 포함된 어미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여기서 문제는 인용 표지 ‘고’가 결합되지 않은, 즉 완형보절인 인용절은 앞서 지적했듯이 ‘하-’를 활성화시키는 형식 연쇄의 의미를 드러내는 어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중세국어 인용 구문의 ‘ㅎ-’와 관련하여 좀 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는 대동사설인 듯하다. 이현희(1986b, 1994a)는 인용 구문의 ‘ㅎ-’를 대동사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sup>22)</sup> 이 논의에서 포괄적 사유 구문인 ‘너기-’ 구문과 청원 구문인 ‘請ㅎ-’ 구문의 ‘ㅎ-’는 각각 ‘너기-’와 ‘請ㅎ-’의 대동사로 설명되었고 그 외의 경우는 동사의 의미를 고려하여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추상적 동사가 상정되었다. 예를 들면 유표적 사유 구문인 ‘疑心ㅎ-’ 구문의 ‘ㅎ-’는 ‘너기-’의 대동사이며, 포괄적 화법 구문의 ‘니르-’ 구문, 인지 구문의 ‘알-’, 인식 경험 구문의 ‘보-’는 동사의 의미상 사유를 전제하는 것이기에 이런 구문의 ‘ㅎ-’는 ‘너기-’의 대동사로 설명되었다.

이러한 설명에서 유의해야 하는 것은 이때의 대동사가 선행어와 조응하는 대용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의 대동사 개념은 서정수(1975)의 것으로, 이 논의에서는 ‘하다’가 형식동사와 대동사의 기능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후 서정수(1996: 663-683)는 전자를 서술 형식 대행 기능으로, 후자를 특정 상황 동사 대행 기능과 특정 용언 대행 기능으로 수정하였는데, 앞의 두 기능은 대용과 무관하고 특정 용언 대행 기능만이 대용과 관련된다. 이를 고려하면 이현희(1986b, 1994a)의 대동사라는 개념은 서정수(1996)의 특정 상황 동사 대행 기능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런 입장에서의 ‘ㅎ-’는 해당 인용 구문이 드러내는 인용의 의미에 따라, 다시 말하면 맥락 속에서 해석되는 인용 구문의 의미에 따라 그 의미를 나타내는 가장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된다.

### 3.2. 화시 표현과 인용 동사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화시 표현 ‘이, 그’를 포함한 ‘이러-, 그러-’는 인용 동사로 논의되는데,<sup>23)</sup> 관점에 따라 화시에 중점이 있기도 하고(이기갑 1994, 이기갑 2003, 신지

22) 이현희(1986b: 203-209)는 중세국어의 인용 구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는데, I형의 ㉠과 ㉡은 국어의 전형적인 인용 구문이고, II형의 ㉢과 ㉣은 漢語의 구문을 번역한 것, 즉 漢語의 어순을 따르는 것이며, II형의 ㉤은 “중세국어에서 가장 informal한 인용문”으로, “‘니르-’의 기능은 그것을 되받는 동사 ‘ㅎ-’가 다 가지고 있다”고 설명되었다. 또한 I형의 ‘ㅎ-’는 안병희(1973/1992: 17-19)의 전이어(轉移語, transitional word)와 같은 것으로, II형의 ‘ㅎ-’는 ‘니르-’의 대동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현희(1994a)에서는 I형과 II형의 ‘ㅎ-’를 모두 대동사로 보는 것으로 견해가 수정되었다.

(㉠) I형: ㉠ S ㅎ야 닐 니르노뇨 ㉡ S 닐 니르노뇨

(㉢) II형: ㉢ 닐 닐오디 S ㅎ노뇨 ㉣ 닐 닐오디 S ㉤ 닐 S ㅎ노뇨

정연주(2017: 68)는 ㉤을 ㉢, ㉣과 함께 II형으로 분류한 것을 비판하였는데, 이런 비판은 I형과 II형이 한국어 어순이냐, 漢語 어순이냐에 따라 분류된 것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현희(1986b)에서 I형과 II형을 구분한 기준은 ‘ㅎ-’의 성격이지, 어순의 성격이 아니다.

23) 임동훈(2011: 41-51)은 선행 발화나 텍스트를 가리키는 담화 화시 표현이 인용 표지로 발달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이 논의는 ‘이러다, 그러다’를 인용 동사로 보지는 않았다. 이 논의에서는 (㉠)

연 1998, 양명희 1998 등) 인용 동사로서의 특징에 중점이 있기도 하다(채숙희 2013 등). 이러한 예들은 이전 시기의 자료에서도 확인되는데, 몇몇 예를 들면 다음의 (15)와 같다.<sup>24)</sup>

- (15) ㄱ. 조년 가 볼 적 아즈미씩셔 [이거시 개냐 사름이나] 그리흔네티 너는 무어시라 하니 사름 이라 헛엿노라 헛고 소문을 츄츄하니 웃노라 <선세언적-17 (1783~1790)>
- ㄴ. 목소가 뵈어 그 과히 무거운 거스로 싱각히기를 [이거시 썩인 듯 ... 우리 교춤에 테증이 만히 싱길 듯<sup>히</sup>외다] 그러히되 답힌 슈건을 열어 보니 썩이 아니오 다만 오빱금 돈이로다 <신학 1:80-81>
- ㄷ. 누가 그러네티 [나를 만나면 룩혈포 한 기를 선사훈다더라네] <송뢰금 (1908)> [= (8ㄱ)]
- ㄹ. 려관 주인이 그러는데 [병호 씨는 어제 삼밤 차에 식골로 나려가섯대요] <읍혈조 (1923)>

인용 구문에 쓰인 ‘이러-, 그러-’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이, 그’의 지시 방향과 관련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는 선행 지시와 후행 지시에 모두 쓰이지만 ‘그’는 선행 지시에 쓰인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가 후행 지시에 쓰이는 예들이 드물게 관찰된다. 신지연(1998: 104-111)은 담화 화시의 예로 제시된 (16ㄱ)은 발화 내용이 화자의 인식 속에서 채 정리되지 않은 것이어서 일정한 심리적 거리가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것으로, 대용의 예로 제시된 (16ㄴ)은 구정보가 대용어로 사용되는 것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다.<sup>25)</sup>

- (16) ㄱ. 그치만 그런 거 느껴요- 너무 너무 짧게 없어져요+/잘 하는 건 알겠는데+/짧게 없어 져서+/그, 그래두 얼굴 기억하는 게 별루 없거든요+ [=신지연(1998: 106)의 (61b)]
- ㄴ.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지금 우리나라에 그, 형편에서는 마, 제가 과학기술처에 있으면서도 그랬고 이제 이, 연구소에 와서도 그치만 그 수준을 도저히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신지연(1998: 108)의 (63a)]

그런데 다음의 (17)과 같은 예들은 앞서 살펴본 ‘이, 그’의 화시 특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듯하다. (17ㄱ)의 [V-기를 S 하-] 유형과 (17ㄴ)의 [V-는데 S 하-] 유형은 인용 동사가 인용절에 선행하는데, 이 경우 주로 선행 지시 용법으로 쓰이는 ‘그러-’만 가능하고 선행 지시와 후행 지시 용법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이러-’는 불가능하다.<sup>26)</sup>

의 ‘그렇게’와 같은 화시 표현을 인용 표지로, (ㄴ)의 ‘이러다’는 인용 표지와 상위문의 발화 동사가 결합하 것으로 보았다.

- ㄱ. “야, 대체 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는 내가 왜 거기에 서 있는지 뻔히 알 텐데도 그렇게 물었다. [=임동훈(2011: 49)의 (16가)]
- ㄴ. 얘기를 뱃속에다 놓고 다니면서 엄마 나 얘기 가졌어 이러더라구요.

24) (15ㄴ)은 이지영(2017: 78)의 (16ㄴ)이다.

25) 고재필(2015)은 후행 지시 용법을 보이는 ‘그러(하)-’의 담화 상의 기능을 배경정보 제시, 부연 설명, 막연한 근거 제시로 나누면서, 이러한 용법은 ‘그러(하)-’가 지시하는 요소가 매우 높은 현저성을 지니며 개념적 연결성이 매우 긴밀한 경우에 나타난다고 한 바 있다.

26) (17)의 예들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다면 ‘이러-’도 가능할 수 있다. (ㄱ)은 ‘이러-, 그러-’가 인용절과 별도의 문장을 이루는 경우이고, (ㄴ)은 ‘이러-, 그러-’가 인용 동사가 아니라 지시 용언으로 쓰인 경우이다.

(ㄱ) 누가 {그러는데, 이러는데}? 노영심은 참 맛나게 노래를 불렀다고.

(ㄴ) 누가 {그런, 이런} 말을 했는데, [노영심은 참 맛나게 노래를 불렀다고] 하더라.

(17) ㄱ. 전에 있던 곡을 리바이벌한 거라던데, 누가 {그러기를, \*이러기를} [노영심은 참 맛나게 노래를 불렀다고] 하더라.<sup>27)</sup>

ㄴ. 누가 {그러는데, \*이러는데} [노영심은 참 맛나게 노래를 불렀다고] 하더라.

또한 ‘그러-’에 비해 ‘이러-’는 인용 조사와 함께 나타날 때 더 많은 제약을 보인다(채숙희 2013: 104-118).<sup>28)</sup>

(18) ㄱ. 우리 사위가 오늘 들리겠다고 {그랬어, \*이랬어}.

ㄴ. “근데 하고 싶은 거거든요.”{라고, \*하고} 그랬어요. [=채숙희(2013: 116)의 (62가)]

ㄴ’. 그랬더니 바로 “그래 너 왔으니까 삼천 원 줄게.”{라고, \*하고} 이러더라. [=채숙희(2013: 116)의 (61가)]

이처럼 화시 표현 ‘이, 그’의 본래적 용법과 달리, 후행 지시의 맥락, 즉 인용 동사가 인용절에 선행하는 인용 구문에서 ‘그러-’는 허용되고 ‘이러-’는 오히려 쓰임이 제약되는 양상, 그리고 인용 구문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인 인용 표지와 함께 나타날 때 ‘그러-’보다 ‘이러-’가 더 제약이 많다는 점은 ‘그러-’와 ‘이러-’의 인용 동사로서의 지위가 동등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동남 방언의 ‘카다’도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 ‘카다’는 인용 조사 ‘고’와 ‘ㅎ-’의 결합에서 형성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sup>29)</sup> 그런데 정인호(2019)는 ‘카다’가 화시 표현 ‘그’와 관련된 것이며, ‘그럭하다 > 그러카다 > 글카다 > 그카다 > ㄱ카다 > 카다’의 변화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하는 문법적 근거로, 직접 인용문에 쓰이며(예 “얼마요?” 쿤께네), 간접인용조사와 함께 쓰일 수 있으며(예 착공한다꼬 카는데), 피인용문 없이 쓰이기도 하고(예 내가 췌나, 안 췌나?), 인용 동사뿐만 아니라 지시 용언의 용법으로도 쓰인다는(예 와 카노?) 점을 들었다.

이기갑(2003: 595-598)은 ‘카다’가 인용 조사 ‘고’를 포함한 구성에서 발달한 것이라고 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19)와 같은 예들에 대해 인용 동사로 재구조화된 ‘카다’가 새로운 용법을 획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인호의 지적처럼 인용 동사 ‘카다’가 (19ㄱ)과 같은 용법을 허용할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19) ㄱ. 우리집 자아로 도라지 타령 춤을 한 분 추야 달라꼬 카는 기라 [=이기갑(2003: 587)]

ㄴ. 거기서 올라 서서 굴리문 “둥둥” 칸다 합니다. [=이기갑(2003: 597)]

27) (17ㄱ)에서 적격문인 ‘그러기를~’은 SJ-RIKS Corpus에서 추출한 예문이며, 출전은 『고려대학교 교양국어 작문자료: 작문자료(국어교육과) 전자파일』(이정민 외 고려대 국어교육과 학생들, 1995.)이다.

28) 간접 인용절인 (18ㄱ)은 채숙희(2013: 112)의 (56)을 변형한 것으로, 적격성 판단은 필자의 것이다. 채숙희(2013: 104-118)는 ‘그러-, 이러-’가 (18ㄱ)과 같은 간접 인용절에 쓰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ㄱ)과 (ㄴ)에서 ‘이러-’가 가능한 것은 인용절과 ‘이러-’ 사이에 다른 성분이 개재되었을 때에만, 다시 말해 인용절과 인용 동사의 긴밀성이 약할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그러-’는 이런 제약 없이 간접 인용절에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ㄱ) 우리 사위가 오늘 들리겠다고 {여러 차례, 똑똑히, 다시...} {했어, 이랬어, 그랬어}. [= (56)]

(ㄴ) 우리보구 막 재수 없게 잘못 걸렸다고 막 이러던데. [= (61나)]

(ㄷ) 별루 친하지두 않은데 왜 자꾸 쓰라구 그러는 거야? [= (62나)]

29) 예를 들어 이기갑(2003: 595-598)은 ‘고#하- > ㄱ하- > 카-’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이 논의에서는 서남 방언에서 인용 조사 ‘고’가 ‘ㄱ’으로 축약되는데(예 인자 사둔이 저 배로 오곶다 하두만.(588쪽), 이런 현상이 동남 방언에서도 일어났음을 가정하고 있다.

ㄷ. 며느리 쿠건데, 시아바이가 밭에 가서 나락 베고 콩을 빼는데… [=이기갑(2003: 597)]

더구나 화시 표현이 인용 표지(혹은 인용 동사)로 발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고려하면, 인용 동사와 지시 용언으로 모두 쓰이는 ‘카다’는 정인호(2019)의 추론대로 ‘그’를 포함한 구성로부터 발달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동남 방언의 ‘카다’가 화시 표현을 포함한 구성에서 발달한 것으로 본다면, (20ㄴ)과 같은 지시 용언 ‘이카다, 저카다’도 ‘그카다’와 같은 발달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카다, 이카다, 저카다’는 ‘그럭ㅎ다, 이럭ㅎ다, 저럭ㅎ다’에서 변화하여 정인호의 4번째 발달 단계 형태인 ‘그카다, 이카다, 저카다’로 쓰이고, 인용 동사 ‘카다’는 마지막 단계까지 완료된 형태로 쓰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0) ㄱ. 니가 안 카고 누가 캬노? - 그가 캬다. [=김영태(1989: 3)의 (2ㄱ), 정인호(2019: 163)의 (7ㄱ)]

ㄴ. 또 {이, 그, 저} 칼래? - 다시는 안 {이, 그, 저} 카께. [=김영태(1989: 3)의 (2ㄴ), 정인호(2019: 163)의 (7ㄴ)]

#### 4. 인용 표지의 문제

현대국어의 인용 표지 ‘하고’, ‘고’, ‘(이)라고’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이러한 인용 표지가 언제 처음 출현하는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송재목(2018)은 안주호(1991), 권재일(1998), 이금희(2006) 등에 제시된 사례들을 재검토하면서 《개수첩해신어》(1748), 《종덕신편언해》(1758), 《일동장유가》(1763) 등의 18세기 중반 문헌에서부터 인용 표지 ‘ㅎ고’와 ‘고’가 쓰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료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인용 동사가 확인되는 맥락에 쓰인 인용 표지 ‘ㅎ고’와 ‘고’의 예를 찾아보면, ‘ㅎ고’는 좀 더 이른 시기인 17세기 전반부터 확인된다.

(21) ㄱ. 다몬 도느르 아즈바님 유무예 [저의를 박히 디접ㅎ다] ㅎ고 놈이 니르다 홀시 느미 마를 슬허ㅎ더니 <곽씨-26 (17세기 전기)>

ㄴ. 이 흥년의 츄슈나 그리 거드라 ㅎ니 [이만 정 디니디 아니코셔는 놀고 먹을 때로 말라] ㅎ고 닐넛건마논 어이ㅎ논디 몰나 ㅎ노라 <선세연독-20 (1668~1736)>

ㄷ. 득길이드려 [저를 맞지니 아니 ㅎ여시면 일 나리 ㅎ다] ㅎ고 니르쇼셔 <이동표가-24 (1676)>

ㄹ. [디애 모씩도 아히들ㅎ고 하 불상이 잇더라] ㅎ고 니 셔방집이 니르거늘 <선찰-9-089 (1699)>

(22) ㄱ. 네 가당이 임종 시 정녕히 뉴언이 범연치 아니ㅎ거늘 네 쏘 [그리ㅎ려노라]고 ㅎ여시니 엇지 그리 후일을 아니 싱각ㅎ논다 <김성일가-066 (1765)>

ㄴ. 네가 ㅎ기를 [여긔셔 적비단 둘 사셔 신 짓는 것 보니 곱더라]고 ㅎ니 <추사가-13 (1793)>

ㄷ. [무던이 혼인을 등디ㅎ면 우리는 무간니 기드릴 슈 업스니 우리는 다른 디 지낼 밧 업다 ㅎ더라]고 용담집드려 전ㅎ라 ㅎ엇더니 <김성일가-043 (1848)>

인용 표지 ‘(이)라고’의 예는 안주호(2003: 158), 이규호(2006: 160)에서 (23)과 같은 예들이 제시되었다.<sup>30)</sup> (24)도 이와 비슷한 시기의 예들이지만, 실제 발화를 인용하거나 종결어미로 끝나는 문장을 인용했을 때 결합한 ‘(이)라고’라는 점에서 직접 인용 표지로서의 ‘(이)라고’의 특징을 좀 더 잘 보여 주는 예들이다.

- (23) ㄱ. 칩영으로 내신 경무관 벼슬 일흠을 곳쳐서 [경찰관]이라고 썼스니 <독립 잡보 (1896. 6. 25.)>  
 ㄴ. 정임은 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니더니 그 뒤쪽에 [경성 중부 교동 三三九]라고 써서 영창이를 주며 <추월색 (1912)>  
 ㄷ. [또 부어 또 부어]라고 웬척다 <운수 좋은 날 (1924)>
- (24) ㄱ. [號外 號外 號外 號外]라고 소리를 지르며 大坂市 큰 길로 다름박질하야 도라든이는 사람들이 돌식 셋식 지느가니 <혈의루\_연재본 (1906)>  
 ㄴ. 그러나 삼시로 혜경 씨의 심각이 근절하야 … 혜경 씨의 형용이 눈에 암암하옵는이다 [디장부의 슈작이 안야]라고 웃지나 말으시오 <두견성 (1912)>  
 ㄷ. 모다 히를 향하고 서々 증절々々 기도를 하나니 그 뜻은 [오날 주신 붉은 빛은 감샤々々 하니 명일도 밝은빛을 주십소스]라고 흡이요 <비행선 (1912)>  
 ㄹ. 「先生님- 또 왔습니다.」라고 人事를 하얏다. <표본실의 청개구리 (1921)>  
 ㅁ. 【여사】 副 「좀」의 사투리 (좀 좋으나 할 것을 [여사 좋으나]라고 하는 따위) <조선어사전\_문세영 편>

그런데 실제 자료에서 인용 표지 ‘하고, 고, (이)라고’의 예들을 판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들 인용 표지가 인용 구문에서 문법화된 것이라고, 다시 말해 ‘[V/A-다]<sub>s</sub> 하고 > [V/A-다]<sub>s</sub>고’ 혹은 ‘[NP-(이)라]<sub>s</sub> 하고 > [NP-(이)라]<sub>s</sub>고’의 과정을 통해 문법화된 것이라고 볼 때, 현대국어와 같은 언어적 직관을 적용하기 쉽지 않은 자료에서 특정 예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점이 고민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송재목(2018: 14-16)은 (25ㄱ)의 ‘모디다고’와 (25ㄴ)의 ‘홀어미라고’에 있는 ‘고’를 인용 표지로 보지 않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들 예문에 ‘-다고, -라고’와 관련되는 인용 동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이 예들의 ‘-다고, -라고’는 소위 환원형 어미처럼 인용 동사 ‘ㅎ-’가 복원될 수 있는 예로 파악되었고 ‘-고’는 까닭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 어미로 이해되었다.

- (25) ㄱ. 아바니문 주식 두고 오니 날 모디다고 보라 가시느니라 <순천김씨묘-150>  
 ㄴ. 실로 하면 타자기나 공이나 녀느 주시근 일 샴도 못 먹거든 홀어미라고 좋□ 발와드마게 거시 모도와 이시면 사라 가나 흥정을 하나 아니라마는 <순천김씨묘-164>

이러한 판단 기준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앞에서 인용 표지의 예로 판단되는 (21), (22)과 같은 시기에 보이는 (26), (27)과 같은 예들도 같은 기준에서 인용 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용 동사 ‘ㅎ-’의 복원 가능성과 인용 표지일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을 때 어느 지점에서 전자의 해석을 멈추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30) (23ㄱ)은 이규호(2006: 160)의 (23ㄱ)의 예이다. (23ㄴ)과 (23ㄷ)은 안주호(2003: 158)에 제시된 것인데, 여기에는 (23ㄴ)의 출전이 《자유종》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있는 것이다. 더구나 아래의 예 중에는 단순한 인용 구문의 맥락을 넘어서는 부정적 함축을 가진 예도 있어 이러한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sup>31)</sup>

- (26) ㄱ. 음식 가지수를 손고바 헤며 내라 호고 보챤다 <숙명-38 (1658~1674)>  
 ㄴ. 편지 너허 온 당츨을 진동한동 푸러 보고 아무것도 아니 왔다고 성내여 하아부지 편지나 날나고 우니 모다 흔 초레 우섯다 <선세언적-14 (1762~1767)>  
 ㄷ. 이봉의 죄상은 괘심 허나 도시 미련 허여 냥반이 무엇 듯다고 도히 녀여 그리 허여시니 <선세언적-16 (1784~1790)>
- (27) ㄱ. 가지가지 고로운 일이 만하 허니 실로 절박 허기 7이업고 집이라 호고 오니 손은 무수 호고 하 괴로와 허다가 나다흘 무거가나 <선찰-9-108 (1699)>  
 ㄴ. 張□ 鴨綠江 히 진 날에 에엇썬 우리 님이 燕雲萬里를 어디라고 가시논고 <악학 34a>  
 ㄷ. 잇는 병이야 저년도 견디여서니 올허라고 별양 더 못 견딜 것 무엇 이실고 하 녀며 마소 <송준길가-037 (1727~1736)>  
 ㄹ. 고기 손 쯤희는 초들의 글시옵 그걸 편지라고 보내라 호옵 <김성일가-008 (1833)>

## 5. 남은 과제

지금까지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인용 구문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연구가 좀 더 진행되었으면 하는 문제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우선 인용이라는 개념과 관련한 문제이다. 현대국어 논의에서도 인용의 개념이나 인용 구문의 범위 설정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최근에는 실제 발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상당히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역사적 연구의 관점에서 이러한 인용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발화가 아니기 때문에 인용 구문에서 배제되는 예들, 예를 들면 명명 구문이나 이필영(1993)에서 무주어문이라고 했던 ‘NP(이)라고’ 구성은 형태적으로는 ‘-라 호고’에서 발달한 것이 분명하지만 최근의 현대국어 연구들에서는 이런 구성이 인용 구문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적 관점의 연구에서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NP(이)라고’ 형식으로 나타나는 예들을 인용 구문에서 배제하여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 이들이 동일한 형식으로 나타난다면 어느 시기에선가 분화, 발달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전제해야 하지만 그 구체적인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인용 구문의 ‘호-’와 관련된 문제도 논의할 지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예를 들어 현대국어의 인용 구문에 쓰이는 ‘하-’는 연구자의 관점 혹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인용 동사, 포괄 동사, 대행 용언, 대동사, 자리채우미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된다. 그런데 ‘하-’를 인용 동사라거나 포괄동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런 견해에 대해 언제나 지적되곤 하는 것은 그 실질적 의미의 실체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었다. 발화 인용, 사유 인용, 해독 인용 등으로 의미에 따라 인용 구문의 유형을 나눈다고 할 때, 이런 구문에 나타나는 ‘하-’는 결국 각 구문의 의미에 따라 해석될 수 밖에 없어서 이

31) 이규호(2006)는 자료에 나타난 ‘-이라고’ 관련 예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구분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조사 ‘-이라고’를 명명 구문, 글 인용, 직접인용, 보조사의 용법으로 구분하고, 각 용법에 따라 형성된 시기가 다른 것으로 보았다.



것이 ‘하-’의 실질적 의미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소에 의해 해석되는 결과론적인 의미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인용 구문의 ‘하-’가 실질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도 역시 문제는 있다. 대행 용언이라는 개념은 ‘하-’와 공기하는 어떤 요소가 화용론적으로 굳어진 모종의 관용적 용법 혹은 해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어떤 면에서 이 개념은 ‘하-’를 자리채우미로 보는 입장과 유사한 점이 있다. 다만 후자의 개념은 구문이라는 고정된 틀 안에 비어 있는 서술어 자리를 뒀으로써 ‘하-’ 자체보다는 ‘하-’와 공기하는 형식 연쇄에 좀 더 집중한다. 그런데 인용 구문의 ‘하-’를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요소로 규정하게 되면, 그 용어를 무엇이라고 하든 소위 ‘X+하다’ 구성의 ‘하다’ 문제와 연계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대행 용언이나 자리채우미로서의 ‘하-’가 중동사·경동사·허사(박소영 2011), 지지동사(이정훈 2013, 2016) 혹은 형식동사 등과 같이 통사 구조의 관점에서 규정된 개념들과 어떻게 대응되는지 혹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가 설명되어야 한다.

‘ㅎ-’의 통사적 성격에 대한 이 같은 문제는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의 VS형 인용 구문인 [V-오디 S (ㅎ-)] 유형에서 ‘ㅎ-’가 V의 위치에 쓰이는 예들(정희창 2002, 안주호 2006)이나 이기갑(2004)에서 접속의 대용이라고 한 ‘하나, 하지만’ 등과 같은 접속 부사어들의 발달 과정을 고려할 때,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의 인용 구문에 보이는 ‘ㅎ-’는 현대 국어의 경우보다 더 많은 고민의 지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인용 구문과 관련하여 앞으로 더 살펴야 할 과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나, 여기서는 두 가지 문제를 더 언급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현대국어 논의에서도 다른 주제보다는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는 듯하다. 중세국어의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문제를 자세하게 살핀 논의로는 이현희(1986b)가 있지만 이후 활발한 논의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는 소위 융합형 어미와 관련된 문제이다. 융합형 어미는 인용 구문과 관련하여 발달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필영(1993), 이지양(1998) 이후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면서 어미의 형성 과정에 주로 초점을 두던 것에서 어미의 의미·기능 분화 양상을 논의하는 데까지 확대되었다. 이로써 융합형 어미에 대한 사실들이 많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되었으면 하는 몇 가지 문제들도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융합형 어미들 중에는 ‘-단다 ~ -댄다’류처럼 ‘애’형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다고 ~ \*-대고’류처럼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들 어미의 발달 과정은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데,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되고 있지 않은 듯하다. 이들 어미의 형성 과정에는 ‘ㅎ-’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이나 ‘ㅎ-’가 ‘히’ 혹은 ‘해’와 같은 형태음소 교체를 보이는 시기가 19세기 후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애’형이 가능한 어미들은 그렇지 않은 어미들보다 후대에 발달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 현상이 자료에 근거하여 확인된 적은 없는 듯하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융합형 어미들이 기원적으로 ‘ㅎ-’와 관련 있기 때문에 ‘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일부 어미에서 이런 형태가 먼저 나타났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역시 형태적인 문제인데, 기사문과 관련된 융합형 어미에서 보이는 특이한 형태음소 교체 양상도 있다. 이필영(1993: 158-159)은 인용절과 융합형 어미에서 선어말어미 ‘-시-’와 관련된 특이한 형태음소 교체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기사의 종결형은 19세기 이후 ‘-이라’에서 ‘-이다’형으로 달라지는데 간접인용절과 융합형 어미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선어말어미 ‘-시-’와 결합할 때이다. 중세국어에서부터 기사가

‘-시-’와 결합했을 때의 종결형은 ‘-이시다’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되는 간접 인용절과 융합형 어미는 ‘NP-이시다고’ 혹은 ‘NP-이시다니’ 등으로 나타날 것이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NP-이시라고’ 혹은 ‘NP-이시라니’ 등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 아직 밝혀진 바는 없지만 18세기 후반 이후 계사가 ‘-시-’와 결합했을 때의 종결형이 ‘-이시라’로 나타나는 예들과 관련하여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sup>32)</sup>

## 6. 결론

본고는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인용 구문과 관련된 주요 쟁점 그리고 앞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인용 구문에 대한 연구는 여러 쟁점이 있지만 본고는 인용 구문의 유형과 변화 양상, 인용 동사의 문제, 인용 표지의 문제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먼저 2장에서는 인용 구문의 유형을 인용 동사가 인용절에 선행하는 VS형과 인용 동사가 인용절에 후행하는 SV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두 유형에 대해서 한국어의 무표적인 어순에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일반적이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고는 이런 시각에 더하여 이들 유형을 의사소통의 관점 혹은 언어 사용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3장에서는 인용 동사의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인용 구문에 나타나는 ‘ㅎ-’의 통사·의미적 성격, ‘이러-, 그러-’와 같은 인용 동사가 화시적 관점에서 보이는 특이성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인용 표지의 예들을 살펴보고, 실제 자료에서 인용 표지의 발달 과정을 확인할 때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5장에서는 본고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거나 앞으로 연구가 좀 더 진행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열거하였다.

한국어의 모든 언어 현상에 대한 논의가 그러하겠지만, 구문 관련 연구는 특히나 연속성과 특수성이 정밀하게 어우러질 필요가 있는 듯하다. 어떤 현상은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다시 말해 연속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떤 현상은 유사해 보이지만 각 시기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특수성이 어떠한 변화를 겪어서 현재에 이르렀는가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구문에 관한 역사적 연구는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는 역사적 연구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모든 연구를 다 아우르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양해를 구하면서 동시에 연속성과 특수성을 모두 고려한 연구들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인선(1977), 「15세기 국어의 인용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재필(2015), 「대용언 ‘그러(하)-’의 역행 대용 연구」, 『관악어문연구』 40, 서울대학교 국어국

32) 몇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ㄱ)과 (ㄴ)은 인용절이 아닌 경우이고, (ㄷ)과 (ㄹ)은 인용절의 예이다.

(ㄱ) ㅎ나흔 주던 언괴오시라(一則慈殿諺教也) <천의\_필 1상:3b>  
 (ㄴ) 추나라 성인【밧즈시라】이 어려운 일노 님금씩 칙망ㅎ오실 제(鄒聖之責難於君) <유제도도신운음 3b>  
 (ㄷ) 디져 이 일이 영묘를 원망ㅎ며 경모궁 병환이 아니시라 ㅎ셔 신하를 죄잇다 ㅎ야셔는 <한중록 92>  
 (ㄹ) 또 날으디 성모는 … 텃신의 즐김이시오 마귀의 놀남이시라 ㅎ니 <주년 2:29b>

- 문학과, 225-249.
- 권재일(1998), 『한국어 문법사』, 박이정.
- 김수태(1993), 「인용월의 변천에 대하여: 15, 16, 17세기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30,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31-352.
- 김수태(1994), 「우리말 인용 표지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31,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39-271.
- 김영태(1989), 「경북 방언 ‘카다’ 용언에 대하여」, 『우리말글』 7, 우리말글학회, 1-16.
- 김영희(1984), 「‘하다’: 그 대동사설의 허실」, 『배달말』 9-1, 배달말학회, 31-63. [김영희(1988: 361-389)에 재록]
- 김영희(1988), 『한국어 통사론의 모색』, 답출판사.
- 김일근(1986), 『증정 인간의 연구』, 건국대학교 출판부.
- 김한별(2019), 「경남 방언의 ‘X고 하다’ 구문의 모문 동사 ‘쿠다’의 형성 동기와 과정」, 『방언학』 30, 한국방언학회, 231-271.
- 남풍현(1996a),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ㄹ/ㄴ’에 대한 고찰」, 『구결연구』 1, 구결학회, 11-44.
- 남풍현(1996b),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동명사어미 ‘-ㄴ/ㄴ’에 대한 고찰」, 『국어학』 28, 국어학회, 1-48.
- 박근배(2014), 「경남방언 ‘카다’의 실현 양상에 대하여」, 『방언학』 20, 한국방언학회, 267-286.
- 박만규(1992), 「지칭구문과 발화행위동사 및 인식동사 구문의 재구조화에 대하여 -보문자 ‘-고’를 가지는 동사에 대한 하나의 분석-」, 『관대논문집』 20-1, 관동대학교, 329-355.
- 박소영(2011), 「한국어 장형 부정문의 격 교체와 ‘하다’의 유형론」, 『한국어학』 52, 한국어학회, 83-119.
- 서정수(1975), 『동사 ‘하-’의 문법』, 형설출판사.
- 서정수(1996), 『수정증보판 국어문법』, 한양대학교출판부.
- 松原孝俊·岸田文隆 編著(2018), 『朝鮮通信使易地聘禮交渉の舞台裏: 対馬宗家文庫ハングル書簡から読み解く』, 九州大学出版会.
- 송재목(2018), 「‘-단다’형 어미의 형성 -인용표지 ‘-고’의 생성과 관련하여-」, 『국어학』 87, 국어학회, 3-38.
- 신지연(1998), 『국어 지시용언 연구』, 태학사.
- 안병희(1973), 「중세국어 연구 자료의 성격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9-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75-86. [안병희(1992: 11-27)에 재록]
- 안병희(1992), 『국어사 자료 연구』, 문학과지성사.
- 안주호(1991), 「후기 근대국어의 인용문 연구」, 『자하어문논집』 8, 상명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357-408.
- 안주호(2003a), 「인용 동사 ‘니르다’와 ‘글다’의 통사적 특성 연구」, 『어문학』 79, 한국어문학회, 167-192.
- 안주호(2003b), 「인용문과 인용표지의 문법화에 대한 연구」, 『담화와인지』 10-1, 담화·인지언어학회, 145-165.
- 안주호(2006), 「인용 동사의 문법적 고찰: 근대국어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37, 우리말글학

- 회, 143-169.
- 안주호(2007), 「연결어미 {-느라고}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62, 한국언어문학회, 97-121.
- 양명희(1998), 『현대국어 대용어에 대한 연구』, 태학사.
- 유현경(2002), 「어미 ‘-다고’의 의미와 용법」, 『배달말』 31, 배달말학회, 99-122.
- 이규호(2006), 「복합조사 “이라고”의 생성과 분화」, 『국어학』 47, 국어학회, 145-178.
- 이금희(2006), 「인용문 형식의 문법화 -문법화 과정과 문법화 정도에 대하여」, 『국어학』 48, 국어학회, 233-260.
- 이기갑(1994), 「‘그러하-’의 지시와 대응, 그리고 그 역사」, 『언어』 19-2, 한국언어학회, 455-488.
- 이기갑(2003), 『국어 방언 문법』, 태학사.
- 이정훈(2013), 「‘V-기’ 반복 구문의 유형과 그 형성 동기 및 과정」, 『어문학』 122, 한국언어문학회, 155-180.
- 이정훈(2016), 「한국어의 ‘하-’ 지지 규칙」, 『한국어학』 73, 한국어학회, 159-191
- 이지양(1998), 『국어의 융합현상』, 태학사.
- 이지영(2017), 「‘-기를’ 인용 구문의 발달과 인용 구문 유형의 변화에 대한 일고찰」, 『우리말 연구』 50, 우리말학회, 59-83,
- 이지영(2018), 「개화기 교과서 문법의 연구 성과 및 전망 -1894~1910년의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국어사연구』 26, 국어사학회, 89-126.
- 이필영(1993), 『국어의 인용 구문 연구』, 탑출판사.
- 이필영(1995), 「통사적 구성에서의 축약에 대하여 -‘다- ,이라- ,더라- ,려- ,노라-’형을 중심으로-」, 『국어학』 26, 국어학회, 1-32.
- 이혁화(2015), 「경상방언의 조사 ‘카마’에 대하여」, 『어문학』 130, 한국어문학회, 63-84.
- 이현희(1986a), 「중세국어의 용언 어간말 ‘ㅎ-’의 성격에 대하여」, 『국어학 신연구』, 탑출판사, 367-379.
- 이현희(1986b), 「중세국어 내적화법의 성격」, 『한신논문집』 5, 한신대학교, 191-227.
- 이현희(1988), 「소학의 언해에 대한 비교 연구」, 『한신논문집』 5, 한신대학교, 205-248.
- 이현희(1994a), 『중세국어 구문 연구』, 신구문화사.
- 이현희(1994b), 「19세기 국어의 문법사적 고찰」, 『한국문화』 1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57-81.
- 임동훈(2011), 「담화 화시와 사회적 화시」, 『한국어 의미학』 36, 한국어의미학회, 39-63.
- 정연주(2017), 『구문의 자리채우미 ‘하다’ 연구』, 태학사.
- 정인호(2019), 「경상방언의 인용 동사 {카다}의 형성에 대하여」, 『우리말글』 82, 우리말글학회, 149-168.
- 정희창(2002), 「중세국어 인용문에 나타나는 ‘ㅎ야’의 문법 범주」, 『어문연구』 30-3, 한국언어문교육연구회, 57-72.
- 조항범(1998), 『주해 순천김씨묘 출토 간찰』, 태학사.
- 채숙희(2013), 『현대 한국어 인용 구문 연구』, 태학사.
- 최윤지(2016), 「구어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어떤 통사구성에 대하여: 준분열문」, 『국어학』 79, 국어학회, 187-237.
- 최윤지(2017), 「한국어와 영어의 비표준적 준분열문 대조 연구」, 『국어학』 84, 국어학회,

275-318.

한재영(1996), 『16세기 국어 구문의 연구』, 신구문화사.

황문환 외(2013), 『조선 시대 한글 편지 판독자료집』 1~3, 역락.



“중세 · 근대 국어 동사 구문 연구의 쟁점과 과제” 토론문

신서인(한림대)

(별지 참조)





## ‘중세·근대 계사 구문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남길임(경북대학교)

이 연구는 계사와 계사 구문에 대한 성과와 쟁점을 중세·근대에서 현대 국어의 연속선상에서 논의함으로써, ‘이다’에 대한 다양한 쟁점을 한자리에서 재고찰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국어를 위주로 논의되어 계사 유형론과 ‘이다’의 범주적 정체성을 이다의 기원, ‘아니다’와의 관련성 등 국어사적 연구 성과를 광범위하게 제시함으로써 현대 국어 계사의 논의와 연구 방향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어사적 지식이 부족한 토론자의 한계를 가지고, 중세·근대 연구가 현대 국어 ‘이다’ 연구에 주는 함의를 위주로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우선, 계사의 범주에 대해서입니다. ‘이다’의 중세·근대의 통계적 위상은 알 수 없으나, 현대 국어의 경우 ‘이다’는 고빈도 어휘로서의 의미, 통사적 다양성을 고려할 때 하나의 범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고, 서술격조사, ‘이다’ 동사, 형식 용언, 의존형용사 등의 다양한 관점이 존재합니다. 중세·근대 ‘이다’의 범주에 대한 논의는 대략 논리적 술어로 보고 품사를 부여하지 않는 관점(이남순 1999), 서술격 조사(이현희 1994, 한재영 1996), 잡음씨(1975) 등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현대국어에서 ‘이다’ 범주에 대한 풍부한 논의와 달리 품사에 대한 고찰은 충분한 논의가 되지 못한 듯합니다. 국어사적 관점에서 ‘이다’의 범주는 인위적 가공 등 통사·의미론적인 분석보다 기원형에 대한 고찰이나 ‘아니’의 재구조화 논의 등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명사를 술어핵으로 한다는 점, 기원적으로 ‘일-’ 어간의 가능성, 명사나 부사로 기능했던 ‘아니’와의 결합과 재구조화 시기, ‘-라’ 계열의 어미 등을 볼 때, 중세 국어에서 ‘이-’의 범주를 서술격조사로 논의해 온 것은 현대 학교문법의 영향이 아닌지 선생님의 견해를 여쭙습니다. 현대 문법에서 서술격조사는 ‘이다’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문법론 전반의 체계와 정합성의 측면에서 논의되었고, 문장성분과 격조사의 정합성, 용언의 활용의 체계 등에서 절충점을 모색해 온 듯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 학교 문법에서 ‘아니다’와 더불어 ‘이다’의 적절한 범주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계사 구문이 명사를 술어핵으로 하고, 이러한 술어핵에 결합하는 ‘이다’는 기능 범주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인데, 중세 무주어문(제시문)과 함께 의존명사 구문(양상 구문)의 폭넓은 사용은 ‘이다’의 1항 술어로서의 역할이 중세부터 있었고, 오히려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보충어 확장이 매우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국어 ‘이다’ 또는 ‘아니다’ 역시 1항 술어로서 기능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르 뿐만 아니라’나 ‘사람 앞에 두고 그러는 거 아니다/올해 작황이 영 아니다’와 같은 경우도 유사한 경우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전 기술이나 문법 기술에서 이들을 2항 술어 위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은 다소 제한된 기술이 아닌가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사 구문의 유형에 대한 국어사적 접근에 대해 질의 드리하고자 합니다. 중세·근대 계사 구문에 대한 논의는 주로 명사문, 무주어문, 분열문 등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소유구문’과 ‘존재구문’에 대한 논의가 ‘있다’와의 관련성 내에서 논의되어 왔는데, 구문에 대한 유형 분류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현대 국어에 비해 다소 제한된 유형으로 논의

되어 온 중세·근대 계사 구문의 유형이 일부 중세·근대 자료나 통사론적 의 한계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중세·근대 계사 자료 해석에 있어서 계사 유형론에 대한 국어학적 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기존 언어유형론에서 논의된 계사들의 개념 범주를 고려할 때, '있다'와 관련된 존재 구문과 소유 구문을 넘어서 계사유형론에서 논의되는 동일, 부류, 속성, 처소 구문 등의 통시적 확장에 대한 논의가 있는지, 향후 국어사적 관점에서 '있다'의 구문적 확장을 이러한 부분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여쭙니다.

## ‘중세 근대 국어 피동 구문 연구의 쟁점과 과제’에 관한 토론문

백정화(한양대학교)

### 1. 발표 요지

이 발표문은 피동 구문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통시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문에서 거론하고 있는 피동 연구의 쟁점은 1) 후기 중세국어 이전 시기의 피동사 존재 여부, 2)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피동사 발달 배경, 3) 피동 접미사의 이형태 설정 및 분석, 4) 이중 피동 표현의 역사적 존재 양상, 5) 어휘적 피동사의 역사적 사용 양상, 6) 피동과 사동의 상관성 등입니다.

### 2. 질문

질문에 앞서 먼저 토론자가 국어사적 지식이 많이 부족하여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이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주제의 범주가 넓어 모든 쟁점에 대해 자세히 거론하지 못하는 점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토론자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피동사 발달 배경 중 양용동사의 소멸 원인을 ① 피동사의 발달, ② 피동과 무관 (양용동사 자동 구문의 상실), ③ 두 경우 모두 가능으로 나누고, 발표자께서는 자동사 구문의 소멸 시기, 양용동사에서 파생된 피동사의 생성, 양용동사가 자동사로 사용된 출현 빈도를 고려하여 ③을 주장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예를 통해 자세히 설명 듣고 싶습니다. 또한 출현 빈도가 발표자의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피동 접사의 이형태 설정 부분에서 ‘-리-’의 존재 여부 논의 중 미래시제 선어말어미 ‘-리-’와 피동 접사 ‘-리-’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열리다’ 이외에 미래시제가 결합한 어휘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 이중 피동 표현의 역사적 존재 양상 중 중세 국어의 이중 피동 표현은 현대국어와는 다르게 대부분 접사가 중첩되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이 중 토론자는 ‘-이우-’형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우’가 저하된 행동주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는 기재이며, 평등적으로 [+인간성]을 전제로 한다는 임흥빈(1998)의 견해가 설득력이 높다고 하였는데, 이점에 대해 그 이유를 더 설명 듣고 싶습니다. 또한 피동에 쓰인 보조어간 ‘-우-’가 의도법 선어말어미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가 임흥빈 선생님의 말씀대로 인간성을 표시한다면 화자의 의도를 표시하는 ‘-오/우-’와도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짧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4) 현대국어에서 ‘-이우-’는 사동 접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불리우다’와 같이 잘못된 피동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 이와 관련하여 사소한 질문 하나를 더 드리자면 평소에 운동주 시를 읽으면서 들었던 의문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위의 내용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여쭙습니다. 시구 중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에 쓰인 ‘-우-’는 피동이나 사동 접사와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시적 표현의 일부인지 발표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6) 마지막으로 피동과 사동의 상관성 부분에서 차자 표기 자료를 활용하여 피동의 사동 파생을 설명한 권재일(1994)의 연구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고 하였는데, 피동의 사동 파생 주장에 대한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3. 소감

발표자의 글을 읽으면서 그동안 공부를 게을리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현대국어의 피동을 공부하면서 궁금증이 생기면 국어사적 연구를 해 봐야겠다고 생각만 했지, 실제로는 실천을 하지 못하고 다음으로 또 다음으로 넘겼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발표자 선생님의 논문을 보며 부족한 것을 채우곤 했습니다. 이번 발표문 역시 제가 궁금하게 여겼던 쟁점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어, 다시 한 번 저의 부족한 생각을 정리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논의하고자 하는 쟁점들이 한 편의 논문으로 담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제를 나눠서 여러 편의 논문을 만드시면 독자의 입장에서 보기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세.근대국어 인용 구문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채숙희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 발표문에서는 인용 구문의 유형과 변화, 중세.근대국어에서의 인용 동사와 인용 표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인용 구문과 관련된 논의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현대국어 인용 구문에 대한 논의와 비교하여 갖는 한계와 남은 과제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국어와의 상세한 비교를 통해 현대국어 인용 구문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문제들도 함께 다루고 있어, 현대국어 인용 구문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시된 인용 구문의 다양한 유형들은 현대국어 구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바, 해석의 능력과 같이 시대를 관통하는 의사소통적 측면에서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어미 ‘-은’이 인용 동사에 결합된 인용 구문 유형으로 [V-은 S (ㅎ-)] 유형과 [V-은 NP]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인용절이 포함되지 않은 [V-은 NP]을 인용 구문에 포함시키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닐오-’와 같은 인용 동사가 사용된 점을 제외하면 인용 표지도 없기에 현대국어의 소위 지칭문(각주1의 예 ㄴ)과 같이 형식적으로라도 인용 구문과 일치되는 지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이 구문은 (9)에 정리된 인용 구문 유형들 가운데서도 이는 인용절이 쓰이지 않은 유일한 구문으로 가장 이질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인용 구문 유형과 관련하여 (9)의 ㉠ [NP이 S (ㅎ-)] 유형은 동사 ‘ㅎ-’가 인용절에 후행하여 SV 구문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VS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인용 구문에 쓰인 ‘ㅎ-’의 통사적 성격과 관련하여 [NP이 V-오디 S (ㅎ-)]의 ‘ㅎ-’와 [NP이 S ㅎ-]의 ‘ㅎ-’가 통사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로 든 (12)와 (13) 모두 [NP이 V-오디] 다음의 후행절에서 ‘ㅎ-’가 쓰이지 않아도 통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경우여서, [NP이 S ㅎ-]의 ‘ㅎ-’와 이 예들의 ‘ㅎ-’가 어떤 면에서 동일하다는 것인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4. (15)에서는 현대국어 이전의 자료에서 ‘그러ㅎ-, 그리ㅎ-, 그러-’ 등이 인용 동사로 쓰인 예들인데, ‘이리ㅎ-, 이러-’ 등도 인용 동사로 쓰인 예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대국어에서 ‘그러하-’는 지시형용사로 파악되는데, (15ㄴ)의 ‘그러ㅎ-’가 인용 동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후행문의 문두에 접속부사와 같이 쓰인 지시형용사의 부사형일 가능성은 없는지요?



<연구윤리 규정>

## 국어사학회 연구윤리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국어사학회 연구윤리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사학회 회원이 준수하여야 할 연구에 관한 윤리 및 그에 대한 위반 시의 제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논저자의 연구윤리

제3조(표절 금지) 논저자는 논문이나 저술에 사용된 연구 자료, 내용, 방법 등에서 자신이 직접 행하지 않은 것을 자신이 행한 것처럼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연구 자료, 내용, 방법 등을 인용하거나 참조할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 업적의 인정과 기여도 표시)

1. 논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자신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저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순수하게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논저자 중에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제1저자로 하거나, 연구 및 저술에 실질적인 기여가 없음에도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려서는 안 된다.
3. 논저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연구에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 게재 및 이중 출판의 금지) 논저자는 이미 간행되었거나 게재 예정 또는 심사 중인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전재 또는 개정 및 번역하여 출판할 경우에는 이 사실을 편집자나 발행인에게 분명히 밝혀야만 한다.

제6조(인용 및 참고 표시의 의무)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비공개 자료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자료 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 또는 아이디어를 인용 또는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를 달아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 제3장 학회지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 제7조(공정성의 의무) 학회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자의 성별, 연령, 출신 지역 및 학교, 소속과 지위 등과 관련한 선입견이나 친분관계와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 제8조(심사위원 선임 조건) 투고자와 사적인 친분이 많거나 그와 반대로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은 선임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편집위원회 관련당사자의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출판이사, 출판 간사 등 편집위원회 관련당사자가 학회지에 투고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 의뢰 및 게재 여부 등을 의결할 때에는 관련당사자를 꺾지 않는 가운데 행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유지의 의무) 학회지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와 심사위원은 논문 투고자의 인적사항, 투고 내용, 심사 결과 등 심사와 관련된 일체 사항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11조(심사 부적합 통지의 의무) 선임된 심사위원이 자신이 심사자로서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성실 심사의 의무)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논지를 충분히 이해한 후 평가를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의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대상 논문을 저평가하거나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 제13조(평가 근거의 명시 의무) 심사서에는 심사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자신의 판단을 밝히고,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정중한 표현)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인격과 독자성을 존중하여 심사서에 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피하고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제15조(심사 논문 유출 금지) 심사위원은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여서는 안 되며, 심사 논문이 학회지에 수록 출판되기 전까지 논문의 내용을 유출해서는 안 된다.

### 제4장 윤리규정의 시행 및 제재

- 제16조(윤리규정의 준수 의무) 학회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7조(윤리규정 위반 행위의 제보) 학회 회원 또는 학회지 투고자나 심사자가 윤리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 사실을 인정한 제보자는 학회의 사무소 또는 임원



에게 직접 또는 전화나 서면, 전자우편으로 제보할 수 있다. 제보자의 자격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제보할 때에는 구체적인 증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제보의 접수) 학회의 사무소 또는 임원이 윤리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으면 지체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장은 보고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윤리위원회의 소집으로써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윤리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 내용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둔다. 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이 호선한다.

제20조(윤리위원회의 조사) 윤리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윤리위원회가 소집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시 1회에 한하여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사안이 이미 발행한 학회지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 게재와 관련된 경우에는 윤리위원장이 편집위원회에 제보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 논문에 대한 조사 및 사후조치를 위임한다.

제21조(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는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판정 및 통보) 윤리위원회는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윤리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판정한다. 판정이 이루어지면 윤리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때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피조사자에 대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회장은 판정 결과를 보고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판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피조사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회장과 윤리위원은 해당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4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보고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 제5장 학회지 논문의 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심사 및 조치

제25조(투고 논문의 제재)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이 표절 또는 중복 게재로 판단될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제보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때로부터 7일 내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사후심사)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표절 및 중복 게재로 의심되어 윤리위원회에 제보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사후심사를 한다.

제27조(사후심사의 절차) 윤리위원회에서 논문의 사후심사를 의뢰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의뢰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사후심사를 진행한다. 사후심사는 다음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1.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표절 및 중복 게재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토대로 편집위원회에서 예비 결정을 내린다. 예비 결정은 심사를 의뢰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편집위원장은 예비 결정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논문 필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논문 필자는 통보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필자가 기한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예비 결정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편집위원장은 소명서를 제출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표절 및 중복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리고,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장에게 알린다.

제28조(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조치) 편집위원회에서 사후심사한 논문이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최종 판정된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학회 홈페이지 및 차호 학회지에 그 사실 관계 및 조치 사항들을 기록한다.
2. 학회지 전자판 및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3. 해당 논문 필자에 대하여 제명 조치를 하며, 이로 인해 제명된 자는 향후 5년간 학회에 재가입할 수 없고, 학회지에도 투고할 수 없다.

## 부칙

제1호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8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호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8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3호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윤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